

# 第156回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9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91年11月15日(金)

場所 第2會議場

## 議事日程

1. 1992年度豫算案(계속)

## 審査된案件

1. 1992年度豫算案(계속).....1면

(10時8分 開議)

○委員長 金瑛泰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 1. 1992年度豫算案(계속)

○委員長 金瑛泰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政府側에 대한 質疑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民主自由黨所屬 權海玉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權海玉委員 民主自由黨所屬 權海玉委員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연일 수고하시는 副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本委員은 1992年度豫算案을 살펴보고 政策質疑와 더불어 本委員의 평소 소신과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國務總理께 묻겠습니다.

今年 10月末 現在 100億弗을 넘어선 貿易收支赤字와 消費者物價 9% 上昇으로 우리 經濟의 어려운 실정은 한 마디로 悲觀的인 展望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頂上外交를 통한 北方政策의 과감한 추진으로 蘇聯 및 東歐圈과의 國交를 이룩하였고 南·北韓 UN同時加入을 성취한 政府의 노력과 업적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北方政策의 성공을 內治에 연결시켜 國內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여 경제를 성장시킴으로써 이러한 외교적 성취를 뒷받침해야 할 政府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비판논란자들의 주장대로 인용하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구조적인 것으로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던 政府와 關係들은 年末까지는 經常收支 80億弗 赤字 한 자리수 물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현재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來年度에는 輸出이 획기적으로 늘고 과열된 內需景氣는 진정되고 집값과 전세가는 안정될 것이며 奢侈性 輸入은 크게 줄어들어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總理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은 우리 경제가 난국에 봉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財閥企業들의 무차별적인 돈벌이 행위는 국민들의 증오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저축을 용자받아 技術開發投資는 게을리 해가면서 不動產投機와 奢侈性消費財輸入에 앞장서고 脫稅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로자와 농민들의 低賃金 低穀價 政策의 희생위에 국민의 세금과 저축에 힘입어 오늘의 財閥王國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脫稅, 脫法등 變則相續으로 제마음대로 세습하고 있습니다.

政府는 이들 財閥그들들의 株式을 분산시키고 獨立企業體로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所有와 經營을 분리시키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總理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

만 우리 政府가 토지와 주택등 不動産問題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였고 특히 土地問題解決의 관건이 되는 法的 制度的 裝置를 적기에 마련하지 못한데 있다고 봅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投機所得이 정상적인 營業活動이나 金融資産 所得보다 수십배나 높은 현실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66%가 餘裕資金이 있으면 不動産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不動産 保有費用이 시가의 1,000분의 1도 못되는 나라에서 연간 약 50兆원의 토지에서 나오는 不勞所得과 10兆원에 달하는 銀行融資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동원되어 不動産에 몰려 다닌다면 어떠한 經濟政策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政府는 이제라도 토지의 所有權보다 公共福利와 이용에 중점을 둔 土地改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總理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土地實名制와 金融實名制의 빠른 시일 내의 실시와 住宅公概念制度 및 不動産綜合課稅導入 등으로 課標現實化에 의한 土地保有費用을 100배 정도 이상 높임으로써 과도한 不動産所有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만성적인 투기와 인플레이 마인드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總理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政府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마치 우리 경제가 先進國이라도 된 것처럼 환상속에서 과소비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86年, '88年間 3低好況이 우리 실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수십배씩 값이 오른 不動産을 팔아서 낭비하고 근로자와 서민층은 내일에 대한 희망보다 우선 먹고 쓰고 보자는 풍조에 젖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우리 경제는 政府나 기업 근로자와 국민 모두가 競爭國家인 日本, 臺灣, 中國등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비교하면 競爭力과 生産性에 있어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근검절약하는 생활상태는 너무나도 방만합니다.

總理께서는 앞서 말한 과소비에 대한 追放對策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에게 묻겠습니다.

92年度豫算이 膨脹豫算이라든가 來年度 네번

의 선거를 위한 善心用豫算이라는 등의 비판이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各國의 GNP대비 財政規模 統合財政收支 그리고 租稅負擔率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의 財政規模는 작은 수준에 있습니다.

本委員은 豫算增加率만 월가월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 즉 현재 政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후 5年間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道路, 港灣, 電力, 鐵道등 社會間接資本 投資에 39兆원, 科學技術競爭力強化에 4兆원, 農漁村構造調整事業에 15兆원, 教育開革 環境 및 落後部門 15兆원, 合計 73兆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財政需要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副總理께서는 이 엄청난 所要財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은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政府의 人力, 機能, 組織에 대한 監査를 실시하여 地方化時代에 부응하는 地方自治團體에 權限을 대폭 이양하는 조직을 개편하고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하게 된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는 등 行政 財政改革을 통하여 豫算을 절감하고

둘째 不勞所得 및 不動産所得을 철저히 추적해서 과세하며

셋째 租稅負擔率을 현행 19.5%에서 22%이상 높여야 하며

넷째 國公債發行을 확대하여 社會間接資本 所要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日本의 경우에도 社會間接資本 財源은 長期國債를發行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土地補償費는 반드시 國公債로 하도록 관철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防衛費 人件費등 硬性性 經費는 項目別로 검토하여 비밀사항을 제외한 管理部門 豫算은 가급적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副總理!

本委員은 기존의 財政構造를 그대로 두고서

는 부족한 社會間接施設擴充과 農漁村 構造調整 그리고 教育環境 改善등 긴급한 豫算所要를 충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行政 財政改革을 단행하여 豫算을 감축하고 土地實名制 金融實名制를 실시함으로써 資産所得에 엄중 과세하여 公平課稅와 稅收増大를 도모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國債發行比率을 一般會計豫算對比 25% 수준인 8兆5,000億원의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副總理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農水産分野 質疑를 副總理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경제의 급속한 産業化過程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農漁村과 農漁民을 위하여 生産性を 향상시키고 특히 輸入開放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農漁村은 대대적인 農漁村 構造改善事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구에 탁월 UR 타결은 우리의 農業投資에 구체적인 압력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UR협상에서 農業補助金の 현저한 삭감을 주장하는 美國政府는 지난 6月議會로부터 '92年 農業補助金을 무려 526億弗이나 승인 받고 있음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5月 154회 臨時國會에서 改正한 農發法 第54條의 第1項의 규정에 의한 1990年度의 關稅額 附加價値稅額은 각기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고 農水産業構造改善 計定으로 조성토록 된 이 돈을 과연 92年豫算에서 該當豫算에 얼마나 計上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政府가 향후 10年을 農業構造 革新의 年代임을 표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7月9日 발표한 農漁村構造改善對策은 향후 10年間 무려 41兆7,000億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盧泰愚 大統領께서도 지난 8月14日 이를 追認 700萬 農漁民에게 확고히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年間 1兆1,000億원 규모의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를 新設키로한 바 있는데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農水産業에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命題는 이미 국민적 合意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農民을 그렇게 매료하고 있는 향후

10년에 걸쳐 42兆원, 投入計劃이 이번 定期國會에 제출한 豫算案에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큰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來年豫算에는 2兆3,654億원이 計上되어 그 10分之 1에 해당하는 4兆2,000億원에는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 부족한 액수에 대하여 副總理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의 일환으로 耕地整理事業 및 農業用水開發事業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2年度豫算案을 보면 耕地整理事業에 2,190億원, 農業用水開發事業에 749億원으로 事業量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豫算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本 事業을 늦어도 2001년까지 完了하기 위해서는 年間 施行規模를 4萬 내지 5萬 ha 수준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中小規模 農業用水開發事業豫算도 확대편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副總理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政府는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하는 기존의 논 135萬ha 의 70%에 불과한 90餘萬ha 만을 優良農地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非指定地域은 不勞所得을 노리는 투기꾼의 投機場으로 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農業振興地域 지정은 農業을 위한 農業政策인지 아니면 宅地와 敷地를 손쉽게 마련하기 위한 建設 商工行政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農土는 農家 1家口當 186ha 씩이나 되는 美國의 粗放農業을 따라 잡을 수 없다면 우리의 農土를 技術·資本集約的인 시설 濃·高密度 農業이 가능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長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아울러 農業振興地域 지정에 대하여 再考할 용의와 農地賣買를 自律化 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質문제입니다.

지난 7月の 5,000t 쌀을 北送한 이래 당초 약속한 9萬5,000t의 追加 送출을 計의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 바 이에 대한 우리

政府의 기본방침을 밝혀 주시고 쌀 輸出의 확대 방안이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東·西獨이 統一前에 GATT의 承認을 받은 內部去來認定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 아는 바 이를 위한 준비와 전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쌀의 在庫累増과 消費促進에 대하여 今年 10月末 쌀 在庫가 1,450萬石이고 그 중 統一系 쌀이 1,200萬石 전체의 80%입니다. 政府米 在庫保管費는 100萬石 當年間 340億원 1,500萬石 保管費는 5,100億원 이 엄청난 豫算을 감안한다면 쌀소비문제와 在庫整理問題는 政策的으로 一大轉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每年 도입되는 밀 약 230萬t 옥수수 600萬t중 食品工業用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在庫米와 대체할 수 없는지 깊이 연구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고 물론 價格·成分面에서 적당치 않고 政府의 엄청난 손실도 있을 것이나 한때 북은 統一系 쌀 400萬石 사료용까지 논의가 있었던 만큼 長官께서는 쌀 消耗 政策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輸入開放問題입니다.

APEC閣僚會議에 참석차 10日 입국한 칼라 힐스 美國代表가 공항에서부터 韓國의 쌀 市場開放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업포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 쌀은 國民의 기초식량이자 國民의 所得源이요 雇傭의 원천입니다.

쌀은 영원히 開放을 철저히 봉쇄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日本의 경우를 들어 쌀개방 불가 피성을 논의하기도 하지만 日本은 그간 쌀개방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는 쌀이 農民所得의 31%를 차지하지만 日本은 6 내지 7%에 불과 합니다.

副總理와 農林水産部長官, 商工部長官은 자리를 걸고 우리의 쌀시장을 완벽하게 막을 각오가 돼 있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商工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經濟의 牽引車 역할을 해온 輸出이 부진하고 輸入이 상대적으로 급증하여 금년

10月末 현재 通關基準 貿易赤字가 100億弗을 넘어섰습니다.

政府는 수출이 回復勢로 돌아섰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 제품의 輸出競爭力이 향상된 결과인지 輸出單價引上의 결과인지 불분명합니다.

세계적인 競爭力이 있는 대표적인 상품도 개발하지 못하고 單價만 비싼 우리상품의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長官은 어떻게 하면 輸出競爭力을 회복시킬 수 있을는지 具體的인 對策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商工部는 輸出競爭力 약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근로자의 賃金引上과 5.6%에 이르는 輸出品 不良率이 바이어 이탈의 주원인이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電子·機械등 주요 輸出産業의 原單位 計算등 勤勞者 賃金이 평균 얼마나 차지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對策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韓國銀行資料를 보면 10月 들어서 어음 不渡率이 전국적으로 0.7%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釜山地域 中小 新발업체가 도산상태에 있습니다.

商工部 長官은 이들 中小企業體의 業種轉換 등 構造調整 또는 東南亞 移轉 등에 대하여 어떠한 對策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政府는 지난 88年3月부터 地域醫療保險의 財政 50%를 國庫에서 지원토록 약속해 놓고도 실제로는 37% 지원에 그쳤습니다.

91年 2次追更에서도 1,009億원이 補填되었으나 아직도 支援率이 47.3%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적자상태인 農漁村地域醫療保險組合 중 상당수가 保險料를 올려서 올 上半期에만 農漁村地域醫療保險料가 30.4% 인상됨으로써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1人當 연평균 보험료 부담은 지난해의 2萬4,500원에서 3萬2,000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都市와 農村間의 소득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때에 職場醫療保險에 비해 倍나 높은 保險料 부담을 주는 것은

시급히 是正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長官의 對應策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政府는 私立大學의 엄청난 財政難을 완화하기 위하여 國庫補助를 늘리는 대신 寄與入學制 導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本委員도 私立大學의 어려움과 국가 재정 부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教育公債發行 등에 의한 財源調達 方案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寄與入學制를 얘기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寄與入學制가 도입되는 경우 貧富의 상대적 격차가 심해지고 따라서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고 하는 黃金萬能主義가 만연되고 이 나라의 도덕과 양심과 질서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면 무엇으로서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國家百年大計인 教育을 지키겠습니까?

이에 대한 長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政府는 中學校義務教育 실시지역을 島嶼地方에서 92년부터 邑·面 單位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教育部長官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財源調達 方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副總理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國土의 中心軸이며 최단 거리인 浦州에서 大田間 高速道路는 西部 慶南과 湖南 東部 忠淸地域 500萬 國民의 오랜 숙원 사업이며 大統領 公約事業으로서 早期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建設部에서는 92年度 豫算編成時 設計費 30 億원과 着工費 50億원을 요구했으나 經濟企劃院 審議過程에서 着工費 50億원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92年度에는 着工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敬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瑑泰 다음은 民主黨所屬 朴 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 實委員 서울 銅雀區出身 民主黨 朴 實委員입니다.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또 國務委員 또 公務員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政府與黨에서는 黨政協議를 통해가지고 豫算을 審議했기 때문에 內容의으로 많이 論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政府豫算은 本豫算에 比해서 24.2%나 늘어난 規模로 10年만에 가장 높은 增加率입니다. 1人當 稅額은 今年 보다 14% 12萬5,000원이 늘어난 111萬8,000원이나 되어서 사상 처음으로 100萬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이와같은 膨脹豫算은 來年에 실시 될 각종 選舉를 겨냥한 선심적 豫算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 모두가 우리 經濟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經濟危機는 財政 金融膨脹에 의한 內需 過熱에서 비롯된 것이 經濟專門家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政府는 選舉公約事業의 豫算支援을 강화하기 위해서 膨脹豫算을 編成하고 財政膨脹을 지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副總理는 92年度 선심용 膨脹豫算으로 安定基調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府는 民生의 安定 그 자체가 최대의 公約事業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主要 民間經濟研究所들은 來年度 經常收支 赤字規模가 마찬가지로 100億달러에 이르고 物價上昇率은 10% 내외로 高物價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經濟難을 타개하는 길은 우리 國民 또 經濟主體 모두가 근검절약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政府는 政府 스스로 근검절약하지 않으면서 경제위기의 責任을 民間部分에만 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貨金上昇으로 모든 탓을 돌리거나 금년에는 過消費에 그 責任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過消費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면서 각종 行事를 또 과소비로 벌여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責任은 누가 져야 됩니까?

副總理께서는 이런 경제위기가 國民의 과소

비 탓에만 돌릴 수 있느냐 또 貨金上昇에만 돌릴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MF 年例報告書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도한 財政支出이 인플레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副總理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來年度 膨脹豫算은 生産性마저 결여된 善心用選舉豫算이라는 것이 그 構造面에서도 여러 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防衛費, 人件費, 地方交付金등 硬直性經費의 비중이 90年 61.5% 91年 62.4%에서 내년에는 66.7%로 급증한 반면 膨脹豫算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社會間接資本등 公共財 生産을 위한 事業費는 오히려 5.9%나 감소한 구조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膨脹豫算에 따른 國民租稅負擔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來年度 租稅負擔率은 20%수준으로 美國의 20.8% 日本의 22.1%등 선진국과 맞먹는 수준이면서도 국민복지는 뒷전에 밀려난 그런 형편에 있고 政權安採用 一回性善心豫算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金融實名制 포기등으로 地下經濟는 날로 번창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稅源은 개발하지 않고 租稅便宜主義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39%로 늘렸다 이런 것은 앞에 여러 委員들께서도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貨金引上 억제 그래서 勞使安定을 저해하고 物價不安定 이런 악순환을 계속 가속시키고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만 할 것이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年豫算은 5年만에 두 배로 늘어난 超膨脹豫算이며 社會間接資本 施設費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소하고 硬直性經費는 오히려 증가한 기형예산 이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副總理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財政膨脹으로 물가를 폭등시키고 國民負擔을 가중시키는 經濟破壞用豫算으로서 24.2%나 증가한 이 豫算을 GNP 成長率을 기준으로 해서 18.2% 이내로 조정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副總理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2年은 6共政權을 決算하는 해입니다.

6共政府는 88年 出帆이후 5년이 지나는데 모든 費用과 豫算을 두 배이상이나 급증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民生治安 經濟生活 社會福祉 富의 평등과 均衡開發등 모든 분야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이 國民들의 지적입니다. 또 그게 사실 올바른 평가입니다.

來年度 33兆5,050億원의 豫算規模는 6共 出發時인 88年보다도 82.5%나 증가되었습니다. 防衛費 92年豫算은 8兆7,530億원으로 88年보다 52.76% 教育費는 6兆4,330億원으로 88年보다 120.7% 經濟開發은 그만 두고 社會開發은 3兆2,440億원으로 88年보다 120.7%가 증가되었습니다. 地方財政交付金도 3兆8,300億원으로 88年보다도 123%가 증가되었고 一般行政費 등등 해가지고 모두가 急膨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배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면 서도 國民生活는 더욱 어려워진 것이 현실인데 副總理는 6共出帆해인 지난 88年과 비교해서 國民의 生活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民生指標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서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法院 關聯... 法院行政處長에게 묻겠습니다. 어저께 14日 서울高法에서 前職職員이었던 俞成煥씨에 대한 抗告審 宣告公判에서 原審을 파기하고 公訴棄却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근래에 듣기 어려웠던 쾌거였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 솔로몬 裁判이라든지 여러가지 유명한 裁判이 있지만 美國의 유명한 홈스判事에 버금가는 名判決이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法院에는 아직도 日帝式 權威主義가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司法大學院을 갓 졸업한 젊은 判事들이 단독으로 裁判을 審理 進行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英國과 美國式의 陪審員制度를 도입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역시 재판권을

하러면은 哲學과 여러 가지 人生經驗 여러 가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經驗이 미숙한 判事들일 수록 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有罪無罪判決은 선량한 國民에게 맡기고 判事들은 技術的 法適用을 하는 技術者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일부 惡德 辯護士들의 횡포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法院側과 總務處側에 묻는데 司法試驗 合格者들은 지금 300名 수준인데 500名 수준 1,000名 수준으로 나는 높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法律救助를 해야 돼요. 요즘 醫科大學이 많아 가지고 醫師들간에 이런 자학적인 얘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청진기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병 고치시오 병 고치요 하고 길거리에 헤맬 때가 왔다... 나는 辯護士들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辯護士도 一般司法書士처럼 넘쳐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國民이 法律的으로 보조를 받고 있고 악덕... 무리가 없어진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대 우리 司法制度 改編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왔다... 이런 데에 대해서 法院側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또 裁判進行順序와 保釋許可 등에 辯護士 選任與否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訴訟當事者들로부터 비난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辯護士를 선임하는 경우는 우선 해주고 또 보석도 잘 되는데 辯護士를 선임치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실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改善策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國防部나 政府를 대상으로 한 賠償判決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國防部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 기타 사고로 인한 사망 이런 慰籍料 등에 있어서 辯護士를 선임해야 되고 또 선임해 봤자 30%내지 50%는 다 깎이고 그리고 실제 받아야 될 사람한테 억울한 사람한테는 돈이 안가니,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補償申請만 해 주어도 자동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法律的으로 제가

지식이 일천하지마는 저 個人的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安企部인데... 安企部에서 누가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來年度 政府 部處豫算 가운데 國家安全企劃部는 前年對比 105.1%나 급증한 1,988億원을 제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南山廳舍 移轉을 위한 廳舍新築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安企部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이것도 내역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廳舍新築費도 極秘事項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번 決算檢査 때 副總理는 廳舍新築費는 國家機密事項이 아니어서 豫算에 명시되어 있다고 答辯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安企部豫算說明書 보니까 한 구절도 안나와 있어요. 왜 이런지? 또 總務處가 政府廳舍管理特別會計를 신설해 가지고 合理的으로 政府廳舍를 綜合管理하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安企部만 엄청난 돈을 쓰면서 따로 독립해서 어떤 특권 쪽으로 廳舍管理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來年の 많은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豫算措置를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어저께 同僚委員이 質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저께 內務部長官께서 특히 地方自治團體長 選舉는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에 계상을 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豫算編成指針을 내려주었다니까 내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總選費用도 그렇고 다른 비용도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전혀 간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당연히 豫算에 나는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選舉管理委員會에서 豫算을 신청했는데 豫算當局에서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말로 선거를 미루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의에서 이렇게 豫算을 편성했는지 그 여부를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大統領秘書室입니다. 靑瓦臺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盧大統領은 大統領就任 이후에 靑瓦臺機構를

축소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과는 달리 1989年11月23日 職制改正을 통해 오히려 定員을 1級과 3級... 1·2·3級은 50名, 4·5級은 90名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增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職制改正 이후 91年 현재까지도 이렇게 증원은 시켜 놓고 충원하지 않고 쪽 내려 오다가 92年에 갑자기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90年度부터 1 내지 3級 50名, 4 내지 5級 90名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1級 기준으로 業務確定을 추정할 때 現在보다 3분의 1 이상 機能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중대한 事案을 추진하지 않는 한 業務機能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밝힐 수 없는 어떤 業務遂行을 목적으로 來年度에 1級 14名을 일시에 增員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을 豫算에 반영시켜놓았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줘야 될 것입니다.

1級이란 職級은 各 部에 3名 내지 5名 内外임을 감안할 때 1級 14名을 增員시킨 것은 國家的 重大事業을 計劃하지 않는 한 公職體系上 納得할 수 없는 疑問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靑瓦臺는 總選以後 來年總選 以後 內閣制 推進등 이례적인 政界改編과 政治制度 改革을 위해서 1級 14名을 增員 強化시키고 業務를 分擔시키려고 의도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줘야 될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職責手當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固定給與의 성격을 가진 職級情報費와 機關運營辦公費는 計上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알쏭달쏭해 집니다. 靑瓦臺 1級 36名, 4級 81名으로 現員대로 운영하면서 增員된 1級 14名, 4級 9名에 대해서는 職責手當 등은 지급되지 職級情報費와 職級運營辦公費 支給은 豫算에 편성치 않고 있음은 이들에게 靑瓦臺 이외에서 근무토록 하면서 부여된 어떤 특수사항에 대해 業務를 수행토록 하겠다는 뜻인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왜 任期末에 와서 이와 같이 靑瓦臺의 機能과 機構를 대폭 확대 운영하려는지 그 저의를 밝혀 달라 이것입니다.

本委員은 이와같은 機構 機能擴大를 시도하지 말고 기왕 豫算에 관련된 關聯豫算 5億원은 削減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大統領國政運營費 및 秘書室業務推進費 名目으로 大統領의 情報費가 靑瓦臺豫算의 59%인 93億3,700萬원인데 그 策定根據와 基準內譯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大統領警護室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前年度보다 14.6% 增額된 206億3,000萬원의 규모로 編成되어 있는 警護室 豫算도 어떤 변화의 可能性 심상치 않은 변화의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本委員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靑瓦臺 警護室이 갑자기 긴장해서 강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警護室警護員을 91年末에 20名이나 增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警護室警護員의 주임무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大統領警護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숨을 바쳐서 大統領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안데에도... 목숨을 바친다는게 중요합니다. 公採 몇십대 일의 競爭率로 치열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警護室給糧費가 前年度보다 71.2%가 增額되었고 時間外勤務手當 역시 前年보다 70%가 增額되었는가 하면 情報費도 前年度보다도 15.6%가 增額된..... 여하튼 增額되었습니다.

警護室豫算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保護活動情報費 79億원의 內譯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外廓警護를 맡은 101警備團 22特警團의 豫算 역시 增額 編成되어 있는데 갑자기 靑瓦臺內的 警護를 강화하려는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靑瓦臺秘書室의 대폭적인 人員補強 警護室의 内外廓 警護強化 그리고 法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來年度 4大選舉에 대한 選管委關聯 豫算의 미비와 未策定 등으로 미루어 볼 때 政府가 이미 來年度의 4大選舉를 연기 또는 選舉自體를 하지 않으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해 졌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사게 됩니다. 이에 대한 政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監査院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國稅廳은 지난 2月 韓進그룹에 500餘億원의 稅金을 추징하고 現代그룹에는 株式變則贈與 등을 근거로 1,361億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와같은 뒤늦은 稅務査察과 追徵稅 부과에 대한 政治的 의도성은 차치하고서라도 國稅廳이 韓進이나 現代그룹측에 뒤늦게 追徵稅를 물린 것은 그동안 韓進 現代그룹 등의 稅金通脫을 방조했거나 묵인했거나 최소한 稅源追跡을 게을리 했다는 그러한 지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稅金通脫을 事前에 포착하지 못한 職務怠慢 또는 關係 稅務公務員의 관련 有無에 대해서 監査를 실시할 計劃이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 稅金額을 결정한 것이기때문에 앞으로 할 計劃이 있는가 이것만 밝혀주면 됩니다. 監査院에서는 89年12月 26日 第5局 新設以後 90年 1月부터 91年9月 사이에 취약분에 대한 特別監査 14個項을 처리하고 稅務 工事分野등 구조적인 부조리에 대한 機動監査活動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國稅廳등 121個 機關 公職者 294名이 業務와 관련한 金品授受 橫領한 사실을 적발하고 1,860億원을 시정시키는 등 司正活動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5局 돈을 豫備費에서 갖다 쓴 것은 잘못했다고 지난번 決算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성과는 있는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監査院이 확대되고 機動監査專擔部 뺀까지 증설된 것을 계기로 해서 特命司正班이니 司正對策班이니 하는 등의 별도의 政治性 司正機關나 機能을 비롯해서 靑瓦臺 總理室 심지어는 安企部까지 산재되어 있는 政府의 司正機能을 監査院 중심으로 일원 統合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監査院長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內務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內務部 豫算은 選舉를 의식한 善心用 豫算으로 주도면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73년부터 施行되어 選舉철마다 악용되어 오던 우수마을 特別支援事業이 그동안 1,033億원이 支援되어 年平均 5億4,000萬원 정도가 支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91年度부터 급증해가지고 年平均 支援費의 7배에 가까운 34億5,000萬원을 91년에 이어서 92年度에도

支援한 것은 選舉를 의식한 善心用 豫算이다 本委員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89년부터 91년까지 豫算에는 計上하지도 않았다가 92년에 갑자기 23億원을 計上해 놓은 陸地의 小規模 漁港開發事業豫算도 事業의 持續性과 實效性 보다는 選舉를 염두에 둔 對民 善心用 豫算編成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또 民間團體 補助金이 91年 對比 30.6%나 增加하고 특히 社會淨化委員會의 後身으로 代表的 官邊團體이자 與團의 選舉用 外郭組織인 바르게살기運動團體에 대한 支援이 66.7%가 急増한 25億원을 支援하려는 것과 새마을運動中央協議會에 15億원의 豫算을 계속 支援하려는 것도 選舉用 豫算이다 이렇게 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財政投融資特別會計도 善心用으로 변질될 可能性이 높은 都市 低所得住民 住居環境改善事業支援金 前年度 3億원에 對比해서 33.3%나 增加시킨 400億원을 計上시켜 놓은 것도 選舉와 無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長官의 해명을 바랍니다. 警察廳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司法과 警察 歲出豫算은 92年歲出豫算 88年보다도 131%가 增加되었고 前年度 보다도 18.2%가 增額된 2兆4,572億원의 規模로 全體 豫算規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警察人員도 大幅 增加되었고 警察의 裝備現代化를 위한 老朽車輛을 新型으로 교체했고 犯罪申告에 대한 신속한 對應을 위해서 UHF 通信機도 導入했고 등등 해가지고 또 警察官廳도 增設했고 또 警察官 士氣振作을 위해 特別手當을 新設하는 등 여러가지로 警察分野에 대한 國民의 豫算支援은 補強되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6共政府가 들어선 88년부터 현재까지의 強力犯罪는 증가하고 檢率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기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金瑑泰委員長, 洪熙約幹事와 司會交代) 특히 왜냐 하면 신문을 볼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신문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유괴 실종사건의 增加는 우리 社會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戰爭 宣布 10月13日 昨年 해 보았자 별볼일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러느냐 그래서 警察廳이 새로 獨立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警察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본으로 특히 來年選舉에 대비해 가지고 政治的 中立을 견지하면서 民生治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豫算에서 보면 92年警察本部豫算에서 機關運營事業費中 外勤警察管理 內譯을 보면 성격상 地方警察廳에 편성되어 있어야 할 豫算임에도 불구하고 本部豫算에 編成시켜 놓은 것은 왜 그런가 그 내용을 보면 特別防犯手當 695億9,000萬원, 時間外勤務手當 및 夜間勤務手當 630億원, 支派出所長 辦公費 40億5,400萬원 등으로 이루어진 이 豫算의 성격상 이것은 地方警察廳에다가 내려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本部에 두고 사실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本部에서 情報費나 辦公費로 轉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警察廳長의 소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靑瓦臺警護業務와 關連해서 말했지만 서울地方警察廳豫算中 靑瓦臺警護와 關聯 101警備團 22特警團에 대한 豫算이 증가되었는데 정상적인 증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 靑瓦臺警護室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 그 배경과 규모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防衛費 分野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來年度防衛費는 前年對比 12.7%가 늘어난 8兆7,000億원입니다. 美國의 保守主義를 대변해온 브루킹스 研究所도 美國의 國防費를 10年間 50% 줄여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減軍, 減縮무드 속에서 또 이런 國內外 環境變化 속에서 國防部가 가지고 있는 軍備縮小에 대한 基本構想은 무엇인가 또 對策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은 155回 臨時國會에서 本委員도 같은 質問을 했습니다마는 外交와 安保 國政 質疑의 答辯에서 韓半島非核地帶化는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 없는 사항이며 이와관련 東北亞地域 非核地帶化 問題에 대해서는 美國에서 어떠한 제의나 제언도 우리에게 한 바가 없다. 政府도 美國도 “韓半島 非核地帶化 問

題는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答辯했는데 불과 28日만에 우리 大統領은 韓半島 非核地帶化 宣言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韓半島 非核地帶化 宣言과 關連해서 國防部長官이 논의에서 배제되었느냐 참여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런 答辯을 했느냐 또 이처럼 非核地帶化 宣言정도 같으면 대단히 중요한 國家政策인데 이것을 한달내에 며칠동안에 그냥 그렇게 쉽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非核地帶化 宣言하는 것 좋지요. 本委員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政策決定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國防部長官이 國會에서 위증을 했거나 아니면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또 國家의 安保에 관한 중요한 政策決定이 굉장히 졸속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國防部長官이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이와 關連해서 大統領이 宣言한 非核地帶化 宣言과 또 化生放武器 廢棄提案 이런 것에 關連해서 國防部가 과연 對應策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10·13戰爭 宣言과 같이 그냥 宣言만 먼저 해 놓고 뒷북치는 식으로 對策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本委員이 軍事戰略家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걸프戰爭때 패트리엇미사일의 위력을 우리가 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패트리엇미사일은 우리 韓半島에서는 거리가 너무 짧고 땅덩어리가 적어서 스킵드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구입을 포기했는데 요즘 와서 또 이것을 사들이려고 한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렇게 武器體制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미비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非專門家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決定過程의 변화에 대해서 國防部長官이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꾸 재축을 하니... 軍用施設郊外移轉特別會計中 固定資產賣却에 의한 歲入은 대부분 分割收納으로 나타나 있고 賣却金額이 큰 만큼 分割로 收納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봅니다. 向後 發生되는 軍用施設移轉에 따른

固定資産의 賣却도 分割收納 托록 해야 衡平의 原則에도 맞고 合理的이라고 생각되는데 長官의 견해는 어떤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處長官에 대해서도 앞에서 우리 柳 曉相委員이 다 質問을 했어요. 그래서 다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묻겠어요.

國內 基礎科學研究活性化를 위해 科學財團이 조성하고 있는 基礎科學研究基金의 造成目標은 2001년까지 1兆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7년부터 今年度 까지 15年間 造成實績이 果實金을 합쳐서 820億원에 불과합니다.

來年度 投資額은 300億원이므로 93년부터 10年間 8,865億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論理인데 이 基金의 造成目標達成이 가능한 것인지 그 造成對策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辨償金 및 沒收金 違約金을 歲入豫算으로 편성하여 國政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豫算會計法上에 타당치 않을 뿐더러 國家가 國民의 잘못을 빙자하여 재산형을 부과해가지고 그 徵收한 금액으로 國家의 財政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國民이 법망에 걸려들기를 기대하고 豫算을 편성하고 執行機關은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책임량을 다하고 그래서 막 잡아넣고 그런 악순환으로 인해서 國民에게 피해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法務部는 92年歲出豫算 4,651億원의 41%가 넘는 1,932億원을 벌금 및 沒收金으로 세입을 충당하고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豫算이 犯則金으로 충원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本委員은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豫算調達 便宜主義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團束해 가지고 目標를 매우기 위해서 골목골목 숨어가지고 적발하고 過怠料, 罰金 막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國家財政을 이렇게 收入을 잡아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排擊해야 된다... 法務部長官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刑法 第58條2項 “被告事件에 대하여 無罪 또는 免訴의 判決을 宣告할 때에는 判決公示의 趣旨를 宣告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無罪宣告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無罪宣告 되었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그 名譽를 회복시켜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法務部는 이 無罪公示制度 施行을 人權擁護事業 또는 法律救助事業의 일환으로 앞장서서 活性化시키고 또 施行하고 또 國民도 그런 制度가 있다 하는 것을 弘報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法務部側의 의지를 묻습니다.

報勳處 基本年金과 附加年金의 引上率이 物價引上率 8.6%에도 미치지 못하는 4%내지 5%수준에 불과해서 國家 有功者에 대한 예우수준이 후퇴하고 있는데 年金引上率은 최소한 物價上昇率을 감안한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에서는 過消費와 낭비를 일삼으면서도 國家 有功者에게만 이렇게 인색한 이유는 무엇이나?

또 基本年金은 87년이후 92년까지 10.4배나 상승한 반면 附加年金은 같은 기간중 매년 5%밖에 인상되지 않아서 전체 보상금에서 附加年金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져 附加年金 본래의 취지인 國家有功者의 공헌과 희생, 생활능력, 연령에 따른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報勳處長官의 견해와 改善對策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鄭元植 總理 안 나오셨는데 鄭元植 總理가 給食學校를 대폭 늘리겠다고 지난 번에 그렇게 長官 在任時에도 그랬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했는데 쌀消費問題와 관련해서 農林水產部側에서도 이것을 좀 擴大시켜 주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政府가 給食學校를 적어도 來년에는 대폭 확장을 해가지고 쌀 消費도 시키고 또 아이들 건강도 厚生福祉도 고려해 주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특히 점심도시락 싸는 문제는 都市도 그렇고 農村도 그런 것입니다. 특히 저희 地域 같은 데는 달동네가 많고 부부가 전부 파출부 뭐 여러가지 형태로 零細民일 수록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심 배우는 문제가 상당히 主婦들로서는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쌀만으로는 안되고 施設費

은 여러가지 附帶經費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來年度 豫算에서 政府가 積極的인 고려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고 建設部에 마지막으로 한가지입니다. 全北地域의 産業基盤을 구축하고 社會間接資本을 확충하며 觀光資源 開發을 추진하기 위해 全州圈 2段階 事業을 92年度에 310億원을 計上했으나 事業이 계획대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93年度에 1,370億원의 豫算이 投入되어야 되는 등 앞으로 問題點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한 政府의 財源調達方法 投資計劃 밝혀 주기 바랍니다.

長時間 敬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洪熙杓 수고했습니다.

다음 黃哲秀委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哲秀委員 民主自由黨 果川 儀旺 軍浦 始興市 出身 黃哲秀委員입니다.

尊敬하는 金塔泰委員長,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13代 마지막 定期國會인 第156回國會 豫算 決算特別委員會에 參與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國家의 將來와 國民生活와 直結되는 事項에 대해서 質疑하고자 합니다.

國家와 民族의 未來를 創造할 수 있는 教育政策에 있어서 教育의 役割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基本的으로 볼 때 個人의 自我實現을 도와주고 國家 社會에 必要한 人材를 育成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世界속의 韓國으로서 떴 떴이 설 수 있고 특히 이번 UN總會에서 正會員國으로 加入하여 國際舞臺에서 뚜렷한 役割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國力伸張을 뒷받침해 온 우리 教育이 이룩해 놓은 業績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未來를 점칠 수 있는 가장 確實한 尺度는 그 나라의 教育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最近에 와서 世界 여러 나라들이 教育改革에 國家的인 關心을 기울이며 教育에 集中的으로 投資하려는 것도 教育이 國家 社會發展과 未來를 決定하는데 미치는 影響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美國에서도 부시 大統領이 지난 4月18日宇로 學生들의 學業成就度 測定을 위한 全國

學力評價制度를 新設하고 蘇聯政府의 支援으로 새로운 美國學校를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教育改革의 靑寫眞을 發表한 바 있습니다.

美國이 이러한 廣範圍한 教育改革計劃을 發表하게 된 背景도 美國의 國家的 發展과 跳躍의 기틀을 教育問題의 解決에서 찾으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人當 GNP가 1961년의 82弗에서 6,000弗로 30年間에 70倍로 增加해서 世界에서 그 位相이 열 다섯번째 가는 나라로 발돋움했으며 國際交易量이 13位, 自動車 生産은 10位, 製鐵이 8位, 造船業이 3位로서 國家産業이 눈부시게 發展했으며 지난 '88年 當時 世界 120餘個 國家中에서 나라로서는 열여섯번째로 올림픽을 開催하는 나라가 되어 훌륭하고 成功的으로 올림픽을 치러 자랑스런 모습을 世界에 誇示한 바 있습니다.

本委員은 이와 같은 우리 國家의 發展이 國民 모두의 희망어린 努力의 結實이지만 經濟發展과 國家伸張에 必要한 有能한 人力을 育成해 준 教育의 成果라고 斷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果然 오늘의 우리 教育은 어떻습니까?

解放後 우리 教育은 刮目할 만한 成長을 이룩해서 國民 個人의 삶의 質을 向上시키고 國家 社會發展에 크게 寄與해 왔음은 分明하지만 急激한 量的 膨脹과 過熱된 入試爲主의 教育에서 여러가지 問題를 惹起시키고 있음도 또한 事實입니다.

특히 初·中等學校의 教育이 大學入試準備 教育에 置重함으로써 人格完成과 知, 德, 體의 調和로운 人間發達을 圖謀하는 學校教育의 本質的인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學校 教育課程에서도 個人의 適性, 興味, 能力을 考慮한 多様な 教育프로그램이 提示되지 못하고 知識中心의 過重한 學習量으로 學生들에게 負擔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世紀 學校에서 19世紀 教師가 20世紀 學生을 가르친다는 評을 들을 정도로 過大規模 過密學級으로 表現되는 落後된 教育環境은 우리의 學校와 校室이 사오십年前과 다를바 없어 時代發展에 훨씬 뒤떨어져 있는 狀況이며 經濟 社會發展에 따르지 못하는 敎員에 대한 處遇와 未洽한 勤務與件은 相對的

으로 敎員의 士氣를 低下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敎育이 知的인 面을 너무 強調한 나머지 敎育 本然의 役割인 人間답고 道德的인 人間을 길러내는데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問題는 오늘의 우리 社會가 大統領께서 犯罪와의 戰爭을 宣言해야 할 만큼 道德的 危機狀況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과 결코 無關하지 않다고 볼 때 우리는 道德性 回復을 위한 敎育的 努力에도 더 좀 關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敎育界의 重鎮이시며 敎育學者이신 總理께서 國家와 民族의 未來를 決定지을 우리 敎育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에 대하여 보다 깊은 關心을 가지시고 劃期的인 改善方案을 摸索해 주실 것을 期待하면서 當面한 우리의 敎育問題에 대해서 本委員의 所信을 밝히며 政府의 對策을 묻고자 합니다.

義務敎育의 擴充에 대해서 國務總理께 묻겠습니다.

우선 本委員이 強調하고 싶은 것은 中學校 義務敎育의 早期實施와 義務敎育 無償化의 擴充으로 普通敎育의 質을 向上시키는데 보다 큰 努力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義務敎育은 國民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敎育입니다.

어느 나라이건 義務敎育을 통하여 國民의 基本的인 資質을 涵養하고 國民生活에 필요한 基礎的인 普通敎育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基礎的인 普通敎育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敎育의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더욱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國民의 資質은 바로 그 나라의 義務敎育의 質에 따라 左右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義務敎育年限은 9년입니다.

敎育法 第8條에는 모든 國民은 6年の 初等敎育과 3年の 中等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고 明示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年の 義務敎育年限은 先進國에 比하면 아직도 未洽합니다.

現在 主要國家의 義務敎育期間을 보면 프랑스가 10年, 英國은 11年, 獨逸은 12年이며 美國은 州에 따라 差異가 있으나 大部分의 州가 12年으로 되어 있으며 最近의 敎育改革 경향을 보면 日本은 12年, 臺灣이 10年 내

지 12年, 美國은 初級大學까지의 14年으로 各各 義務敎育期間의 延長을 檢討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GNP가 15位의 世界的인 位相을 갖고 있는 國家로서 다른 모든 일에 앞서서 敎育百年之計의 重且大함을 自覺하여 '94년에 가서야 面單位 全地域의 中學校 3學年까지 無償 義務敎育을 實施하려는 計劃을 全國적으로 앞당길 用意는 없는지? 總理께서 그 具體的 方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國民學校 敎科專擔制 實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즈음 論難이 되고 있는 國民學校의 敎科專擔制도 義務敎育의 質向上에 焦點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國民學校는 發達段階로 보아 敎科指導와 함께 生活指導와 人性指導가 強調되는 時機이기 때문에 學級專擔制의 統合的인 指導가 大宗을 이루어 온 것이 事實이며 外國의 경우에도 國民學校水準에서는 敎科專擔制가 實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最近에 와서 國民學校의 敎科專擔制가 특히 國民學校 선생님들의 授業負擔을 줄인다는 側面에서 試圖되고 있으며 敎育部에서도 來年부터 施行할 計劃임을 밝히고 있는데 本委員은 國民學校 敎科專擔制는 敎育 本質에 入脚해서 선생님들의 授業負擔을 줄이는 方案으로서가 아니라 藝·體能敎科나 科學敎科 같은 特定敎科의 授業의 質을 向上시키려는 側面에서 準備되고 檢討하여 그 實行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初等敎員의 경우 週當 平均授業時間이 28.5時間으로 中學校 敎員 19.2時間 高等學校 敎員 17.2時間에 比하여 열時間 정도 더 많은 授業負擔을 안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따라서 특히 4·5·6學年을 擔當한 敎員들의 授業負擔을 줄이면서 4·5·6學年의 藝·體能敎科를 專擔指導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方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問題는 4·5·6學年 藝·體能敎科를 專擔할 敎師에 대한 準備가 없다는 이 制度가 本末이 顛倒되는 拙速策이 되며 또 다른 問題를 惹起할 憂慮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現在 教育部에서 構想하는 것처럼 教育法 施行令 第37條2項에 規定된 增置敎員이나 學級減縮으로 인한 剩餘敎員들을 藝·體能 專擔敎師로 活用한다는 것은 敎員의 藝·體能敎科에 대한 專門性을 考慮하지 않는 措置로 결코 藝·體能敎科의 授業의 質을 向上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全敎組에 同調하는 一部 初等敎員들이 敎科專擔制 實施를 促求하는 署名運動을 展開하는 것도 教育部에서 敎總 등과 政策協議 때 數次에 걸쳐 敎科專擔制 實施問題를 協議하였고 實際로 이미 教育課程 改正試案에서도 敎科專擔制 實施를 反映하고 있으며 또 '92年度 豫算要求에서도 敎科專擔敎師 配置에 따른 人件費 245億을 計上하는 등 準備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效果의으로 弘報하지 못하고 또 豫算마저 削減된데서 基因된 問題라고 볼 때 안타까움을 禁할 수 없습니다.

本委員은 國民學校의 藝·體能 敎科專擔制가 初等敎員의 授業負擔을 줄이고 藝·體能敎科의 授業의 質을 向上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敎員養成과 資格證制度부터 準備를 해서 예컨대 專擔敎師의 資格證 表示科目을 國民學校 體育敎師, 國民學校 音樂敎師, 國民學校 美術敎師 등으로 해서 名實共히 藝·體能 專擔敎師, 役割을 할 수 있는 敎員을 養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問題에 대한 教育部의 構想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優秀敎員 確保와 敎員處遇改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優秀敎員 確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敎員은 教育活動의 핵심이며 敎員의 質은 教育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敎員을 확보하고 그들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教育活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一般產業體에서 社員과 勤勞者에 대한 作業環境과 勤勞條件을 개선하고 社員住宅을 마련하는 등 각종 福祉·厚生制度를 확충하고 있는 것처럼 敎員들에게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勤務負擔을 경감하고 無住宅敎員에 대한 住宅購入을 지원하는 등 福祉厚生對策을 마련해주

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2年度 豫算 編成過程에서 一線敎員의 福祉 厚生과 士氣昂揚을 위해서 教育部에서 要求한 豫算이 모두 削減되었던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將來 希望을 묻는 質疑에서 敎師가 最優先 順位로 꼽히던 시절도 있었습디다만 最近에는 敎壇輕視風潮 때문인지 每年 入試때마다 師範大學의 願書接受 窓口가 날로 閑散해지고 師範大學을 나온 학생들도 敎壇이 아닌 一般企業體로 진출하는 경향이 每年 늘어가는 것은 우리 教育의 將來와 國家의 未來를 생각할 때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統計廳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都市勤勞者 月平均 家口所得이 110萬6,200원이라고 하는데 教育大學 4年制를 졸업한 9號俸 新規 敎員이 賞與金과 各種 手當을 합해서 月平均 47萬9,300원을 받는 현실을 볼 때 우수한 人力이 敎壇을 선택하겠는가를 오히려 反問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敎員地位向上을 위한 特別法 등을 制定해서 敎員에 대하여 優待하여야 한다고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政策에 있어서는 이러한 事項들이 전연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教育體育靑少年委員會에서 議決한 다음 몇가지 事項에 대해서만이라도 政府는 별도의 措置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는 同僚委員들의 質疑가 있었습디다마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質疑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漏落經歷 認定問題입니다

'82年3月4日 行政指針에 의거 教育公務員의 人事記錄上의 漏落經歷은 이를 일체 認定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87年1月1日字 公務員報酬規程 第7條에 의하면 새로운 經歷을 合算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號俸을 再確定한다고 되어 있는 規定에 正面 反하는 조지입니다.

이러한 措置에 의하여 教育公務員의 經歷이 사실대로 인정이 되지 못함으로써 一線教育公務員들은 經歷에 상응한 報酬를 받을 수 없

는 결과가 되어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年度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不合理를 最優先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豫算 62億1,800萬원을 計上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敎職手當加算金 問題입니다.

현재 敎員중 55歲 이상 30年 이상의 敎育 經歷者들에게 月 3萬원의 敎職手當加算金을 支給하고 있는데 이는 長期間 平敎師로서 勤務한 敎師들을 優待한다는 平敎師 優待政策으로써 施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年齡이나 經歷으로 보아 月 3萬원의 手當으로서의 평생을 平敎師로서 敎壇에 奉仕하고 있는 平敎師를 優待한다는 당초의 뜻과 목적을 추구하는데 너무 미약함으로 이를 다소라도 引上하여 증으로써 敎育現場에서 平敎師를 優待하는 風土가 可視的으로 조성되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1,000萬원이 計上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主任敎師手當 問題입니다.

현재 初·中等學校에는 主任敎師들이 있는데 이들이 學校運營의 中核的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과중한 임무만이 賦課되어 있을 뿐 하등 그에 상응한 待遇가 결여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한 사람의 校長이 管掌하고 있는 學校運營面에서의 管轄事項은 너무나 방대하여 校長을 보좌하는 主任敎師들의 역할이 없이는 校長 혼자서는 學校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氣望에 制度的으로 法令에 規定되어 있는 主任敎師들에게 다소라도 主任敎師手當을 支給하여 증으로써 學校運營에 내실을 기하고 學校敎育을 活性化해 가야 할 것이며 月 3萬원의 手當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豫算 1億9,400萬원이 꼭 計上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私立學校敎員退職手當問題입니다.

公務員에게는 '91年10月1日부터 退職時 지급되던 退職手當加算金을 退職手當으로 지급하도록 이미 法令 改正이 되었는데 私立學校敎員들에게도 당연히 公務員과 同一內容 同一水準의 退職金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政府는 이를 위하여 관계 法令의 改正을 推進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

용을 보면 退職手當 支給에 소요되는 豫算은 私學法人이 부담하고 私立學校年金管理公團과 國家에서 그 費用의 一部를 負擔할 수 있도록 하고 '92年度豫算을 보면 全體所要額 168億원중 55分의 20에 해당하는 61億원만이 國庫에서 지원하고 55分의 35인 107億원은 私學法人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私學은 國家가 擔當해야 할 公敎育을 擔當하고 있다는 私學의 公敎育性 私學運營에서의 財政的 어려움 그리고 敎員地位 向上을 위한 特別法에서 公·私立間 區分없이 敎員을 優待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에 필요한 豫算 168億3,600萬원은 당연히 全額을 國庫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75年度 私立學校敎員年金法 施行으로 私立學校別로 支給하던 退職金制를 廢止하여 年金으로 대체하도록 한 바 있어 대부분의 私學에서는 당시 敎職員들에 대하여 退職金을 전부 정리했는데 이제와서 또 私學에 退職手當 支給 費用을 부담하라는 것은 事理에도 맞지 않는 일로서 이러한 점에서도 私立敎員의 退職手當은 당연히 國庫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私立學校 運營에 있어서는 納入金의 限度 學生募集 配定 기타 모든 管理運營에 國家가 統制를 하면서 新規로 발생하는 運營費用을 私學에만 떠넘기면 私學은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입니까?

이와같이 敎員處遇를 개선하기 위해 敎青委가 增額要求한 171億3,600萬원은 최소한의 必要不可缺한 增額 要求로서 政府의 특별한 조치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副總理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平和時에는 모든 힘을 敎育에 치중해야 한다고 力說하면서 한 나라의 未來를 점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尺度는 그 나라의 敎育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認識하고 衆知를 모아서 오늘의 敎育이 안고 있는 문제들 해결하는데 다 함께 힘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國民生活과 직결되는 문제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始興工團 背後都市計劃變更에 대하여 建設部長官에게 몇 가지 물겠습니다.

韓國水資源公社가 京畿道 始興市 正往洞 一圓에 造成중인 始興工業團地는 현재 200餘工場이 建築중에 있고 住居用地內 移住團地에는 住居用 建築物이 속속 建築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工業團地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人口 15萬 내지 20萬이 모여 살 工業團背後 都市機能을 해 줄 住居 및 商業用地가 工業地域의 北西端에 바로 접해 있어서 앞으로 심각한 環境汚染問題가 확실하게 豫見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地域은 西海沿岸에 의해서 불어오는 1年中에 6個月以上 동안 불어오는 南西風이 불어서 南端에 位置한 工業地域으로부터 發生하는 大氣, 惡臭, 公害가 곧 바로 北端에 位置한 住居商業地域으로 날아갈 것이며 너무나도 環境公害가 뻥할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런 公害被害를 막기 위해서 幅을 200m로 하는 施設綠地가 計劃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으로 平均 秒速 20.8m의 海風에 실려 불어닥치는 公害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三尺童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울산의 溫山工業團을 비롯해서 工業團周邊地域의 公害被害事例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러한 前轍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現在의 住居 및 商業地域을 當初計劃 했던대로 準工業地域으로 還元해서 工業團에 部品 등을 供給하는 基地로 活用하고 住居 및 商業地域은 '91年 1月29日 이미 建設部가 埋立豫定地 告示한 始興市 烏耳島地域에 公有水面을 埋立해서 造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長官의 見解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한창 建設施工중인 西海岸高速道路의 始興市 月串洞 區間內的 線型問題와 關聯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인 90年9月 8日字로 建設部가 始興市에 보낸 都市計劃 決定을 위한 意見 照會를 받고 本委員은 住民 意見을 열심히 收斂해서 線型을 적절히 바꾸어 달라고 建設部에 要請을 한바 있고 始興市나 京畿道에서도 여러 차례 建設部와 道路公社를 訪問해서 線型變更를 建議했던 것으로 압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建設部長官께서도 이를

肯定的으로 받아 들여서 住民이 要求하는 線型으로 變更해 주도록 道路公社에도 指示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까닭인지 道路公社側이 이를 默殺함으로써 住民의 決死的 反撥이 지금도 繼續되고 있고 工事妨害 및 工事現場要員들 과의 暴力事件等이 繼續되고 있으니 建設部長官의 決定도 默殺하는 道路公社의 行爲가 容納될 수 있는 것인지 解明해 주시고 早速한 時日內에 設計를 變更해서 國家的인 工事が 遲延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長官의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開發制限區域 속칭 그린벨트에 대해서 建設部長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린벨트는 都市周邊의 環境을 保護하고 都市의 無計劃인 擴散을 막기 위해서 設定된 것이고 그 設定趣旨를 本委員도 충분히 理解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本來의 趣旨와는 다르게 그린벨트 안에 사는 國民과 밖에 사는 國民間에 엄청난 葛藤을 일으키는 要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가 많은 都市는 그 管理問題에 다른 일을 거의 못하고 항상 住民과 不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그린벨트 本來의 趣旨를 毀損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그 管理制度를 과감히 改善해야 한다고 보고 그 첫째로 政府內에 이에 대한 研究 成果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研究팀을 만들어서라도 本格的인 改善作業을 서둘러 주실 것을 要求하는 바입니다.

다만 管理制度를 改善하더라도 그린벨트에 사는 불쌍한 우리 住民들을 위한 方案이 마련되어야지 土地 投機꾼이나 몇몇 大地主가 利益을 보는 方案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管理制度改善에 앞서 一部 不合理한 規程이나 行態들이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住宅許可나 畜舍許可時 마당面積은 建築 바닥面積의 2倍 以內로 制限하고 있는데 추녀 밑 빼고, 워 빼고, 하면 實際로 營農이나 養畜에 必要한 面積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필요한 만큼은 不法形質變更이



될 수 밖에 없고 善良한 農民을 犯法者로 만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都市計画法 施行令 20條에 보면 그린벨트내에서의 建築이나 形質變更에 대한 許可權은 어디까지나 市長 郡守에게 있으며 그리고 許可라는 것은 그 性格上 禁止의 解除이고 羈束行爲인데 建設部指針이 어떻다 建設部指示가 어떻다 하고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長官께서는 直接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둘러보시고 哀歎도 들어보시고 法運營이 잘못되고 있는게 있다면 國民和合次元에서 積極 是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은 그린벨트의 廢止를 主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問題는 그린벨트에 의해 惠澤을 보는 사람들 便에서 보다는 그린벨트에 의해서 相對的 剝奪感을 느끼는 사람들 立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無條件的인 規制가 아니라 그린벨트가 眞情 國民들에게 쾌적한 綠地空間을 提供하고 健全한 休息空間을 提供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發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長官의 所信있는 答辯을 期待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長時間 傾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洪熙杓 수고하셨습니다.

黃哲秀委員님 進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鳳九委員 나오셔서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崔鳳九委員 民主黨所屬 崔鳳九委員입니다.

連日 國會에 나오셔서 質疑에 答해 주시느라고 國務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6共和國 出帆以後 民主化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다양한 國民의 욕구와 목소리를 들었고 또한 集團이나 利己主義의 팽배현상은 우리 社會의 병폐로 나타나서 政府의 政策執行 과정에서 여러곳에서 부딪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本委員이 92年度豫算을 審議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政府內의 各 部處間에도 최소한 豫算問題만은 集團利己主義의 타성에 젖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各 部處의 豫算要求는 國家政策을 종합적으로

로 판단하여서 事業의 우선순위는 國家全體의 最大公約數를 찾아서 選定해야 하고 불요불급한 浪費的 豫算은 과감하게 削減하는 자세가 절실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먼저 92年度 一般會計의 豫算 33兆5,050億원은 前年度 本豫算 26兆9,797億원보다 24.2%가 증대되었고 地方讓與金特別會計로 이관된 酒稅 6,067億원을 포함하면 26.4%가 증가된 史上最大의 超膨脹豫算으로 編成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企業은 인플레이션의 압박 심각한 資金難 또 社會間接資本의 절대적 부족현상 그리고 人力難과 人力需給의 불균형현상 또한 열악한 技術水準 등으로 國際競爭力을 상실하여 國際收支赤字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각한 物價上昇과 土地와 資本으로부터 不勞所得을 얻은 부유층의 호화 사치성 過消費風潮가 이 社會에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政府마저도 短期間에 誘示的 效果가 큰 盆唐, 一山 등 新都市建設과 과다한 土木工事を 감행하여 經濟의 均衡的 成長을 왜곡해 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 經濟가 처해 있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6共들어 總供給能力을 초월한 總需要政策 때문이라고 本委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原因은 政府豫算이 계속적으로 適正規模를 벗어난 膨脹을 계속했고 建設, 土木 등에 대한 內需支出이 國內景氣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80年代 5% 以內를 유지하던 消費者物價는 87年以後 급격히 상승하여 90年 9.4%, 91年 9.7%로 두자리 이상의 物價上昇을 豫告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政府發表일 뿐 實質적으로 지난 9月 貯蓄推進中央委員會 調査에 의하면 國民의 體感物價上昇率은 49.9%에 달한다고 報告하고 있습니다.

副總理께 묻겠습니다.

첫째 政府가 發表한 物價上昇率과 國民의 體感物價上昇率과의 乖離는 政府의 物價指數의 產出方式과 品目別 加重值 부과 방식이 國民의 經濟生活과 거리가 먼 자의적 產出方式에 의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政府가 國民의 生活와 직결된 物價마저 現實을 외면한 채 왜

꼭된 統計數值로 한 자리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政府가 國民의 입장에서 政策을 執行하지 않는 명백한 證據가 아닙니까?

두번째 國民部門에 대하여 緊縮을 力說하고 貨金引上은 한자리數 이내로 최대한 억제시키려는 政府가 스스로는 經濟成長率 8%를 무시하고 超膨脹豫算을 編成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또 세번째로 26.4%나 많은 膨창된 財政支出로 物價上昇率 7% 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國民의 88%가 불신하는 政府 物價數值가 어느정도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政府의 發表는 總需要管理를 표방하고 있지만 本委員은 最近의 政府政策을 供給爲主의 經濟로 보는데 이는 英國의 대처 行政府나 美國의 레이건行政府가 실패한 政策이며 최근 200萬戶 住宅建設政策에서도 엄청난 副作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92年豫算을 前年度 水準으로 긴축하고 政府가 申進해서 過消費를 추방하여 經濟의 自生力을 기를 수 있는 政策을 우선 推進하실 用意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實名制問題는 國會가 열릴 때마다 우리 野黨에서는 한번씩 짚고 넘어가는 懸案입니다. 本委員도 90年7月 臨時國會에서 金融實名制 失踪事實에 대해서 財務部長官을 상대로 아주 신랄한 質疑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統計數值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이 政府가 과연 金融實名制를 外面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統計資料한 가지고 質疑하겠습니다.

財務部가 提出한 資料에 의하면 91年6月末 現在 預金口座의 實名과 非實名の 比率은 金額面에서 본다면 實名이 98.8%, 66兆7,889億 원이고 非實名은 1.2%인 9,015億원에 불과합니다. 또 證券口座의 實名比率은 91年10月末 現在 實名口座가 247萬4,000座이고 金額은 25兆8,364億원입니다.

또 非實名은 3萬2,000座에 9,547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證券監督院이 提出한 資料에 의하면 實名比率은 9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統計를 본다면 거의 實名으로 去來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金融現實입니다. 그런데 굳이 實施準備團까지 구성하여

91年1月1日부터 實施하기로 한 金融實名制를 90年3月 李承潤 經濟企劃院長官과 鄭永儀 財務部長官이 就任한 이후에 1個月도 안 돼가지고 國民의 合意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그 實施를 保留하고 말아 버렸는데 이번 現代金融財閥그룹들의 脫稅事件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얼마 안되는 검은 돈을 가진 사람만 보호하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판단인데 實名制實施를 한다는 政府公約 때문에 實施에서 야기 될 逆機能은 다 겪어 놓고 實施를 유보한 政府의 政策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金融實名制를 實施한다고 6共政府에서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그 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말하자면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다 그때마다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金融實名制 實施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逆機能의 현상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것은 전부터 우리 經濟가 안았습니다. 그렇게 안고 난 이후에 死後藥方文으로 이것을 안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經濟原則上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副總理는 金融實名制를 지금이라도 즉각 實施할 容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內務委員會 所屬이 돼서 가급적이면 內務委員會 問題는 거론하지 않고 제가 常任委員會에서 質疑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자리가 자리이니만치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최근의 社會面을 보면 文字 그대로 目不忍見입니다. 잔인한 事件들이 全國 곳곳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으며 이 政府의 統治能力을 심히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社會가 깊이 병들어 있는 證據로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변을 되돌아 보고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政府의 成長優先政策 財閥爲主의 經濟政策 등은 수많은 庶民들의 相對的 剝奪感을 충분히 느끼게 했으며 특히 최근의 天井不知로 뛰어 오른 土地와 住宅價格은 富益富貧益貧 現象을 더욱 심화시켜 놓고야 말았습니다. 희망없는 農村 앞에서 고스란히 당한 勤勞者의 實質所得의 引下등은 이 社會에 불만을 가득 채워 놓는데 충분한 소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勤勞意慾의 저하 사치낭비 풍조의 확산 한탕주의의 만연

犯因性 유흥업소와 靑少年有害業所の 범람은 병든 우리 社會를 단순한 對症療法인 治安警察力만으로는 그 치유에 限界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있습니다.

그 例로서 警察人力增強現況을 보면 87年度에는 正規警察官數字가 6萬5,998名이었습니다. 그러나 6共 들어서 계속 增員 해가지고 91年 11月 현재 警察數字는 8萬2,494名으로 1萬6,496名 즉 約 25%에 해당하는 警察力을 增員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各種 裝備도 많이 구입해가지고 大都市에는 C-3 巡察車 등을 防犯裝備로 各 派出所마다 배치하는 그런 裝備補強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간 강도 인신매매법, 부녀자납치등 흉악범죄는 계속 增加해서 國民이 느끼는 體感治安狀態는 극도로 악화되어 하루를 마음놓고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 이 나라의 治安狀態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동안 우리 警察力이 본연의 任務보다 時局治安에 너무 매달렸던 탓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社會的 病理現象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現 政府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며 그 治療策도 政府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長官은 이에 대한 對策과 所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問題 한 가지 더 質問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豫算을 審議하다 보니까 各部處의 豫算各目 明細書에도 그 內譯이 밝혀지지 않은 情報費는 統一院과 遞信部, 勞動部, 外務部, 法務部, 警察廳, 科學技術處, 文化部, 公報處 등 여러 部處에 計上되어 있으며 決算 때도 副總理는 答辯에서 業務의 性格上 그 內譯을 밝힐 수 없다고 하여서 아무런 法的 根據도 없이 豫算審議權을 侵害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內譯이 밝혀 지지 않은 情報費明細를 보면

첫째 統一院所管에서 南北對話推進活動支援情報費가 7億249萬원 포함해서 總 15億4,050萬원 또 外務部所管 政務活動 特殊活動費를 포함해서 總 154億309萬원 法務部所管이 搜查機能強化情報費 포함해서 總 67億1,319萬원, 科

學技術處所管 海外技術情報活動費 8億802萬원, 遞信部所管 郵政研究活動情報費 7億8,744萬원, 포함해서 總 16億5,374萬원, 勞動部所管 勞政事業推進費 6億3,302萬원, 그 다음 文化部所管 文化政策研究支援費 12億5,715萬원, 포함해서 14億8,291萬원, 또 警察廳所管 情報費 423億원 등을 총 합하면 모두 本委員이 판단하기로는 715億4,781萬원의 규모입니다. 실제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항목은 대부분 情報 및 保安業務 企劃·調整規定 第5條의 安全企劃部長의 調整 對象機關과 業務의 범위에 포함되어서 安企部의 調整·統制를 받는 豫算이라고 보는데 各目明細書에서 內譯조차 밝혀지지 않고 豫算을 計上한 것은 그 용도가 불명확한 豫算이므로 全額 削減處理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副總理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安企部의 調整을 받는 情報費의 경우 各部處에서는 執行時 어떤 節次로 調整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이 문제는 各部處가 많으니까 副總理께서 일괄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新聞 社會面을 상당히 장식하고 있는 現代그룹 脫稅事件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疑問을 質問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經濟의 最大 懸案은 成長爲主 政策의 그늘에서 희생 당해 온 農漁民 勤勞者 등 低所得階層에 대한 均衡있는 分配政策을 어떻게 實施하는가 하는 문제고 또 그 동안 우리나라와 財閥들은 資本形成과 富의 축적 과정에서 政府의 成長爲主政策에 편승하여 政經癒着에 의한 각종 特惠와 國民의 相對的 희생과 脫法的 방법을 토대로 엄청난 富를 축적해 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最近 國民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現代그룹과 鄭周永會長 一家의 脫稅事實은 그 일면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있는 것입니다.

國稅廳은 現代그룹에 대한 稅務調査 結果를 發表했는데 그 結果를 보면 法人稅 脫漏額 631億원, 所得稅 脫漏額 670億원, 그 다음 贈與稅 60億원 등 모두 1,361億원의 稅金을 追徵키로 했다고 發表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1,361億이라는 追徵規模를 놓고 現代그룹 일각에서는 追徵規模가 과하다느니 100億정도 라면 승복하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돌리고있고

또 한편 國民들 間에는 現代그룹의 稅務調査는 政治的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洪熙杓幹事, 金路泰委員長과 司會交代)

마치 市場바닥에서 法 이전에 물건을 흥정하는 듯한 인상을 금치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大財閥들의 不道德한 脫法的인 富의 세습작업과 法律의 不公平한 差等適用을 하는 듯한 政府의 處事는 많은 國民으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묵묵히 生業에 종사하며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는 庶民大衆들에게는 허탈감과 背信感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現代의 脫稅 사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政府와 公營財閥 現代그룹이 正面으로 맞붙어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國稅廳 發足이후 아니 우리 政府樹立 이후 脫稅事件으로는 最大인 1,361億원이라는 엄청난 稅金을 追徵 당한 者가 正當性을 주장하고 政府措置를 무시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이 政府의 權威와 信賴性은 어디로 갔습니까? 또한 脫法的인 富의 세습작업에 대해서 對國民 謝過 한마디 없이 다른 財閥들도 다 그랬는데 자신만 유독 재수없이 당했다는 자세를 보인다면 이들의 道德性 또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財務部長官께 묻겠습니다.

첫째 現代그룹에 대한 稅務調査를 실시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建國한 이래 최대의 脫稅 사실을 적발하여 1,361億원의 稅金을 追徵通告하면서 國民으로부터 갖가지 역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도 租稅犯處罰法으로 國稅廳이 檢察에 告發措置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만약 時間이 없어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할 의사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의 脫稅行爲와 어느 정도의 脫稅額을 檢察에 고발하는지 그 告發基準이 있으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現代그룹과 鄭周永會長 一家에 대한 稅務調査에서 系列社인 現代重工業과 現代綜合製鐵의 不公正 合併部分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서 취한 자본이득도 約 2,000億 이상된다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 現代그룹 이외에 故意的 失權株發生이나 불균등 減資방법 또는 不公正 合併 등으로 변칙 상속한 또 다른 7個 財閥그룹에 대한 稅務調査 與否와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調査過程에서 鄭會長 2世들이 會社資金을 갖다쓰고 假支給金으로 처리한 금액이 2,000億 정도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철저한 與信事後管理 對策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國稅廳 발표 내용을 보면 鄭夢九씨의 경우 所得稅 및 防衛稅 369億원과 贈與稅 및 防衛稅 38億원 都台 407億원을 追徵通告 받았습니다.

또 88年5月 現代建設로부터 現代精工 株式을 43億원에 또 현대강관 株式을 31億원에 또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정공 株式을 45億원에 買入했으며 또 88年6月 자신이 會長으로 있는 現代精工으로부터 현대강관 株式을 38億원에 買入하는 등 총 157億원을 買入하였는바 同 買入資金의 대부분은 먼저 취득하여 몰타기 增資의 공개후에 시세차익이 생긴 공개된 系列社 株式을 처분하여서 마련하였고 부족액은 계열회사로부터 빌려 조달함으로써 자기 資金 한푼 들이지 않고 매입하여서 수백億원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鄭會長의 조카 당시 26歲인데 이 사람은 現代 系列公開 豫定會社 株式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코자 자신이 常務로 있는 現代自動車の 자금 78億원을 銀行에 定期預金 하도록 하고 이를 담보로해서 88年4월부터 88年5月 사이에 個人名義로 70億원을 차입했습니다. 또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現代自動車가 대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系列社 株式 取得資金을 마련하여 거액의 不當利得을 취했다고 하는데 法務部長官께 묻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會社保有株式을 시세의 절반이하 값으로 부당하게 鄭會長 一家에게 양도하여 會社에 거액의 손실을 끼쳐서 株式投資者에게 손실을 입힌 法人 關係者는 당연히 刑法上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 어떤 罪名이 적용되는지 제가 法律常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래도 業務上背任이나 橫領罪가 해당된다면 金額의 크기로 보

아서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잘몰라서 묻습니다. 개인이 70億원을 貸出받고 貸出金 利子까지 회사가 대납했다면 이 또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죄가 된다면 檢察이 수사에 착수 할 것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脫稅 사실에 대하여 國稅廳으로 하여금 告發케해서 檢察이 직접 수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이 사건은 政府의 政治的 보복설도 또한 유쾌하지 못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犯法行爲가 사실이라면 一罰百戒로 다스려서 국민의 의혹을 풀고 國家紀綱을 바로잡아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國家紀綱을 확립할 책임있는 法務部長官의 명쾌한 答辯을 기대합니다.

또 財閥企業의 문어발식 확장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는 뜻에서 한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올해 3,000大企業중 상위 100大 企業이 매출액의 53.2%, 總資產은 57.7%, 당기순이익은 55.3%를 차지해서 극심한 경제적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운영내역에서도 61大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율이 47.1%로 90年 45.4%보다 높아져 소유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87年 公正去來委員會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32個 그룹의 509個 계열기업을 지정한 이후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올해 상반기에는 61個그룹 915個 업체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에 政府 政策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實例로서 지난 6月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주력업체 지정제도를 실시했으나 최초의 뜻과는 다르게 30大그룹 76個 주력기업의 계열사 상호지급보증액이 38兆4,000億에 달하고 있고 여신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금의 유용으로 계열사 부도방지와 계열기업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法務部長官께서는 여신관리제한 철폐의 특혜를 부여한 주력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대책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大 재벌그룹들이 은행에 과점주주로

참여함으로써 전체은행 대출액의 11%인 12兆 1,025億원을 쓰고 있고 제2금융권인 보험사를 계열기업으로 소유하여 대출총액의 40% 1兆 4,000億원이 계열사로 대출되었으며 會社債의 50%를 독식하는 등 금융기관을 私金庫化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政府가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억제하고 業種專門化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한 재벌그룹의 출자한도 초과금액 처분시한이 5個月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61大그룹중 41個그룹이 아직 미처분 상태이며 今年 3月末현재 초과금액 6,667億중 28%인 1,900億원 정도만 해소되어 아직도 미처분금액이 4,800億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政府는 마감시한이 경과한 후에는 公正去來法을 엄격히 적용하여 10% 이내의 과징금 부과와 주식매각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87년부터 시행되어 온 출자한도 초과금액처분이 아직까지 28% 실적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강력히 시행할 政府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法務部長官의 견해를 묻습니다.

政府의 지원과 금융의 각종 특혜를 받아가며 富를 축적한 재벌들이 이제와서 증시상황을 핑계로 연기요청을 하는 등의 작태를 보이는 것은 재벌들의 도덕성이 실종되어 있음을 端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現代나 韓電과 같은 탈법행위가 나타났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副總理께서는 경제력집중과 富의 편재를 근본적으로 척결할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도덕성을 상실한 재벌들이 스스로를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不動產投機에 상당히 열을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망쳤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財閥들이 海岸埋立工事に 투기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政府는 개발 가능한 공유수면은 국토보존개념에서 이를 잘 관리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西·南海岸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연근해 수산 자원의 산란지와 서식지로서 그 가치가 큰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國土擴張政策에 편승한 일부 재벌들의 투기와 國家機關의 무분별한 해안 매립공사는 수려한 자연 파괴는 물론 수산 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산란지와 서식지를 빼앗아 연안 수산자원의 고갈 상태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埋立免許는 큰 利權化하여 國家 소유인 공유수면 관리의 철저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埋立工事を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것은 몇 年 되었습시다라는 東亞建設이 金浦地區에 1,100萬坪을 매립했습니다. 그 중에서 環境處가 쓰레기처리장으로 600萬坪을 買入했고 나머지 510萬坪을 農業用地로 東亞建設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時價로 따지면 工事費는 당시 불과 500餘億원 들었는데 時價로 한 2兆원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 한일개발이 西仁川地區에 보유하고 있는 130餘萬坪, 이것도 지금 時價로 따지면 1兆幾千億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現代그룹이 간척한 瑞山 AB地區 4,700萬坪, 또 韓寶鐵鋼이 唐津郡 松岳面에 매립하고 있는 76萬坪, 韓拏重工業이 全南 靈岩地域에 매립하고 있는 170萬坪, 韓國火藥이 始興 蘇萊에다 매립하고 있는 134萬7,000坪, 三豐建設이 仁川 永宗島에 공사하고 있는 16萬2,000坪, 대선주조가 釜山 多大浦에 매립한 5萬5,000坪, 또 동천건설이 仁川 朱安에 매립한 4萬3,000坪, 現代重工業이 蔚山 尾浦에 매립한 4萬2,000坪, 또 지금 이미 濟州市民의 집단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 塔洞埋立工事 4萬9,900坪, 이것도 坪數는 얼마 안 됩니다. 라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埋立業者가 한 3,000億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濟州市民들과 첨예한 利權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는 개발이익은 최소 數百億에서 최고 數兆에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과정도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公有水面埋立法은 86年8月2日 改正을 입법예고한 뒤 86年12月7日 國會를 통과하여 86年12月31日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法 第14條에는 매립된 토지중 총 사업비

10% 정도의 걱정이윤과 금융비용에 상당하는 토지만을 事業者에게 주고 나머지는 國家가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서가 없던 5共 때의 일이긴 합니다만 입법 예고를 하고 난 이후부터 법 시행일 하루 전인 12月30日까지 불과 4個月半 사이에 모두 13件的 매립면허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法改正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80年代부터 이런 문제가 있기까지 許可件數는 83年 2件, 84年 8件, 85年 1件, 86年 상반기에 3件뿐인데 이렇게 埋立業者 이득을 政府가 환수한다는 立法豫告를 하고 立法措置를 하자 그때 法이 통과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3件을 동시에 政府가 許可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政府가 한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6共이 아니고 5共 때의 일이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잡고 시비할 수도 없습시다라는 이러한 실정에 있으니 公務員들이 國家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國家가 당연히 취해야 할 이득을 個人業者가 갖도록 法施行 이전에 미리 허가 해주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일은 5共 때의 일이니 그렇다치고 현재도 農業振興公社가 지난 10月25日 착공한 總事業費 4,635億원이 소요되는 華甌地區 海岸埋立事業에 대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農業振興公社가 자체 실시한 環境影響評價에서 海岸埋立이 완공될 時 해안선 이동과 인공담수 생성에 따른 氣象變化로 환경오염 自淨能力이 훼손되고 바닷가에 有機物 분해 植物이 사라져서 海水의 自淨能力을 또한 상실한다고 報告하고 있고 環境處도 環境變化에 따른 환경과피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埋立事業을 免許한 이유는 무엇인지 建設部長官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埋立 完工 이후에 발생할 환경과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答辯이 農林水産部하고 겹치면 農林水産部長官께서도 따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埋立事業에 편입되는 토지구모와 총 보상비용 및 보상액 책정을 위한 주민협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어업권 피해보상 현황과 대대로 어민들의 생활수단이 될 水産資源 피해보상 기준과 그 액수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海岸埋立工社로 얻는 투자 이익과 자연 그대로 보존하여 연근해 水産資源의 산란지와 稚魚 서식지로 활용했을 때의 國家經濟의 이익면에서 어느쪽이 經濟性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農林水産部長官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府는 앞으로 2001년까지 總 17兆원의 豫算을 投入해서 干拓地 9億7,000萬坪을 埋立地 3億坪 모두 12億7,000萬坪의 해안 매립 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유수면의 埋立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일단 埋立한 海岸은 영원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埋立許可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졸속 행정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海洋資源을 무차별하게 파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海岸埋立과 관련하여 農林水産部長官에게 人工魚礁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의 어족자원 고갈현상은 해가 갈 수록 그 도가 심해져 漁民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물론 水産技術의 발달로 인해 많이 잡는데 큰 원인이 있지만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南·西海岸에서 조업하는 5,000隻이상으로 추산되는 무허가 소형 저인망 어선의 不法漁撈로 인한 稚魚의 남획과 연안 바다의 오염과 해안매립 생태계파괴에 따른 산란처와 치어서식처 파괴가 큰 원인이라고 本委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水産·動·植物의 산란처와 서식처를 제공할 人工魚礁의 대량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來年度 豫算에 편성된 157億6,800萬원으로는 어느 정도의 면적에 얼마만큼 시설할 수 있는지 農林水産部長官이 答辯해 주시고 人工魚礁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農産物 增産 支援事業 이상으로 水産物 增産을 하기 위해서는 人工魚礁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기가 살 곳이 없고 산란할 곳이 없으면

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이라든지 여러가지 水産·動·植物의 먹이고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갯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갯벌을 물상식하다기 보다는 무지막지한 建設政策이라든가 土地擴大 개념만 생각했지 자연 환경을 보존해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얻는다는 이런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바다를 지금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代案으로 人工魚礁의 建設은 절실하다 그래서 人工魚礁에 대해서 몇가지 質問을 했습니다.

그리고 沿近海 水産業의 發展과 漁民의 所得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人工魚礁의 시설을 많이하고 저인망의 不法漁撈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稚魚를 보호해야 됩니다. 農林水産部長官의 對策을 듣고자 합니다.

本委員은 人口 1,000萬이 넘는 서울市와 같은 이런 大都市에서는 土地政策 더군다나 住宅政策은 제 私見입니다마는 89年度부터 제가 주장해온 일입니다.

都市開發의 개념을 평면확대적 공간개발개념에서 입체적 공간확대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都市를 이렇게 평면으로 자꾸 늘리는 것은 交通 거리를 넓게 하고 都市를 분산시킴으로써 交通人口를 유발시키고 또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都市開發計劃은 立體的 空間擴大概念을 도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建設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統計廳이 昨年에 실시한 人口住宅 總 調査에서 주택 보급율은 73.1%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보급율은 지난 70年 78.2% 75年 74.4% 85年 69.8%로 감소추세를 보여오다 처음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同調査에서 자기집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그러니까 住宅所有率은 85年の 53.4%에 비해 50.6%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政府의 200萬戶 住宅建設政策은 가장 중점 추진되어야 할 주택소유율은 높이지 못하고 투기성 주택가수요와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내용면에서도 85年 주택조사 이후인 86년부터 90년까지 발주된 新築住宅은

206萬채이나 同期間 재건축을 위해 멸실된 주택이 79萬채로 실제 증가율은 127萬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주택 멸실율이 지나치게 높아 자원의 낭비적 요소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建設部の 對策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政策의 최우선과제는 주택공급보다는 無住宅庶民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주거 안정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200萬戶 건설중 永久賃貸住宅은 당초 목표 25萬 家口中 13萬 7,000채가 건설되어 불과 54.6%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政府의 住宅政策이 실수요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政策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來年度 永久賃貸住宅資源豫算을 보면 住宅公社에 2萬世帶가 支援되었고 豫算은 6,747億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年度에는 住宅公社 地方自治團體 포함해서 6萬4世帶를 支援했습니다. 그리고 昨年에는 6萬6,563世帶를 지원했는데 今年度에는 永久賃貸住宅이 그 3分の 1밖에 支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永久賃貸住宅의 확대공급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無住宅庶民의 買入資金이 부족하기 때문에 庶民들의 안정적 주거획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來年度豫算을 3分の 1이하로 축소시킨 이유를 설명하고 永久賃貸住宅 世帶當 支援額數가 어느정도 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間接資本에 대해서 몇가지 質疑하겠습니다.

92年度豫算에서 社會間接資本施設 投資規模는 4兆2,338億원으로 91年 3兆3,525億원보다 19.2%가 증액 評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事業別 투자 배열을 보면 政府가 社會間接資本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수입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企業의 판매 생산이윤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物流는 第3의 이윤 원천이고 物流費用의 축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國家 最優先 政策目標로 삼아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統計에 의하면 물류비용은 90년에 15% 상승하였고 91년에는 30%로 상승하여 제조업

매출액의 10%를 넘는 수준으로 이는 전체 근로자의 총 급여에 상당하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도로의 경우 지난 89年末 현재 국내 도로 總延長이 5萬6,481km로 80년의 4萬6,950km보다 20.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증가는 同期間에 50萬臺에서 260萬臺를 넘어서서 5배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은 道路事情을 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國土開發研究院 보고는 90年 한해 도로 적체로 인해서 국도에서 1兆원, 지방도에서 3,000億, 고속도로에서 2,000億등 모두 1兆5,000億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社會間接資本 투자가 이를 따르지 못해서 발생한 사태에 대한 政府의 대응책은 너무 안일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급하게 확충이 요구되는 부문은 수송능력의 제고에 있습니다.

92年度 道路事業에 투자되는 재원은 국도 확포장에 1兆8,655億원이고 고속도로건설에는 財政投融资特別會計에서 4,500億원과 통행료등 도로공사 자체자금 6,737億원을 합쳐서 1兆 237億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豫算項目을 검토하면 교통량이 포화상태인 수도권외의 교통 소통 대책과 京釜間 축의 불동량 처리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本委員이 지난 154回 臨時國會 對政府質問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의 확장건설보다는 대북처럼 며칠씩 가지 않고 몇시간 거리의 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國道 확장 건설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고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建設部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 4차선 1km 건설비는 120億원인데 국도 4차선 1km 건설비는 25億7,000萬원입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1km 건설하면 국도 5km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포장된 국도 4차선 도로와 고속도로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사정상 별로 시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高速道路에 豫算을 많이 투입하지 말고 高速道路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급한 것이 지금 國道の 擴張하고 新設입니다. 그래서 物動量을 國道로



많이 분산해야 적은 建設費로서 많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經濟企劃院長官께서 또 建設部長官께서 또 다른 國務委員들께서 많은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建設部長官도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水原 1番國道하고 서울 仁川國道와 서울에서 廣州가는 3番國道 또는 서울 安養으로 가는 47番國道 또 城南에서 安養으로 가는 342番 地方道路는 지금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이런 실정은 놓아두고 高速道路 몇 km 건설하는데 몇 千億을 쏟아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어린이 算術입니다. 一國을 經營하는 政府의 태도가 아닙니다. 道路公社豫算 따로 建設部豫算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執行을 하니까 이런 不合理한 豫算執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88道路를 달려보면 웬만하면 차가 없으면 100km 나갑니다. 國道 4車線 포장도로도 역시 100km입니다. 고속도로도 역시 100km입니다.

國道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넓지 않은 나라에서는 굳이 高速道路 건설을 돈 많이 들여가면서 주장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港灣의 滯船 滯貨對策에 대해서 몇가지 質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港灣 하역 능력은 年間 2億2,400萬t으로 올해 예상물동량 3億5,700萬t의 62.7% 밖에 안됩니다.

釜山港과 仁川港의 하역 능력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서 滯船으로 인한 산업계의 경제적 손실은 국제경쟁력 마저도 위협 받을 정도로 제품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釜山港의 경우 91年 총 입항 척수는 1萬339척입니다. 컨테이너가 그중 3,071척인데 체선척수는 1,116척으로 체선시간은 평균 척당 63시간이며 仁川港의 경우 입항 3,008척 체선척수 1,463척 평균 척당 103시간의 체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말하자면 성수기를 감안한다면 밀릴때는 엄청나게 滯船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輸出入 港口의 하역 능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입항 척수를 보면 90年은 仁川港이 3,384척입니다. 그리고 釜山은 12,866척인데

釜山이 벌써 1年 사이에 20%가 入港 隻數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仁川도 역시 10%가 작년에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를 보면 화물선들이 장시간의 체선을 기피해서 이들 두 항구에 입항을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판단되는데 交通部長官께서 이에 대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부 축으로 이용한 물동량의 육로운송 능력도 현 도로의 여건상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92年度 政府豫算編成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本委員의 의견으로는 서해안에 즉 京仁地域과 釜山의 중간지점인 서해안의 무역 항구를 시급히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부축으로 운송되는 물동량을 서해안으로 분산 수용해서 釜山, 仁川, 두 항구의 기능을 분산하고 경부 고속도로상의 물동량의 운송거리를 단축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경부 고속도로 건설과 맞먹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港灣建設은 최소한 4年 내지 5年の 建設期間이 소요되는 바 政府의 신속하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建設部長官이나 經濟企劃院長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점은 交通部長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年6월부터 仁川 바로 건너지역인 中國 연운지역과 네델란드의 노테르담을 연결하는 제2유라시아 橫斷鐵道가 개통되는데 이를 이용한 대 유럽지역에 수출되는 物量은 많이 이 鐵道를 이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政府는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貨物과 제2유라시아 橫斷鐵道를 이용하는 貨物의 운송기간은 절반이고 貨物운임은 약 20%가 적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貨物의 신속한 貨主한테의 도착 그리고 운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第2 유라시아 橫斷鐵道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하고 맞닿는 西海岸地域에는 필연적으로 새 港口를 건설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牙山灣 港灣建設計劃을 제가 봤습니다. 豫算을 보니까 여기는 컨테이너라든가 대형 항구로서 기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豫算이 그렇습니다.

豫算을 보면 牙山港에 總事業費가 1,925億 원인데 이것은 새로운 大型 貿易港口로서의 건설에는 10분의 1도 안되는 豫算입니다. 그렇다면 이 總事業費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주 小型港口 政府에서 말하는 모래운반 부두라든가 기타 잡화물 이런 港灣 부두는 됩니까마는 大型 전테이너貨物이라든가 物動量을 1년에 몇 千萬t씩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하역 항구의 구실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항구는 반드시 西海岸地域에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 그점을 새가 강력히 國務委員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港灣建設豫算을 살펴보면 항만개발 사업비는 3,264億원으로 91年보다 239億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기존항만의 준설, 개수등 예산이며 특히 西海岸 時代에 대비하여 건설 중인 光陽港에는 160億2,800萬원, 牙山港에 267億5,500萬원을 계상하고 있어서 불과 건설비의 몇 %에 불과합니다. 光陽港의 경우 경인지역과의 도로 운송거리를 단축시켜 주지 못해 투자의 효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交通部長官께 묻습니다.

수도권지역의 교통혼잡은 政府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의 실패 무계획적 수도권 신도시 건설행정 등이 초래한 결과인데도 새로운 道路網의 건설을 외면한 채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통행제한 조치로 인한 副作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本委員이 묻고 싶은 것은 경부고속 전철의 비경제성입니다.

총사업비 5兆8,000億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완공시까지 10兆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每年 財政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다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했을 때의 확충 효과는 더욱 크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京釜軸을 중심으로 인구의 67.6% GNP의 73.7%, 제조업체의 83.6%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京釜高速電鐵의 건설은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政府政策과 정반대로 상충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京釜高速電鐵의 건설의 효율성과 經濟

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經濟人聯合會와 商工會議所 또 與圈의 일부에서도 이 계획은 하기는 하되 앞으로 많이 연기해서 다른 급한 사업부터 완공시키고 난 연후에 여유가 있을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이면 비행기 타면 되지요. 비행기 편수를 늘리면 京釜高速道路 建設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高速電鐵보다 빨리 갈수 있습니다. 비행기 몇臺만 사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 運行時間만 단축하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科學技術處長官에게 묻겠습니다.

放射性廢棄物은 原子力發電所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병원 산업체등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처리는 國家의 중요 현안 문제로 등장했으며 90年度에는 忠南 安眠島地域에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발표로 큰 사회문제로 비화된 일도 있습니다.

本委員이 科學技術處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原子力發電所 발생 폐기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年間 約 5,000드럼이 발생되며 91年10月末 현재 200t 기준 3萬3,306드럼이 보관되어 있고 또 사용 후 핵연료는 年間 300t이 발생되며 91年10月 현재 1,539t을 보관하고 있고 또 原電 이외의 방사성폐기물은 병원 등 주로 개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기관에서 발생되는데 年間 발생량은 100t 기준의 834드럼으로 추정되고 91年6월까지 발생기관 보관중인 폐기물은 143個 機關에서 1,033드럼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利用者는 約 700個 機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科學技術處長官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放射性廢棄物 발생량은 얼마이며 또 보관중인 1,033드럼외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관중인 機關은 143個 機關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機關은 700餘個 機關이라고 科學技術處資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放射性廢棄物에 대해서는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새가 지금 이 質疑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주시고 原子力法

第85條2項 同 施行令 234條의15號 의거 사업 시행은 韓國原子力研究所가 맡게 되었는데 보 관되지 않은 많은 방사성 폐기물이 무단 폐 기되었다면 國民保健과 國土環境保全에 있어 적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科學技術處長官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今年度 豫算削減은 어디서 해도 역시 防衛 費豫算에서 밖에 방법이 없다고 제가 생각합 니다.

그래서 防衛費豫算에 대해서 몇가지 質疑하 겠습니다.

92年度 防衛豫算은 8兆5,180億원으로 91年の 7兆5,580億원보다 12.7% 증가 편성되어 있습 니다.

防衛費 增加額 9,860億원은 92年度 一般會 計豫算 總 增加額 2兆1,228億원의 절반에 가 까운 4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經濟가 100億弗이 넘어서는 국제수지 적자 또 두자리 수에 육박하는 물가상승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社會間接施設擴充 또는 社會保障支出 增大 또 계층간 갈등 해 소등 산적해 있는 어려움속에서 防衛費의 팽 창은 그 타당성이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國防費의 지출이 國家安保에 필수적이고 많 을 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출은 經濟運用이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지출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며 직접 國防을 책임지고 있 는 國防部の 입장과 나라 살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豫算을 다루고 국민의 세부담을 걱 정해야 하는 우리 國會議員의 입장은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합 니다.

本委員은 蘇聯의 경제위기 美國의 세계경제 에서의 主導權後退가 과다한 國防費支出과 상 당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최근 美·蘇의 軍 縮이 경제적 측면을 중요시 하려는 이유라는 지적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 니다.

國防部長官께 물읍니다.

첫째 그동안 國防費는 安保에 필수적이라는 상황논리에 늘려가지고 그 지출내역이 聖域視 되어 왔는데 동서냉전의 종식과 南·北韓 유

엔동시가입등 세계질서가 재편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일부분의 國家機密을 제외한 國防費의 내역을 國民앞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防衛費의 낭비성여부 항목간 우선순위 준수여부 產 業發展과 技術開發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점 검을 통해 經濟的 效率性을 높일 수 있도록 國會의 審議를 받아야 옳다고 보는데 長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英國의 戰略問題研究所는 91年和 92年 度 군사력 비교에서 南韓은 무기와 장비가 우수하고 방어적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國 防部の 국방백서도 전쟁수행잠재력 면에서 北 韓보다 우월하다는 비슷한 견해를 발표했습 니다.

또한 美·蘇가 相互 군비축소를 이행하고 있고 安保에 위협적 존재였던 蘇聯이 極東軍 을 감축하고 핵잠수함의 항해범위를 자국인접 해역으로 제한하는 등 국제적 여건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할 때 우리의 國防 力 수준이 현재 진행중인 울곡사업의 사업기 간을 5年정도는 연장시켜서 집행을 해도 되 지 않겠나 또 그런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 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國防部長官 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삭감 가 능한 연간 9,000億원 이상의 豫算은 사회보 장지출과 시급한 社會間接資本擴充財源으로 충 당하여 우선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야 한다고 보는데 國防部長官의 입장이 아니 고 國務委員의 입장에서 國家經濟 전체를 총 관적으로 염려하는 입장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國務總理室傘下의 “安保政策 實務團”에서 마련한 軍縮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또 戰力增強事業중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AH-X 중무장전투헬기 구매사업은 현 재 헬機의 南·北韓 保有量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530臺 北韓 280臺로 숫적으로는 우리 가 상당히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조 종사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戰爭遂行能力은 물론이고 단순 수량비 교에서도 우세한 분야로서 시급한 사업이 아

나라고 판단되는데 全額 削減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年이나 또는 그 이후라도 아까 우리 朴 實委員長께서도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도입계획이 있는지와 또 패트리엇 미사일이 우리의 지리적 여건상 효용성이 있는지도 같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本委員이 하나 느낀 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M-1 A-1 전차라든가 여러가지 우리 현대장비를 代替하는 입장에서 豫算의 여러가지 효율적 운영을 고려에 넣는다면 代替裝備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北韓이 지금 6·25때 쓰던 T-34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우수한 전차도 지금 현재 代替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砲도 代替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戰鬥力增強은 꼭 최신무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수준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니까 代替裝備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豫算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다. 그 점에 대해서 國防部長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本委員이 防衛豫算編成을 경직된 증분주의적 편성으로 판단하는 구체적 실례로 人力運營費가 國防豫算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90年 40.1%, 91年 42.4%, 92年은 44%로 증가시켜서 豫算의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고 91年 下半期에 防衛兵 召集制度가 폐지됨으로써 92年부터 점차적으로 방위병 소집이 축소되는데도 불구하고 91年보다 26億원이 늘어난 693億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長官께서 왜 그랬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戰爭紀念館事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은 기념할 사업이 아니고 치유해야 할 가슴아픈 상처입니다. 國家가 위급할 때 목숨을 바쳐 나라와 민족을 지킨 호국전몰용사의 미망인들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의 송고한 뜻에 어긋나지 않게 굶주려 살면서, 月 3萬원의 부가연금을 政府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國防部가 戰爭紀念事業費 명목으로 91年 335億2,600萬원, 92년에

는 447億7,300萬원의 막대한 豫算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고 國家經濟發展의 투자우선순위에도 어긋나는 浪費의 豫算으로 판단되는데 長官의 答辯을 바랍니다.

전쟁은 기념할 사업이 아픈상처를 치유해야 될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유족의 생계지원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豫算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本委員은 판단합니다. 長官의 答辯을 구합니다.

공공 얼어붙은 겨울보다는 해빙기에 축대는 무너질 위험이 많다는 단순한 사실도 때로는 진리로 통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國防力の 강화는 병력이나 장비의 수적 증가보다는 將兵의 教育訓練과 精神戰力強化가 더욱 중요하다고도 생각됩니다. 정교하고 위력있는 군사장비나 무기도 조작성의 미숙과 해이된 기강으로는 뒷당어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가 월남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美國이 하루에 1億弗 이상의 戰費를 쏟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총만 휴대한 월맹 게릴라들에게 월남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정신전력강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質疑를 드리는 것입니다.

軍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무기 등은 위급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종되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國防部長官은 무기 보유량을 늘리는 전력증강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軍의 精神戰力增強計劃이 있으면 國民앞에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動資部長官께 묻겠습니다.

政府는 公正去來法上的 독과점품목이나 다른 없는 등유와 휘발유가격을 자유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공은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휘발유 11月7일부터 공장출고 가격을 7.1%, 引上率을 발표하고 다른 정유회사도 뒤따라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長官에게 묻습니다.

國家의 戰略物資인 石油類價格을 어떤 이유로 自由化 했는지 밝혀 주시고 이번에 精油社가 揮發油價格을 인상한 原價上昇要因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政府는 중요에너지인 石油類 價格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石油類價格을 안정 시키려고 石油事業基金을 조성·운용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실적을 보면 91年度에는 2,119億원을 조성하여 이 중 보조로 2,312億원 油價緩衝資金으로 880億원을 사용해서 도합 91年末까지 5兆7,666億원을 조성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92年度運用計劃을 보면 基金徵收가 556億입니다.

이것은 石油事業基金은 석유를 싸게 구입했을 때 거기에 石油原油價에 따라서 기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基金徵收가 벌써 來年度豫算에 556億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運用收益이 1,849億, 그래서 來年度歲入이 2,405億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조성하여 보조로 989億원과 油價緩衝資金으로 150億원을 써서計 1,139億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來年度 한 해에만 조성되는 기금이 2,405億원이고 현재 사용한 기금을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금 4兆8,410億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油價를 인상시키는 용의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來年度에도 5兆989億원과 油價緩衝資金으로는 豫算을 불과 150億밖에 사용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政府는 언필칭 기회 있을 때마다 物價抑制策을 발표하고 來年度 物價引上率을 애초에 5%로 했다가 최근 副總理께서 7%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휘발유 값을 自由化시켜 주고 이 장단에 맞춰 값을 인상시키는 처사는 누구를 위한 經濟政策인지 勳資部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來年度 物價引上率을 미리 今年에 모두 다 인상시켜 來年度 引上要因을 政策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年末에 인상시키려는 계획은 아닌지? 또 今年에 인상시킬 공공요금과 관서요금은 무엇 무엇이며 그 인상율은 어느 정도인지 副總理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91年度에는 基金徵收를 한 푼도 못했으나 來年度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56億원의 基金徵收를 豫算에 반영했다면 92年度에는 원유가 안정되어 인하요인이 있다는 반증이 되는데 勳資部長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物價引上要因이 또 있습니다.

勳資部長官께 물습니다.

어제 長官께서 石炭産業補助額으로 來年度豫算에 600億밖에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所要額은 約 2,500億으로 추산된다고 했으며 不足額은 현재 炭價引上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 財源이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財源에 대해서 不足額 確保方案은 무엇인지? 炭價는 來年度에 몇 % 引上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庶民의 가계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勳資部長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電氣料金引上調整의 불가피성도 答辯하신 것 같은데 電力料金は 來年度에 어느정도 인상할 것인지 引上要因은 어디에 있는지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主主義 政府의 참다운 위상은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화있게 조정하여 최대 공약수치를 찾아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國家政策의 효율적 집행을 기 할 수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行政府나 軍 또는 公安機關 組織員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特定政治團體나 政治人에 대한 편견은 자칫 국정운영에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며 국가발전과 정국안정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政府 各 部處의 教育기관 즉 內務部의 地方行政研修院 法務部의 法務研修院 國防部의 國防大學院의 엘리트공무원의 연수 教育에 野黨指導者들을 초빙해서 國政을 같이 논해 볼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各 部長官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敎育院이 있으며 野黨指導者와의 대화시간 특강이라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같아서 이상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瑒泰 잠시 停會하였다가 午後 2 時에 續開해서 質疑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1分 會議中止)

(14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洪熙杓 議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吳景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景義委員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議事進行과 國務委員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지켜야 될 일이 열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머리는 守時 守分 守任... 時間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약속이다. 신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에 모였느냐? 물론 國務委員 여러 분들은 일찍이 時間을 지켜서 많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제가 同僚委員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이나 議事進行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도 서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議事日程에 맞추어서 同僚委員間에 서로 불편하지 않은 점도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할 道理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밖을 나가보니 公務員 여러 분들이 맨바닥에 앉아서도 答辯準備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는 차체에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외란되게 先輩님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委員長,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人類歷史는 언제나 시대적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가는 과정속에서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살아왔다고 本委員은 믿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처해 있는 총체적인 한계상황이 構造的으로 재편되는 과정이 빠르냐 더디냐에 따라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變化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全世界의인 變化인지 아니면 局部的인 國內變化인지를 결정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世紀를 목전에 둔 우리의 國內外的인 현실을 살펴보면, 人間의 歷史가 시작

된 이래 각 분야에 노정된 시대적 한계상황을 타파하고, 新秩序를 구축하려는 전세계적인 변혁의 물결이 세차게 밀어닥치고 있는 시기적인 전환점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격변하는 國際環境속에서 21世紀를 향한 우리의 좌표와 진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對策을 강구해서 全國民이 하나로 뭉쳐, 노력을 경주해야만 國際社會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汎世界的인 변혁의 물결에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각하에서 總理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南北의 統一이라는 民族的 課題는 本委員이 앞서 밝힌 世界史的인 전환점의 한 사건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보이며 이에 따른 우리의 대처도 이런 흐름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형태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總理께서는 물론 總理는 만나오셨습니다마는 關係長官이 答辯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南北統一의 國際的인 統一環境造成을 위해 韓半島 周邊國家들과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예정이신지 答辯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東西冷戰體制가 급격히 붕괴되어진 현 시점에서 北方政策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冷戰體制의 대결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실성을 잃고 있어 全方位外交 또는 積極外交의 개념으로 北方政策에 대한 개념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總理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셋째 南·北韓 軍事的인 緊張의 최대 현안인 北韓의 核開發威脅 제거를 위해 關係國들과 어떻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신지 밝혀 주시고 우리의 軍事的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社會의 여러가지 현실에 대한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人間과 社會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그 人間과 社會가 지닌 道德的인 純潔性에서 비롯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人間을 인간답게 하는 최후보루인 道德과 良心이 결여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社會는 이미 그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李得和君 誘拐, 殺害事件을 비롯하여 인신매매, 부녀자 납치등 연일 新聞의 社會面을 장식하는 반인륜적인 사건들과 지난 시절 온갖 특혜를 독점하면서 부를 축적한 財閥企業들이 이윤의 사회환원이란 경제적 도의를 무사하고 친인척에게 株式을 變則去來하여 주는등 이런 道德性이 실추된 이 社會의 온갖 단면들을 볼 때 이 社會를 正化할 근원적인 해결책이 하루 빨리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總理의 견해를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또 社會의 道德性 회복을 위한 汎國民의인 운동의 일환으로 國民倫理綱領을 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은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께 質疑를 드립니다.

첫째 1992年度 地方讓與金管理特別會計 豫算案이 1991年度の 5,570億원보다 무려 6,936億원이 증액된 1兆2,506億원으로 책정되었고 또한 讓與細目中 酒稅의 讓與率을 현행 15%에서 60%로 인상하여 地方財政擴充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은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財政自立度가 낮은 地方自治團體의 실정을 감안할 때 잘된 政策이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讓與金이 어느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각 地方自治團體에 균형적으로 배분되고 對象事業도 어느 特定事業에 편중됨이 없이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되어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副總理께서는 이렇게 기능이 확대된 地方讓與金の 效率的 운영방안에 대하여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內務部와의 협의관계라든지 모든 문제의 向後對策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두번째에는 지금까지 政府가 中小企業의 支援, 育成에 상당히 애를 써왔고 노력을 해왔습지만 아직도 개선할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中小企業支援金融制度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을 들어보면 먼저 支援施策推進機關이 商工部, 經濟企劃院, 韓國銀行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政策推進이 어렵지 않느냐 中小企業金融

制度가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임기응변식의 미봉책으로서 마련된 까닭에 각종 支援制度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해서 中小企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中小企業資金取扱 金融機關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財政의 中小企業支援역할이 부족하며 中小企業에 대한 신용부족의 미흡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中小企業金融支援對策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副總理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금번 156回 定期國會에서 輸入開放에 대한 反對意思를 全國會議員이 滿場一致로 決議한 바도 있습니다만 최근 鄧錫事務總長이 모든 比較易品目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亞·太閣僚會議에 參席한 칼라 힐스 美貿易 代表의 輸入開放發音등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넷째 國土의 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慶北 北部地域開發과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他地域에 비해서 開發이 미진하였던 慶北 北部圈은 상대적으로 낮은 所得水準과 빈약한 財政으로 인해서 開發이 아주 뒤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財政自立度 평균치가 62%를 상회하고 있는데 비해서 慶北 北部圈은 현재 평균 30%대도 유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 安東部의 경우에는 현재 19%대에 머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對策을 세울 것인지?

慶北 北部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中央高速道路와 中部內陸高速道路, 東西高速道路의 조기착공완공 또는 豊山 및 尙州工業團地의 집중육성 개발 그리고 이에 따른 人力需給對策으로서 大學의 關聯學科 설치 등을 통해서 第3次 國土綜合開發計劃案에서 제시된 國民餘暇善用地帶와 2次產業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慶北 北部地域의 발전축이 대체로 龜尾·尙州·店村軸과 大邱·安東·榮州軸 그리고 浦項·盈德·安東軸으로 나누어 진다고 보았을 때 이 세가지軸으로

나누어 진다고 보았을 때 이 세가지軸의 중심지역인 北部圈에 慶北道廳을 이전해서 명실상부한 慶北北部圈開發의 중심핵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副總理께서는 慶北北部地域發展을 위한 도로망정비사업계획을 비롯해서 豊山 및 尙州工業團地開發計劃과 慶北北部圈開發綜合對策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낙후된 이 지역에 어떤 對策을 세우셨는지?

아울러 慶北北部圈開發을 위한 開發調查費用으로 策定된 4億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開發計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4億이라는 돈은 너무 부족한 豫算編成이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外務部長官께 質疑를 드립니다.

南·北韓 UN同時加入 이후 韓半島에 대한 國際的인 관심이 집중하고 있고 이에 따라 國際社會에서 우리 外交가 수행해야 할 역할 비중 또한 크게 증대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증대한 시기에 있어서 韓半島를 중심으로한 周邊國家들의 외교방향을 어떻게 전망하시며 또 그에 따라 主體의 外交意志의 천명이란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시면 그 部分에 대해서 答辯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 內務部長官께 드리는 質疑입니다.

本委員은 날로 지능화 흉포화되는 범죄에 대응하여 警察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制度和 豫算의 뒷받침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첫째 治安需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豫算確保를 위한 制度的 方案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11月11일에 열린 社會長官會議에서 年末까지 50日特別團東期間을 설정하여 어린이 유폐등 반인륜범죄에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長官께서는 具體的인 計劃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신지 答辯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總理와 內務, 法務長官 및 選管委

事務總長께 質疑를 드립니다. 事前選舉運動, 不法墮落選舉運動에 대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14代總選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항응을 베풀거나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등 벌써부터 事前選舉運動이 과열 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우리 政治圈은 물론 選管委 檢察 등에서 적절한 對策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輿論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對備策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는 것입니다.

政府에서도 盧泰愚 大統領께서 事前選舉運動 부정선거엄단지시를 하셔서 國民的인 여망 꼭 부정선거를 근절하고 公明選舉를 정착시키고 選舉文化를 安定시키는데 주력을 두라는 것이 우리 모든 國民의 意志인 것입니다.

國家의 장래를 생각하여 基礎 廣域選舉의 경험과 外國의 선거사례를 참고해서 온 國民의 한결같은 여망을 저버린 이들 일부 망국적인 선거행태를 근절시키겠다는 政府의 의지와 그에 따른 對策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內務部長官과 選管委事務總長께서는 事前選舉運動의 단속실적과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來年에 있을 4代選舉로 選舉管理委員會業務가 폭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效率的 管理對策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 對策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法務部長官께 質疑를 드립니다.

현재 全國 地檢, 支廳別로 傘下機關에서 選舉專擔班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운용실태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위법자 처리조치에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하셨는지 具體的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朝刊新聞 貞洞칼럼이라는 記事를 읽어 보니 깨끗한 選舉 한번 해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것이 우리 온 國民의 輿望인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政治圈이나 政府나 모든 國民이 우리 歷史속에서 公明選舉를 치룬 1992年度라는 新紀元을 우리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所信입니다.

다음은 教育部長官께 質疑를 드립니다.

일부 教育者非理와 관련해서 우선 한 말씀을 드립니다.



年初에 발생한 서울大 音大 入試不正事件을 시발로 그리고 최근의 이대 무용과 입시부정 사건에 이르기까지 大學入試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國民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다 아는 비밀인 中·高等學校 教師들의 참고서 채택료 시비라든가 촌지수수등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들고 말조차 해서 안될 이런 일들이 우리의 2세를 가르치는 教育界에 아직도 일부인사들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환경속에서 자라나는 靑少年들의 장래를 우리는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教育政策, 入試政策이 건국이후 수십번도 더 바뀌어 왔건만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부 市民들의 질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教育現實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教育界의 道德的인 혁신 倫理觀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서 향후 教育制度 改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 하시고 잘 된 부분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教育界의 도덕성회복방안 또는 倫理觀은 무엇이며 長官께서는 教育界淨化對策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教育部가 教育與件 改善을 위한 教育豫算確保方案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중에서 私立學校敎職員退職手當 財源을 私立學校에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私立學校敎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이 현재 教育體育靑少年委員會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私學與件上 私學敎員退職手當을 私立學校에 부담시키는 것은 영세사학에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國庫에서 전액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長官께서는 私學敎員退職手當으로 소요되는 168億3,600萬원을 全額 國庫에서 부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누락경력 불이익을 받고 있는 敎員所要豫算 62億1,800萬원등 教育與件改善을 위한 豫算確保計劃을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제 長官께서는 어렵겠다는 答辯을 하신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렵겠다고만 해결

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무언가 解決策을 강구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體育靑少年部長官께 質疑를 드립니다.

靑소년이 얼마나 밝고 건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장래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體育靑少年部에서 靑少年育成基本計劃을 세워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半萬年의 유구한 歷史를 통해서 많은 外侵에도 불구하고 民族의 생명력을 면면히 이어서 이렇게 까지 내려온 것은 우리 民族精神이 그만큼 위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丹齋 申采浩先生이 “無精神의 歷史는 無精神의 民族을 낳고 無精神의 國家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靑소년들에게 民族의 얼과 조상의 슬기를 가슴속에 담고 民族과 國家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民族精神 教育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한 方案으로서 民族精神의 산教育場으로 靑少年修鍊館을 각 市·道別로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에 설치한다면 우리 民族을 精神的으로 이끌어 온 선조들의 체취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 중 특히 名賢巨儒의 本山이며 儒學의 泰斗인 退溪 李 滉先生이 태어나 聖學十圖를 완성하고 후학들을 양성한 선비 양반의 고장인 예향 安東에 우리 靑소년들이 민족적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靑少年修鍊院을 건립하여 民族精神 教育場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長官께서는 靑少年修鍊院 建立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鄴魯之鄉인 安東에 靑少年修鍊院을 건립하는데 豫算을 대폭 支援 策定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 부분에 대한 質疑를 드리는 것입니다. 地域區 問題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실로 安東의 중요성을 이자리에 제신 同僚·先輩委員님이나 國民 여러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農林水産部長官께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農漁村支援은 종래와 같은 소득보상적 지출보다는 農水産業이 개방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長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商工部長官께도 한 말씀드립니다.

蘇聯, 헝가리, 체코등 기존 社會主義國家들과의 交易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과 무역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長官께서는 이런 經濟外的 장애요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들 國家들과의 무역규모와 貿易赤字解消對策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環境處長官께 묻겠습니다.

첫째 環境處가 집계한 90年度 우리나라 企業의 환경투자는 3,830億원으로 전체산업의 설비투자 22兆 가운데 겨우 1.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先進國의 총설비투자 대비 5 내지 10%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며 우리나라와 經濟規模가 비슷하던 1971년의 日本의 환경투자 7.5%에도 미달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政府에서도 환경기술투자에 인식하여 90年度의 환경처, 과학기술처, 동력자원부의 환경과학기술연구개발비가 日本의 1,135億원의 26분의 1인 32億원에 불과했습니다.

大邱 폐놀사건이후 國民의 關心이 높아만 가고 있는데 政府나 企業의 대처방법이 國民의 기대치를 못따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政府의 環境技術投資計劃과 公害防止産業育成對策을 밝혀 주시고 우루과이라운드로 環境市場이 개방될 경우 취약한 環境産業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環境汚染을 일으키는 요인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우리 國民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연탄 생산과정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粉塵으로 인한 근로자 및 주민들의 環境被害가 크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長官께서는 연탄 시멘트 공장의 현황, 생산과정의 問題點, 연탄 시멘트업종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職業病實態를 밝혀 주시고 연탄 시멘트공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내용과 처리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勞動部長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月10日 저녁 8時 MBC라디오 "이웃"이라는 드라마를 들어보셨는지요. 塵肺症하면 鑛山勤勞者 職業病的 대명사인데 일반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城東區 玉水洞 경동산업사에 근무하였던 문창길씨가 진폐증에 이환되어 汝矣島 聖母病院에서 투병하고 있는 과정이 드라마화 되어 방송되었습니다. 勞動部長官! 일반사업장 塵肺災害者 현황과 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제시는지 일반사업장 진폐 재해자가 塵肺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와 향후 적용받을 수 있는 對策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粉塵작업에 종사하는 시멘트 공장 연탄공장 근로자와 인근주민들에게 塵肺症罹患與否確認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와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洪熙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文峻植委員 나오셔서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文峻植委員 民主自由黨의 文峻植委員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 그리고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또한 副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本委員은 오늘 國政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1992年度豫算案을 審議함에 있어서 책임의 막중함과 책무의 중요함을 함께 느끼며 副總理와 關係長官께 國民의 이름을 대신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92年 政府豫算案은 당초 41兆2,000餘億원이었던 것을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한 결과 33兆5,050億원 규모로 조정 제출된 것은 今年豫算보다 6.8%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같은 92年豫算案이 책정된 후 各界로부터 膨脹豫算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農漁村支援, 環境改善, 教育支援에 대한 豫算이 충분한가를 검토하면서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새해의 事業이 많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本委員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豫算案이 잘 짜여졌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政府가 이 돈을 어떻게 效率的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國民 1人當 擔稅額이 102萬원, 勤勞所得稅의 대폭적 증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政府는 그만큼 책무감이 무겁다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來年度豫算 規模의 적정성여부 및 國民의 租稅負擔 등에 대해 지적할 것은 생략하고 92年豫算案의 重點支援內容에 대한 問題點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는 여러 委員님도 다 아시다시피 社會間接資本은 國家基幹施設 또는 國民全體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公共施設로서 民間 대부분 政府 또는 公企業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날 우리의 經濟는 60年代 이후 이 부분에 계속 투자해 왔으나 80年代에 들어서는 財政規模가 經濟規模를 뒤따르지 못해 社會間接資本 擴充의 제구실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經濟規模의 확대에 따른 物動量增加로 京仁高速道路의 일부 차량들은 차단이라는 문제가 나올 정도입니다. 輸送規模 物動量이 2倍가 넘도록 많아진 것입니다.

釜山港의 경우도 콘테이너 物量의 증가로 港灣施設擴充 및 콘테이너貯藏場所의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政府로서는 부득이 今年의 3兆5,525億원에서 來年에 4兆2,338億으로 19.2%가 증가되어 財政規模增加率 6.8%를 책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政府가 당초 道路, 港灣, 鐵道, 空港建設등 社會間接資本支援을 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과 투자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膨脹豫算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갑자기 豫算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최소한 2000年代를 가상 특히 통일에 대비한 社會間接資本事業費를 계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땀질식 갑작스러운 豫算策定보다는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좀더 실득력 있는 豫算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副總理의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農漁村支援問題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農漁村支援問題만큼 우리 경제가 당면한 縣案問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UR문제가 당장 붙어닥치는 이 마당에 있고 農村經濟 역시 가뜰이나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의 심각한 실정입니다.

요즘 美國의 國務長官, 農務長官, 貿易代表部代表등 세 관리들이 한결같이 美國쌀을 사가라고 온갖 압력수단을 다하고 있어 우리가 이를 들어 주면 농민이 울고 안 들어주면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당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는 이런 수도 저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本委員은 與黨의 입장에 있지만 이 문제만은 與野를 막론 舉國的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이 쓰러지면 그 결과는 도시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나라살림에 豫算만 늘리는 것보다는 全 豫算을 적극 검토하여 他 部處의 豫算을 줄여서라도 農漁村支援金만은 크게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副總理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地方財政擴充部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地方財政擴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물론 地方自治制란 문자 그대로 자카부담으로 자율적인 책임아래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나 地方財政의 독립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므로 中央政府財政支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社會間接資本支援問題등 여러 懸案問題때문에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92年度 政府豫算案에서 中央政府의 地方政府에 대한 支援規模는 教育部門을 포함 一般會計規模의 41.1%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수준은 日本의 경우 38%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地方財政의 확충은 자체지원의 신장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中央政府의 地方에 대한 財政支援은 中央과 地

方的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재검토한 國家財源最適配分 특히 地方財政自立度の 취약지구인 落後地域에 대한 稅政的 支援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地方財政調整制度를 개선 보완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副總理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國民福祉向上的 財政支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民福祉의 향상은 經濟成長의 궁극적 목표인 것입니다. 국민이 좋은 환경속에서 태평가를 부르며 살 수 있도록 政府는 각종 福祉制度를 위한 財政的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來年度豫算에 따르면 障痾者 老人들을 위한 대책으로 居住保護老人 5萬1,000餘名에서 生活保護對象者 老人 전체인 19萬1,000餘名線으로 확대한 것은 老人福祉生活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委員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國家有功者에 대한 지원으로 來年度豫算을 보면 基本年金이 昨年 15萬원에서 25萬원으로 인상한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를 좀더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모두가 애국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상향조정할 장기적 政府對策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環境改善에 대한 政府支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처럼 環境改善에 대해 절실히 요구되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놓고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環境改善이야말로 참된 福祉國家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가? 음식물은 독소가 가미되었고 우리의 식수원인 수도물은 그냥 먹을 수 없으며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공해로 인해 질식될 정도로 깨끗지 못합니다. 今年度에 政府가 追更豫算속에 1,325億원을 계상하여 시급한 水質保全事業을 추진토록 한데 이어서 來年度豫算案에 今年度보다 14.9%가 증가된 5,550億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豫算을 늘린다해도 공해물질을 마구 방출하는 工場이 있다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政府가 豫算을 늘리는데 보다 예방에 치중하는 政策을 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政府의 대책은 무엇인지 環境處長官께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처리장의 施設擴充問題로서 전국적으로 쓰레기처리장 위치선정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國民嫌惡施設로서 都市下水處理場建設, 汚染河川淨化 및 糞尿處理場設置事業에 대해 政府가 地方讓與金事業으로 轉換토록 했는데 과연 현시점에서 地方自治制의 自律性의 부여가 가능한지 이에 대해 副總理께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公務員의 處遇改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公務員의 報酬水準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民間企業 대비 報酬水準이 日本의 96% 臺灣의 91%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67% 수준으로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를 개선할 政府의 對策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現 公務員의 停年이 58歲의 수준인데 이를 65歲로 上向調整할 의향은 없는지 本委員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副總理와 總務處長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은 이같은 來年度豫算案에 대한 基調的인 견해를 밝히면서 다음 몇 가지 地域的인 사항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내에 先進福祉國家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對外競爭力을 강화하는 한편 經濟成長의 果實을 階層間 地域間에 공평하게 分配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道路, 港灣, 鐵道, 用水 등 社會間接資本施設 부분에 대한 效率的인 投資를 함으로써 經濟的 對外競爭力을 강화하여 나가되 投資配分은 階層間 地域間 衡平性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간 投資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湖南地域에 대한 社會間接資本施設投資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그 먼저 道路事業特別會計의 事業推計問題에 대하여 經濟企劃院長官兼副總理께 質疑하겠습니다.

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道路交通難은 극에 달해 있으며 이에 따라 製造業의 競爭力이 약화되고 국민생활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990年 현재 交通隘路區間은 高速道路와 國道를 포함하여 1,300餘km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交通隘路區間을 해소하고 經濟規模의 확대와 자동차 수의 급증에 따른 交通量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향후 10年동안 約 40兆원정도 年間으로는 4兆원의 投資費가 소요되나 調達可能한 財源은 年間 2兆8,000億원에 불과하며 每年 1兆2,000億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견해입니다.

道路部門에 대한 投資財源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2車線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嶺東 高速道路는 언제 확장될지 막연한 상태이고 西海岸地域 住民들의 큰 기대와 관심속에 지난해末 착공된 西海岸 高速道路는 2000年代에 들어서야 開通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大邱·春川間 고속도로는 財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區間만을 그것도 高速走行이 불가능한 2車線으로 시공하고 있는 등 道路部門에 대한 投資財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 올습니다.

그런데 과거 道路事業特別會計의 豫算反映實績을 보면 89년부터 91년까지 總 3兆1,400億원의 財源을 歲入으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 豫算反映實績은 2兆3,600億원으로서 約 7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92年度豫算案의 경우에도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 41페이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道路事業特別會計에 대한 歲入推計를 보면 휘발유 사용량 및 승용차 出庫量에 대한 과거 實績을 기초로 할 때 約 3,000億원이나 過少推計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洪熙杓幹事, 金裕泰委員長과 司會交代)

앞서 말씀된 바와 같이 道路交通難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經濟的 損失에 비추어 볼 때 道路網을 시급히 확충하기 위해서는 92年度豫算案은 道路事業特別會計의 歲入을 보다 정확하게 推計하고 그런 연후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歲入을 全額 道路事業에 사용할 수 있도록 審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今年 11月7日 휘발유가격이 상승되었

으므로 이에 따른 追加歲入도 約 750億원 정도가 推計가 됩니다. 92年豫算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2年度豫算案 部別審議 또는 計數調整時에 歲入推計問題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檢討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副總理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道路事業豫算의 확대를 위해서 本委員이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92年度 道路事業特別會計의 歲出豫算中 4,000億원은 財政投融資特別會計의 預受金償還으로 計上하고 있는데 道路投資財源이 가뜩이나 부족한 실정에서 融資條件이 5年 据置 15年 償還인 預受金을 早期에 償還하는 것은 道路事業의 촉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豫決委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 40페이지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權穀證券元利金の 일부를 歲計剩餘金에서 직접 償還할 수 있도록 하는 根據規定을 마련하기 위해 豫算會計法改正案을 國會에 제안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國會에서 豫算會計法改正案이 政府案대로 議決될 경우에는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 計上한 權穀管理基金出捐金 3,000億원은 權穀證券發行으로 대체하더라도 92年度 權穀管理基金 運用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道路事業特別會計에서 財政投融資特別會計로 償還키로 되어 있는 財源中 3,000億원은 相計가 가능하므로 이 財源은 현재 시급한 國道擴張事業에 投資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副總理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問題解消對策에 관하여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물사정은 과거에 비해 크게 改善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地域的으로는 給水事情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全國적으로 給水事情이 가장 나쁜 지역은 木浦市 올습니다.

木浦市는 上水道 普及率이 96%로써 100%에 가까우나 1人當 給水量은 하루 235ℓ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全國 平均 350ℓ를 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水質面에 있어서는 主된 取水源이 榮山江의 水質汚染이 극심하여 BOD 즉 生物

學的 산소 요구량이 3.99에서 4PPM으로써 3級水에 해당되기 때문에 首都물의 水質에 대한 木浦市民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와같은 全國적으로 제일 나쁜 물을 마시면서도 물값은 1當 470원이나 되어 全國 平均 186원에 比하여 무려 2.5배나 되는 실정입니다. 大統領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住岩댐 물을 木浦市까지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事業施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今年에 追更豫算으로 3億원을 計上한데 이어 來年度豫算에는 불과 12億 원만을 計上하여 木浦市民들은 政府 事業施行 意志를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本委員은 이 事業의 조속한 施行을 통하여 오염된 물로 고통받고 있는 木浦市民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政府意志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本 事業의 來年度 豫算을 대폭 增額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政府豫算案編成의 책임을 지고 있는 副總理께서는 이 事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來年度豫算案을 劃期的으로 增額할 용의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1世紀를 향한 技術立國의 꿈을 실현하고 湖南地域의 經濟發展을 구축하여 國土 均衡發展을 도모하며 産業研究教育機能의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기술집적 도시를 建設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중인 光州 尖端團地 建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事業은 總 586 萬坪의 尖端産業基地를 1단계로 95년까지 298 萬坪을 먼저 開發하고 2단계로 2001년까지 나머지 288萬坪을 開發할 計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地域住民들이 事業推進을 실감할 수 있을 만한 積極的인 投資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事業推進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사업은 韓國土地開發公社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土地開發公社는 어떤 일을 맡고 있고 政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土地開發公社와 政府의 역할분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1단계 사업의 불자수송 및 94年度 開校를 목표로 하고 있는 科學技術大學 設립에 맞추어 동부진입로의 조기 완공이 시급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來年度 豫算에는 불과 22億7,500萬원이 제상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豫算은 黨政協議때 副總理를 졸라대고 싸늘이 당해서 없는 것을 사실은 넣어주기로 한 것으로 고맙게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넣고 보니까 事業을 좀더 빨리 可視化되게 시작을 했으면 하는 哀情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委員長 또한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國務委員 여러분!

建國 이래 최초로 民主的 節次에 의해 탄생한 6共和國이 출범한지도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나라 살림을 꾸려오면서 우리 모두는 보람과 좌절을 수없이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꾸준히 추진해온 民主主義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로서 우리 모두의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지난 시대에 억눌려 왔던 욕구가 무절제하게 분출되어 社會安定이 위협받기도 하고 不法과 폭력이 民主化의 미명 아래 난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正當化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民主主義를 지키고 가꾸려는 國民 모두의 열망과 안정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바탕으로 轉換期의 진통은 극복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엄청난 냇가도 치루었습니다. 民主化를 위한 市民運動으로써 엄청난 人的, 精神的, 物的 被害를 수반하였던 5·18光州民主化運動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될 크나큰 아픔이요 우리 歷史에 지울 수 없는 상처라 하겠습니다.

당시에 政府와 우리 國民 모두가 大乘의 次元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對應과 解決을 서둘러 주지 않음으로써 그 真相이 國民에게 왜곡되고 잘못 인식이 되면서 光州地域民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소외와 갈등 그리고 저항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우리 國會와 政府가 함께 노력하여 지난해 7月14日

第150回 臨時國會에서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 관한法律을 制定, 이 法에 따라 지난 8月6일부터 被害者에 대한 政府의 補償을 시작함으로써 光州市民의 상처를 치유하고 國民化합의 章을 여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本委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法에 의한 補償對象은 死亡者 154名 行方不明者 39名, 負傷後 死亡者 73名, 傷痍者 1,900名, 기타 61名등 모두 2,227名으로서 99.7%인 2,221名은 이미 補償金을 수령하였고 남은 6名도 受領權 또는 受領額에 대한 司法的 節次를 밟고 있어서 年內에는 모두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補償이 被害者의 생활에 다소 보탬이 되었음은 물론 그 분들의 아픔을 크게 달래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特別法까지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國家的 의지를 감안할 때 政府의 補償 마무리는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光州補償支援委員會가 지난해 11月21日 결정한 光州民主化運動關聯支援方法은 光州補償金등 所要額 1,427億원 가운데 우선 國費839億원을 지원하고 不足額은 光州直轄市가 光州銀行에서 起債하여 關係자에게 지급한 후 추후 모금할 성금과 國庫補助金으로 이를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光州直轄市가 위 補償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실제 補償金으로 필요했던 604億원을 起債한 후 1年이 다 된 지금까지 起債分 全額을 상환해주지 않고, 국민성금 64億2,800萬원과 國庫 224億1,700萬원, 合計 288億4,500萬원만 지원함으로써 光州直轄市는 현재 元金만도 335億원의 債務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光州直轄市는 큰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넉넉치 못한 地方銀行의 資金循環을 압박하여 地域經濟에 애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光州問題解決의 첫 단계인 補償金支援에서 조차 정부가 消極的인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地域住民의 對政府 信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來年豫算에도 未償還 債務의 全額을 計上하지 못하고 214億원만 計上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來年3月까지 豫상되는 元利金 380億원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도록 計上된 214億원 외의 不足額 170億원을 追加 編成하여 政府가 5·18補償問題를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지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光州에 대한 어떤 措置도 5·18의 아픈 상처를 완전히 아물리기는 어렵지만 政府가 被害者에 대한 個別的인 補償에 최선을 다 하고 國民 모두가 解冤相生의 견지에서 光州問題를 昇華시킬 수 있도록 策정한 紀念事業을 찾아 성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업은 第6共和國이 완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5·18당시 사망한 분들의 墓域을 현재의 市立共同墓地에서 분리하여 인근에 별도 墓地公園을 조성하고 이 墓域에 英靈들을 기리고 위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지난 봄에 光州市가 韓國靑靑調查研究所에 의뢰하여 光州市民을 대상으로 실시한 輿論調查에서도 최소한 墓域造成과 慰靈塔建立은 바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光州市民의 희망대로 來年度에 이 두 가지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이 地域 市民의 요망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政府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本委員은 光州問題를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現政府가 光州市民의 自助 自愛하는 愛鄉精神과 國家的 和合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가 고조된 이 시점에 이와 같은 紀念事業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92年度 本豫算에 光州市가 補償金支給을 위해 光州銀行으로부터 借入한 金額중 아직 未償還된 元利金 全額과 墓域造成을 위한 土地買入費 施設費 慰靈塔建立費등 光州直轄市가 輿論調查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紀念事業에 필요한 80億원을 반드시 計上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經濟企劃院長官의 견해와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현재 추진중인 尙武臺 이전 부지의 都市計劃樹立에 紀念公園 등을 시설하여 光州의 긍지를 심어줌으로써 光州市民의 아픔이 말끔히 치유되고 地域間 和合과 政府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쏟을 것을 政府와 委員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이옵니다.

긴 시간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蔡映錫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金瑑泰 蔡映錫委員! 말씀하세요.

○蔡映錫委員 덕담을 해도 부족할텐데 듣기 싫은 얘기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委員長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國務委員席의 두분 副總理께 먼저 존경의 傘을 보냅니다. 자리를 꼭 지켜 주셔서... 國務委員席을 보니까 國務委員이 현재 다섯 분 계시요. 法務部長官 아까 계시더니 나가시고 國防部長官 계시고 教育部長官 계시고 勞動部長官 잠깐 나가셨다가 또 오셔서 계시고 環境處長官 자리 지켜 주시고 動資部長官도 계시더니 어디 나가시고 公報處長官 자리를 지켜주시고 建設部長官도 아까 보이더니 어디가셨고 遞信部長官이 자리 지켜 주시고 交通部長官이 이제 들어 오시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國務委員 네 분 앉아 계시요.

副總理 두분 빼고... 글썄 勞動部長官 들어 오셨어요. 네 분 앉아 계시는데 물론 지금 常任委員會를 병행 개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常任委員會는 집안식구이니까 그것은 지금 法案들입니다. 별로 문제가 없는 法案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次官들이 나가셔서 答辯을 하시더라도 좋고 그런데 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지금 그래도 長·次官들은 자리라도 교대하지만 우리 國會議員들은 자리 교대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國務委員들께서 성의를 좀 보여 주셔야지...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려면 委員長이 가끔 事務處로 하여금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볼 일이 있으신 國務委員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國務委員 네 분 앉혀 놓고서 質疑를 하고 앉아 있고 아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제가 지금 商工委員입니다. 우리 商工部長官이 午前에 일이 끝나서 午後에는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안나오시고 우리 次官은 내가 유심히 보니까 꼭

35분 지각을 해요. 長官도 없고 次官도 없고 말이지... 次官이 안계시는 部署도 지금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委員들이 그래도 밤잠 안자면서 두 時間 세 時間 자면서 質疑한다고 감양에 돌보기 쓰고 豫算書 뒤져가지고 와서 國民의 代表로서 뭔가 물어 보고 하나라도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성의도 생각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次官도 안계시는 部署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 委員長께서는 개최되고 있는 常任委員會 委員長께 좀 말씀을 하셔서 豫決委員會가 중요하기 때문에 次官이 대신 나가서 常任委員會 좀 하도록 하셔서 國務委員들이 자리하시고 같이... 이렇게 하는 豫決委員會 運營을 效率의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議事進行을 마칩니다.

○張石和委員 저도 하나 기왕에 長官들한테 얘기하겠습시다.

○委員長 金瑑泰 말씀하세요.

○張石和委員 本委員이 議事進行發言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資料提出問題입니다. 다른 委員들도 마찬가지로이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도 資料提出이 안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本委員의 경우는 18個 部處에 걸쳐서 40件이나 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10件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補充質疑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內務部같은 경우는 特別交付稅에 관해서 補充質疑를 해야 될텐데 또 質疑도 해야 될텐데 이 地域別 交付現況을 제출해 달라고 要求를 했지만은 概況만 설명을 하고 실제 地域別 交付現況을 생략해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國稅廳같은 경우는 財閥企業에 대한 稅務調査關聯 追徵額 產出根據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은 個別 企業別로 실적을 報告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關聯內譯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農林水產部같은 경우에는 農水產物의 輸出實績과 國內價格과의 차이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輸出價格과 國內價格間的 차이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教育部長官 같은 경우는 敎大 및 師



大卒業者の積滯現況에 대해서 資料提出을 요구했으나 法改定을 이유로 積滯現況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 92年度 競争入試復活豫定地域과 對策에 대한 資料提出을 요구했으나 關聯對策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初·中·高敎科改編計劃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敎科書改編現況만을 제출했고 監査院의 경우에는 92年度 政府 各部處에 대한 監査現況과 監査指摘事項 및 措置結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監査現況 統計만 제출했고 科學技術處의 경우에는 90년이후 核 및 原子力關聯 弘報物的 제출을 요구했으나 두 件만 제출하고 나머지 10餘件에 대해서는 見本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法務部의 경우는 時局關聯拘束者 手配者現況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時局關聯 與否에 따라서 분류해서 통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앓고 있거나 또 부실하게 하고 있거나 아예 40件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長官들께서는 資料提出하지 않는 長官, 各部處 公同 國務總理, 總務處, 外務部, 國防部, 經濟企劃院, 內務部, 財務部, 國稅廳, 農林水産部, 建設部, 勞動部, 交通部, 海運港灣廳 다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빨리 제출을 해주셔야 補充質疑할 수 있으니까 質疑도 할 수 있으니까 촉구합니다.

○委員長 金瑢泰 蔡映錫委員 張石和委員 議事進行發言 잘 들었습니다.

豫算審議權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豫算決算委員長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하다는 것 여러 委員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터입니다. 또 立法權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常任委員會에서 法案審議를 하고 法案은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長官이 또 出席하려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常任委員會 所屬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필요할 때 오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國務委員 여러분들께서도 마치 자리를 많이

듬으로 인해 가지고 豫算審議를 경시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게 된 것 이것은 저로서도 꼭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常任委員會에 꼭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法案을 통과시키거나 議決할 적에...

○金台植委員 常任委員會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常任委하고 豫決委가 병행할 때는 豫決委를 우선하라는 것이요.

○委員長 金瑢泰 알겠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張石和委員 資料... 늘 資料問題가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잘 챙겨 가지고 그런 議事進行發言이 안 나오도록 가능하면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議事進行을 계속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議事進行發言 좀 더 하겠습니까.

○委員長 金瑢泰 議事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盧武鉉委員 하겠습니까. 다음에 따로 하라고 하면 더 긴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瑢泰 盧武鉉委員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조금 전에 張石和委員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本委員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 제출의 거부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의 목록을 뽑아 가면서 또 추가로 독촉하면서 사실상의 독촉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왔는데 아직 도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委員들이나 秘書들도 밤잠 안 자고도 일할 것지만 行政 各部署의 公務員들도 밤잠 안 자고 너무 오래 시달리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았는데 本委員이 요청했던 자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委員들이 다 중복해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委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료 이것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는 지금 작성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명백히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징표

들이 있습니다.

첫째 적어도 政策을 立案하고 豫算을 수립하고 審査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될 자료 또는 法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行政監督權에 의해서 당연히 확보하고 있어야 될 자료를 지금 地方自治團體나 下級機關에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다 주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公文을 발송했노라 라고 答辯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국 豫決期間을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것은 제가 對外秘管理記錄簿를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對外秘事項은 그 자체는 對外秘이지만 對外秘管理臺帳 自體는 對外秘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個의 部署로부터 저는 일부를 받고 있는데 어떤 部署에서는 對外秘管理記錄簿 自體가 對外秘이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이고 어떤 部署에서는 對外秘管理記錄簿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89年 勞動部監査 때 저희는 對外秘管理記錄簿를 비밀이 아닌 것으로 해서 받아서 그를 통해서 安全企劃部 豫算의 問題가 國會에서 문제됐던 것입니다. 對外秘管理記錄簿를 안 줍니다. 部署別로 안주고 또 몇 개의 자료는 이미 88年, 89年, 90年 계속해서 연결할 때마다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출을 회피하고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內務部의 特別交付金에 관한 자료입니다. 안줍니다. 이번 豫算 때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交付金을 지급하는 기준과 원칙만 장황하게 설명했을 뿐 전혀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對外秘도 얘기했지만 對外秘가 그 法的根據가 어디 있습니까? 1級秘密이면 비밀이고 2級秘密取扱에 관한 規定은 規定이고 對外秘가 어떻게 國會에까지 對外秘일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本委員이 왜 이것을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 것도 타당한 것이 또 적정한 것이 생산되지를 않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 있으면 제품이 절대 바로 나올 수 없습니다.

國會의 審議節次가 이미 이와 같이 절차차

체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豫算審議結果가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없이 무슨 審議를 합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常任委員會의 審議節次自體가 중대한 하자를 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며칠 남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安全企劃部 豫算같은 경우 總額밖에는 볼 수 없다는 法的인 制約이 있기는 하지만 全體豫算構造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部別審議에서 단순하게 내역을 가지고 다룰 문제가 아니라 豫算構造와 관련해서 政策質疑 對象이 됩니다. 質疑라는 것은 그 자체 하나, 政府에 대한 國會의 의견제시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분은 뭐하는 분인데 듣지도 않고 앉아서 部別審議 바로 받으면 됩니까?

政策質疑를 받고 國會全體의 입장이 어떤 흐름에 있고 交涉團體別 입장이 어떠한지를 나름대로 여기에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答辯하고 部別審議에 임해야지 무슨 근거로 안 나오니까?

이렇게 法的 根據도 없이 豫算審議權을 일부 部署에서 배제하고 자료도 없이 이렇게 해서 豫決委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委員들은 國民들을 무슨 낯으로 봐야 됩니까? 國民들의 소중한 稅金으로 手當받고 立法活動費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제 할 일을 다 못한 것 아닙니까? 豫算審議 끝났다고 방망이 치고 나서 豫算國會가 제대로 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절차가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자가 시정될 때까지 절차가 중단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委員會의 決議로써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우리 國會가 豫算審議를 거부해야 합니다.

與野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與黨 國會議員이라 하시더라도 資料가 나와야지 與黨 國會議員이 要請한 資料 상당수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따로 問題 提起를 하려고 준비를 있었는데 어떻게 與黨議員이라고 해서 國會 審議過程에서 당연히 豫算審議에 필요한 資料를 提出받지 못하고 審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出席해야 될 行政部處의 長이

出席하지 않은 豫算審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委員會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決議  
로써 여기에 대한 응분의 措置를 해 줄 것  
을 要求합니다.

꼭 委員會에서 적절하게 좀 융통성있는 會  
議運營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動議  
案을 提出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점 적절한  
措置가 없으면, 다음 기회라도 이 문제에 관  
한 豫算審議를 거부한다는 政府의 이와 같은  
態度때문에 誠實히 豫算審議를 받겠다는 政府  
의 姿勢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豫算審議  
自體가 國會에서 可能하지 아니하므로 豫算審  
議를 거부한다는 決議案을 낼 動議案을 提出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점 좀 措置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瑑泰 저도 重複發言을 하게 됩  
니다마는 行政府에서 제가 굳이 說明을 하지  
않더라도 盧武鉉委員, 張石和委員께서 資料提  
出問題를 심각하게 學論을 했습니다. 잘 이  
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資料  
未備로 해서 또 어떤 事由로 인해서 期日內  
에 내지 못할 경우에는 좀 委員들께 양해를  
구하시는 이런 努力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  
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  
지고 資料를 期日內에 내지 못해서 죄송스  
럽다라든가 이런 양해를 구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리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行政  
部에 일단 주의를 했습니다.

議事進行을 하시지요.

朴錫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錫武委員 民主黨所屬 全南 務安出身 朴錫  
武委員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本委員은 오늘 이 자리에서 委員長, 그리고  
先輩·同僚委員 및 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을 모시고 國民을 代表하여 來年度 政府  
豫算案에 대해 어떻게 하면 豫算執行의 公  
平성과 效率성을 최대로 보장하면서 나라의  
살림을 잘 꾸릴 것인지 등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숙의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을 기  
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國民을 代表하여 이러한  
막중한 일을 맡게 된 것에 대한 두려운 감  
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의 살림살이가 國民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잘 꾸려졌으면 별 문  
제가 없겠으나 현실의 經濟事情이나 國民福祉  
상태는 이러한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本委員은 우리나라의 來年度 政府豫算  
案을 검토하기에 앞서 6共和國이 그간 4年동  
안 추진했던 政治, 社會, 文化的 諸般 政策  
및 經濟政策 그리고 이에 따른 國民들의 생  
활상은 어떤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중차대한 來年度 國家豫算案審議에 앞서 이  
같은 諸般問題點들을 本委員이 먼저 제기하고  
자 하는 이유는 바로 6共政權에 대한 國民  
들의 준엄한 심판인 동시에 歷史的 評價가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6共政權은 國  
민들에게 政治的 허무와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는 政權이라고 우선 진단합니다.

6共政權은 어떻게 하면 國民의 權益을 위  
하고 國利民福을 위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政權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政權의 재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  
인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民生治安은 뒷전에 밀려있고 強  
力事件들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6共이 추진한 政策은 어느 것  
하나 成功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있다면  
언제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는 北方政策에나  
희미한 실적을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같이 실패만을 거듭하는 6共의 모습은  
本委員이 수집한 資料에 확연히 나타나고 있  
습니다. 特定事件이 터져 輿論이 악화되거나  
輿論의 질책을 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盧泰愚  
大統領이 各部處長官에게 경고 친서를 자주  
보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社會가 부패로 만연되어 있으  
면 大統領의 경고 친서까지 있겠습니까? 더  
우기 웃지 못할 일은 경고 친서가 大統領名  
義로 보내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여  
國務總理의 名義로 그것도 은밀히 전달된다는

것이며 이를 받은 長官들은 모두 감추기 위해서 쉬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現政權은 5共에 대해 청산을 할 것인지 또 다시 인연을 뺏으려는 몸부림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國家의 政策이 앞과 뒤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政策不在의 政權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國務總理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共에 들어와서 골프장建設 許可난립으로 139個 골프장이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10個가 넘는 골프장이 현재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政府가 파악하고 있는 도산했거나 도산위기에 빠진 골프장現況은 어느정도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이들에게 許可를 내 줄 당시 이것에 대한 타당성검사도 하지 않은 關係當國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 責任與否에 대해서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6共政權은 治安不在속에서 우리 社會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도덕적 타락과 황금만능주의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社會는 현재 살인 강도 인신매매 성폭행 유희 방화 등이 이제 그 정도가 극에 달하여 犯罪와의 戰爭을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國家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豫算審議過程에서 여러 委員들의 누차에 질친 지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國家의 가장 중요하고도 固有機能중의 하나인 이 民生治安의 완벽한不在國家다 라고 저는 규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社會的 事件들을 미연에 방지할 警察까지도 오히려 犯罪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런 法的 權限 없이 또 근거도 없이 유치장에 갇힌 非의자를 폭행하는 것이 오늘의 警察實態입니다. 警察이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입니다. 엇그저께 보니까 일반 犯罪의 犯人들 보다는도 警察이 짓는 犯罪도 많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은 멀쩡한 어린 學生이나 靑少年을 誘引, 拉致하여 手足을 절단하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시킨다는 이른바 앵벌이에 대한 流言蜚語까지 이 社會에 확 퍼져 있습니다. 엇그저께 新聞 보니까 中央

日刊紙 社會面 톱이 바로 그런 記事였습니다. 우리 社會에 이와 같은 事態들이 만연한 까닭은 단지 사건에 연루된 個人的 차원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보다 더 큰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社會의 구조적인 요인 뿐 아니라 政府當局의 政策 부재 및 政權의 마지막 보루인 公權力의 상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政治가 안정되어 있고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지며 民主化가 꽃피우는 社會에서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社會에서 各構成員들이 그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감정만이 난무하는 社會는 이미 보호되어야 할 가치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人間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社會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랄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自愧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總理에게 묻습니다. 國民의 財產과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政權은 이제 그 책임을 저야 할 때가 아닌가. 職務遺棄를 하고 있는 現政權은 國民앞에 사죄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總理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總理!

우리 國民들은 社會的으로는 지극히 불안하고 經濟的으로는 반목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國民들 열이면 열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社會에서 살맛이 난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사람이나 될 것인지? 과연 總理께서도 살아갈 맛이 나는 세상이다 라고 스스로 答辯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建國이후 요즘처럼 부패가 만연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어느 分野 어느 곳이 썩고 타락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道德的 타락에서 오는 성윤리의 파괴 심지어 12세 난소녀가 작부이자 매춘부가 된 이 환락가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土地投機와 變則經濟 및 地下經濟의 난무로

갑자기 졸부가 되어 벌이고 있는 이 과소비와 사치풍조를 누가 막고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습니까? 마약 환각제 복용 등으로 인하여 人間의 基本的 성격이 마비되어 저질러지는 犯罪는 어떻게 방지 할 것인가 이같은 물음들은 우리 모두를 무겁게 짊누르고 있습니다.

일찌기 우리의 위대한 實學者 茶山 丁若鏞 先生께서는 지금부터 200年前에 세상을 살아가는 人間行爲의 기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가지 기준으로

첫째 옳은 일을 하고도 利益을 보는 행위를 제일의 행위기준으로 꼽았습니다.

둘째는 옳은 일을 하고도 損害를 보는 경우이고

셋째는 그른 일을 하고도 利益을 보는 처지이고

넷째는 그른 일을 했기 때문에 損害를 보는 행위로서 가장 저급한 段階로 설정하였습니다.

올바른 世上 살만한 세상이라면 첫 단계인 옳은 일을 하고 정당한 대접을 받으며 利益을 보는 世上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世上은 어떤 世上입니까? 옳은 일만 하면 損害를 보고 굶고 바르지 못한 일을 해야만 이익을 보는 이런 세상으로 뒤바뀐 이 價値顛倒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해야 정상의 계도로 돌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代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理에 대한 質疑가 계속되기 때문에 總理께 물을 質疑에서 한가지를 묻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黨 委員들이 특히 強調해서 質疑했고 어제는 與黨의 李起彬委員께서도 소상한 質疑를 했습니다.

濟州道開發特別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 法案은 濟州道民들 생각에는 자신들을 불리하게 하는 法이기 때문에 절대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法을 通過시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大企業을 중심으로한 大規模의 民間投資를 하게 되면 利得을 보는 것은 大企業들 뿐이다 그런 大企業들에게 이 利益을 주다보면 저절로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人文資源的 保護의 측면

도 길이 없어진다 또 이 法에 의한 開發이 濟州道民들을 철저히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法案 制定 자체를 反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本委員도 지난번에 調查團員의 일원으로 濟州道에 가서 직접 주민들을 상대해 봤습니다마는 단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젊은 사람에서부터 노인네에 이르기까지 다 反對입니다. 試案으로 내놓은 法案을 條文, 條文, 외면서 다 왜 反對한다는 이유를 說明할 정도로 그야말로 濟州道民은 이 反對論理에 의식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어제 李起彬委員께서는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現地出身 議員이신데 그 분이 제기하신 바에 의하면 만 어떤 것보다도 地下水가 문제다 이제 濟州道는 이제 물이 말라버릴 정도다 그렇지 않으면 염분이 섞인 물이 나와버린다 어떻게 하려고 開發만 하느냐 이런 質疑하셨는데 이런 對策이 있어 이 特別法을 提定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總理室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總理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新聞을 보면 濟州道知事라는 분이 記者會見을 해가지고 계속 強行하겠다 그렇게 지금 新聞에 報道 되어 있는데 政府와 상의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獨斷的인 이야기인지 우리 總理께서 밝혀 주시고 만약 것처럼 住民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強行만을 주장하는 道知事라면 그 道知事는 누구를 위한 道知事인가? 그러한 道知事에 대한 問責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總理에게 묻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번에 여러번 여러 委員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共의 經濟政策이 참으로 문제가 많은 政策이다. 60代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60年代 權威主義的인 軍部獨裁 政權下에서 開發獨裁의 주도로 성장해온 韓國經濟는 재벌들에게만 과격적인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그간 수없이 많은 施行錯誤 및 끝없는 부작용을 노출해 왔습니다. 量的인 성장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問題點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90代 들어와서도 韓國經濟의 이러한 기조는 별반 변할줄 모르고 있습니다.

니다.

低賃金, 低穀價에 허덕이면서도 勞働者 農민들은 國家의 經濟發展을 위해 피땀어린 勞動力을 아낌없이 바쳐왔지만 오늘의 현실에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가난과 질시의 멍에 뿐이었다는 것이 너무도 처연하게 반증되고 있습니다. 다만 財閥企業들만 엄청나게 살찌워졌던 것입니다.

本委員의 이같은 진단을 다음의 說明을 통해 보다 낱낱이 지적하겠으니 이에 대한 副總理의 견해를 條目條目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주지하듯이 50年代 末 援助經濟로 출발했던 韓國經濟는 60年代 들어 美國의 援助政策 變化로 인해 借款中心의 有償援助가 이루어지면서 대외의존적 생산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 外資依存 成長政策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출발 당시부터 海外依存的인 취약한 經濟構造를 가졌던 韓國經濟는 70年代 들어 世界經濟의 不況, 그리고 世界市場에서의 保護主義 경향이 강화되면서 對外指向의인 생산구조를 지닌 탓으로 外資企業의 광범위한 도산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 政府는 72年度에 소위 經濟安定과 성장에 관한 緊急措置라는 8·3措置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8·3措置는 당시 韓國經濟의 위기를 經濟原理에 의해서 해결하기보다는 國家權力の 強制力을 발동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도산위기에 빠졌던 財閥들에게 막대한 특혜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73년에는 重化學工業化宣言을 통해 重化學工業에 의해 선도되는 經濟構造를 확립시켰습니다. 물론 重化學工業이 대부분 財閥企業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같은 구조는 80年代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가 의도하는 重化學工業化 및 수출주도의 成長政策은 과잉, 중복투자 및 世界經濟의 불황으로 인해 또 다시 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당시의 經濟指標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81年度에 赤字企業이 차지하는 비율은 全體 重化學工業 가운데 45%에 달했고 이들 企業의 赤字規模는 2,600億원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製造業의 평균 가동률도 50 내지 6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5共政權은 經濟安定化政策이라는 名分아래 重化學工業投資調整, 不實企業整理, 勞働法改惡, 勞働運動彈壓, 實質賃金凍結, 農產物價格統制 등을 통해 또 다시 財閥企業들만을 위한 特惠의 支援 내지 措置들을 취해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主要政策 目標中 하나는 70年代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抑制負擔이 勞働者 農민에게만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70年代 이래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것은 輸入物價 특히 國際原資材의 價格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束手無策이었던 政府로서는 賃金上昇抑制와 이에 필요한 農產物의 價格安定을 통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秋穀收買價凍結과 農產物輸入開放의 확대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政策의 결과를 다시 말하면 成長이데올로기下에서 財閥은 살찌우고 國民 대다수를 차지하는 勞働者 農민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共政權下에서는 이러한 政策基調가 바뀌었는가? 對答은 “절대 아니다” 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構造를 현상적으로는 복잡하게 끌고가면서 強化시켰고 매우 교묘하게 말하자면 매우 세련되게 위장내지는 包裝하고 있습니다. 80年代 이래의 世界經濟의 構造의 특징은 70年代 후반의 科學技術의 發展에 따른 生産의 發展과 이에 기초한 新國際分業이 전개되는 상황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新國際分業을 擔當하는 主體는 물론 거대한 資本을 지닌 超國籍企業이며 이들은 여러나라에 걸쳐 製品을 生産하는 構造를 갖게 됩니다. 또한 金融面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韓國經濟가 對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른바 經濟의 全面的인 對外開放이며 이에 따른 產業構造調整입니다. 經濟의 對外開放을 위해 農水產物市場 資本市場 서비스市場 등을 世界市場에 내놓았고 產業構造調整을 위해 自動車 造船등 在來型重化學工業의 國際競爭力 強化 및 尖端產業에의 進出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6共政權은 결국 美國 등 先進 資本主義國의 經濟開放의 強要와 이에 따른 產業構造調整을 勞動者 農民에게 전가시키는 政策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3共때나 5共때와 마찬가지로 6共의 경우에도 그 政策基調는 獨占財閥만을 위한 것이고 勞動者 農民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構造調整에 필요한 資金支援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國民輿論에 떠밀려 財閥들에 대한 與信을 規制해오던 政策을 바꾸어 與信規制를 철회하면서까지 獨占 大資本에게 엄청난 資金을 支援해 주는 동시에, 勞動者에게는 總額賃金制導入 운운하고 있고 農民에게는 갓은 구실을 붙여 農產物價格을 억제하고 있는데에서 그 徵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政府는 우리 經濟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諸問題 즉 成長一邊度에 따른 副作用을 다소나마 줄여보기 위해 分配 내지는 經濟安定論에 가까운 前 趙 淳副總理를 起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內의 成長強硬論者들에 의해 밀려나고 90年4月4日 이른바 景氣活性化對策을 發表해 成長쪽으로 政策轉換을 했던 前 李承潤副總理가 그 자리를 대신 했습니다. 그런데 前 李承潤副總理는 6共出帆 당시 對國民公約事業으로 約束했던 經濟改革立法을 廢棄하는 역할만을 하고 또 다시 途中下車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副總理에게 묻습니다.

經濟改革立法을 廢棄한 이후 現 副總理께서 經濟政策擔當總帥로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앞으로 6共政府의 經濟政策基調를 변함없이 成長爲主로 主導해 가면서 獨占財閥만을 위하고 勞動者 農民을 소외시키는 政策만을 취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前任 副總理가 廢棄시켰던 金融實名制 土地公概念導入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 누차 물은 質問들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質問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經濟의 構造의인 側面을 歷史的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政府의 經濟政策이 일부 少數 獨占財閥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저는 그동안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제 6共에 들어와 그러한 構造들이 어떠

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재의 經濟 사정을 악화시켜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副總理! 本委員은 현재 우리 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거의 枯死狀態에 빠져 있는 農民問題를 비롯하여 全面的이고 無差別的인 輸入開放問題, 가진 자들의 過消費로 인한 勞動者들의 勤勞意慾減退 國際收支赤字의 擴大 累積, 날로 치솟는 物價 不動產投機, 地價上昇 이미 오를 만큼 올라버린 傳·月賃價格, 通貨膨脹, 방만한 財政運用問題, 金融實名制留保, 土地公概念後退, 中小企業들의 잇단 倒産 產災增加등이라고 보는데 副總理는 과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事項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現 6共和國의 經濟팀은 방금 열거한 이런 經濟懸案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失敗作입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經濟企劃院長官을 비롯한 經濟關聯部處長官들이 이에 대한 責任을 지고 저희 黨에서 계속 주장하는 대로 마땅히 辭退해야 된다고 보는데 總理의 立場은 어떠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物價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일단 不動產價格의 上昇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만일 不動產價格의 暴騰을 진정시키면 物價問題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經濟企劃院은 인플레이션을 서비스 價格이나 農產物價格, 公共料金の 現實化, 勞動者의 賃金上昇에서 찾고 있고 韓國銀行은 通貨量의 過多供給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勞動者의 賃金上昇에 따른 費用增加 및 需要增加 그리고 農產物 서비스價格등의 一方的인 因果關係에서 物價上昇의 主要原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物價의 原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提示되고 이에 따른 각각의 處方을 주장하고 있는데 副總理는 이들의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은 物價上昇의 主要原因을 韓國經濟의 產業構造上 이 生産性 隔差에 의한 인플레이션에서 찾으며 여기에다가 通貨量의 過多供給

이나 膨脹財政 輸入原資材價格上昇 不動産投機 등이 上昇的 作用을 일으킨 것으로 보는데 副總理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6共의 經濟政策은 物價와 國際收支에서 완전 失敗하고 있습니다. 특히 物價의 경우는 一般國民生活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問題라는 側面에서 物價暴騰으로 生活上의 고통을 가중시킨 責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共의 經濟政策 자체가 완전히 失敗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副總理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께 몇가지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상에서 本委員이 지적하고 提起한 이 事項들에 대해 副總理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 答辯이 미비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실 때는 제가 하는 주장이 옳은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것은 모두 是正되어야 할 事項이기 때문에 副總理에게 責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側面에서는 政治的 責任도 감수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분명하게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政政策 및 財政運用에 대해서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政府財政政策의 主要機能은 크게 나누어 資源分配機能 所得分配機能 그리고 經濟安定化機能 등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社會福祉機能이 財政政策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本委員은 이러한 세가지 效率性 및 公平性에 입각해서 政府의 92年度豫算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一般會計豫算案規模中 歲入部分을 보면 昨年 對比 2兆1,227億이 증가한 33兆5,050億 원으로서 內國稅가 86.1% 차지하고 있고 關稅는 10.6%, 防衛稅가 0.2%, 稅外收入이 3.1%로 나타나 있습니다.

內國稅中에서는 所得稅가 28.6%를 차지하고 있고 不當利得稅와 土地超過利得稅는 0.3%입니다. 또한 相續稅는 1.2%입니다.

歲入中 가장 많은 額數를 차지하는 부분은 각종 勤勞稅나 間接稅인 附加價值稅로서 全體 歲入中 32%를 차지하며 所得稅中에서는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歲入構造에 대해 本委員이 지적

하는 점은 아직도 여전히 一般庶民들의 稅負擔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防衛稅나 教育稅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內國稅나 地方讓與稅 등에서 흡수 내지 전환시킴으로써 變則的인 國民負擔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改善方向은 무엇인지 한번 副總理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歲出部分을 보겠습니다.

人件費가 6兆1,751億5,600萬원으로 一般會計中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物件費는 3兆5,675億5,500萬원으로 10.6%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物件費中 辦公費는 7,314億900萬원으로 情報費가 5,761億6,700萬원, 機關運營辦公費가 1,178億7,200萬원, 特別辦公費가 373億7,000萬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92年度 一般會計豫算案의 歲出部分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크게 問題點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6共들이 이 5年만에 우리나라의 財政規模는 2倍로 늘어난 超膨脹豫算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民主黨이 일관되게 주장한 애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 先輩·同僚委員들께서 누차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再論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超膨脹豫算이라는 논란이 一般會計의 規模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政府豫算은 一般會計 特別會計基金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 豫算은 어차피 國家運營의 政策資金에 쓰이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92年度의 경우는 一般會計 33兆5,000餘億 원, 財政投融资特別會計 등 特別會計 18兆5,000億餘 원, 국민투자기금 등 基金 27兆8,000億餘 원 등 도합 80兆餘 원에 달하는 실로 막대한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90年度의 70兆餘 원에 대비하면 10兆 원이 증가한 額數입니다.

물론 本委員이 무조건 總額만이 문제가 있다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政府가 이같은 막대한 資金을 운용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하고 있고 또한 財政運用上의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膨脹豫算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副總理는 지난 13日 答辯에서 어느정도 인정을 하면서 膨脹豫算의 포인트는 糧穀管理基金의 누적적자에 대한 一般會計에서의 出捐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副總理는 당시 언급에서 農民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政府의 경제안정정책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에 있습니다.

本委員은 現 6共政權의 경제정책의 기조에 대해 앞에서 누차 얘기하면서 6共의 經濟政策이 결국은 이 소수 독점재벌등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란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總理, 副總理의 答辯에서 다시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政府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용상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제반 경제정책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韓國經濟의 構造上 大企業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政府는 또다시 農民들의 처절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農民들이 그 간에 우리 經濟의 成長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새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쌀의 輸入 운운하는 실정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副總理를 포함한 政府의 關係者들은 진실된 이야기 보다는 오히려 國民을 거짓으로 설득시키려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묻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만적인 發言을 하지 않을 것과 이에 대한 根本的인 計劃으로써 政府의 產業構造를 農民을 위해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책임있는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情報費 特別辦公費 機關運營費等이 過多策定 되어 있고 또한 그 자세한 使用內譯을 밝히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情報費나 特別辦公費 등은 대부분 政權維持費로써 사용되고 있거나 다른 用處에 유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豫算의 절대적 낭비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들 豫算額은 대폭 削減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副總理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特別會計中 產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2年度特別會計中 產災保險特別會計는 9,840億, 9,105萬5,000원인데 歲入部門은 保險料收入이 9,507億7,992萬4,000원으로 全體歲入中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歲出部門은 다시 保險金으로 全體歲出中 84.5%인 8,319億8,416萬원이 支出되고 있는 반면 產災豫防基金出捐은 493億7,498萬7,000원으로 5.2%에 불과하고 產災勤勞者 보호는 126億8,764萬8,000원으로 1.28%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副總理에게 묻습니다.

이같은 產災保險特別會計는 產災補償 원래의 목적에 어긋난 豫算執行計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3億4,828萬6,000원으로 今年보다 47.3%가 증가한 豫備費의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答辯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軍用施設郊外移轉特別會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年度에도 軍用施設郊外移轉과 관련하여 건물매각대 63億4,100萬원, 토지매각대 4,148億6,629萬8,000원등 官有物賣却代를 포함한 4,952億729萬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歲出部門中 土地買入費는 1,323億9,436萬원으로 賣却資金 32% 즉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軍用施設 土地賣却에 따른 時勢差益의 현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政府 部處別 公報官室 官署當經費特別辦公費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政府는 92年度豫算案 중에서 經濟企劃院등 35個 部處에 總 18億8,399萬1,400원 상당의 豫算을 각 공보관실 관서당경비중 특별관공비로 책정하였는데 그 상세한 사용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특히 公報處는 가장 많은 12億6,488萬400원을 배정했는데 이의 內譯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은 이제 이러한 政府 財政政策 및 운용상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92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第7次經濟

社會開發5個年計劃중 財政部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政府의 第7次5個年財政部門은 財政膨脹 社會間接資本擴充 租稅負擔率 제고로 그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財政膨脹面에서 보면 그 논거로서 韓國의 경제성장 규모에 비추어 볼 때 國家財政이 저성장하였고 生産力이 저하되어 國民生活의 質이 저하된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社會間接資本의 부족으로 공급애로로 인한 국제경쟁력 상실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政府는 道路, 港灣 등에 향후 5年間 總 39兆원의 소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國民 1인당 擔稅額은 91年 80萬4,000원에서 96년에는 153萬원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制度擴大는 다음 세가지 점에서 많은 問題點을 노정하게 됩니다.

첫째 物價不安이 심화되어 國民生活를 압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91年10月 현재 消費者物價指數 9.2%가 말해주듯 80年代의 平均物價가 2.3%선보다 대폭상승한 것은 그간의 擴大財政政策이 큰 몫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財政인플레이로 인해 物價가 급상승할 경우 봉급생활자 勞動者 都市庶民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또한 이 福祉制度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國民年金의 경우에도 파산의 위기에 물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社會保障制度가 낙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次5個年 기간 동안 社會間接資本이 확충되면서 財政이 확대되겠지만 社會保障制度의 운영은 낙후되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그 이유는 國民年金이라든가 雇傭保險制 醫療保險體系 등 社會福祉制度運營은 '受益者 負擔原則' 이면서 租稅負擔은 國民 모두가 떠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독점재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社會間接資本을 확대하지만 租稅는 國民이 부담하게 됨으로서 國民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債券發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債券發行은 일종의 準租稅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租稅制度의 개혁 특히 金融實名制의 실시와 土地公概念의 도입에 관련된 租稅改革인데 이들이 모두 폐기되거나 후퇴됨으로써 國民의 租稅負擔 輕減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副總理!

本委員이 방금 지적한 이 세가지 事項은 91年度에도 그래왔고 92年度에도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改善策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所管部處에 대한 몇가지 豫算問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內務部所管에 대해서 內務部長官에게 묻습니다.

本委員은 冒頭에서 우리 社會가 殺人, 強盜, 人身買賣, 失蹤, 癡藥 등 民生治安不在로 지극히 불안한 상태라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警察이 밝힌 자료에 의하더라도 91年10月 현재 略取誘引이 204件 失蹤이 13件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內務部長官은 이러한 추세가 例年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잔혹한 殺人, 強盜, 失蹤 등이 예사롭게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治安行政의 擔當者로서 이러한 事件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후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 國民들을 불안하게 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長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금은 이 시국사건 등으로 인해 警察力이 부족하지도 않은 실정인데도 民生治安部門에서 이 같은 헛점이 노출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에 대한 根本對策은 없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차례 이야기된겁니다마는 人身을 保護하는 또 유치한 유치장에서 警察官이 留置者에 대해서 暴行을 한 이런 人權蹂躪事態에 대해서 더 根源的인 解決策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見解인데 그 점에 대해서 內務部長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部所管豫算에 대해서 몇가지 보겠습니다.

內務部所管 豫算은 歲出總計가 4兆1,451億 9,745萬원으로 91年對比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人件費는 15.4%가 증가된 반

면 官署當 운영비와 其他 事業費가 각각 67.5%, 60.4%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其他事業費는 事業의 성격이 애매하고 그 실효성 또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運營費나 事業費는 今年 水準으로 동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長官의 見解는 어떠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內務部所管 豫算案에 대해 몇가지 더 質問하겠으니 長官께서 책임있는 答辯을 바랍니다. 이것도 거론된 문제입니다마는 강조한다는 의미에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 및 地域社會開發 項目에서 우수마을특별지원을 위해 34億9,900萬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목적이나 선정기준 등이 전혀 밝혀있지 않고 또 自治團體에 대한 資本補助가 總 支援額의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選舉에 대비한 정치성 선심사업임이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수마을특별지원금은 全額 削減하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주장인데 長官의 意思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局 運營費로 4億6,887萬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使用內譯에는 民防衛創設紀念會라든가 施策教育, 民防衛講師, 간담회등 不要不急한 사업들에 대해 豫算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豫算을 낭비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黨이 주장하는 2億3,400萬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長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새마을運動中央協議會補助로 15億, 바르게살기運動中央協議會補助로 25億원등 40億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民間에 대한 補助입니다.

이것 여러차례 거론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 당연히 削減할 것으로 아는데 削減하겠다는 말씀을 長官께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出勤하면서 보니까 瑞草洞에 보면 “인사하는 얼굴 예쁜 얼굴 인사없는 얼굴 미운 얼굴” 그리고 바르게살기運動 워 瑞草區協議會로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유치한 用語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일하는데 우리 豫算支援을 해주겠습니까? 어디 國民學校教室에다나 붙여 놓

으면 모르겠어요. “인사없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말이 되지를 않아요. 하는 짓거리가 그런 짓거리입니다. 바르게살기運動이라는 것이...

아침마다 車를 타고 오면서 그것을 보면 내가 눈이 가려집니다.

저기에 우리 國民의 血稅가 들어가고 있구나... 全額 削減을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무리 이들 團體에 대한 國庫支援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來年은 選舉철이고 그래서 來年 1年만이라도 全額 削減할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國民運動組合企劃調整을 위해 6,153萬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使用內譯은 優秀마을 特別支援事業 推進實態點檢, 健全生活運動 推進實態 確認 등 國內旅費와 國外施行 그리고 새질서새생활 實踐計劃書, 새질서새생활關聯標語, 바르게살기運動 關聯計劃書, 長官書翰文 發送등 수용료 및 수수료 비용 懇談會費 會議費 등을 위한 特別辦公費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內譯은 대부분 불필요하거나 2중의 豫算을 배정한 것으로 예산을 현저히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낭비요소가 있는 豫算은 당연히 削減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長官께서도 “削減하겠습니다”하는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方行政研修院運營에는 情報費가 4,380萬원, 機關運營費 辦公費가 2,467萬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려 今年對比 152.2%가 증가한 1億2,187萬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長官에게 묻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施設裝備維持費는 데모鎮壓 教育용으로 추정되는데 92年度에 이와 같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今年水準보다 낮게 策定하는 것이 現 지금 時局 추세로 봐서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見解인데 長官의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央民防衛學校 운영과 관련하여 基準경비 1億489萬7,000원중 정보비 및 機關運營辦公費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중 特別辦公費 내역에는 統長 里長과의 간담회비, 民防衛세미나 간담회비, 시책교육 간담

회비등 지극히 불필요한 부분에 豫算을 編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분에 대한 예산삭감은今年 수준으로 동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長官의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讓與金 1兆2,506億2,900萬원,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이에 대한 歲出內譯을 보면 全額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讓與金으로 되어 있는데 그 內譯에는 地方道路事業, 農漁村地域開發事業, 環境改善등 이런 事業입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들 事業 또한 內務部長官 소위 選舉主務長官인 內務部에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豫算입니다. 그래서 이 豫算은 法定豫算이기 때문에 깎으라고는 할 수 없을 것같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어디 어디 쓰겠다 어느 道에 얼마를 보내주고 어느 直轄市에 어느 特別市에 얼마를 보내겠다는 細目を 미리 우리 國會에 밝혀 주시고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總額으로 두어 가지고 長官 마음대로 미운놈 안 주고 예쁜사람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이 豫算의 運用에 대해서는 절대 反對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運用計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本委員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警察廳豫算이 문제가 많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防犯管理 少年犯罪豫防活動중 民間人에 대한 經常補助費로 지금 많이 策定되어 있는데 이 靑少年團體經常補助費가 3億5,100萬원을 策定해 놓고 있는데 도대체 이는 어떤 根據에서 이런 豫算이 지금 策定되어 있고 이 靑少年團體라는 것이 무슨 團體인가 저는 모르겠는데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警備管理事業費는 總經費의 99.1%에 해당하는 60億5,307萬5,000원으로 이 중에는 非常動員手當 등에 사용하는 警備警察活動費가 52% 警護警備要員 活動費가 6.3%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特攻隊運營費에는 8.6%가 配定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情報管理事業費에는 治安情報活動費로 10億1,174萬3,000원이 策定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데모파잉 진

압용 豫算으로 民生治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大幅 削減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民生治安部分으로 돌려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長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各 地方警察廳所管 情報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地方警察廳을 비롯한 13個 地方警察廳은 搜查活動情報費, 情報活動情報費, 保安活動情報費, 警備活動情報費등 總 情報費가 573億4,467萬2,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警察廳을 앞으로 情報廳이라고 이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額數는 主要事業費 797億3,262萬4,000원의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情報費는 治安情報活動費, 保安情報活動費, 外事情報活動費, 警護要員活動費, 私服機動隊士氣振作費, 特別搜查機動隊要員活動費 등에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자세한 使用內譯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私服機動隊士氣振作費 같은 것은 特別辦公費에도 策定되어 있어 현저한 豫算浪費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들 情報費는 政權維持次元에서 對國民, 在野, 野黨에 대한 查察用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데모過剩鎮壓用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不要不急한 浪費豫算에 대해서는 全額 削減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長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豫算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91년에는 警察廳 옛날 같으면 治安本部입니다. 여기는 지금 情報費가 19%나 減少되었는데 地方警察廳 즉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地方警察局이 되겠지요. 여기에는 전부 지금 豫算을 두 배이상 전부 增加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情報費의 過多策定을 뭔가 지금 수상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情報費야말로 오히려 治安維持나 民生治安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人權의 彈壓쪽 오히려 反民主的인 要素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本委員의 견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좀 削減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國防部長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國防部豫算이 그래도 지금 來年度豫算中에서는 削減할 要素가 있지 않느냐라고 野黨委員들이 주로 지적하니까 어제는 長官께서 아주 그냥 겁을 주게끔 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는 이야기 마시고 저는 하도 여러분들이 削減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削減쪽보다는 차라리 현재 이 戰力增強投資費로 國防部豫算의 33%인 2兆7,827億원이 지금 計上돼 있는데 이에 대해 國防部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참 그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論理의 妥當性을 檢證하기 전에 戰力增強이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높은 防衛費 負擔을 경감한다는 의미에서 좀 年次的으로 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長官의 견해를 제가 묻겠습니다.

다음은 法務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法務部長官에게 良心囚가 있다면 깜짝 놀라면서 良心囚는 없다고 그러십니다. 뭐 良心囚도 좋고 長官이 말씀하시는 時局關聯事犯도 좋습니다. 무려 1,316명이 拘束되어 있습니다.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年末이 또 다가옵니다. 歲暮가 되면 자식들 친척들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때가 됩니다. 이제 아마 그들이 收監生活을 할만큼 했는데 좀 釋放을 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國民和合次元에서라도 6共이 民主政府라는 뜻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釋放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長官께서 大統領의 赦免權을 활용할 수 있도록 建議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요즘 세간에 참 우스개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新聞 만화를 보면 드러납니다. 遺書代筆事件입니다. 저는 그 事件이 막 났을 때 지금 拘束되어 있는 姜基勳씨를 제가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遺書代筆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어떤 것인데 遺書를 代筆합니까? 지금 요즘 新聞을 보니까 裁判에서 막 드러납니다. 檢察이 유력한 證人으로서 보호했던 홍성은씨가 陳述을 반복함으로써 姜基勳씨에 대한 혐의가 벗겨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檢察이 이 犯罪를 조작했지 않느냐 이런 우

려를 우리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事件에서 姜基勳씨의 遺書代筆을 檢察이 조작했다고 할 때 이 政府의 道德性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檢察이 주장하고 있는 姜基勳씨의 代筆事件에 대한 한번 長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裁判에서 檢察이 이길 자신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新聞을 보니까 오래 전에 俞成煥前議員께서 國會에서 發言錄을 미리 新聞에 배포했다는 뜻으로 拘束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執行猶豫로 나오고 어제는 公訴棄却判決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事件이 일어난 당시에 이것 公訴棄却될 事件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5共時節의 檢察의 公訴權 濫用의 본보기다 이렇게들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檢察은 억울하다고 上告를 한다고 마침 報道가 나왔습디다마는 가봐야 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당시 그 事件의 搜查와 公訴에 관여했던 檢察의 입장은 오늘은 무엇인가? 지금 그 當事者들은 지금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우리 長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勞動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勞動부가 참 또 문제가 많은 部署입니다.

勞動部는 勞動監督業務支援 名目으로 서울을 비롯한 5個 直轄市 地方勞動官署에 總 7億4,687萬원의 豫算을 策定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情報費가 5億9,160萬원으로 그 事業費의 79.2%,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公共料金으로 카폰使用料 2,373萬6,000원과 無線呼出機 3,705萬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各 勤勞現場의 勞組活動에 대한 査察과 彈壓을 위한 豫算配定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警察도 아닌 勤勞者監督官이 카폰이며 無線機를 大量으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勞組彈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勞組運動을 제대로 하게해서 生産性을 높이는 일이 勞動部 主任務인데도 이들의 彈壓에만 豫算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

따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勤勞者福祉情報費가 1億6,380萬원, 勤勞者福祉運營支援情報費가 6億3,300萬원, 勞動委員會情報費가 1億2,960萬원등 다분히 勞組彈壓用豫算만 가득가득 이렇게 計上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豫算의 사용내역을 먼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 豫算은 勞動現場의 생산성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浪費性 豫算이기 때문에 全額 削減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長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限 長官께서는 勞動者들이 勞動條件을 갖추고 제대로 生産性을 向上할 수 있도록 支援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崔長官께서는 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公報處長官께 물읍니다. 公報處는 自由守護團體支援이라는 명목으로 韓國自由總聯盟에 23億8,353萬4,000원, 세계자유민주연맹사무국에 1億1,194萬3,000원, 종합안전보존시장에 2億4,314萬4,000원, 전국청년운동협의회에 1億1,177萬5,000원, 국제교류단체에 3,388萬2,000원등總 28億8,427萬8,000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 豫算을 削減해야 된다 말씀 안해도 우리 長官께 여러차례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 全額 削減을 저는 要求합니다.

(金塔泰委員長, 洪熙鈞幹事와 司會交代)

長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國家가 일만 잘하고 있으면 저절로 말 안해도 國民은 다 알아먹습니다.

新聞에도 나고 텔레비에 나갑니다. 무슨 國家가 하는 일을 廣告한다고해서 廣告費를 이렇게 많이 策定해 놓고 계십니까? 이것 제가 과거 文公委員으로 있을 때 이것 策定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國家가 무슨 廣告를 합니까? 일만 잘하면 저절로 國民이 따라주고 알아주는 것이지... 이것은 全的으로 政權維持費 내지 體制維持費라는 側面에서 國民生活이나 福祉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國民 血稅의 浪費입니다. 그래서 이 廣告費 32億9,460萬원, 全額 削減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長官의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院長官에게 물겠습니다. 統一院에도 豫算이 잘못 많이 編成되어 있습니다. 情報分析한다고 해가지고 8億5,944萬2,000원, 統一有關團體活動支援을 위해 21億1,780萬원, 또 統一研修實施를 위해 42億5,000萬원 이런 예산들 아무리 보아도 不要不急한 예산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말이 統一이지 사람 모아놓고 다른 의도를 나타내려는 그런 豫算으로 보여 집니다. 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平和統一推進協議會라든가 全國에 1萬名 모여 놓고 그 사람들에게 諮問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1萬名이 무슨 諮問을 해 줘니까?

그것 다 유력한 사람들 모아놓고 밥 한끼 주고 政府에 協助하고 選舉 때 도와달라는 그런 것으로 다 보여 집니다.

아무튼 그런 豫算 全額 削減을 제가 강력히 要求하는데 우리 長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外務部所管 92年度歲出豫算案 2,730億5,670萬7,000원중 60%가 在外公館運營으로 計上되어 있고 對外協力으로 381億4,517萬7,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歲出豫算에서 外交活動을 위한 기타 사업비 내역을 보면 정부활동 특수활동비가 111億2,945萬4,000원으로 기타사업비중 70.8% 사업비중 68%, 외교활동비중 3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本委員이 재차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政務活動, 特殊活動費는 安企部가 마음대로 갖다쓰는 돈입니다. 그외에도 經濟外交特殊活動費로 26億9,541萬5,000원, 對 유엔특수활동비가 6億2,395萬원, 領事 僑民特殊活動費가 8億5,732萬원, 保安維持費가 3億2,471萬원, 外交安保研究特殊活動費가 9,696萬원, 都合 157億2,781萬1,000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지금 安企部豫算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인데 우리 外務部長官께 물읍니다. 이런 特殊活動 情報 保安字가 들어 간 예산은 아무래도 外務部豫算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豫算은 全額 削減을 하든가 아니면 이 豫算의 使用處가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產部長官에게 물겠습니다.

91年度 秋穀收買價와 관련하여 우리 民主黨

이 주장하는 통일비 10% 일반비 15% 收買  
量은 1,100萬섬 이상을 農民 희망대로 全量  
收買해 주어야 하는것이 지금 요구인데 우리  
農林水産部에서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榮山江 農業綜合開發事業·第2  
段階 事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榮山江流域農業綜合開發事業 第2段階事業이  
76年 하구둑을 시발로 착공하여 '80년에는  
배후지공사를 82年度부터 干拓地工事を 착공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83年度  
에 끝나도록 계획되었으나 政府豫算의 소액배  
정으로 '76년부터 시작된 공사가 '94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19년이 소요되는데 大單位 特定地域에 대한  
정책사업이 지역균형 발전의 형평성이 결여됨  
으로해서 地域住民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政府  
政策事業이 이토록 長期化된다면 지역주민으로  
부터 政府에 대한 不信은 대단할 것으로 생  
각됨은 물론 干拓地 1,580ha의 農地分配 지  
연과 2,000ha의 未着工 干拓地 지선민의 갈  
등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될뿐  
만 아니라 '92年度 政府配定豫算 內譯을 보  
면 겨우 50億원에 불과하고 事業費 또한  
630億원이 남아있어 '94年 완공이 불투명하고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한 민원과 동요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데 이 소요액 200億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 當局의 要求입니다.

따라서 政府가 책정한 50億이외의 부족분인  
150億원은 農地基金에서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本委員은 여기는데 이에 대한 農林水産部の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農林水産部이야기입니다마는 트롤漁  
業에 대한 문제입니다.

91年5月2日 현재 대형트롤어업의 許可件數는  
總 90件이며, 水産廳이 원래 계획했던 60件  
보다 30件이 더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내용을 보면 全南은 2件에 불과하고  
釜山·慶南地域에는 88件이나 허가 되었습  
니다. 이는 지역적 편중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全南地域에도  
이런 트롤어업을 좀 할 수 있는 方法이 없  
는가 또 가능하다면 그 쪽에도 許可를 내주  
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現地住民들의

要求인데 이에 대한 사정이 어떻고 또 이에  
대한 改善策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너무 長期間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建設部長  
官에게 묻습니다.

公示地價에 대한 稅法 적용상의 모순에 대  
해서 建設部長官에게 묻습니다.

현재 地價 算定과 土地超過利得稅 課稅에  
대한 다소의 問題點이 있습니다. 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 公示地價를 근거로 建設部에서  
地價를 산정하고 土地超過利得稅는 國稅廳에서  
과세하게 되는데 現行法 대로 한다면 만일  
異議가 있을 때 建設部長官에게 異議申請할  
경우 長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을  
때에는 異議申請者가 아무런 法的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稅法 적용상의 問題點을 해  
결하기 위하여 公示地價 산정의 경우 객관적  
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制度的  
장치의 마련과 異議申請에 대해 建設部長官이  
조정할 수 없는 權限을 第3機關에서 審査할  
수 있도록 法的 制度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長官의 견해는 무  
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稅法 적용상 모순점이 가장 극명  
하게 제기되는 예는 瑞草洞 法院團地 앞의  
비닐하우스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의 경우처럼 所有者와 賃貸者 契約關係가 없  
는 유희지로서 무허가건물이 무단 점유되어  
行政官廳의 철거 요청등 무단 점유가 확인된  
대지에 대해서는 土超稅 및 所有負擔金이 면  
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長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뒤입니다. 瑞草洞 法院 檢察廳 큰  
건물었는데 그 앞에 가서 보면 서울 한복판  
에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政府가 전국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對策班  
을 구성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中長期  
對策을 세움으로써 무주책 영세민을 보호할  
수 있는 法的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서 長官의 견해는 어떠한지...

法院 檢察廳團地의 경우 서울시의 건축규제

한도인 18m이하 5층이하로만 제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地域 地區를 조정하고 지역도시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그에 따른 開發利益金으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建設 등을推進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報道를 보면 평준화지역을 해제한다고 해가지고 原州地域 春川地域에서 학생 학부모가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등교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資料에 보면 그 地域의 70%에 가까운 住民들이 教育部措置를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있어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그 실상은 어떠한고 그렇게 住民들과 學生들이 반대하는데도 그 制度를 강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動資部長官께 묻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私立이든 公立이든 學校運營費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 動資部長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學校나 電氣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電氣料金 算出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電氣料를 산출하는 데는 業務用, 産業用, 農業用,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의 경우 學校에 부과되는 電氣料金を 農業用으로만 부과해도 學校運營經費에 많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력상태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教育을 우선한다 또 教育은 百年之大計라는 차원에서 각급 학교의 電氣料金を 산정하는 경우에 公·私立學校를 막론하고 최저적용율인 農業施設用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學校豫算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인데 이에 대한 動力資源部長官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洪熙杓 다음은 民主自由黨의 林茂雄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茂雄委員 民主自由黨所屬 京畿道 富川市

中區出身 林茂雄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오늘 13代 國會도 그 마감의 시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1992年度 政府豫算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깊은 감회와 함께 절로 숙연해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副總理 및 國務委員 여러분!

우리는 지금 總規模 33兆5,050億원이라는 '92會計年度 政府豫算을 심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질책과 토론의 場이요 견제와 감시의 場이며 與野 할 것이 없이 하나가 되어 밖으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國際社會에서 나라의 지위를 드높이고 안으로는 共同體 모든 成員들의 운택한 삶을 보장하여 보다 밝은 선진 미래를 지향하고 모색하는 실로 그 임무가 막중한 자리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同族相爭이라는 精神的 物質的 폐허위에서 불과 100弗도 안되는 國民所得의 배고픔을 안고 국제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됐던 우리경제가 5,000弗 소득이라는 오늘의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釜山港을 떠난 우리의 상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자랑스럽게 달고 世界人의 생활 곳곳에서 우리의 자긍심을 떨치기 시작한지가 불과 얼마전 이전만 우리는 또 다시 100億弗이 넘는 貿易赤字國이 되고 말았습니다.

漢江의 기적을 이룬 우리 국민의 근면성과 검소한 근로정신은 찰나주의와 한탕주의라는 세균에 오염되어 이제는 그 자취마저 흐려져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미덕은 날로 심화되는 불신과 갈등속에 묻혀버리고 급기야는 추억이 되어 버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國家의 장래에 밝은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앞에 그 嚮導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政治人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責任意識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總理와 國務委員 여러분!

本委員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맘의 결실들이 한때의 실수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本委員會의 質疑에 임하는 사회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質疑에 들어가면서 本委員은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對内外與件을 극복하기 위한 총괄적 대안으로서는 바로 왕성한 經濟力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企業의 投資意慾을 부추기고 勤勞者의 勤勞精神을 함양시키면서 불합리한 소비구조를 개선해서 貯蓄心理를 고양시킬 때 社會의 心理學的 측면에서 우리 經濟의 前後 左右가 맞아 떨어져 새로운 도약의 轉機가 마련될 수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副總理께서는 來年度에 우리 經濟의 運營 기조를 本委員이 지적한 社會心理學的인 經濟力 회복의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2年度 政府豫算을 두고 가장 論難이 심한 膨脹豫算에 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여기 野黨委員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은 膨脹豫算은 그 자체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豫算構造의 적절함과 집행의 충실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産業發展에 근간이 되는 社會間接資本 및 國民生活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福祉部門에서 來年度 政府豫算은 적지않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社會間接資本을 보면 來年度 一般會計 規模가 政府의 주장대로 今年 最終豫算 對比 6.8% 增加했다고 할 때 全體 豫算은 2兆1,200億원 增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人件費와 防衛費 地方交付金 基本行政費 및 豫備費등 소위 말하는 硬直性 經費는 今年 19兆5,420億원에서 내년엔 22兆3,620億원으로 무려 2兆8,200億원이 증가하여 결국 내년 豫算 增加分은 몽땅 이 硬直性 經費에 들어간 셈이 됩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政府가 膨脹豫算의 명분으로 주장해온 社會間接資本의 확충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사실인바, 이에 대한 副總理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福祉部門에서도 國民住宅建設支援資金을 今年對比 2,000億원 삭감하고 있으며 영세민 직업훈련비 저소득층 생활용자금 등이 전혀 本豫算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福祉部門 全體豫算도 표면상 8.6%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財特을 비롯한 特別會計에서 들러쓰는 것을 감안하면 一般會計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소한 결과가 됩니다.

특히 歲入側面에서 來年度豫算案을 보면 政府가 거두어 들일 稅金은 國稅만 33兆5,050億원으로 이는 今年度 總 歲入豫想額 32兆3,704億원에서 90年度移越分 2兆8,147億원을 차감한 실제 징수세액 28兆5,676億원에 對比 무려 17.3%나 늘어난 결과가 됩니다.

특히 勤勞所得稅가 前年對比 39%나 늘어나, 결국 物價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庶民家計에 20%에 달하는 租稅負擔率을 안기게 되는데 이는 先進美國의 20.8%, 日本의 22.1%와 맞먹는 수준으로서 이들 나라의 福祉水準을 감안할 때 심각한 조세저항마저 우려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副總理! 우리 국민들의 얼굴표정과 우리 政府의 福祉政策은 정비례 함수관계에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매달의 봉급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영세민들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얼굴이 썩그러질수록 우리의 政治氣象圖는 흐리게 나타나고, 이는 다시 사회심리적 경제력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재생산구조를 압박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경제수준을 넘어서는 福祉政策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소위 膨脹豫算이라고 불리워지는 來年度 豫算과 國民福祉와의 관계에 대해 副總理께서 소상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中小企業支援問題에 관해서 몇 가지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中小企業의 육성에 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 경제가 産業化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기되어 온 해묵은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

러문제 중 특히 國際競爭力 弱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수입초과현상, 파행적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 3次産業의 기형적인 비대화 등은 바로 우리 政府의 中小企業에 대한 政策의 실패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本委員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國民經濟에서 中小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經濟成長이 있기까지 中小企業은 우리산업의 밑거름으로서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우리산업의 뿌리인 中小企業에 심각한 적신호가 울리고 있건만 政府의 대응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稼動率 80% 이상인 中小企業의 비율은 85.3%로서 올 上半期 평균 86.3%에 비해 하락하고 있으며, 휴·폐업 업체수도 400餘業體에 달해서 실로 國民經濟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안이한 대응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은 사실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다 構造的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政府의 온갖 노력과 中小企業 자체의 自救努力에 의해서 절대적인 設備投資는 늘어나고 있지만 附加價値는 날로 낮아지고 수익성이나 재무구조 역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우리 國會에서도 지난 89年3月 對內外與件의 악화에 能動的으로 대응하고 中小企業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經濟發展을 도모하기 위해서 中小企業의 經營安定 및 構造調整促進에 관한 特別法을 制定한 바 있으며 同 法에 의거하여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을 92年까지 1兆원 이상 造成키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來年度 政府豫算案에 관한 商工部提出자료를 보면 同 基金으로 1,600億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副總理! 과연 이 豫算으로 수만개에 달하는 우리의 中小企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쓰러져가는 中小企業을 살릴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國會에서 特別法까지 制定해서 92年까지 1兆원 이상의 基金을 造成하기로 한 의도는 中小企業을 高技術, 高附加價値産業으로 육성하고 經營安定을 도모하는 것이 이 나라 經濟 全般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인데 과연 政府는 그러한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政策을 견지하고 있는지 副總理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本委員은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이 중건의 中小企業振興基金을 흡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構造調整基金이 融資形態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同 基金 자체적으로 기술개발 등 구조조정작업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來年度豫算案중 構造調整基金이 1,600億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중 100億원만이 出捐形態이고 1,500億원이 融資形態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出捐形態로 전환해서 實質的으로 본來的 趣旨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産業現場의 人力不足問題는 資金問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섬유와 기계 등 中小製造業體의 技能人力不足率은 23%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政府에서도 그동안 人力難에 대응하기 위해서 理工系大學 增員을 비롯해서 공업계 전문대학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을 대폭 확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는 이러한 量的인 供給擴大 政策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선 理工系大學 增員計劃을 살펴보면 '92年度에 4,500名을 增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 增員에 따르는 豫算上的 지원은 얼마나 計上되어 있는가를 副總理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말미암아 실험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공학교육 여건에서 豫算上的 획기적인 지원도 없이 우선 급하다고 增員만 추진한다면 이는 실적위주의 舊時代的인 행정 양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副總理는 이러한 理工系大學이 획기적인 교육투자를 통해서 기술인력을 양성을 하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具體的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人力不足時代가 계속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 우리 經濟의 경쟁력을 키우는 첩경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앞으로 副總理께서는 政府의 投資優先順位를 인력중심으로 정하면서 민간에서 인력양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稅制와 金融上의 각종 支援方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政府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輸出支援擴大의 문제로서 10월까지 수출은 10% 정도 증가한 반면 輸入은 20%가 넘게 증가해서 通關基準으로 본 貿易收支赤字가 100億弗을 넘고 있는데 輸入을 제한하는 것은 國際 通商與件上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赤字 해결을 위해서는 輸出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길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輸出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企業이 外國企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先進國과의 기술수준의 격차는 여전히 한 가운데 매년 賃金引上率은 競爭國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으면서 기업의 수출여건은 날로 어려워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金利面에서도 우리 企業은 훨씬 불리한 여건에 처하여 있습니다.

지금 實勢金利는 20%선을 넘나들고 있으면서 경쟁국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金利를 負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企業의 불리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輸出業界에 대한 資金支援이 절실함으로써 과거 흑자시기에 축소되었던 貿易金融을 과거 수준으로 확대해서 대기업에게도 貿易金融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財務部長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政府가 제시한 京仁高速道路 및 京水高速道路 乘用車 通行制限의 문제에 관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政府는 고속도로 승용차 통행제한을 그간의 격심한 교통체증이 製造業, 輸送費, 증가등 제조업의 競爭力 약화의 主要原因중 하나로 보고 그에 대한 代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本末이 전도된 政策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政府는 이미 京仁間 交通체증 解決方案으로써 국도 6호선개설공사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第2 京仁高速道路 등을 90년부터 96년까지 각각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政府는 강압적인 政策이 아닌 投資에 의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 위 事業에 集中投資해서 계획된 도로를 조기 완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建設部長官께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조업 특히 中小製造企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비틀거리는 韓國經濟의 토대로 형성시켜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위에 政府는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政策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政策提示와 아울러 적절한 豫算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같은 맥락에서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보하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 개설공사에 豫算을 집중적으로 投資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副總理 및 國務委員 여러분!

本委員은 이제 새해 豫算案에 대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政策質疑를 마치면서 우리 국민 모두의 화합된 노력에 의해서만이 그 해결이 가능한 質疑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副總理!

本委員은 가시적인 豫算의 編成과 執行뿐이 아니라 국력의 소모와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기반을 유지하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중요한 豫算政策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副總理께서는 4大選擧가 예정되어 있는 내년의 국력소모 방지책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來年 봄은 總選과 공장의 임금인상투쟁 나아가서 學園問題 서민생활문제등 여러 이슈들이 동시다발로 제기되어서 한번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운위되고 있는데 副總理께서는 이에 대한 政府의 준비사

항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副總理 및 國務委員 여러분! 우리가 豫算案을 審査하고 議決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라의 살림을 보다 정교하고 알차게 꾸러가기 위한 목적에서이지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政府豫算案은 4,200萬 국민의 생활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심의 대상일 뿐이지 그 어떤 흥청이나 거래의 볼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대단히 기초적인 인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豫算案의 심사를 놓고는 興와 野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立法府와 行政府의 민주적 관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실로 중요한 이 시기에 모두가 화합해서 밀려오는 外壓을 이겨내고 굳건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本委員의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質疑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洪熙杓 끝으로 權達洙委員 나오셔서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權達洙委員 오늘 이제 연이어서 계속되는 質疑에 의해서 委員長님 先輩·同僚委員님들 또 副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 분들이 아주 피로하실만큼 우리 國家運營을 위해서 質疑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순서로는 제가 마지막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民主自由黨의 權達洙委員입니다.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先輩·同僚委員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本委員이 92年度豫算案을 보는 시각은 그동안의 豫算編成은 安保 등에 중점을 둔 경직 예산 비중이 컸던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시절 미흡했던 農漁村構造改善 도로 항만 환경개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그 비중이 높아감에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경제는 高賃金에 비해 낮은 생산성으로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무역수지 赤字는 계속 증대하고 있어 근로의욕 고취와 輸出活性化를 위한 여건조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92年度 豫算編成은 무엇보다도 產業競爭力 強化와 제조업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社會間接資本施設 擴充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來年과 後年內에 그 성과를 보고자 하는 質疑보다 대망의 2000年度에 우리 사회가 진정 살기좋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튼튼히 하여야 한다고 보는 부분을 골라 중점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혀 두면서 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年度豫算案과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質疑하고 細部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企劃院長官에게 묻겠습니다.

92年豫算案에서 繼續費는 90年, 91年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사업예산보다 수정사업예산이 287億 더 많게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IBRD 5次 借款道路는 자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총 사업비 증액 및 교통혼잡구간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繼續費 期間을 1年間 단축했다 하고 있고 기간국도는 地價 및 물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및 년부액을 수정하는 한편 잔여사업비를 감안 계속비기간을 1年間 연장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IBRD 5次 借款道路와 기간국도사업이 총사업비가 IBRD 5次 借款道路는 증액하고 기간국도는 삭감한 이유를 설명하고 기간국도사업도 IBRD 5次 借款道路事業처럼 繼續費 期間을 단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財政證券의 발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豫算會計法에서 정한 財政證券의 발행은 일시적인 國庫金의 출납상 부족이 생겼을 때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행토록 되어 있는데 歲計剩餘金이 發生하고 있는 상황에서 財政證券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財政證券發行으로 발생하는 이자분 歲計剩餘金으로 상환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企劃院長官은 시정연설에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고 했는데 教育環境改善은 91년에 비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歲計剩餘金の 사용이  
이자로 상환되는 것보다 92년에 증액되지 않  
은 特別會計 즉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 등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 新設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92年度에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農  
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를 신설하고 同會計의  
수입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해당액  
과 農地轉用負擔金を 그 財源으로 한다고 하  
였는데 農地轉用負擔金 외의 세입은 특정한  
세입으로 볼 수 없어 豫算會計法上 特別會計  
設置要件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설치  
경위와 이전의 一般會計 및 財政投融资特別會  
計에서 지원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볼때 달리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稅收推計에 대해 묻겠습니다.

稅收推計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을 \*임금상승을  
환율 및 수입규모등 지표중에서 稅目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年度豫算案에서 추계방  
법을 변경한 비목과 변경한 이유 그리고 변  
경함으로써 정확한 稅收推計를 위한 기대효과  
는 어떠한지 一例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92年度 對外經濟協力關聯豫算은 모두  
1,125億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對外  
經濟協力基金에 대한 出捐, 100億원과 융자,  
300億원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500億원과  
융자 225億원 입니다.

국제수지 적자가 100億弗을 넘고 있어 경  
계의 내실을 기해야 할 時點임을 고려할때  
1,125億의 규모가 적정수준이라고 보어는지  
묻고 싶으며 對外經濟協力基金을 出捐과 융자  
로 나눠 계상한 이유 또 輸出入銀行에 대하  
서도 출자와 융자로 나눠 계상한 이유를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제여건이 昨年보다 어려운점을 고려  
할때 對外經濟協力基金이 昨年보다 적어야  
된다고 보는데 91年과 똑같이 300億으로 계  
상된 이유를 설명하고 91年豫算에 수출입은행  
에 1,000億이나 융자를 해주었는데 來年度에

또 225億을 융자해줄 필요가 있는지 1,000億  
의 집행현황과 대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經濟企劃院長官에게 묻겠습니다.

産業人力管理公團의 급여 현실화의 문제입  
니다.

産業人力管理公團의 급여기준이 교육공무원이  
나 타 출연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  
이 오랫동안 계속돼오고 있습니다만 政府出捐  
機關의 賃金引上率 5% 以內라는 政府指針에  
의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더욱 벌어질 전  
망입니다.

産業人力管理公團의 교사직 보수를 공고 교  
사와 비교해보면 무려 37%나 낮은 형편이고  
一般管理職의 경우 5級 5號俸의 기본급을 비  
교해 보면 産業安全公團이나 勞動教育院에 비  
해 각각 20%와 24%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離職率은 계속 늘어  
날 것이고 技能人力 養成을 위한職業訓練 활  
성화로 産業人力 需給의 원화에 일익을 담당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전 사업장에서는 職業訓練忌避로 인한  
技能人力不足으로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안  
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나 產  
業人力公團의 노하우 축적을 위해서도 유능한  
인재의 유치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經濟企劃院에서 產  
業人力管理公團에 대해서는 政府出捐機關 임금  
인상 5%선 유지라는 政府指針을 없애야 하  
며 企劃院長官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일  
반교사직과 동등한 보수제를 시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經濟企劃院長官에게 묻겠습니다.

다음은 京釜高速電鐵事業과 관련하여 준공시  
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모색에 대해  
묻겠습니다.

鐵道 및 道路의 交通積滯로 인한 연간 손  
실액은 1兆2,000億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할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방  
법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京釜高速電鐵化事業의 總 投資費는 89年 기  
준 6兆원이나 그동안 인플레이를 감안하면 98  
年 준공시 정산 투자총계는 8兆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政府가 建設費의 50%를 지원한다해도 나머지 4兆원의 연간 이자상환금 10%를 계산하면 연간 4,000億원에 이르며 전체를 지원할 경우는 연간 8,000億에 이릅니다.

현재 京釜線 停車예정역 6個 驛의 연간 매출액은 90年度에 1,700億정도에 불과하여 연간 8,000億의 利子補填을 위해서는 현 새마을호 요금의 4배에 이르는 서울 부산간 6萬원 서울 대전간 2萬5,000원을 책정하여야 할 것인데 料金策定을 높게 할 경우 기존 여객의 외면은 물론 고속버스나 항공기와의 경쟁에서 뒤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은 先進國 高速鐵道運營體는 기존 철도와 새 철도가 한 노선위에서 경합 운영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객수송을 한 노선에서 2개 철도로 경쟁시키므로 新鐵道 6個 驛의 기존여객을 新鐵道로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은 50%에 불과하여 여객은 分散되고 投資 對比採算性을 높일 수 없는 형편입니다.

建設은 財政投資計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재정투자계획의 조정책임을 맡고 있는 經濟企劃院長官이 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京釜高速電鐵事業은 시작되었고 이제와서 이를 중단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高速電鐵은 人力의 수송과 함께 첨단 산업의 도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분체는 98年 완공시까지의 交通問題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本委員은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代案을 主張합니다. 첫째 水原·天安間, 複複線電鐵化가 완성되면 이 구간은 평균시속 200km로 주행할 수 있고 잔여 京釜線 340km 구간중 天安·全義間, 大田·金泉間, 大邱·清道間의 R각 600m 이내의 선로를 개수하는데 약 5,000億을 투자하면 고속 주행구간이 생겨 서울 釜山間을 先進國型 열차로 2時間30分대에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병목현상이 가장 심한 구간인 서울 大田間, 166.8km 구간을 直線化 改修하면 철도길이가 150km로 단축됩니다.

서울 大田間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水原·大田間, 複複線電鐵化事業이 시급

합니다.

天安은 忠北線, 長項線이 지나고 또 湖南線의 여객이 상경시 大田에서 하차하여 天安을 지나오기 때문에 天安의 철도 병목현상은 극심한 상태입니다.

기왕에 京釜高速電鐵化事業에 착수한 이상 그 성과를 높이고 완공시까지의 철도체증을 줄이는 의미에서도 96년까지로 되어 있는 水原·天安間, 複複線電鐵事業期間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交通部長官의 견해와 經濟企劃院長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同 工事に 관련하여 鐵道廳은 92年度에 노반 착공까지 포함하여 500億을 요구하였습니라마는 企劃院 調整은 89億8,000萬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서울地下鐵, 釜山地下鐵, 大邱地下鐵의 都市鐵道事業特別會計는 서울은 1,680億 요구에 1,000億이 計上되고 釜山은 1,052億 요구에 800億, 대구는 800億 요구에 700億이 計上되었습니다.

요구한 액수에 대하여 水原·天安 複複線事業과 都市鐵道事業에 대한 經濟企劃院 조정액수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전체의 事業優先順位에 의거해서 經濟企劃院長官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교통체증은 사람들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만 화물의 수송에도 큰 지장을 준다고 볼 때 今年 한해동안 100億弗의 貿易赤字를 보이고 있는 우리는 이제 輸出活性化를 위한 대책마련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都市地下鐵開發도 시급하지만 國家幹線의 동맥경화를 해결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本委員은 서울·大田間,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사람과 화물의 수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水原·天安間, 複複線工事を 서둘러야 한다고 보면서 鐵道廳 要求額 500億의 전액 반영을 간곡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교통체증때문에 많은 問題點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京仁 道路관계의 2人以下の 乘車問題로도 대두가 되어 얘기가 나왔습니라마는 지금 서울·水原間도 보통 두 시간 이상

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既存鐵道路線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京釜高速電鐵만다가 치중을 하는 이유 또 京釜高速電鐵을 서울에서 釜山까지 곡선을 펴거나 또는 電鐵을 까는 데는 불과 2년이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京釜高速電鐵을 98년까지라고 합니다 마는 실제상으로는 2000년까지 가지 않나 저는 모든 계획서를 본 결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9년동안 어떻게 京釜高速 내지는 京釜鐵道の 동맥경화증을 해결할 수 있느냐…… 2年以內에 既存鐵道를 電鐵化하고 R각을 펴서 200km 내지 250km의 時速을 가지고 2時間30分 대에 해결을 하면서 그것을 電鐵化 했을 때 物動量을 倍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젤機關車는 우리가 8輛밖에 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電鐵化했을 때는 16輛을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物動量의 倍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는데 6,000億의 2年間 투자되는 그 비율과 年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해결을 하지 않는지 交通部長官보고 수차 물었으나 거기에 명확한 答辯이 없습니다.

이것을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께서 구체적으로 아셔야지고 答辯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耕地整理事業部門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農漁村構造改善事業중 耕地整理事業에 관해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耕地整理事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農村問題를 정말로 의지가 있는 構造改善事業을 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할 만큼 問題點이 많이 있습니다.

耕地整理만 하나 해놓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耕地整理를 하면 그것을 보수 유지해서 또 水路와 排水改善, 이러한 등등의 모든 것을 함께 도로망과 만들어 주어야만 연계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耕地整理 하나만 해놓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耕地整理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는 해방이후 지금 까지 91年4月 總 耕地整理面積은 59萬4,000ha로서 耕地整理率은 총 단면적 135萬2,700ha의 44%에 달하고 實績率은 2001년까지 목표면적 100萬ha의 59.4%에 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135ha를 해 나가자면 年間 5萬ha를 처리해 나가야만 10年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몇萬, 2萬, 3萬, 이러한 것을 가지고 農民을 위해서 農村을 위해서 우리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을 政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農業에 있어서도 國際競爭力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農業人口는 靑·壯年層이 거의 없고 대부분 婦女子와 老年層으로 구성되어 있어 農家 일손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몇年 후면 農家 일손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勞動集約的인 小農規模의 生産形態에서 벗어나 共同營農과 大型機械化에 의한 生産形態에 對備하기 위한 與件造成的인 일환으로 부연하면 단순히 生計維持를 위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UR에 對備하고 農家所得 增大를 도모하기 위한 政策의 遂行次元에서 耕地整理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經濟企劃院 計算의 91年 가을 착수해서 92年 봄에 마무리하는 耕地整理計劃은 2萬8,000ha이고 이에 소요되는 豫算은 ha當 單價를 958萬7,000원으로 計上하였습니다.

그런데 ha當 單價를 913萬원으로 計上하였던 90年10月에서 91年4월까지의 境地整理事業에서 經濟企劃院의 91年4月 마무리單價는 1,107萬4,000원이었습니다.

이와같이 ha當 工事單價가 現實化되지 않았던 결과 91年 마무리사업은 91年 가을 착수분에서 內譯 變更해서 쓰게 되고 지난 2次 追更때 299億을 增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1年 가을 착수해서 92年 봄에 마무리하는 耕地整理計劃의 ha當 工事單價는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全國 各 道の 91年 着手事業에 소요되는 ha當 工事單價는 平均 1,400萬원임

니다.

이는 人件費 및 材料費 등의 工事費 引上 要因 26.8%때문입니다.

91年 마무리單價 1,107萬4,000원 곱하기 1.268은 1,404萬원 이러한 計算이 나오고 있습니다.

企劃院에서 ha當 工事單價 計上을 5%정도의 都賣物價 引上率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人件費上昇과 비교하여 볼 때 전혀 現實性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企劃院長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ha當 單價를 958萬7,000원으로 計上했을 때 計劃面積 2萬8,000ha를 실제 91年 着手 ha當 單價로 計算해 보면, 2萬8,000ha 곱하기 1,400萬원 곱하기 國庫補助率 70%를 해 보면 2,744億원인데 이중 今年度 着手分 442億9,100萬원을 제하면 92年 마무리 豫算은 2,301億900萬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企劃院의 92年 마무리 豫算은 1,436億1,400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企劃院 豫算대로면 865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외에 換地 및 調査費不足額 7億5,900萬원을 합하면 總 不足額은 872億5,900萬원에 이르게 됩니다.

經濟企劃院長官은 來年度에는 迫更豫算編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는데 보다시피 迫更豫算을 編成하지 않는다면 부족액 발생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常任委에서 300億의 증액을 요구했습시다라는 부족현상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農林水産部는 91年 착수 92年 마무리 耕地整理面積을 企劃院 豫算案이 수정없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2萬2,000ha정도 밖에는 할 수 없다고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經濟企劃院의 豫算編成基準이 전혀 現實性이 없다는 것입니다.

92年度 豫算編成基準에서 勞賃部分을 보면 보통인부의 1日 單價가 1萬7,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현재 어느 공사장에 가도 1萬7,200원에 인부를 구하기는 불가능하여 실제로 90年度 착수 91年 마무리 사업에서의 1

人當 勞賃은 3萬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豫算編成基準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때 國家事業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전하게 될 것입니다.

明年度 耕地整理事業에 관련하여 企劃院長官은 政府豫算編成基準에 의한 豫算編成이 초래하는 問題點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建設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建設業은 상당한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이제까지 쓰는 그것을 계속 써야 하는지... 다름이 아니고 표준품셈표라는 것을 가지고 정의를 내립시다라는 이것은 先進國과 비교해서 너무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일 이 전에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일을 마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實質勞賃에 의한 기준 8時間 노동을 해도 능률이 3年間 능률의 70%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年前에 쓰던 기준품셈표를 지금도 적용해서 이렇게 勞賃에 政府勞賃과 現實勞賃의 단가 차이 또 物價上昇에 비례한 문제 이런 것을 항상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建設部長官은 이에 대한 것을 상세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報償金現實化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國家報勳處의 92年度豫算案중 報償金給與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支給對象을 보면 愛國志士와 戰功傷軍警 및 유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遺家族에게 지급되는 보상내용을 보면 91年현재 基本年金 月 25萬원의 55歲 이상으로 무의무탁 미망인은 附加年金 月 10萬8,000원, 60歲 이상으로 의지할 자녀가 있는 경우와 60歲도 안 되었고 자녀도 있지만 무의무탁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는 6萬6,000원의 附加年金を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미망인은 基本年金 月 25萬원 밖에는 보상받는 것이 없습니다. 報勳對象者가 몇10年동안 죽지 않고 받는다 해도 지난날 光州民主抗爭被害者들과의 待遇差는 엄청나게 미치지 못하는 額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禮遇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 그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國家報勳對象者들은 報償金水準을 都市勤勞者가계비 변동에 따라 連動制로 책정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經濟企劃院長官은 이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報勳對象者들에 대한 報償金支給도 光州民主化抗爭被害者들의 報償基準에 의거하는 것에 대한 妥當性 여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今年度 物價引上은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報勳對象者들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基本年令의 인상폭 4%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며 최소한 公務員俸給 引上分 만큼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經濟企劃院長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報勳對象者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심어주는 制度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이는 데 企劃院長官은 이에 대한 것을 강구하고 있는 政策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나라 2,000萬名이 먹는 廣域上水道관계입니다. 이제 우리 上水道問題는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環境處에서도 環境保護次元에서 또 建設部에서는 建設部대로 확장해야 할 문제 그런데 주민들은 물을 눈앞에 두고 먹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 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울市와 京畿道 仁川 忠南 일부까지 들어가는 이 廣域上水道問題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물 1ℓ를 마셔야 할 사람이 0.2ℓ만 마시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아니고 지난번에 建設部에서 廣域上水道 때문에 107億의 豫算을 企劃院에 上程을 했는데 企劃院에서는 24億만을 반영하고 83億을 削減했습니다.

그러면 八堂上水源 주변에 있는 九里, 南楊州, 漢金市, 議政府등 그 사람들은 물을 보고도 마시지 못하고 다른 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희생하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지? 經濟企劃院에서는 왜 83億을 꼭 削減해야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83億을 明年度 豫算에 꼭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고 많은 문제는 先輩·同僚委員께서 質疑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100번을 물어도 시행을 안하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느끼면서 제가 물은 것은 이 자리에서 적당한 答辯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할 것은 왜 못 했다는 이유가 분명히 國民이 납득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확고한 答辯이 필요한 것이지 천만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해도 우리 政府에서 그런 의지없는 答辯을 한다면 물음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명확한 答辯을 해주셔서 실천할 수 있는 機會를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 副總理 및 國務委員 여러분들이 제십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孔子앞에 文章을 쓰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政府의 行政이 縱적으로는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橫적으로는 같은 部處內에서도 局과 局, 課와 課가 서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 안되는 것은 내미력 네미력 하고 잘 되는 것은 나의 功過를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하기 위해서 또 나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他 部署하고 의논을 잘 하지 않는 또 長官님들도 어떻게 따지면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이면 橫的 政府形態의 유대를 강화해서 많은 의논끝에 政策決定과 行政施行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면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洪熙杓幹事, 金瑑泰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瑑泰 이제 아홉 분 委員님의 質疑가 끝났습니다.

政府側의 答辯準備를 위해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7時30분에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48分 會議中止)

(20時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瑑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합니다.

○李光魯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이예요.

○委員長 金瑑泰 예. 李光魯委員 말씀하세요.

○李光魯委員 오늘 7時半까지 와서 會議를 續開한다고 委員長께서 宣言하셨습니다. 그러면 7時半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時半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7時半 되었을 때 와야지요. 사람에게다 時間을 맞추는 制度라는 것은 지극히 야만적인 행동이예요. 時間에다 사람을 맞추어야지요. 35分이라는 時間은 33兆를 주고도 못사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35分이면 몇천分이냐. 이런 식으로 議事進行을 하니 權威主義가 아니라, 國會 자체가 現代化된 民主化된 國會를 운영할 수 있도록 議事進行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瑑泰 가능하면 時間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政府側으로부터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監查院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查院長 金永駿 監查院長입니다.

먼저 朴 實委員님께서 물으신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國稅廳이 韓進과 現代그룹에 대하여 株式變則贈與 등의 이유로 1,361億원의 稅金을 追徵하였는데 이러한 租稅逋脫이 발생하도록 이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稅務公務員의 職務怠慢 및 關聯與否에 대하여 監查를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監查院은 그동안 租稅分野를 每年 監查重點으로 설정하여 稅務官署에 대한 監查를 강화해왔습니다. 當院은 稅務官署에 대한 監查를 통하여 脫漏되었거나 부족 징수된 稅額은 이를 징수토록 하고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制度는 改善시키는 한편 非違를 저지른 公務員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國稅廳에서 추진한 株式會計 韓進과

現代 贈與稅등 逋脫과 관련하여 稅務公務員의 幫助나 默認 등의 職務怠慢이 있었는지의 與否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國稅廳에 대한 定期監查에 이에 대한 事實與否를 면밀히 監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朴委員께서 물으신 두번째 質疑입니다. 監查院은 第5局을 신설한 이후 稅務工事分野등 구조적 부조리 척결에 큰 성과를 거두어 國家 司正活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씀하시고 機動監查專擔部署의 신설을 계기로 靑瓦臺나 國務總理室 등에 산재되어 있는 政府의 司正機能을 監查院 中心으로 統合·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監查院長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監查院의 機動監查活動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委員님의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런데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靑瓦臺나 國務總理室등 政府의 司正機構에서 수행하는 司正業務와 監查院의 監查業務는 그 運營과 活動重點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機關의 司正機能은 자기 機關別 特性이 있고 監查對象밖에 있는 社會非理剔決도 그 對象으로 하고 있는 등 監查院의 機動監查活動과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機關의 司正機能을 監查院에 一元化한다는 것은 現時點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다음은 순서가 좀 뒤입니다. 마는 法院行政處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院行政處長 安又萬 法院行政處長 安又萬입니다.

먼저 朴 實委員이 물으신 司法研修院을 마친 젊은 法官이 바로 單獨裁判을 담당한다는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실정을 보면 新任 法官은 法官으로 任命된 다음 상당한 기간동안 合議部에서 勤務를 마쳐야만 單獨裁判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單獨判事의 年齡이 相對적으로 젊다

는 指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젊은 젊은 法官들이 裁判審理를 함에 있어서 성숙한 자세를 가져달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司法制度에 英·美식의 陪審員制度를 도입하는 문제에 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司法制度는 그 나라의 文化와 傳統에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職業法官制度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陪審員制度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論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英·美에서도 陪審員制度의 長·短點에 관하여는 많은 論議가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재의 法院 運營에 있어 陪審員制度의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司法試驗合格者數를 500名으로 증원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法院의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法律需要에 비추어 지금의 司法試驗合格者數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裁判進行이나 保釋許可 등에 있어서 辯護士를 우대해 주고 있다는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拘束被告人에 대한 裁判進行이나 保釋許可 등에 있어서 辯護士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裁判進行 順序에 있어서는 辯護士들이 法廷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裁判을 진행하는 慣例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같은 경우에도 辯護人이 없는 당사자가 法廷에서 시간을 낭비하여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이 취지가 충분히 반영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張石和委員께서 質疑하신 ...

○朴 實委員 제 質疑部分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法律知識이나 그 實行에 대해서 實踐的 狀況에 대해서 일천한 本委員으로서 무슨 論爭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卽決審判은 檢察官의 調書에 순전히 依存해 가지고

卽決審判하는 데 卽決審判의 拘留期間이 최고 10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日을 拘留하는 것은 이것은 人身自由에 대해서 상당한 拘束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젊은 司法大學院을 갓나온 判事들이 하고 있어요. 주로 警察調書에 입각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혀 그 實例나 실제에 대해서 研究·檢討도 없고 또 항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研究·檢討가 없기 때문에 答辯할 필요가 없다는 式으로 이렇게 임하는 젊은 法官들도 있어요.

本委員로서는 적어도 法官 정도 되려면 文學書籍 한권정도는 읽어야 되는... 상당히 좀 과격한 얘기지만 그래서 拘留 10日이나 일주일도 人身拘束에 해당하고 이것을 젊은 司法大學院을 갓나온 裁判官들이 그것도 警察調書에 입각해 가지고 방망이를 막 때려 쳐 가지고 國民의 人身自由를 拘束하는 경우가 非一非再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論爭을 전제로 하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또 辯護士問題도 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제가 總務處에서 알아본 결과 해방후에 1990年度까지의 法官資格을 補해가지고 辯護士 시킨 人員하고 1980年이후에 나온 司法試驗合格者하고 數가 같다고 그래요.

이것은 다분히 日帝式인 權威主義 官僚主義의 잔재였다 그래서 지금 改善의 현상이 있다 그래서 나는 대단히 좋다는 것입니다.

例를 들면 美國 워싱턴 DC에 辯護士가... 물론 司法制度가 다르기는 하지만 5萬名이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500名이상 1年에 量産을 해서 계속 辯護士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國民들 權利保存이 된다 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國民의 공감을 받는 대목이라는 것을 法院行政處長께서는 아셔서 앞으로 숫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法院에서 所要수표를 얘기하면 總務處에서 그것을 執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院行政處長 安又萬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張石和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犯罪와의戰爭과 관련하여 大法院이 法務部로부터 強力犯에 대하여 重刑을 宣布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各級 法院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하더라도 이와같은 취지를 하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점에 관해서 어제 法務部長官한테 補充質疑했습니다마는 분명히 昨年度 犯罪와의戰爭 宣布後에 李種南 法務部長官이 직접 李一珪 大法院長과 崔在護 行政處長을 방문해서 凶惡犯에 대한 重刑宣告要請을 하고 협조를 부탁한 사실 또 大法院이 그 협조 요청을 各法院에 전달 시달한 사실 이것이 그 당시 言論과 또 금년도 辯協人權報告書資料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本委員이 근거가 없이 質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質疑를 하는 거니까 비록 지금 處長 在任時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한번 確認하셔서 部別審議때 그때에 다시 자세한 정확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院行政處長 安又萬 지금 그 補充質疑에 대해서는 다시 내용을 조사해서 部別審議에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蔡映錫委員 處長께서는 大法官이시지요?

○法院行政處長 安又萬 예, 그렇습니다.

○蔡映錫委員 지금 朴實委員께서도 質疑를 하셨고 張石和委員께서도 質疑를 하셨는데 제가 언제 만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人權狀況입니다. 물론 젊은 判事들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判事들이 판결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지 않은 판결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결할 수도 있고 또 司法試驗에 合格을 했으면 그런 자격을 國家에서 부여했으니 그 판결에 승복을 해야지요.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속된 말로 有錢이면 無罪고, 無錢이면 有罪다, 그런 말도 處長께서 잘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건 實例인데 1984年 5共時節의 암울했던 시절입니다. 大田에서 제가 裁判을 한번 생전 처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告訴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도저히 이것은 남독이 안되어서 辯護人을 選任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저 혼자 나가서 檢察調查 받고 저 혼자 大田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름철이었습니다. 判事가 전혀 被告人애기를 안들어요. 결국 200萬원 罰金刑을 받아서 지금 200萬원 罰金刑의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애기를 안들어요. 疏明을 하는데도 辯護士도 없지, 그때는 野人의 신분이니까 신분도 정확하지 않지 檢事調書는 제가 얘기한 대로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도 애기를 전혀 안들어요. 제발 判事가 귀를 기울여야지 이러한 일이 非一非再하다 그래서 지금 朴實委員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지금 矯導所에 가서 물어 보세요. 참 억울하게 자기가 충분히 疏明을 하고 자기 辯護士가 없더라도 辯護士의 애기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被告人이 有罪確定되기 전에는 無罪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先入見가지고 單獨判事가 그냥 아! 애기 그만하세요 애기 그만하세요. 아 判事님 애기들어 보세요.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당한 實例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法官들의 資質問題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法官教育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處長께서는 그런데에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法院行政處長 安又萬 지금 蔡委員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司法監督官會議가 있을 때 그 뜻을 전달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瑢泰 다음은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입니다.

우선 어제 質疑하신 委員님 質疑와 오늘 質疑하신 아홉분 委員님 質疑를 함께 答辯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質疑하신 金榮度委員님 張石和

위원님 오늘 質疑하신 朴實委員님 崔鳳九委員님 朴錫武委員님 野黨委員 여섯분 委員님의 質疑중 대부분은 첫째번 質疑의 質疑要旨는 委員님들마다 다소 방향과 초점 또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質疑를 요약하면 現 6共和國政府의 經濟政策의 方向, 目標와 그 성과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요약을 하면 과거 우리 經濟는 한때 成長爲主 또 安定爲主 또는 형평의 제고 등으로 經濟政策目標가 요약이 되고있었는데 現 政府의 經濟政策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 또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經濟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事項은 이와 같이 成長, 安定, 平衡을 擇一的으로 정해서 추진하기에는 우리 經濟의 規模와 또 그 內容 그리고 우리 經濟가 처하고 있는 國際的 環境이 그렇듯 세가지 문제를 擇一的으로 해서 추진하지 못할 만큼 복잡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對內外的 與件은 저는 하나의 우리 歷史에서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變革과 轉換期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우선 政治的으로는 우리는 그 동안에 오랫동안의 權威主義的 政治體制에서 6共和國은 이제는 民主化時代를 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政治的으로 엄청난 轉換과 變革을 겪고 있습니다. 그 變革과 轉換속에서 우리는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습니다. 經濟的으로는 과거 開發年代에 있어서는 政府의 主導와 規制下에서 경제를 운용하여 왔습니다마는 이제 民主化時代를 맞이하고 우리 경제의 규모와 내용이 크고 복잡해 짐에 따라서 이제는 民間主導에 의해서 경제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그 속에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되어야 하는 큰 변혁과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國際的으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과거 開發年代는 우리 산업은 政府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되어 왔고 또한 필요한 경우 政府에 의해서 지원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처하고 있는 國際的 環境은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큰 변혁과 전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전환과 변혁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겪는 과정에서 진통과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환과 변혁은 꼭 진통이 있게 마련이고 부담이 있게 마련이고 그 댓가와 비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저는 그와 같은 전환기적 또는 변혁기에 있어서 겪어야 하는 진통과 부담이요 댓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의 역사의 흐름속에서 이와 같이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또는 國際的으로 변화하여야 하고 또한 전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환과 변혁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진통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단계 현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어떤 목표와 지표를 굳이 말씀드리다면 제 의견으로서는 성장과 안정 형평이라는 그런 巨視的 指標 또는 量的인 指標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量的인 면에서 質的인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자율과 조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대내외 여건하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제2의 經濟跳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경제의 量的인 확대보다는 경제의 質的인 효율화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政府, 企業, 勤勞者, 農民, 그리고 家計등 우리 모든 經濟主體가 함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길만이 자율과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經濟를 한 발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제의 효율성은 바로 國內的인 경쟁 또 對外的인 개방이라는 토양에서만 그와 같은 효율성이 배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효율성을 높이고 그 속에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政府도 물론 솔선수범하여야 하고 行政과 財政面에서 개혁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政府는 이제 앞에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틀을 만들고 또한 그 틀을 만들어서 경쟁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政府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기업은 이제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經營革新努力이 더욱 아쉽다고 보며 근로자는 근면정신의 함양 우리 소비자는 근면절약하고 市民倫理가 갖추어지는 그런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度委員님 첫번째 質疑, 다른 委員님들의 質疑가 거의 요지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상의 설명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두번째 金委員님 質疑는 來年度 4大選舉 所要費用을 92年度豫算에 歲出豫算으로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 우리의 國會에서 議決해 주신 법률에 의하면 憲法과 法律에 의하면 來年度에 14代 總選 또 基礎와 廣域의 地方自治團體長選舉 來年末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大統領選舉 등 그런 선거가 明年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地方自治團體長의 選舉는 그 選舉費用이 대부분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中央政府로서는 총괄경비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總選關係 選舉費用을 總選은 明年에 치루어져야 되겠습니까마는 과거 選舉關係經費는 자꾸 관례를 말씀드려 최종합시다마는 대부분 豫備費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委員님이 豫算總則의 15條는 오히려 目的 豫備費規定의 정신에 비추어도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로서는 總選 등 明年 選舉를 豫備費로 지출하는 경우 좀더 財源確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目的 豫備費에 불구하고 選舉를 위한 豫備費는 지출할 수 있다는 어떤 안전선을 그어놓았습니다.

참고로 과거 選舉管理費用을 말씀을 드리면 13代 國會議員選舉 당시 政府機關이 지출한 選舉費用은 選管委가 149億, 內務部가 36億, 13代 大統領選舉의 경우 選舉管理委員會의 選舉管理費用이 113億, 內務部가 38億을 썼습니다.

다만 選舉라는 그런 것이 당연히 있는 法律에 정해진 國家的 행사를 歲出豫算에 계상하지 못하고 과거 관례대로 豫備費로 支出코자 하는데 대해서는 國會에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양해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도 質疑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지금 答辯에 관해서 補充質疑합니다. 누차 나온 얘기이지만 이 豫備費라고 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항목에 대한 지출에 쓰이는 것인데 이 4大選舉 그 중에서 특히 總選과 地方自治團體長選舉 3大選舉는 法에 來년에 치르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大選은 1월까지 할 수 있다고 보지만서도 그렇다면 總選과 地自制團體長選舉의 비용은 반드시 來年 本豫算 一般豫算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地自制團體長選舉에 관해서는 어제 內務部長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길래 그 지침이 잘못된 것이다 왜 중립적인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豫算으로 책정해야지 그것을 왜 地方自治團體에 지침으로 내려보내느냐 그 豫算으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總選에 관해서도 당연히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一般豫算으로 策定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 價例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그 점은 明年度에 法律에 의해서 14代 總選은 치르도록 되어 있으나 歲出豫算에 計上하지 못한 점 솔직하게 저희들로서는 불찰이었던 점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한다고 그러면 中央選舉管理委員會도 과거 價例가 選舉管理經費는 豫備費로 支出을 했기 때문에 明年度 豫算要求時 選舉管理費로 요구된 것이 아니고 選舉準備經費로 49億1,800萬원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準備期間중 給糧費 및 選舉裝備 등을 위해서 9,000萬원을 計上을 하였는데 솔직히 法律上 정해져 있는 總選에 관한 選舉管理費를 歲出豫算에 計上하지 않고 豫備費로 책정하는데 대해서는 그 불찰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다만 과거 價例가 그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豫算編成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金台植委員 어느 쪽에 불찰이 있다는 것입

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政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朴 實委員 經濟企劃院長官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불찰인 것을 지금 인정을 했는데 豫算總則에 의해서 豫備費로 調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밖에 기초상식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質疑를 드리는데 과거의 慣例와 다르게 아까 말하자면 準備豫算도 솔직히 시인을 했어요. 49億원을 中央選管委에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그냥 내려 깎아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給糧費 등에도 9,000萬원을 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豫算當局의 횡포입니까 아니면 選舉를 안 치르겠다는 그런 저의에서 나온 것입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아니 法律로 憲法上 議員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豫算編成하는 기관이 그런 選舉를 안 치른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고 다만 과거의 慣例로 그렇게 編成을 했습니다.

○金台植委員 그러니까 豫算技法을 운영하고 있는 EPB當局의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서는 豫備費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豫算會計法을 준수해가지고 豫算技法上 가장 法을 준수해야 할 豫算當局인 經濟企劃院側에서 豫備費를 이렇게 慣行처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실수가 아니라 豫算當局인 經濟企劃院의 실수다 이렇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豫算編成當局의 불찰이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朴 實委員 그러면 이번 國會에서 豫算國會에서 4大選舉 준비를 위한 經費豫算 49億원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서 요청한대로 그것을 반영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예. 이 豫算은 政府가 國會에 제출을 해서 지금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議中에 있기 때문에 豫

算審議에서 豫算決算委員會가 그 문제에 관해서 審議를 하는 경우 저희 政府로서는 明年度 豫算關係 지금 그렇게 總經費가 계산이 되어 나오는지... 할 수 있도록 그런 算出根據가 되는지는 조금 檢討해 보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委員會審議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榮度委員 한 가지 물어봅시다. 副總理! 全國에서 選舉 한번 치르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選管委에서 選舉管理費用으로서 370億원, 內務部에서 40億원, 그래서 410億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제가 지금 실무전에 파악을 한 것으로는 13代 國會議員 選舉 당시...

○金榮度委員 14代 明年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明年에는 저희들이 아직은 그렇게 明年度 總選의 選舉管理費에 관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나 또는 內務部하고 豫備費로 지출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明年度 選舉管理費用에 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13代 國會議員 選舉 당시 選舉管理委員會가 지출한 選舉管理費用은 149億, 內務部가 36億이었습니다.

○金榮度委員 그렇다면 그렇게 치더라도 그러면 選舉를 네 번 치르자면 얼마가 들지요? 昨年에 13代에 準한다 할지라도...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自治團體長 選舉는 中央政府豫算으로 選舉管理費用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각 所屬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으로 選舉管理費用이 지출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政府로서는 大統領 選舉는 年末이 되기 때문에 우선 明年에 틀림없는 것은 國會議員 選舉니까 과거의 慣例대로 豫備費로 지출하려고 했습니다.

○金榮度委員 여하튼 法에 있으니까 法에 의하면 明年 上半期中에 基礎 또는 廣域 自治團體長 選舉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總選도 하고 그러면 우리 黨이 주장하는 대로 同時 選舉를 해서 選舉를 두번만 치르게 되면 그 選舉管理費用이 半減된다고 생각하는데 副總理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그 점은 檢討를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總選은 中央政府가 選舉管理費用을 지출해야 되고 自治團體長 選舉는 所屬 地方自治團體가 選舉管理費用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동시선거를...

○金榮度委員 아니 自治團體가 選舉費用을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여하튼 選舉管理費用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億 몇 拾 億 가지고도 지금 削減한다 增額한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 마당에서 몇 百億의 選舉管理費用을 절약할 수가 있다면 同時選舉를 해서 選舉를 두 번에 끝내면 그만큼 豫算이 節約되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예. 그 문제는 政府로서는 檢討를 아직 해보지를 못해 보았습니다.

○金榮度委員 檢討할 용의는 없습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그 점은 同時選舉를 하는 경우 選舉管理費用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인지는 꼭 政府로서 한번 檢討를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趙洪奎委員 제가 내일 質疑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答辯을 기초로 해서 내일 質疑를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經濟企劃院에서 選舉費用을 豫備費로 책정한 것이 불찰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니 國會쪽에서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앞으로 협의의를 하겠습니다.

○趙洪奎委員 협의는 무슨 협의요. 國會에 權限이 있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副總理로서가 아니라 國會議員로서는 그 經濟企劃院에서 불찰이라고 시인한 데 대해서 國會議員의 입장에서 말씀해 달라 그 말입니다. 고쳐야 되지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불찰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찰이지만 안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豫決委員會 審議에 따라가겠습니다.

○趙洪奎委員 여기에서 고치면 고치는 대로... 고치는 것이 옳지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그것은 한번 關聯部處와 어느 정도 지금 選舉管理費用이 구체적으로 積算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關聯部處가 있기 때문에 關聯部處의 의견도 들고 최종적으로는...

○趙洪奎委員 그러니까 액수는 몰라도 額數는 審議를 하더라도 협의의를 하더라도 本豫算에 책정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明年度에 14代總選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으니까 그 選舉管理費用을 關聯 選舉管理機關의 歲出豫算으로 計上하는 데에 대해서는 政府로서는 그것을 計上하지 못한다에 대해서 불찰이라는 점을 시인을 했고 豫算決算委員會의 審議結果에 따라가겠습니다.

○趙洪奎委員 알겠습니다.

○蔡映錫委員 國會議員選舉는 國會議員任期 그러니까 92年5月28日인가요. 150日이내에서 20日 前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地方自治法에서 92年6月末까지 地方自治團體長 廣域 基礎 團體長 選舉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法으로 ... 大統領選舉는 大統領任期 2個月前에 選舉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法的인 문제인데 政府가 어떻게 法을 준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法定經費입니다. 지금 불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행이 과거에 그래서 그랬다 어떻게 막중한 國民代表를 뽑는 選舉 한 나라의 大統領을 뽑는 選舉를 그렇게 소홀하게 豫算을 다룰 수가 있습니까? 나쁜 관행은 고쳐야지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예. 그점 잘 알겠습니다.

○張石和委員 大韓民國 政府에서 나온 1992年度 豫算案 이것은 經濟企劃院에서 만든 것이지요? 豫算總則...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예.

○張石和委員 이 豫算總則 15條 아까 말씀하셨는데 本委員도 어제 이것에 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15條 內容 아시지요? 選舉經費와 관련된 所要經費의 豫備費 支出은 豫備費의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豫備費로 支出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불찰을 시인을 했고 그런 경우 政府로서는 이것만은 어떤 경우에서도 豫備費에서 꼭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어서 一般豫備費에 目的豫備費도 있습니다마는 選舉管理費用에 관한한은 目的豫備費에서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좀 안전 장치를 걸어놓으라고 15條의 規定을 두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연 없습니다. 꼭 豫備費에서 支出하겠다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張石和委員 豫算會計法の 豫備費 그 條項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한 經費가 아니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쳐야지요.

○金台植委員 答辯 들읍시다. 豫備費에 반영했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政府當局이 시인했으니깐 그것은 접어두고 아까 우리 金榮度委員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民主黨에서는 同時選舉問題를 여러가지 經費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選舉를 했을 때에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느냐 하는 것을 당연히 經濟企劃院當局은 韓國經濟의 총괄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政府에서는 同時選舉를 망설인다 람지 또는 반대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깊숙이 選舉와 관련된 전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同時選舉가 우리 民主黨이 주장하는 同時選舉가 韓國經濟에 여러가지 選舉인플레를 방지하는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便宜를 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經濟企劃院 當局에서는 數値로써 계수적인 數値로써 이렇게 답을 주셔가지고 政府로 하여금 또는 與黨으로 하여금 同時選舉를 실시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 줄 그런 용의는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제가 아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 말씀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台植委員 저는 그것을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각자 解釋에 관한데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그 점은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꼭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지적 말씀이 계시면 同時選舉의 경우 選舉管理費用이 어느정도 절약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金榮度委員님 質疑는 來年度豫算에 반영된 選舉善心用 支援經費는 全額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金榮度委員 한가지 물어봅시다.

選舉管理委員會의 明年度 本豫算이 451億원이지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選舉管理委員會 本豫算까지 제가 아직...

○金榮度委員 아니 來年度豫算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제가 各 部處別 豫算을 자료가 없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金榮度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451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選舉管理費用은 1,400億으로 豫備費에서 책정되어가지고 있어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豫備費에서 1,400億원으로 책정한 일은 없습니다.

○金榮度委員 1,400億원으로 책정돼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選舉管理費用을 豫備費에다가 金額으로 정하지는 않고 다만 豫備費로 지출할 것으로 想定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金榮度委員 選舉管理費에서 써야 할 選舉管理費가 1,400億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豫備費에 얼마를 쓰겠다고 정한 일은 없습니다.

○金榮度委員 그러면 明年度에 選舉를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總則에다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目的豫備費 중에서도 選舉管理費用은 쓸 수 있도록 하는 規定까지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것이 미리 예측되는 法定經費인데 왜 歲出豫算에 計上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委員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豫算編成當局의 불찰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金豫算이 選舉用으로 쓰여지지 않겠느냐 또 그 다음에 여러가지 民間에 대한 補助金 등에 관한 지적 말씀이 제시면서 이와 같은 흑시 選舉에 善心用으로 지원될 經費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매년 政府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 民間에 대한 補助는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절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參考로 明年度에 計上된 補助金豫算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民間에 대한 總 補助金은 4,063億원으로 今年度豫算보다 2.9%가 늘었습니다. 또 自治團體에 대한 補助金은 7,738億원으로 10.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民間이나 自治團體는 補助가 종래에 꼭 補助金을 주어왔던 기관에 대한 補助金이 대부분 그대로 計上되고 있어서 이것이 選舉의 善心用 經費로 쓰여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金榮度委員 좀더 공정하게 執行하십시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예. 알겠습니다.

明年度 國家安全保障活動經費의 總額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밝히라고 하시면서 또 豫算 執行과 관련하여 豫決委에서 定한 것 外에는 安全保障經費로 豫算配定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히라고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몇번 說明을 드렸습시다라는 國家安全保障活動經費는 豫算會計의 特例規定에 의해서 安全企劃部 所管으로 計上되는 分과 그 特例法에 의해서 豫備費로 지출되는 部分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明年度 安全企劃部 所管豫算은 1,988億원으로 되어 있고 豫算特例에 관한規定에 의해서 支出될 經費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金榮度委員 安全企劃豫算이라고 할 지라도 政府 企劃院에서 配定해 주어야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豫算總帥가 예측할 수 없다 그

렇게 答辯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企劃院에서 配定해 줘야 安全企劃豫算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측할 수 없다 企劃院長官께서 그렇게 答辯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현재로서는 豫備費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來年度 公共料金の 引上計劃과 이것이 物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明年度의 豫算과 관련해서...

○金榮度委員 가만 있어! 지금 안 끝났잖아요? 安全企劃豫算에 대해서 밝히세요. 그 절차와 기준을... 밝혀야지... 經濟總帥가 그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아니! 말씀을 드리지요.

安全企劃部法 및 豫算特例에 관한規定에 의해서 豫算은 他 部處所管으로 計上할 수 있고 또 總額으로 計上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安全企劃部所管 豫算으로 國會에 提出되어 있는 1,988億은 그것은 명확히 安全企劃部所管으로 計上이 되어 있고 餘他 部分은 豫備費에 一括計上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金榮度委員 그러니까 本豫算이든 豫備費이든 간에 來년에 總豫算이 얼마나 하는 것은 安全企劃豫算이 얼마 配定되었다 하는 것은 밝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安全企劃部所管으로 國會에 제출되어 있는 1,988億원은 이미 安全企劃部所管으로 國會에 제출되어 있고 그 밖에 豫算特例에 관한規定에 의해서 지출되는 分은 豫備費에 計上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金榮度委員 그 惡法을 적용해 가지고... 좋습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明年度豫算과 관련해가지고 公共料金が 문제가 되는 것은 鐵道事業特別會計에서 鐵道事業 收入을 예측함에 있어 平均 鐵道料金の 10% 정도의 鐵道料金 收入 增加를... 料金引上한 收入增加를 豫算編成時 歲入... 鐵道收入을 추정하면서 그

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郵便料金の 경우 3% 國立大學의 納入金の 경우 평균 9%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收入 豫算을 잡았습니다. 마는 실제 鐵道料金の 引上 또는 郵便料金 등은 과거에도 豫算編成은 그렇게 했습니다. 마는 國內의 物價動向을 보아 가면서 그 시기와 人上을 결정했습니다. 明年에도 豫算을 편성을 하려니까 歲入 豫算을 추정함에 있어 鐵道料金 및 郵便料金 國立大學納入金の 引上率을 추계를 했습니다. 마는 실제적인 人上의 폭과 人上의 시기는 明年도 물가동향을 보아 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豫算에 추정된 요금은 그대로 人上되는 경우 消費者物價에는 0.03%의 引上效果가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金榮度委員 提案說明에서 物價安定의 政策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하는데 交通料金は 물론이려니와 公共料金を 本委員은 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副總理의 견해는 지금 本委員과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物價安定이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公共料金が 정말 동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公共料金の 引上要因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동결해 가는 것은 문제를 뒤로 미루는데 불과하고 언젠가는 그것이 현실화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가의 동향을 고려해서 引上要因이 있으면 저로서는 그때그때 조금 小幅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는 物價安定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公共料金の 조정의 시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점 公共料金の 引上要因이 있습니다. 마는 현재 물가의 어려운 형편때문에 시기를 연기한다거나 또는 引上率도 소폭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金委員님 質疑에 豫算編成 당시 國防部의 25% 豫算要求에 대해서 經濟企劃院이 9%로 조정해서 國防部에 통보한 일이 있느냐 하는 취지의 質疑였었는데 저로서는 그 내용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는 잘 아시다시피 各 部處로부터 豫算要求가 들어 오면 우리 經濟企劃院 豫算室에는 各 部處別로 擔

當審議官이 그 部處의 豫算要求內容을 새밀하게 분석 검토를 합니다. 혹시 그런 과정에서 좀 國防部 豫算을 줄일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가 혹시 實務協議過程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로서는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金榮度委員 本委員이 듣기로는 國防部에서 25% 引上要求를 했는데 企劃院에서 9%만 해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정해라 해가지고 내려 보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國防部長官께서 그냥 노발대발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12.7%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兩側 豫算實務者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副總理만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글썽 저희들이 豫算編成을 하다보면 우리 豫算實務者는 가능하면 어딘가 좀 豫算 歲出增加를 줄여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혹시 實務協議過程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로서는 알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國會에 제출된 明年도 防衛費 豫算은 12.7%가 증가된 豫算이 편성되어서 國會에 제출되었습니다.

○金榮度委員 좋습니다. 兩側 實務者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을 副總理만 모르시구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다음 金委員님께서는 大統領秘書室, 警護室, 그 다음에 國防部, 機務司, 安全企劃部 등에 情報費가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權威主義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고 國會의 豫算審議權의 침해가 아니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몇 번 설명 말씀을 드린대로 國家安全保障에 관한 경비는 安全企劃部法 및 豫算特例에 관한規定에 의해서 豫算이 계상이 되고 決算이 됩니다.

그 밖에 지적하신 大統領秘書室 또는 國防部의 機務司, 法務部, 警察廳 등에 情報費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部處의 기능때문에 情報費라는 費目的 豫算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이 다른 경비만큼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보비라는 費目的 特殊性때문에 豫算內譯에서도 그렇고 支出過程에 있어

서도 특별히 취급되고 있는 것은 그 費目的 特殊性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李起彬委員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李委員님 지적도 역시 財政規模의 膨창을 염려하시면서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零細民 支援 등에 財政支援를 중점적으로 해서 民間機能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每年 歲計剩餘金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國民의 租稅負擔率을 경감하여 歲計剩餘金 發生이 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취지의 質疑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豫算規模의 膨창에 관해서는 몇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一般會計에 관한 明年度豫算規模는 今年度 最終豫算 對比 6.8%의 증가에 불과하고 또한 그 규모는 GNP 對比 14.4%, 또 國民租稅負擔率도 종래와 같이 19.6% 수준이어서 그 규모 자체를 膨창예산이라고 보고 있지 않으며 또한 歲入內 歲出 원칙을 전지한 健全豫算이기 때문에 通貨管理에도 전혀 中立的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歲出의 내용에 있어서는 좀더 절제하고 효율화할 필요성은 언제나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國民의 租稅負擔率을 오히려 줄여서 歲計剩餘金 發生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政府가 하여야 할 많은 일들을 고려할 경우 長期的으로는 오히려 租稅負擔率을 서서히 올려야 할 처지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지적 말씀은 政府의 豫算編成의 전제가 되는 經常成長率 換率등 그 關聯指標를 좀더 제대로 추정을 해서 지속적인 追更要因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 年間 특히 租稅收入에 있어 政府의 추제가 현실화되지 못해서 每年 超過收入이 거듭되어서 追更豫算을 편성하였는데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政府로서는 豫算編成의 기초가 되는 關聯經濟指標를 좀더 현실에 맞도록 추정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明年度에 地方讓與金事業을 대폭 확대를 했는데 이것은 地方讓與金事業으로 적합한 그런 事業이어야 한다 오히려 어떤 讓與金制度를 지양하고 地方交付稅率을 上向 調整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質疑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地方財政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國稅를 대폭 地方稅로 移讓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地方讓與金稅源으로 되어 있는 酒稅... 대부분 酒稅가 주종입니다마는 그 酒稅의 세원분포가 地方에 고루 均衡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地方의 均衡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中央政府가 讓與金 형태로 地方의 실정에 따라 고루 배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讓與金の 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讓與金事業의 主務部處와 內務部間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함으로써 地方財政의 확충과 각 事業의 효율성을 같이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李起彬委員님 質疑는 實消費促進對策을 좀 더 강력하게 전개하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로서도 李委員님 하고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主務部인 農林水産部가 제가 알기로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農林水産部長官께서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秋穀收買資金을 현재 糧穀證券發行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一般會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政府米 放出價格引上으로 糧特의 赤字를 줄여 가야 한다고 보는데 저의 견해는 어떠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糧穀管理基金에서 秋穀을 수매하는 경우 巨額의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금마련은 一般會計에서 지원을 하고 또 糧特自體가 자기 수입으로 收買資金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政府 一般會計의 財政形便上 放出米價格引上은 바로 消費者價格의 引上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物價安定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放出米價格을 인상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로서는 糧穀證券發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되어 나가야 할 政策的 課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質疑도 쌀과 관련된 質疑였습니다.

역시 쌀은 기후적 조건에 좌우되는 바 많기 때문에 기상조건의 변화여하에 따라서는 그 作況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 南北交流의 촉진 등에 비추어서 北쪽의 식량부족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그런 점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塔泰委員長, 洪熙杓幹事와 司會交代)

92年豫算에 計上된 3,000億원이 92年度 糧穀證券利子償還額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二重穀價制에 의한 缺損額만큼 政府豫算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一般會計의 財政이 허용된다고 하면 糧穀管理基金의 不足財源을 一般會計에서 지원하여야 하겠습니까마는 財政形便上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政府는 豫算會計法을 改正을 해서 歲計剩餘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歲出豫算에 의하지 아니하고 糧穀證券의 元利金償還에 充당할 수 있도록 하는 法改正案을 國會에 제출한 취지도 바로 李委員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이 염려되어서 糧特의 財政問題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現行 物價指數에 있어서 농산물의 季節性 등이 考慮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物價指數 自體가 농산물의 特殊性을 反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物價指數編制를 改編할 용의가 있는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指摘하신 대로 농산물은 그 季節性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現行 物價指數에 있어서는 그런 점이 전혀 考慮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산물이 갖고 있는 그런 季節性이 100% 反映되도록 하기에는 또 物價指數 算定의 애로도 있습니다.

또 하나 두번째 문제는 현재의 物價指數上 農산물의 加重值가 상대적으로 높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現 消費者物價의 編制가 85年 當時의 都市家計消費支出의 比重에 따라 決定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非現實的인 面

이 있습니다. 物價指數는 그렇기 때문에 每 5年마다 都市家計의 消費支出을 다시 調査해서 그 支出의 比重에 따라 加重值가 再調整됩니다. 때문에 90年基準으로 消費者物價編制가 다시 再調整이 되고 이것은 明年부터 90年기준에 의한 消費者物價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農水産物의 加重值는 현재 消費支出에 있어 農水産物의 比重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物價指數에 있어서도 그 加重值가 낮아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濟州道開發에 대해서 總理계 質疑가 계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취급하고 있고 제가 아는 제가 答辯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答辯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答辯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濟州道開發法과 관련하여 李委員님이나 또는 濟州道民의 一部가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政府는 濟州道를 좀더 그 自然的 與件에 맞추어서 濟州道의 開發潛在力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支援을 하겠다 하는 것이 政府의 의도입니다. 이것은 濟州道 道民의 福祉와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한 長期的 對策이 무엇이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濟州道開發法이 審議中에 있기 때문에 그런 濟州道開發法이 확정되면 그 法에 따라서 政府는 濟州道開發을 위한 中·長期計劃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地下水問題에 관해서는 조금 技術的인 문제가 되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建設部長官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張石和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張石和委員님 처음 質疑는 現 經濟難局 타개를 위한 具體的 提議를 제시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밖에 여러가지 최근의 經濟的 어려움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答辯冒頭에 설명드린 것으로 같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來年度 地方自治團體 選舉에 있어서

基礎 및 廣域選舉를 동시에 할 것인지 내차례 選舉日程을 밝히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選舉는 關係法律에 의한 時期와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거기에 관한 豫算措置에 있어서 豫算編成當局으로서 는 불찰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쌀開放問題에 대한 政府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權海玉委員님 吳景義委員님께서도 유사한 質疑가 계셨고 또 이 점에 관해서는 政府는 수차례 걸쳐 政府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에 몇번 밝힌대로 政府는 쌀이 우리 農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農家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 食糧消費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을 고려해서 쌀은 非交易對象品目으로 例外措置되어야 한다는 것이 政府의 확고한 방침이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 UR協商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張石和委員님은 역시 6共和國의 財政運用의 기초가 安定인지 成長인지 衡平爲主인지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冒頭에 答辯드린 것으로 같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2年度豫算은 이것은 膨脹豫算이라고 보는데 野黨이 주장하는대로 대폭적 削減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하는 質疑였습니다.

明年度 一般會計 豫算이 規模 자체가 膨脹이냐 아니냐 하는 與否에 관해서는 여러번 저희 政府의 입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柳峻相委員님께서 野黨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豫算削減計劃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政府로서는 증대되는 歲出需要에도 불구하고 財源의 제약때문에 최소한의 歲出豫算을 計上해서 國會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來年度の 財政膨脹과 選舉로 物價上昇이 우려되는데 來年度 4大選舉에 소요될 資金規模를 어떻게 豫想하며 이에 따른 總通貨調整對策은 무엇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選舉가 있는 경우 그 選舉運動과 관련된 資金支出이 消費的 支出이고 또한 選舉運動과 관련되어서 많은 人力이 동원되고 또 거기에 따른 社會雰囲気 등이 經濟運用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때문에 政府로서는 明年度 總選舉가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選舉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總力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經濟部處로서는 選舉 때문에 通貨가 증발되는 일이 없도록 通貨管理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選舉때 편승해서 價格引上이 될 수 있는 品目에 대해서는 그 品目에 대한 管理와 行政指導를 좀더 철저히 해서 選舉를 틈타 가지고 便乘 引上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年度 豫算規模를 87年度보다 2倍以上 늘리면서도 勞動所得稅 稅收를 늘린 이유 그 다음에 贈與稅가 과소하게 策定된데 대한 質疑가 계셨습니다.

主務部長官인 財務部長官으로하여금 소상히 答辯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年度 豫算規模가 20%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事業費도 오히려 減少되었고 특히 社會間接事業費가 축소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나 이것은 政府가 社會間接資本 擴充을 위해서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그 실제의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豫算規模 增加率을 最終 豫算對比 規模增加 6.8%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俸給 또 交付金 防衛費등 경직성 경비가 規模增加率 보다 높기 때문에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事業費 增加率이 낮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明年度에는 그 豫算構造를 今年보다도 상당히 바꾼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地方讓與金事業이 今年度보다는 그 事業規模가 事業內容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가 새로 新設되고 해서 이 事業費는 이와같은 關聯特別會計에 計上된 豫算을 합쳐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明年度 社會間接豫算은 時間 關係상 增加率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今年度보다 19.2%가 增加되었고 農漁村支援對策費는 今年度보다 38.3%가 늘었고 環境改善費도 讓與金事業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4.9%가 늘었으며 技術 및 産業人力養成費도 今年度보다 13.2%가 增加되었습니다.

張石和委員님 選舉와 관련된 첫번째 質疑는

바로 明年度 예정되어 있는 選舉管理費를 豫備費로 計上한데 대한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金委員님 質疑의 答辯으로 같음했으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張石和委員님께서 109億원에 달하는 總理室·行政調整室豫算중 새질서생활國民運動 關聯經費는 이것은 削減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政府가 현재 汎國民運動으로 전개하고 있는 새생활새질서運動은 그것이 汎國民의이요. 汎政府的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總理室 行政調整室의 統合 調整 機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2年度에 1億 600萬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政府가 보다 새생활새질서運動을 효과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承載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번 質疑는 高級頭腦의 招聘制는 아주 좋은 制度라고 보는데 豫算要求 31億을 教育部에서 요구를 했는데 10億만을 計上한 것은 부당하니까 이것을 增額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현재의 國內 優秀人力이 부족한데 또는 海外에는 많은 優秀人力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海外에 있는 優秀人力을 招聘하는 그런 契約教授制度야말로 현실에 꼭 적합한 制度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明年에 教育部가 이 制度를 처음 시작하는 해였기 때문에 財政形便上 教育部 요구대로 全額을 計上하지 못하고 10億원을 策定했습니다. 앞으로 이 制度의 效果에 따라서는 이 豫算도 계속 增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財政形便上 부득이 教育部의 豫算을 全額을 반영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私立學校敎職員의 退職手當에 관해서는 全額 이것이 國庫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이 밖에도 黃哲秀委員님께서 더욱 소상하게 教育部 關聯에 관한 明年度豫算에 追加的 요인에 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우선 그 黃委員님 양해하여 주시면 黃委員님 質問과 함께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委員님은 이것 외에 누락 경력을 인정해야 되고 敎職手當 加算金을 計上해야 되고 그 다음에 主任敎師手當 私立學校退職手當을 全額 國庫負擔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私立學校退職金, 手當 등에 관한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이 私立大學 私立高等學校 運營과 특히 私立高等學校 運營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는 모든 분야가 國庫負擔形態로 즉 登錄金外에 授業料外에는 國庫負擔形態로 점차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私立學校라는 制度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高等學校의 敎育制度와 또 私立學校에 대한 財政支援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이 劃一的이요 一律的인 制度下에서 私立學校運營에 관해서 부족한 모든 資金을 財政에서 대달라 하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政府의 財政은 制限되어 있습니다. 民間에서 독지가가 育英事業을 하겠다고 私立學校를 경영하는 경우 그 育英事業의 뜻이 살려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運營에 있어서도 독자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敎育制度의 개혁과 國庫支援이라는 문제가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모든 私立學校의 財政 追加的인 財政負擔 부족한 經費는 全額 國庫가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계속 가는 경우 國家財政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承載委員 總理! 그것이 그런 總理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문제는 私學을 하는 側과 政府側과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私學은 말이지 公務員과 달리 私學의 경우 75年度 私學年金制度가 시행된 이후 同 制度가 기존의 勤勞基準法에 의한 退職金制度를 같음한다고 해석이 왔고 그 法에 따라서 私學法人은 法人負擔金을 납부해 왔어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예. 알고 있습니다.

○朴承載委員 그런데 民間 勤勞者에게 國民年金制度가 생겼다고 해서 현행의 年金制度를 유지하면서 또 거기다가 退職金制度를 부활시키고 그 所要財源을 使用者負擔原則을 내세워 가지고서 私學法人에게 부담하게 하니 이

것. 私學法人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政府가 명확하게 해명하든지 해야지 어떤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또 바꾸어 버리면 法の 解釋을 政府 마음대로 해버리면 國民은 政府를 어떻게 信賴합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예. 그렇기 때문에 私學敎職員退職手當에 대해서는 政府도 負擔을 하도록 豫算에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全額을 政府가 앞으로도 負擔을 하라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朴承載委員 年金公團에서의 負擔하는 것을 제외하고...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私立學校法人과는 상당한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明年度 豫算에도 國庫支援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이것을 全額 國庫制度로 가느냐 하는 制度의 문제라면 저는 私學 私立學校에 대한 教育制度와 함께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黃委員님과 똑같은 지적말씀이었습니다.

漏落經歷을 인정을 하고 元老敎師敎職手當加算金을 引上을 하고 主任敎師手當新設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점 그 實情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政府의 財政形便 또 教育公務員과 여타 다른 一般公務員과의 衡平과 均衡이라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다 豫算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漏落經歷認定에 따른 不足分은 教育交付金으로 執行하도록 教育部와 현재 協議中에 있습니다. 敎員主任手當新設 및 元老敎師敎職手當 引上要求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政府는 教育公務員 뿐만 아니라 많은 비슷한 性格의 다른 여타 公務員도 있습니다. 이런 公務員들과의 衡平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研究課題로 檢討를 하겠습니다.

○朴承載委員 그런데 이제 副總理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 敎員社會가 말이지 敎員社會가 보통 一般公務員社會하고는 조금 性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全敎組

問題를 피부로 느꼈고 직접 敎育委員會에서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 實相을 아는데 一線敎師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政府를 보다 더 信賴할 수 있게 하겠는가 라는 그러한 측면에 留意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全敎組는 아니라 하더라도 全敎組側의 그 주장에 상당한 정도의 共感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이만저만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를시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알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敎員福祉會館建立費 補助 14億원이 要求되었는데 5億원이 削減되고 9億원만을 計上했는데 이것을 全額 計上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朴委員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敎員福祉會館은 民間團體인 敎員團體總聯合會가 그 會員인 敎員의 福祉向上을 위하여 建立한 것으로 89년에 會館建立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原則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民間敎員團體의 會館이니만큼 그 運營 등등은 그 會員의 會費負擔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敎員福祉會館이라는 그 特殊性을 감안해서 政府는 84년부터 91년까지 敎員福祉會館建立費 153億원중 70億원을 이미 支援을 하였고 92年度豫算에서도 그 일부인 9億원을 計上하였습니다. 나머지 分野는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舊會館賣却에 따른 여타 金額은 결국은 舊會館賣却에 따른 特別附加稅에 해당하는 金額을 즉 特別附加稅를 納付하게 되어 있는데 그 稅金을 國庫에서 補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削減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大企業의 大株主 株式持分率의 增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앞으로 公正去來委員會의 機能을 더욱 擴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政府는 朴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公正去來委員會의 機能을 더욱 擴大 強化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公正去來委員會는 건전한 發展을 도모하는데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昨年4月 公正去來法이 改正되어 公正去來委員會의 組織과 기능 보완되고 있으면 또 한 今年 上半期中에도 公正去來委員會는 100大企業에 대한 下都給去來의 實態調査를 비



못하여 百貨店 바진세일등 國民生活과 밀접한 分野의 不正去來에 대한 重點規制등 經濟各 分野에 公正去來秩序를 정착시키는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開放化 國際化 時代를 맞이하여 主要先進國들의 公正去來制度 機構 機能 등을 참고로 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公正去來制度가 確立되도록 더욱 補完 發展시켜 나가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洪熙杓 副總理! 잠깐 答辯 중 지해 주시고요. 朴承載委員 그리고 柳昇珪委員 어저께 質疑하신 두 분 委員님에게 오늘 원만한 答辯을 받아서 會議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部分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速記錄에 올리도록 해서 部別審議때 또 세심하게 質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權海玉委員님 아까 答辯이 됐고 한가지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書面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그러면 나머지는 書面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朴承載委員님 남은 質疑 그 다음에 柳昇珪委員님 質疑 權海玉委員님 質疑는 저희들이 書面으로 충실하게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權海玉委員님이 지적하신 大田·晉州間, 高速道路가 92年度에 着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政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大田·晉州間, 高速道路는 그 實施設計가 進行中에 있어 明年度 豫算에는 殘餘設計費 30億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大田·晉州間의 여러가지 高速道路의 필요성 또 優先順位 등을 고려해서 國會豫算決算委員會에서 이것은 審議되는 경우 政府로서는 大田·晉州間, 高速道路가 조속히 着工될 수 있도록 최대한 協調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朴實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朴委員님 첫번째 質疑는 明年度豫算은 5年만에 2倍로 늘어난 膨脹豫算이요. 善心豫算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經濟安定을 해치는지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委員님께서 우리 豫算規模가 87년에 비해서 2倍로 늘었다고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名目的인 豫算規模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나 우리 經濟가 그만큼 성장함에 따라서 그 比率만큼 豫算이 늘어난 것입니다.

名目的인 豫算規模는 늘었습니다마는 우리 GNP에 대한 그 豫算規模의 비중은 결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88년에 一般會計의 對 GNP比率은 14.4%였습니다.

그것이 92년에 와서 名目的 規模로는 2倍 가까이 늘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우리의 經濟規模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우리 經濟規模 전체 즉 GNP에 대한 明年度의 豫算規模의 比重도 역시 14.8%로써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租稅負擔面에서도 1人當 擔稅額이 今年度보다 14%가 늘어나서 이제 100萬원대를 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歲出豫算이나 마찬가지로 國民租稅의 名目負擔額은 늘었습니다마는 GNP에 대한 租稅負擔率은 88년의 18.3%에서 91년은 19.5%, 明年에도 19.6% 수준이 되었습니다.

經濟가 성장을 하고 所得이 느니까 이제 明年度에 가서 우리 國民의 1人當 納稅額도 드디어 100萬원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豫算規模에 관한 지적 말씀은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 같음하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과도한 財政支出이 인플레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이 점은 IMF의 報告書에서도 이와같은 경고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IMF 年例報告書에서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物價에 관한 많은 걱정을 했고 앞으로 財政은 건축적인 방향에서 계속 운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었는지 우리 財政이 인플레이를 가져올 수 있도록 膨脹運用되고 있다는 지적은 아니었었고 財政은 앞으로도 건설하게 運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統合財政의 赤字도 가능하면 GNP의 1% 以內에서 運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來年度 豫算上 統合財政收支는 今年보다 다

소 오히려 改善될... 收支는 GNP對比 比率이 1%以內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이 되며 政府는 계속 經濟의 安定基調를 유지하기 위해서 消費性經費의 절약 등으로 그 效率이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共和國 출범해인 88年과 비교하여 두배의 豫算增加만큼이나 개선된 民生指標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보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民生指標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數年間 특히 우리 勤勞者의 賃金上昇은 거의 3年間に 배가 될 수 있도록 賃金上昇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勤勞者의 生活水準이 그만큼 개선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결과가 우리 GNP推計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被傭者補酬의 對 GNP比率이 여기 제가 統計를 86年을 가지고 있어서 최종합니다. 86년에 51.8이던 것이 90년에 와서는 被傭者補酬의 比率이 59.4%로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分配構造가 개선되었다는 첫째 증거라고 보니다.

또한 繼續的인 住宅增加로 住宅補給率이 86年에 겨우 60%였었던 것이 74%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6共들어서 우리나라의 農村을 포함하는 全國民이 醫療保險 혜택을 보도록 醫療保險 受惠率이 100%로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勤勞者와 관련해가지고는 最低賃金制를 실시하는 것도 6共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더욱 庶民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住宅關係에서는 특히 政府는 無住宅 庶民을 위한 公共住宅建設을 위해가지고 政府는 每年 1兆원의 豫算을 每年 投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어떤때도 庶民住宅建設을 위해서 1兆원이라는 資金을 支出한 예가 없었습니다.

農民關係를 指標를 말씀하라니까 말씀드립니다.

農民關係는 그동안 農漁村負債 및 農組組合費를 빚탕감을 위해서 거의 每年 6,000億 가까운 資金을 每年 지출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醫療保險制度가 全國民에게 施行됨으로써 農漁村에도 醫療保險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秋穀收買에 관해서 특히 野黨에 계시는 委員님께서 收買價格과 收買量에 관한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秋穀收買價格이 10% 이상 收買價格을 계속 올렸고 1,000萬石 以上の 秋穀收買를 했던것도 6共 들어와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등 우리 어려운 經濟與件下에서도 우리 庶民 勞動者 農民 등을 위한 財政支出은 계속 擴大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洪熙杓 친척히 資料를 찾으시고 잠깐 제세요. 答辯중 준비해 주시고 副總理에게 吳景義委員, 文峻植委員, 林茂雄委員, 權達洙委員에 대한 答辯書는 書面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부분에 대한 答辯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다음 朴委員님께서는 社會間接資本에 치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社會間接豫算이 그렇게 늘지 않았고 특히 國民福祉 등에 관해서 늘지 않으면서 경직성 豫算만이 증가했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豫算比較를 最終豫算 대비하고 하느냐 本豫算 對比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最終豫算하고 對比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一般會計 뿐만 아니라 明年度에는 豫算制度가 좀 바뀌어졌기 때문에 地方讓與稅 財政投融资特別會計 그리고 農村構造改善特別會計를 함께 고려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會計를 고려한 事業費增加는 다른 委員님 金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같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野黨에서 提案한 豫算規模를 18% 이내로 削減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政府로서는 그것을 그렇게 削減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豫算이 審議確定은 國會豫決委員會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마는 政府로서는 아까 金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린대로 계속 증가되는 財政需要에도 불구하고 財源의 制約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歲出豫算을 計上을 하였습니다.

政府로서는 가능하면 政府가 提案한대로 通過 審議·議決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黃委員님 質疑에 대해서는 아까 朴承載委員님 質疑로 같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崔鳳九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崔委員님 첫번째 質疑는 消費者物價가 體感物價와 차이가 나는데 대한 지적 말씀이 계시면서 國民의 입장에서 物價政策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政府가 발표하는 物價指數가 國民들이 직접 느끼는 피부 物價와의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物價指數라는 그 통계상의 특수성 또 個別 家計가 個別 品目別로 또는 계절적으로 느끼는 그런 個別的인 事項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른 기회에도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消費者物價指數는 85年度 都市家計의 消費支出의 비중에 따라서 즉 消費支出의 10,000分の 1 이상 支出하는 品目 411個 品目に 대해서 品目別로 그 支出 비중에 따른 加重平均으로 현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5年度の 物價編制이기 때문에 90年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物價編制가 현재 編制作業이 진행중에 있고 明年 上半期중에는 새로운 物價指數로 物價指數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그 동안 우리 國民消費生活 構造가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現實인 消費支出構造를 반영하는 그런 國民物價指數로 改編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明年度豫算의 膨脹問題와 物價問題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앞서 質疑하신 委員님의 答辯대로 같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金融實名制에 관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번 이 문제에 관해서는 總理께서도 지난번 本會議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金融實名制는 그 많은 長點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또한 그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여러가지의 經濟的 충격이라는 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政府는 지난 年初에 金融實名制의 實施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우리 經濟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할 때 새로운 經濟的 충격을 주는 그와 같은 조치는 당분간 유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政府로서는 實名制의

실제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非實名預金에 대한 높은 課稅등 또 株式贈與 相續稅의 철저한 課稅, 不動產投機의 抑制 등도 바로 그와같은 實名制의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崔鳳九委員 副總理! 제가 밤도 깊었고 또 너무 장시간 서서 答辯하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質疑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實名制關係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한 말씀만 質疑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아까 質疑內容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預金의 實名制率이 98.8%고 또 證券에서도 證券監督院이 제출한 資料에서 보더라도 證券도 지금 實名化率이 96.4%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지금 金融機關에 있는 구좌들이 전부 대부분 實名制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實名制를 함으로써 經濟에 어떤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로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預金高의 預金이 이탈 이것이 제일 큰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슨 資金의 海外流出이라든가 그 다음에 地下經濟로 숨어들어간 말하자면 대기성 資金들의 말하자면 實物 投機資金화 그러니까 不動產 이런 價格같은 것을 上昇시킨다든가 이런 문제 또는 資本市場이 위축된다 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實名制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昨年 年初까지도 지금 政府에서는 6共政府의 말하자면 經濟政策의 가장 핵심적 公約으로 말하자면 經濟正義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金融實名制를 실현한다고 주장해가지고 準備團까지 構成해서 今年1月1日을 갖다가 實名制의 實施時點으로 삼고 作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例示한 이런 부정적 요소 말하자면 逆機能的 요소들은 이미 몇年間 金融實名制를 실시한다고 豫告해 왔고 昨年 年初에 말하자면 政府 首腦部라든가 與團 首腦部에서도 代表演說이라든가 말하자면 年頭記者會見席上에서도 實名制를 꼭 實施한다고 그렇게 主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逆機能的인 그런 否定的 要素를 전부 다 이렇게 政府가 다 代價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國民들이 치

루었는데 마치 '딱 그 당시에 經濟與件이 바뀐 것은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財務部長官 한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副總理로 오신 李承潤長官도 與團의 政策委議長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政策委議長 자리에서 계속해서 金融實名制를 부르짖었고 또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 理論이 결국 그 양반이 그 理論인데 그러면 理論이 바뀔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 狀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狀況變化라는 것은 鄭永饑 財務部長官 한 사람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財務部長官 한 사람 바뀐 것이 어떻게 政府와 與團全體에서 經濟正義의 말하자면 實現을 하나의 最大公約으로 實施하겠다면 金融實名制를 國民公聽會라든가 與野의 어떤 그런 討論도 없이 하루 아침에 이것을 延期했습니다. 그 당시 연기한 것은 資本市場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기초한 연후에 말하자면 政府가 연기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 資本市場의 證券株價指數는 한 840線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만약에 이런 金融實名制措置를 연기 해가지고 政策을 바꾸었으면 다시 順機能的 機能이 살아나야 될텐데 반대로 逆機能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證券은 예를 들어서 指數가 840에서 550까지 내려갔다가 요즈막에 와서 700을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엇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태고 또 不動產投機는 그 때 時點에서 불붙은 것처럼 불이 붙어가지고 여하튼 不動產시세가 金融實名制를 갖다가 유보한 이후에 엄청난 시세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金融實名制가 지금 현재 證券의 口座라든가 預金口座를 본다면 거진 한 預金은 98.8%, 證券은 94.6%가 지금 實名化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非實名去來者가 없다는 얘기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호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호할 대상이 없는 말하자면 金融政策을 굳이 金融實名制를 갖다가 유보한다는 것은 政府가 어떤 고집스런 태도가 아닌가 실지 經濟現實을 잘 이렇게 파악하지 않고 또 하나는 약간의 副作用이 있더라도 正義經濟를

실현한다는 이런 마당에서 여러가지 脫稅라든가 말하자면 財閥들의 經濟力集中 말하자면 점은 돈의 말하자면 블랙머니의 예를 들어서 投機資金化라든가, 여하튼 經濟의 逆機能的인 그런 현상이 더 과중한 이 판에 또 우리 해박한 知識을 가진 副總理께서는 이 時點이 金融實名制를 실시할 時點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쭙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質疑를 갖다가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대응 그러면 다음에는 언제쯤 되면 이 金融實名制가 實施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의사가 없다면...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金融實名制에서 오는 충격을 우리 經濟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때 實施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崔鳳九委員 그런데 그 時點은 대충 副總理께서 예정을 못 하겠습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그런 점까지 그렇게 지금 명확히 豫測하기에는 우리 經濟가 많은 不確實性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各 部處豫算에 內譯없이 計上된 情報費豫算은 安企部의 調整統制를 받는 豫算으로 보는데 이와 같이 用度가 불분명한 豫算을 削減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質疑였습니다.

여러번 答辯을 드린 바와 같이 豫算會計의 特例에 관한 규정에 의한 豫算은 豫備費外에는 他部處에 計上된 바가 없습니다. 他部處에 그 밖에 部處에 있는 情報費豫算은 그 部處의 고유한 機能의 원활한 遂行을 위해서는 情報費라는 費目的 豫算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豫算을 計上을 해서 國會의 審議를 받고 執行을 하고 있습니다. 情報費에 관한 安企部의 統制는 安企部法과 情報 및 保安業務企劃調整에 관한 大統領令에 의해서 우리나라 情報業務를 總轄 調整하는 安企部機能에 따라서 情報業務의 總轄, 調整의 일환으로서 調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公共料金과 官許料金에 관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金榮度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朴錫武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朴委員님의 첫째 質疑는 역시 6共和國 政府의 經濟政策基調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에 함께 答辯드린 것으로써 첫째 質疑를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번째 質疑는 農民의 어려운 사정 또 無差別의인 輸入開放, 가진 者의 過消費로 인한 勤勞者의 勤勞意慾減退, 國際收支赤字의 擴大, 物價上昇 不動產投機등 여러 가지의 오늘의 經濟現象에 관한 問題와 어려운 점을 지적하시면서 政府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할 事案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質疑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經濟가 여러 군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政府는 우선 物價安定이 最急先務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窮極의으로는 우리 產業의 競爭力을 회복해서 우리 國際收支의 赤字幅을 점차 축소하고 窮極의으로는 均衡 내지 黑字 基調를 회복하는데 政策의 優先順位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現 經濟狀態에 대한 책임을 지고 經濟部處 長官들은 辭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總理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로서는 現 經濟問題와 關係해서 同僚委員으로서의 선의의 충고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없고 다만 公職을 맡고 있는 이상은 말은 바 職務를 성실히 遂行하기 위해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國際收支赤字의 주된 원인은 對日貿易 逆調의 擴大, 또 建設過熱로 인한 輸入增加가 主要原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對備策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 우리나라의 國際收支赤字는 根源的으로는 우리 產業의 競爭力弱화에 따른 輸出增加率의 둔화, 또 그 동안의 民間 消費增加 建設景氣의 過熱등으로 나타나는 內需의 增加와 輸入開放에 따른 輸入의 높은 增加 때문에 國際收支赤字幅이 擴大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더 具體的으로 보면 지적하신 대로 우리 國際收支赤字의 問題는 對日逆調 是正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對日貿易逆調는 이것이 一時的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產業의

構造의 問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政府는 보다 長期的인 對策을 樹立해서 對日貿易逆調를 是正해 가려고 하고 그 바로 具體的인 計劃이 주로 日本地域으로부터 輸入되는 部品 등을 조속한 時日內에 國產으로 代替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今年으로 部品國產化5個年計劃이 今年으로 끝났고 明年부터는 部品國產化2次5個年計劃을 樹立해서 철저히 執行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建築景氣가 우리나라의 過熱現象과 나아가서는 그것이 輸入增加로 나타난 바 있기 때문에 政府는 지난 5월이래 3次에 걸쳐 建設景氣鎮靜對策을 취한 바 있고 最近 들어서는 그 效果가 可視化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今年 4/4分期 및 明年上半期부터는 建設景氣 過熱에 따른 輸入增加는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最近에 物價騰貴와 關係를 해서 經濟企劃院 또는 韓國銀行 등이 그 原因을 진단을 하고 對策을 하는 데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副總理로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質問을 하시면서 朴委員님의 견해로서는 바로 오늘의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 產業의 生産性 격하와 通貨量의 과당供給, 財政의 방만한 運用, 輸入原資價格의 上昇, 不動產投機에 主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物價가 오늘날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朴委員께서 지적하신 經濟企劃院의 입장, 韓國銀行의 입장, 또 朴委員님의 견해가 複合的으로 작용을 해서 이와 같이 오늘의 物價上昇 압력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요약을 하면 역시, 總... 超過需要가 需要面에서 物價壓力으로 나타났고 또한 勞賃上昇등 費用上昇이 費用面에서의 物價壓力으로 나타났고 또한 勞賃上昇이 서비스料金の 引上으로 이어졌고 또한 建設景氣 과열이 建設 勞賃單價 上昇과 建築資材價格의 上昇등 物價壓力의 큰原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政府는 物價安定을 위해서는 總需要 管理에 철저를 기하면서 農畜產物등 需給, 均衡과 안정을 기해 나가는 한편 이제부터는 貨金이 적정수준에서 안정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에서 物價安定對策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오늘의 6共의 經濟政策은 物價

와 國際收支에서 失敗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처음 冒頭에 野黨委員님 여러 委員의 質問을 요약해서 答辯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錫武委員 지금 副總理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經濟的 난맥상은 제가 생각해도 여러가지 原因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나 할 때 副總理께서는 物價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現實로 볼 때 자고 나면 物價는 오릅니다.

지금 副總理께서는 年末까지 해서 몇%로 物價를 억제하겠나. 또 來年上半期까지 가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실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한번도 적중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物價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經濟問題解決策은 物價 잡기다 그런데 못잡는다. 그렇다면 經濟政策은 失敗한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副總理께서 答辯을 하실 때는 어떤 側面에서 物價를 못잡은 것은 사실이다.

物價를 못잡았다면 결국 이 經濟政策은 失敗아니냐?

나는 副總理께서 좀 是認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是認을 하셔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失敗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 失敗를 극복하고 다시 物價를 잡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副總理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정직한 答辯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答辯 한번 해보세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政府에서 內閣의 閣僚의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政策에 대해서는 여러 委員님의 따가운 평가를 저는 받겠습니다.

(洪熙杓幹事, 金珞泰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 財政運用과 관련해서 계속 庶民負擔이 높다는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 改善對策을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歲入問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財務部長官께서 소상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歲出과 관련해서는 역시 政府의 소모적 消費的 經費라고 보는 辦公費, 情報費,

機關辦公費 등을 大幅 削減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辦公費나 情報費가 消費的 성격의 經費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政府라는 組織과 機關이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고 또한 일부 部處에 있어서는 그 業務의 고유한 성격과 기능때문에 情報費라는 費目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政府로서는 그 최소한의 經費를 計上해서 國會에 제출해서 여러 委員님들의 審議를 받고자 합니다.

역시 朴委員님께서도 5共들어 5年만에 財政規模가 2倍가 늘어났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아까 朴 實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朴委員님께서도 우리 產業構造를 農民을 위한 農民爲主로 產業構造를 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너무도 質疑가 요약되어 있어서 그 원 취지를 제대로 제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農民이 經濟가 점차 産業化되어 가고 또한 開放化時代를 맞이 하면서 農民이 對內·對外的으로 어려운 立場에 있기 때문에 政府로서는 產業政策樹立에 있어 對農民支援에 관한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기본적 방향은 우리나라 農業을 競爭, 産業化하는 방향에서 農業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政府는 農業構造改善10個年計劃을 수립을 해서 47兆원의 豫算을 10年間に 걸쳐 年次計劃에 의해서 投資할 그런 計劃을 세우고 있습니다.

產災保險特別會計에 관해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產災保險特別會計 歲入은 保險料 收入을 그 大宗으로 하고 있는데 그 產災保險의 歲出은 產災保險金 支出이 또 大宗으로 되어 있고 產災豫防基金이나 勤勞者 保護에는 조금 基金配分 比率이 적다 이런 점 是正을 해야 된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產災保險特別會計는 勤勞者와 經營企業主의 保險料 收入으로 產災保險金を 지급하는 이른바 特定資金을 특별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產災保險特別會計가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産災保險金の 증가에 비추어서 保險料 收入으로써는 그것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一般會計의 轉入金이 매년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軍用施設特別會計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토지 또는 건물을 매각해서 새로운 지역에 신규로 軍事施設을 하는 것이 軍用施設特別會計인데 시세 차액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主務部長官인 國防部長官께서 설명을 올리는 것이 소상한 答辯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92年度豫算에 제상된 35個 部處의 公報官室의 官署當經費중 特別辦公費의 歲出內譯을 물으셨습니다.

政府는 豫算編成에서 單位機關 또 주요 補職이 있는 機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辦公費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一般會計 소관으로 38個 部處, 特別會計 所管으로서는 4個 部處 合計 42個 部處의 公報官室 官署當經費로 7億6,200萬원이 제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公報官室의 업무의 성격상 최소한의 辦公費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公報官은 그 部處의 代辯人으로서 많은 對外的 활동을 하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錫武委員 제가 이 質疑를 한데에는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副總理께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같은데 지금 公報官室의 官署當經費는 特別辦公費라고 해가지고 책정되어 있는데 방금 副總理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部處의 代辯人室에다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경비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代辯인이 쓰는 것 아닙니까?

○朴錫武委員 代辯인이 어떻게 씁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代辯인이 代辯人으로서의 활동을 하려면 여러가지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朴錫武委員 이것이 요새 新聞紙上에도 대대

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바로 촌지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라 言論文化的 正화라든가 아니면 官公署 풍토의 변화를 위해서도 特別辦公費 문제는 再考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 안했지만 간단히 質疑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代辯人들이 그 部署의 出入記者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계속에서 이름은 弘報이지만 사실은 오고 가는 거래가 대단히 불미스러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우리가 깊이 고려해 가지고 이런 豫算에 대해서는 한번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전체적으로 언론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社會淨化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차제에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質疑한 것입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아마 朴委員님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長官級의 관서로 되어있는 24個 部處의 年間豫算이 2,200萬원입니다. 기타 18個 部處는 年間豫算이 1,100萬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갖고있는 자료중에 特別辦公費에 관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큰 金額이 아닙니다. 年間 2,200萬원입니다.

○朴錫武委員 지금 각 部處別로 辦公費를 전부 매 봤는데 보통 2,200萬원 되는데 예를 들면 公報處 같은 경우는 公報處의 辦公費만 해도 12億6,488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辦公費는 代辯人室에서 정말 홍보차원을 위한 經費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35個 部處에서 總18億8,399萬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數字로 확인한 것입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그 자료를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經費는 결코 아닙니다.

○朴錫武委員 18億 정도 되는 豫算은 어떤 의미에서 물론 전체 우리 豫算으로 보면 적은 것이지만 18億, 자체는 적은 것이 아닙

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豫算이 濫用되는 쪽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드렸고 司會하시는 委員長님 말씀에 따라서 林茂雄委員님 權達洙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충실하게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 實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金瑢泰 말씀하세요.

○朴 實委員 제가 마음 먹고 靑瓦臺部分에 대해서 質疑을 했는데 오늘 會議進行 答辯順序를 보니까 안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디에 물어보니까, 허공에 대고 물어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누가 答辯합니까?

(洪熙杓幹事, 金瑢泰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瑢泰 靑瓦臺側の 答辯을 요구했습니까?

○朴 實委員 靑瓦臺豫算이니까 靑瓦臺에 물어봤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委員長 金瑢泰 그러면 누구를 지칭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로서는 지금...

○朴 實委員 靑瓦臺豫算이 國會에서 豫備審査를 하고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靑瓦臺豫算이기 때문에 豫備審査 과정을 생략하고 國會議長의 職權에 의해서 이 쪽으로 넘어왔습니까?

○委員長 金瑢泰 豫算審議 때 靑瓦臺에서 누가 나와서 答辯한 前例를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朴 實委員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靑瓦臺豫算은 稅金으로 안 나가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瑢泰 글썽 그것은 알겠는데요.

○洪熙杓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金瑢泰 洪熙杓委員 議事進行發言하세요.

○洪熙杓委員 靑瓦臺부분의 豫算審議는 國會運營委員會에서 豫算·決算을 審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本會議에서도 靑瓦臺 部分이라든

가 安企部 部分에 한해서는 關係官들이 慣例에 따라서 出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豫決委員會도 前에부터 내려오는 慣例를 보면 各 部別審議를 할 때에 運營委員會를 審議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에 運營委員會에 해당되는 靑瓦臺라든가 또 全國 이런 部分에 대해서 部別審議 때 質疑하면 됩니다. 오늘 가령 質疑가 됐다면 그 部分은 速記를 事務處에서 받아서 청와대 쪽에 전달하면 部別審議 할때 나와서 答辯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온 것이 慣例입니다.

○朴 實委員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書類를 내가지고 書類에 答辯 써가지고 와서 해요? 그것이 國會議員으로서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종합 政策質疑인데 누구 멋대로 部別審議에 나와서 그 부분만 靑瓦臺에서 答辯합니까? 누구 멋대로 部別審議 때 靑瓦臺만 書面答辯 미리 해가지고 이것이 綜合政策質疑인데 그런 慣例를 정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요? 이진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場內騷亂)

○委員長 金瑢泰 그러면 副總理兼統一院長官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議事進行發言中입니다.

議事進行중에 아무런 조치없이 어떻게 答辯을 계속합니까?

○委員長 金瑢泰 議事進行發言 끝났지 않습니까?

答辯은 계속하시고 幹事間에 절충을 좀 해주십시오.

○柳峻相委員 우리 與野委員들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崔副總理께서는 좀 들어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豫決委員會에 참석을 해서 與野委員들간에 상당히 진지하게 또 특히 우리 黨의 金瑢鎬幹事が 상당히 會議進行에 협조를 잘 해주고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 내일 아침에 배달되는 여러가지 新聞, 放送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 豫決委員會가 부실한 資料의 提出로 인해서 심도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시각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朴 實委員 뿐만 아니라 여러 委員  
님들께서 요구한 또 말씀들 그리고 기허 內  
務部長官에게 요구했던 特別交付稅에 대한 이  
런 資料들이 提出되지 않고는 豫算審議를 계  
속해 봐야 별 효과가 나지않는다 하는 판단  
입니다.

저도 豫決委員會에서 활동하는 것이 11年동  
안에 約 일곱차례 했습니다.

또 최근처럼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도 보  
기 드문 현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가 하루 이틀에 이제 幹事間에 합의  
된 것으로 보서는 18日까지 豫決委 本會議  
에서 全 國務委員이 참석한 가운데 政策質疑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렇게 質疑  
하고 答辯하고 부실한 答辯받고 또 資料없이  
質疑하게 되면 이 豫算審議의 본질에 어긋나  
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委員長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 停會를 하고 우  
리 民主黨의 입장을 정리해서 또 幹事로 하  
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瑢泰 사실은 그동안 오늘 저녁만  
해도 그렇습니다마는 監査院長의 答辯이 끝나  
고 또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의 答辯이 끝나  
고 또 法院行政處長 答辯이 끝나고 사실 순  
조롭게 議事가 進行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도중에 사실 그 문제를 다시 제기  
를 하니까 委員長으로서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1次 冒頭에 資料問題가 제기가 됐었  
습니다. 그래서 行政府側에 엄중하게 제가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매듭이 지어지고 그래서 答辯에  
들어갔던 것이고 또 答辯이 지금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  
황변화가 있지 않은데 지금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저로서도 사실 이것이 좀 의외입  
니다.

○朴 實委員 저는 國政에 임하는 國會議員으  
로 당연히 質疑한데 대해서 答辯을 받을 권  
리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제 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찰인지 몰라도 答辯順序를 못  
봤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모양이다 했

는데 答辯順序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慣例, 慣例하는데 決算의 경  
우는 기왕지사이고 또 政治的인 책임추궁이고  
그러니까 고집하지 않겠다 해서 저도 靑瓦臺  
部分決算, 豫備費問題는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豫算아닙니까? 豫算이고 또  
어떤 法的인 근거에 의해서라도 靑瓦臺側에서  
豫算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사람이 答辯을 하  
지말라는 법이 없어요. 또 大統領보고 직접  
나와서 答辯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아니고 靑  
瓦臺秘書室長이 책임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  
니까? 이런 상식적인 문제가지고 다른 얘기  
를 하니까 質疑한 사람으로서는 갑갑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온다는 얘기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瑢泰 그래서 그것가지고 제가 일  
일이 司會席에 앉아가지고 제가 討論할 용의  
는 없는데 사실 어제도 答辯에 靑瓦臺關係者  
들 만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동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아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議事가 進行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사실 저로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朴 實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議  
事進行을 방해할 뜻은 아니고 오늘 時間上으  
로 오늘 안되면 來日 나와서 答辯한다든지  
그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합니까?

○盧武鉉委員 나온다면 나온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趙洪奎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金瑢泰 알겠습니다.

柳曉相委員 말씀대로 잠시 停會를 하겠습  
니다.

與黨委員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시  
오.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22時43分 會議中止)

(23時4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瑢泰 會議를 續開합니다.

金瑛鎬委員 議事進行發言하십시오.

○金瑛鎬委員 밤 늦게까지 國政審議에 임하고  
있는 民主黨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  
고 委員長께 苦言을 드릴 수 밖에 없습

니다.

이번 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보다 더 效率的이고 生産的인 委員會運營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하고 동참을 해온 우리 黨의 입장은 委員長이라든가 政府側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朴實委員께서 問題提起를 했습니다마는 靑瓦臺側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잠깐 停會事態까지 왔습니다. 法律的으로 靑瓦臺秘書室長은 國務委員이나 政府委員이 아니기 때문에 當委員會에 出席할 수 없고 部別審議 때 자진 출석해가지고 委員들의 묻는 말에 答辯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委員長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安企部長出席問題는 우리 입장으로 박서는 豫算會計特例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豫算會計特例法을 改正을 해야 하겠다는 案들이 기위 國會에 提出이 되어 있었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安企部長 역시 部別審議 때 나와서 저희들이 묻는 말에 答辯을 하고 성의껏 國政審議에 임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 정리가 與圈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國務總理의 出席問題는 慣行이라는 이유 때문에 法律에 우선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慣行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결같은 우리들의 주장이고 이 주장은 아마 國民 그 누구도 우리들의 뜻에 전폭적으로 贊意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께서는 며칠 전에 APEC會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國務總理가 지금 나올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國際的인 會議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당 당연히 國務總理도 성의껏 國民의 代表의 場에 나와서 당연히 國政審議에 임해 주는 이러한 겸허한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時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國務總理께서 나와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黨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政府側에 苦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資料要請을 저희들이 했을 때 성의껏 내 주셔야 됩니다. 國家安保에 관한 문제라든가 機密에 속한 事項은 저희들도 요청을 안했을 것이고 또 혹시 몰라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십이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政府라든가 與黨의 黨利黨略의 인 측면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野圈에 흘러갈 경우 政治的인 攻勢를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未提出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또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狀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저희들의 集計에 의하면 충분히 資料로 提出해도 觀瞻을 事項들이 무려 100餘件이나 未提出되어 있습니다.

이 資料라는 것은 國政審議의 基本的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提出 안해 주고 있다는 사항은 政府側에 대해서 자극히 유감의 뜻을 표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提出되어 있지 않은 資料는 대단히 수고스럽고 미안하지만 내일 10時까지는 반드시 提出을 해 주셔가지고 다시 이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停會가 된다면 이 生産的인 國會가 空轉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우리 黨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일은 午前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國務總理가 出席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들이 요청했던 資料는 마찬가지로 내일 10時 開議前까지 반드시 提出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일 아침 다시 우리 黨의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開議 劈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黨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政府側의 答辯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洪熙杓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金瑑泰 洪熙杓委員 말씀하세요.

○洪熙杓委員 이런發言을 答辯을 듣는 도중에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黨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제 野黨側의 幹事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수용은 하면서 國務總理出席問題를 來日 午前 10時까지 시한을 정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黨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黨의 입장은 每年 慣例대로 해오던 마지막 政策質疑가 되는 18日 우리 委員들이 質疑한 내용을 答辯을 해 주시고 이것이 委員會에서 通過가 되면 政府側을 대표해서 인사하는 慣例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野黨이 요구한다면 民主主義 原則下에서 出席을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에 따라 多數 意見을 물어서 出席可否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委員長에게 提議를 하고 들께로 委員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하니 이것을 委員長께서 政府側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시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지금 중단되었던 答辯과 앞으로 남은 日程을 합의된 대로 進行해 주실 것을 議事進行發言합니다.

○委員長 金瑑泰 金瑑鎬委員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만큼 與野間에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國務總理出席問題 이 문제에 대해서는 與野間에 입장 차이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장 차이는 계속 절충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政府 答辯을 듣도록 이렇게 議事를 進行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副總理兼統一院長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統一院長官 崔浩中 統一院長官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權海玉委員께서 쌀 9萬5,000t의 對北韓追加搬出에 관한 立場과 이와 관련하여 GATT 承認問題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저께도 答辯을 드렸습니다마는 南·北韓間 쌀交易은 우리側 天地貿易會社와 北韓側 金剛

山開發 國際貿易會社間의 契約에 따라 一方的 援助形式이 아닌 直去來로 하여 우리側이 쌀을 送出하면 그 代價로 시멘트 無煙炭등 北韓產 物資를 보내오도록 合意된 것입니다.

거래량을 10萬t으로 하고 우선 1次的으로 5,000t을 搬出하되 北韓側은 이것을 받은 후에 시멘트와 無煙炭을 보내올 時期와 數量을 알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마는 北韓側은 지난 7月 우리쌀을 受領한지 5個月이 된 오늘날까지 쌀먹은 병어리처럼 아무런 通告를 하여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9萬5,000t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로 어떤 條件으로 搬出할 것인지 아무런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政府로서는 北韓의 어려운 食糧事情을 고려해서 同胞愛로서 쌀을 北韓에 보내는 문제를 南北當局間에 協議할 태세를 갖추고 지난 10月 平壤에서의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에 임했습니다마는 北韓側은 總理會談이 經濟會談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애써 냉담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南北韓 쌀 交易과 관련하여 이것이 民族內部的 交易으로 認定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東西獨間 交易의 경우와 같이 GATT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는 意見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政府로서는 南·北韓間에 쌀을 포함한 物資交易이 活潑해지고 그 規模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GATT의 承認을 받는 問題를 檢討해서 대처할 立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吳景義委員께서 南北統一의 國際環境造成을 위해서 韓半島 周邊國家들과의 關係를 어떻게 設定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南北統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北韓이 改革과 開放, 和解와 協力이라는 國際的 潮流를 拒逆하면서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겠다는 구호아래 그 體制維持에 專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北韓이 固守하겠다는 그 共產主義를 가지고서는 人類가 共通的으로 追求하는 自由와 人權 그리고 幸福을 國民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관가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共產主義의 宗主國인 蘇聯을 포함해서 東歐의 모든 國家가 改革과 開放의 길을

걸고 있는 이때에 北韓이 時代에 逆行하는 政策을 固守함으로써 국제적인 孤立과 經濟的인 困窮을 自招하고 2,000萬 北韓住民에게 苦痛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政府로서는 北韓에 대해서 世界의 흐름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스스로 改革과 開放이라는 變化를 보이도록 꾸준히 誘導해 나감과 아울러 周邊國家들도 北韓을 이러한 變化의 길로 이끌어 내서 북한이 國際社會의 責任있는 一員으로서 和解와 協力이라는 世界的 발걸음에 同參해 오도록 하는데 協調해 줄 것을 促求해 나갈 것입니다.

北韓도 當面하고 있는 經濟的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開放으로의 變化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段階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政府로서는 南·北韓問題는 南·北韓 當局의 主導的 努力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基本方針을 堅持하면서 周邊國家의 理解와 協力を 계속해서 추구해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朴錫武委員께서 質疑를 주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統一院의 情報分析費 民間統一團體 育成支援費 統一研修費 등이 選舉目的등 餘他目的에 利用하려는 것으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를 삭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朴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세가지 事業豫算은 統一院이 發足한 이래 每年 豫算에 策定되어 有用하게 活用되어 왔으며 어떤 政治的인 目的이나 其他 目的을 위해서 策定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을 올립니다.

情報分析豫算은 北韓實態와 動向을 分析해서 統一政策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하는 事業에 수반되는 豫算으로 北韓放送 모니터등 情報資料의 수집·분석, 北韓의 政治, 軍事 經濟, 社會등 諸分野의 實態把握과 動向分析 各分野別 南·北韓 現況 比較分析 그리고 北韓資料 센터의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民間統一團體에 대한 支援은 두가지 目的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民間次元의 統一促進運動과 弘報活動을 통해서 國民的 統一意志를 結集하고

民族統一力量을 培養하는 다양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는 民間團體들을 支援하는 것으로서 民族統一協議會와 民族統一促進會에 대한 補助金支援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政府가 해야할 일을 事業의 性格이나 效率性 등을 감안해서 民間團體가 代行하고 있을 때 原價補償의 차원에서 補助金을 支援하는 경우로써 英文季刊誌 Korea & World Affairs를 發刊하여 世界 160餘個 國에 配布하고 있는 南北平和統一研究所에 대한 支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統一研修事業은 分斷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 民族에게 절실히 要求되는 時代精神이라 할 수 있는 民族自尊意識과 統一意志를 일깨워 주고 民族共同體意識에 基礎한 同質性 回復과 健全한 民族統一觀을 定立 擴散시켜서 올바른 北韓觀 定立과 統一問題에 대한 國民的 合意基盤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가지 事業은 統一政策의 推進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重要性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要求드린 豫算이 反映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瑢泰 子正이 다 되었으므로 會議 次數變更을 위하여 散會를 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4時 散會)

【書面質疑·答辯書】

○鄭在文委員

尊敬하는 委員長,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그리고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13代 國會를 마무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政策質疑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政府는 國家財政活動의 方向으로서 經濟安定基調 維持 成長潛在力 培養 社會的 衡平과 國民福祉 增進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에 대하여 우리 社會에서는 몇가지의 重要爭點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豫算規模의 문제이고 둘째 國民 租稅負擔의 적정여부 그리고 政府에 대한 信賴性問題입니다.

이에 대한 政府의 立場은 國家 當面課題를 완수하기 위하여는 財政需要가 늘 수밖에 없고 그래도 國民負擔은 과중한 것이 아니라는 현실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社會一角에서는 膨脹豫算은 財政인플레를 誘發할 것이며 따라서 政府가 國家財政을 방만하게 관리하는 한 오늘의 經濟難을 打開하기 어렵다는 危機論의인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狀況을 위기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이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준엄하게 反省하고 얼마나 責任있게 政策을 推進하느냐에 달려있다고 本委員은 믿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經濟政策이 성공을 거두려면 政府가 計劃하는 바를 國民이 잘 理解하고 또 자진해서 協調하는 氣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國民은 政府를 믿어야 하고 政府는 國民을 믿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92年度 政府豫算案을 최종적으로 審議하면서 우리 國民이 못믿어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本委員이 몇가지 質問과 當부말씀을 드리고 政府의 答辯과 約束을 듣고자 합니다.

(1) 먼저 豫算規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經濟運用的 基調를 總需要의 管理를 통한 安定基調의 바탕위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通貨 및 財政緊縮이 필수과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92年度 政府豫算 33兆5,000億은 超膨脹豫算으로서 ①通貨 및 物價管理에 壓迫要因이고 ②安定基調를 위협하며 특히 ③政府 公共事業의 부담을 民間部門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92年度 豫算規模는 '91年度 追更規模를 포함한 總豫算規模와 비교하면 불과 6.8%가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결코 놀랄만한 膨脹豫算은 아니라고 本委員은 판단하며 우리 經濟規模가 커나가는 데도 장애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前提가 있습니다.

첫째는 '92會計年度 중에는 명목여하를 막론하고 追更豫算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약에 '92年度末에 歲計剩餘金이 발생한다면 同 剩餘金은 豫算會計法이 정하는 대로 '93年度 豫算에 반드시 이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歲計剩餘金이나 빈번한 追加更正豫算 編成에 대하여는 國會에서 반복적으로 논란되었지만 政府의 현실론적 주장때문에 國會도 번번히 法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2年度 豫算을 심의하는 13代 國會 마지막 豫決委에서는 결코 이 문제를 흐지부지 넘길 수 없습니다. '92年度에 다시금 追更을 인정한다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온갖 폐단이 발생할 것입니다.

政府도 엄격히 法을 지킨다는 것을 國民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國民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豫算當局이 追更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豫算의 民主主義原則에 관한 것이므로 總理께서 國民앞에 政治的인 約束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國會의 豫算審議·確定 範圍밖에도 또한 政府豫算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研究機關 40個 投資機關 23個 公園 18個 補助團體 366個 合計 447個의 傘下管理機關 및 團體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豫算規模가 무려 28兆1,400億에 달합니다.

이들 중에는 存在의 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고 각 部處別로 亂立하여 기능이 중복되기도 하며 組織과 管理가 放漫하여 심지어 거액의 赤字를 내 國債까지 발행하는 등 그 效率性이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傘下機關도 政府機能의 연장임에는 틀림없고 국력이 낭비되어서는 아니됩니다. 各 部處間 利己主義가 발동하지 않도록 傘下機關 整備를 總理께서 직접 단행할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14代 國會가 구성되면 최대의 懸案課題가 될 것입니다.

(2) 國民租稅負擔의 適正性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政府가 稅外收入을 제외한 '92年度 國民租稅負擔을 32兆4,630億으로 한 것은 稅目을 신설하지 않고 稅率도 引上하지 않았으며 정확하고 현실적인 稅收推計를 바탕으로 한 것

으로 결코 과중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政府의 課稅強化나 資産價値의 자연증가 그리고 國民所得 增大에 대한 일반적 전망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租稅負擔은 本委員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經濟發展 段階에서 負擔했던 것과 비교하여도 결코 과중한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 南北의 緊張狀態라는 特殊狀況하에서 軍事費의 과중한 負擔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國民租稅 負擔은 어떤 나라보다도 적었다는 것은 統計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租稅政策에는 政府가 신중하게 考慮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92年度에는 所得稅가 91年度대비 40%(勤勞所得稅 39%)나 증가하고 우리 國民 한 사람이 부담하는 稅金이 100萬원을 넘어서게 되어 감각적으로는 들림없는 重課稅입니다.

또한 우리社會에는 엄청난 不勞所得이 횡행하고 있으며 稅金없는 富의 相續이 자행되고 일부 自由業의 所得稅가 정확하게 課稅되지도 않으며 最終消費者가 부담한 각종 間接稅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등 租稅正義가 크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低所得勤勞者는 우리만 犧牲되고 있다고 서글픈 심정에 빠져 있습니다.

'92年度에는 과연 公平한 課稅와 철저한 徵收를 위하여 一線稅務行政을 어떻게 刷新할 것인지 財務部長官께서 答해 주십시오.

一般 國民의 租稅抵抗感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稅金은 날짜도 어기지 않고 또박또박 내는데 生活環境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租稅負擔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政府가 국민에게 준 反對給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政府의 財政支出 構造는 社會開發 側面이나 移轉支出을 통한 所得再分配 機能이 상당히 희생당했고 保健 社會保障 醫療 등에 대한 財政支出의 비중이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政府는 어떻게 할 것인지 副總理께서 答해 주십시오.

(3) 租稅支出의 豫算制度化

國家財政의 構造調整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부분은 租稅減免制度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技術開發이나 企業意慾을 고취하는 데에는 國家 次元의 造成政策이 매우 효과적인 유인 체계입니다. 그중에서도 租稅減免은 財政支出 이상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租稅減免은 豫算에 나타나지도 않고 따라서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때로는 利益集團의 利己主義를 조장하여 衡平의 問題를 야기시킬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租稅減免은 國際收支赤字 物價上昇 雇傭減少에 대비하거나 特定產業部門의 직접조성 목적으로 확대시행되어 왔습니다. 租稅減免 規模는 '89年度 기준 國稅徵收額 21兆2,341億 대비 租稅減免額은 2兆3,287億으로 11%이며 이는 日本의 84年度 國稅徵收액 대비 3.5%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租稅의 減免은 減免받는 측으로서는 납부해야 할 稅金을 納付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혜택이고 國家側에서는 徵收하여야 할 稅金을 免除하여 직접 補助해 주는 것이므로 양쪽 공히 財政補助金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租稅制度를 이용한 政府支出 즉 租稅支出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租稅支出도 보통의 財政支出과 마찬가지로 政府豫算에 정규 반영해야만 財政의 效率性을 명확히 분석·평가할 수 있습니다.

租稅支出의 豫算管理등 統合管理方案에 대한 견해를 副總理께서 說明해 주십시오. 參考로 이 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美國의 경우는 88年度 기준 135個 항목에 4,245億\$의 租稅支出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1年度 및 '92年度의 租稅支出의 規模는 얼마나 되며 稅目別 政策目的의 別로 조세징수액 대비 조세지출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財務部長官께서 說明해 주십시오.

(4) 財政支出의 效率化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財政需要의 增加에 따라 財政의 最適支出構造 問題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①'92年度 豫算에서 硬直性經費의 구성비율이

4.4%가 증가하였으나 事業費는 5.9%가 減少하였으며 前年 對比 成長率도 6.5%가 줄었습니다. 政府가 社會間接資本施設擴充 등 經濟社會 開發需要에 대비한 豫算增加라고 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政府가 公務員의 處遇改善을 한 자리숫자(9%) 이내로 한다고 하였으나 '92年度 總人件費 豫算은 크게 增加했습니다.

특히 各種 手當이나 福利厚生費를 대폭 올려 策定하는 등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人件費 引上을 신규 人件증가분과 基本給 諸手當 등으로 구분하여 증가요인을 副總理께서 說明해 주십시오.

또한 手當의 증가분 중에는 '92年度에 3個月分만 引上策定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93年度 豫算까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성질입니다. 왜 이러한 수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는 반대로 世界經濟가 급변하고 經濟戰爭 情報戰爭의 도가 날로 尖銳化하고 있는데 國위선양을 위하여 고생하는 在外公館 勤務職員에게는 手當引上也 반영되지 않는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최소한 10%정도의 인상이 뒤따라야 하고 豫決委 審議에서나마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②'92年度 國防豫算에 관해서도 동일한 형편입니다.

國軍現代化事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戰力增強投資費는 '91年度 대비 7% 增加에 불과하고 構成比에서는 1.8%나 줄었습니다. 國防部長官께서는 이러한 豫算策定の 經緯와 結果에 대해 說明해 주십시오.

參考로 우리나라의 財政支出중 國防豫算의 構成比는 23.7%(88년 WORLD BANK統計는 29.2% IMF 통계는 21.2%임)인데 美國의 國防豫算은 17.1%선입니다. 또한 志願兵制度로서 人件費 負擔이 가장 높아야 할 日本의 경우에도 防衛費중 막대한 豫算이 裝備現代化에 투입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編制面이나 施設·裝備面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

尖端武器로 現代化하고 少數精銳의 軍事力을

확보하여 自主國防을 달성하려면 무엇인가 큰 制度改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③豫算執行의 適法化와 節約問題입니다.

豫算의 利用은 豫算會計法上 금지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느 部處를 막론하고 연례적으로 대규모로 관행화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計劃의 變更과 取消 그로 인한 막대한 不用豫算의 發生도 관행화하고 있습니다. 國會가 審議確定한 豫算을 行政府 主務長官이 자의로 運用하여 國會權能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事故移越은 政府事業의 부담한 지연인 동시에 豫算을 부담하게 死藏시키는 것입니다.

政府建物 등의 取得도 처음부터 總費用을 精밀하게 策定하여 繼續費豫算으로 해야 할 것을 행정편의 위주로 國會審議를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처리하고 있습니다. 豫備費 執行에서도 문제가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豫備費로서 지출되는 豫算이 國會의 統制를 벗어나 있으므로 그럴 수록 豫備費는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문란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各 部處別로 豫算各目明細書를 보면 행사 각종 명목의 회의 사례비 등이 과다하여 豫算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政府는 消費節約 勤儉節約 등등 각종 구호아래 무엇인가 改善하려고 합니다만 무엇인가 서두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豫算節減指標를 사전에 설정하여 不要不急한 豫算을 統制하고 費用分析을 통한 효율성 제고등 豫算運營制度의 본격적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몇가지 사례만을 예시해 봤습니다.

政府가 支出을 節減하고 財政의 效率性を 提高한다는 것은 稅金을 내는 國民에 대한 최소한의 義務입니다. 豫算當局의 용기있는 改革을 기대하면서 副總理의 答辯을 기다립니다.

(5) 特別會計 및 基金의 統·廢合에 관해 묻겠습니다.

<特別會計의 改善>

特別會計는 政府事業의 財政收支狀態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財政運用의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豫算單一主義의 예외로 運用되고 있습니다

니다.

特別會計의 豫算規模는 '92年度 特別會計 18兆4,376億 원으로서 一般會計의 그 비율은 55.9%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特別會計에는 몇가지 운영상 문제가 제기되고 改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用役管理를 목적으로 하는 特別會計는 歲出入 규모가 過小하고 歲入을 주로 一般會計의 轉入金에 의존하는 등 특별하게 一般會計와 區分經理할 실익이 적다는 것이고 國民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財政의 機能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特別會計의 改編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公務員年金 國民年金 등은 公共性格이 강해 民間管理基金의 형태를 벗어나 特別會計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고 各種 醫療保險을 特別會計로 전환하고 住宅問題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特別會計의 新設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6) 財政投融资特別會計에 대하여도

融資性 基金 등이 많이 생겨서 投融资機能이 重複되고 通貨信用政策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短期運營資金이나 消耗性經費에 대한 支援이 포함되는 등 事業選定基準이 모호하고 調達金利가 '저리의 運用金利에 미치지 못하여 收支赤字가 累積되어 가고 財源이 주로 基金 등 公共資金部門에서 調達되므로 안정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政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副總理께서 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90年代의 늘어나는 財政需要와 財政支出의 效率性 提高를 위하여 92年중에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解決되어야 할 것입니다.

#### <基金>

현행 基金制度는 政府管理基金과 民間管理基金으로 區分運營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1年度 基金運用計劃에는 造成總額이 40兆8,958億 원 運用總額이 24兆6,074億 원입니다. 政府管理基金과 民間管理基金은 그 財源의 出捐方法이나 性格 등에서 확연히 달라야 함에도 民間管理基金에 政府出捐이 혼합되고 실질적인 運用管理의 주체가 主務部處長으로 되어 있어서 구분의 실효가 없습니다.

또한 主務部長官이 國會의 관여를 전혀 받지 않고 國務會議 이상의 지지도 받지 않고

자의대로 운용할 수 있는 國家財政活動의 영역을 인정하는 現行制度에는 큰 缺陷이 있습니다. 出捐의 節次如何에 불구하고 基金은 公共資金이므로 公共性的 原則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임에도 실제로는 監督節次마저 未備·疏忽하여 基金運用이 자의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類似基金의 重複性도 큰 문제입니다.

類似基金이 중복되면 事業遂行의 實效性과 效率性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各種 基金의 運用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餘裕資金運用問題와 基金의 利己主義입니다.

實定法上 基金의 餘裕資金運用에는 制限規定이 없기 때문에 고수익위주로 투자하고 자의적이고 短期性運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政府金融政策과의 調和와 連繫性이 결여된다는 지적입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基金設立을 최대抑制하고 行政政府의 統制가 약한 民間管理基金을 政府管理로 재분류하여 行政統制(企劃院의 일원적 통제를 말함)를 강화하고 餘裕資金은 財政投融资特別會計에 예탁하는 것을 義務化하여야 합니다. 國會審議·確定을 받지 않는 第2의 政府豫算 그것도 一般豫算과 같은 규모의 일탈豫算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에는 國會機能 自體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副總理의 所信과 향후 整理計劃을 설명해 주십시오.

#### (7) 地域間 均衡發展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90年代 政策課題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社會的 構造調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政策目的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地域間 均衡發展을 매우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本委員은 地域間 均衡發展과 地域產業育成이라는 시각에서 잠시 釜山市의 문제를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釜山은 우리나라의 第2의 大都市입니다. 그러나 釜山은 第2都市에 걸맞는 社會經濟的 環境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釜山市民들은 6.25전쟁 당시 全國民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는데 오랫동안 開發의 惠澤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釜山市民의 納稅



조차 釜山市民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釜山은 世界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玄關입니다. 말하자면 陸·海·空의 交通要衝地입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도 空港擴張 港灣建設 道路事業 등에 크게 배려해야 합니다. 영종도의 新空港建設이 首都圈의 就航便益 提高나 장차 北方大陸과의 人的 物的 疏通을 중시한 것이라면 釜山의 就航便益 提高는 輸出業務와 결부된 현실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輸出産業이 日本이나 美國 등 이미 열려있는 世界로 나가는 길목임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10年内로 수퍼점보기의 就航이 實現되려고 하는데 釜山의 空港(金海國際飛行場)은 점보旅客機의 착륙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就航頻度라도 수용하려고 滑走路擴張을 수차에 걸쳐 計劃하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豫算當局이 매년 削除하였다는 것은 심히 근시안적 처사로서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

따라서 本件은 우리나라의 輸出産業을 본격적으로 촉진할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擴張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國會次元에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副總理의 對策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釜山의 主要産業인 신발産業에 대하여도 商工 財務등 經濟部處의 對應은 매우 미흡하고·부족합니다. 釜山의 신발産業은 우리나라 신발輸出量 45億\$중 82%인 35億\$을 輸出하고 있으며(釜山市 全體輸出額의 45%를 점유) 종업원만 해도 14萬名에 달합니다.

최근 輸出採算性이 惡化되고 施設이 老朽하여 人力이 과다하게 所要되는 등 業界에 상당한 陰路가 發生하여 社會的인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곤경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차례 言論에서 報道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발製造技術은 세계최상급이고 品質이 뛰어나다는 것은 外國의 우수한 바이어들이 公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施設裝備의 自動化나 技術開發등 資金의 需要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신발産業의 産業合理化 業種指定을 둘러싸고 當局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勞動集約的 特性때문에 中小企業의 범주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中小企業構造調整資金 등의 支援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國會에서는 與·野를 불문하고 關係長官과도 협의하는 등 신발産業을 회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政府側에서도 사소한 내규정도는 전향적으로 改正하는 등 보다 과감하게 支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資本이나 資産의 규모가 작은 신발業體들이 共同으로 出資하여 신발研究所를 設立 研究開發과 教育訓練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研究所 機能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豫算當局은 補助金 豫算을 大幅削減하는 등 매우 냉담합니다. 政府豫算중에는 불요불급하고 가히 낭비적이라고 인정되는 것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本 補助金은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政府支援으로 附加價値가 10%만 증대해도 2,625億원이 創出됩니다. 이렇게 수지맞는 事業인데 政府가 왜 꺼리는 것입니까? 豫算當局의 성의있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關係長官의 答辯을 기다립니다.

(8) 建設部長官 內務部長官께 물겠습니다.

釜山市의 主要道路는 어떤 의미에서는 釜山市民의 道路라기보다는 우리나라 輸出産業이 관장하는 大動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道路의 開設·擴張이 미진하고 街路網整備도 극히 미흡하여 釜山의 交通은 생지옥이고 釜山市民의 첫째 生活苦는 바로 이 交通問題입니다.

現行體系에서 보면 釜山市區域내의 全國道는 釜山市長이 管轄廳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들 國道에 대한 道路事業은 釜山市 財政과 地方讓與金令達額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直轄市·道の 配定額은 地方道路整備事業으로 배정된 金額의 100분의 20이고 釜山市에 영달되는 讓與金은 이것을 다시 또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91年度 地方讓與金은 5,570億원이고 釜山市는 395億원이었습니다.

지금의 道路建設 1km당 單價가 얼마인데 395億원으로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92年度の 地方讓與金이 1兆2,506億원이고 '91年度와 같은 豫算配分基準이라면 '92年度는 880億원이 영달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市内道路의 街路網整備事業은 제쳐두고라도(釜山の 道路率은 12.81%로서 전국 최저)釜山市가 당면한 초미의 道路擴充事業에는 1,555億이 投資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콘테이너의 95%를 처리하는 釜山港 때문에 생기는 交通滯症을 解消하기 위하여는 우선 낙동강변도로 수영강변도로 구포대교접속로 국도2호선 확장 등이 必須事項입니다.

이들 道路事業은 釜山市民의 道路라기보다는 우리 産業 우리 輸出의 대동맥 그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의 疏通을 위한 道路事業입니다. 地域開發과 같은 여유있는 事業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經濟 産業 輸出의 숨통을 트는 긴급한 課題입니다.

本委員은 굳이 政府豫算의 增額을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의 道路法을 고쳐서 釜山市의 國道를 中央政府가 直轄해야 하는 것으로 하든지 讓與金法이나 道路事業特別會計法을 改正하여 정당하고 몇몇한 豫算配定이 실현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關係長官의 성의있는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9) 國民福祉 增進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0年代 國家財政의 構造調整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위에 있던 生活福祉를 대폭 改善해야 한다는 것이 重要課題중의 하나입니다.

政府가 社會開發政策을 적극 확대하고 移轉支出을 포함한 所得再分配 機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全體國民의 절실한 요구이고 이 이상 더 늦춰질 수 없는 긴급한 당위입니다.

政府는 92年度 豫算을 편성하면서 社會的 平衡을 提高하고 國民福祉의 增進을 기하려고 '91年度豫算 대비 8.6%가 증가한 2兆1,365億원을 計上했습니다. 그러나 政府總豫算에서 점유하는 構成比는 6.4%로서 예년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保健社會部의 '92年度 豫算을 분석해 보면 총체적으로 833億원이 증가한 5.7%의 성장에 불과하여 政府의 事業費豫算의 일반적 증가율에도 크게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內容面에서도 醫政·藥政分野가 23.9%의 減少生

活保護分野는 1.8%의 增加에 불과하고 地域 醫療保險組合豫算은 2.7%의 증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保社委 審議시에도 社會福祉 需要에 비한 豫算의 不足이 거론된 바 있고 地域醫療保險組合의 赤字支援 1,291億원 등 總 2,559億원의 豫算增額을 議決한 바 있습니다.

副總理께서는 生活福祉向上을 위한 保社委의 增額議決을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答해 주시고 保社部長官께서는 앞서 지적한 醫政·藥政關聯豫算이 '91年度 대비 감액해도 좋을 정도로 財政需要가 감소하고 醫·藥政이 잘 정비된 것인지 答해 주십시오.

社會福祉專門要員制度는 國民福祉增進과 國家財源의 효율적 집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運用規模가 작고 일부 요원은 이미 동직원화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만큼 社會福祉 傳達體系를 공식화하고 要員의 身分과 勤務를 法制化하는 등 運營改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職場醫療保險組合이 黑字를 내고 있는데 반해 地域醫療保險組合의 經營狀態는 國家支援이 부족하여 막대한 赤字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려면 本人負擔金을 늘리거나 國庫支援을 擴大하거나 職場組合등의 黑字를 吸收하거나 基本保險料를 引上하는 길 뿐일 것입니다.

現行 基本保險料가 能力比例 保險料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인데 本人負擔金까지 引上한다면 종국적으로는 保險受惠者의 病院出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또한 職場醫療保險組合 등과의 통합운영은 負擔의 轉嫁問題가 심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國庫負擔을 늘리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低所得層이 밀집한 지역에 綜合福祉會館을 建立·運營하는 것은 住民의 생활복지 향상은 물론 低所得層 住民을 産業에 環流시키는 보다 발전적인 機能까지도 추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의 擴大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요컨대 國民의 健康權이나 福祉權利를 보장하는 것은 國家義務입니다. 앞서 本委員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의 對處方案과 구체적 實踐計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이 문제는 수많은 國民의 生活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명확히 答해 주십시오.

低所得生活者 障礙人 國家報勳 遺族에 대한 對策은 人道主義的 社會政策的 次元은 물론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南北統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統一費用을 支出하기 전에 統一準備費用을 먼저 支給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政府管理基金이나 民間管理基金에서 막대한 餘裕資金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정에 비추어 뜻만 있다면 豫算會計制度를 再編함으로써 쉽게 財源도 調達할 수 있을 것입니다.

本委員은 두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副總理의 答을 기다립니다.

첫째 내일 잘 살게 하는 것 보다는 오늘 사는 것이 더 급하고 絶對多數 國民과 관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重視되어야 합니다.

둘째 政府가 마치 恩惠나 베푸는 것 같은 福祉豫算運用方式을 조속히 탈피해야 합니다. 지금 產業에서 排除되어 있는 이들을 訓練시켜 產業에 進入토록 하는 政策이 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本委員은 불우한 사람들의 2세에게는 불우가 相續되지 않도록 國家政策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관계 기타사항

(10) 최근의 經濟動向과 物價對策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統計廳의 產業動向分析으로는 國內景氣가 鈍化兆候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景氣先行指數가 지난 4月이후 5個月만에 0.1% 下落으로 反轉했다는 것입니다.

景氣先行指數를 구성하는 9個指標중 6個項目이 下落勢를 나타내고 輸出額 輸入承認額 建築許可面積 건설제품 원재료생산 각종 원재료 출하 제조업재고율 上昇指標는 3個項目임. 機械受注額 總流動性 會社債收益率 또한 製造業 就業者的 增加勢는 미미한데 서비스部門 就業者가 유독 급증하는 人力構造問題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國內景氣가 下降樣相을 보이는데 대해 혹시나 이것이 構造的인 停滯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먼저 政府는 이러한 징후에 대하여 어떻게

判斷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經濟萎縮속에서 物價의 不安要因을 除去하지 못하거나 國際收支防禦에 소홀하면 우리는 앞으로 삼중의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차제에 政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분별한 輸入을 抑制하고 投機와 不勞所得을 抑制하며 總通貨管理를 效率的으로 실시하여 物價不安의 要因을 과감히 除去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92年度에도 賃金이나 公共料金등의 引上要因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4大選擧를 치르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物價安定을 위하여는 政府가 비상한 각오와 강력한 政策手段으로 임해야 합니다. '92年度의 綜合的 物價對策에 대하여 政府의 所信을 묻습니다.

(11) 資本市場 開放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個月후로 다가선 資本市場의 開放은 우리나라 經濟開放의 마지막단계의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의 資本市場은 아직도 健全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國內 證券社들의 投資分析技法이나 營業戰略도 외국에 뒤지고 上場企業의 會計處理나 이에 대한 監督機能도 미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資本市場이 完全開放된다면 長期的으로는 몰라도 短期的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됩니다.

財務部에서는 海外證券轉換株式 賣却資金으로 국내 株式를 매입했거나 새로이 국내로 진출해 오려고 하는 外國企業들에 대해서 대체적인 動向分析은 하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수한 專門 研究機關에서는 최소 1兆원에서 4兆원정도의 海外資本이 流入되리라고 분석하면서 ①通貨가 增發되고 ②換率切上이 불가피하며 ③輸出減少가 우려된다고 展望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副作用을 최소화하려면 民間企業의 外貨資産保有를 허용하거나 對外債務償還을 유도하여야 하며 換率의 變動幅을 보다 확대하고 通貨安定證券의 민간 부문인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財務部長官께서는 資本市場의 開放이 물고울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떤 副作用이 우려되며 그에 대한 補完對策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거대한 海外資本의 流入을 적절하게

국내에서 吸收·消化하지 못한다면 國內의 流動性이나 總通貨管理에도 역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物價를 잡으려는 지금의 通貨管理方式에도 영향이 클 것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 새삼 國內資本市場을 保護하고 育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고 우리 資本市場도 世界經濟속에 내던져서 스스로 自生의 힘을 얻어내야 합니다만 그래도 財務部가 할 일은 크다고 봅니다.

(12) 資金의 흐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政府가 당면하여 추진하고 있는 主要施策은 國際競爭力의 提高와 總需要管理를 통한 安定基調의 유지입니다. 物價의 오름세를 누르고 不動産對策을 강력히 추진하며 建設景氣의 과열화를 방지하는 한편 돈의 흐름을 바로 잡아 産業 특히 中小企業의 資金難을 타개하고 自生力과 競爭力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돈에 관계되고 通貨緊縮과 직결된 사항들입니다.

한때 經濟部處간에는 총론 緊縮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동상이몽이다 하는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支援에는 입장의 차이때문에 商工部の 要請에 대해 財務部가 난색을 표하며 經濟企劃院은 調整力을 잃고 있습니다.

· 商工部要請 3,100億원

신발 800億 纖維 1,000억등

· 財務部

신발業界의 정확한 資金所要는 518億원

地域金融機關에서 모두 支援

(50%韓銀 재할)

財務部는 현재의 通貨管理 限度로는 여력이 없고 預貸相計에도 限界가 있다는 것입니다. 財務部長官은 兩件 預貸資金 2兆원을 相計整理하여 1兆원정도를 資金難에 직면한 製造業에 供給하겠다고 언명했으며 金融機關에 대하여도 꺾기를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꺾기 작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銀行監督院까지 동원하여 銀行一線 店舖까지 監査케 했습니다.

하지만 꺾기를 꺾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러다가 보니 새로운 꺾기까지 등장했다는 것이 金融街를 뱀도는 풍문입니다.

上部指示에 견디지 못해 곧 滿期가 되는 定期積金을 상계대상으로 하여 預金者의 特別

金利까지 포기하게 하고 企業에 대한 貸出에 임원명의의 預金으로 꺾거나 他支店에 예금케 하여 심지어는 지시가 없어 資金支援이 곤란하다거나 擔保不足을 이유로 삼아 貸出을 기피 對日輸出支援資金까지 꺾고 있습니다.

長官은 1兆원을 支援한다고 하는데 實務局長은 꺾기 정리에도 한도가 있어 신발業體에 800億원도 支援할 수 없다니 아무래도 長官의 구호는 메아리가 없습니다. 監督院이 지적한 것은 무엇이고 꺾기를 整理한 實績이 얼마나 되며 製造業에 支援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答해 주십시오.

財務部長官께서는 1段階 金利自由化에서 3年制 定期預金 등을 신설하고 預·貸 모두 公正金利+2%의 금리수준을 行政指導하는 듯합니다.

金利自由化가 金利引上和 연계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는 金利를 봐가면서 通貨를 伸縮性있게 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행의 總通貨管理方式도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金利自由化의 전모에 대하여는 財務部가 좀처럼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나 영향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2段階 3段階 金利自由化措置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金利를 自律化하고 金融市場의 自律機能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원칙론이며 通貨를 적절하게 調節한다는 것도 당위론적 명분일 뿐입니다. 문제는 구체적 政策手段의 선택에 있습니다. 지금 金融市場의 自律性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서 財政資金과 政策金融資金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資金의 規模나 金利體系가 민간부문의 資金配分을 왜곡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거대한 地下經濟나 投機資金 私債로 말미암아 형성된 第2의 金利體系는 公正金利를 배나 상회하고 있으며 臨時所得은 거의 다 써 버리고 模倣消費性向마저 확산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國內 總貯蓄率을 總投資率 이상으로 제고하는 데에도 預金金利의 引上調整이 불가피하다는 등 金利의 自由化를 견제할 요인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基本事項을 토대로 하여 2단계 이후의 金利自由化와 通貨供給의 조절에 대하여 財務部長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추

진해 같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短期流動性管理는 어느 단계에 가야 韓銀法 규정대로 中央銀行에 전담케 할 것입니까?

本委員은 우리經濟 규모로 보아 總通貨增加率을 17-19% 선으로 잡는다면 安定基調도 유지되면서 그다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產業界 특히 製造業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고 金利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高金利 現象속에서 資金難이 계속된다면 우리經濟는 분명 위험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企業 특히 大財閥企業의 방만하고 구태의연한 經營 관행과 政府의 무책임하고 미숙한 通貨管理가 上昇作用을 일으켜서 나타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政府 金融機關 企業이 당장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役割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金融機關은 電算網도 발달하고 銀行간의 종합적 與信管理體制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特定企業과 야합하거나 財閥企業에 약한 金融機關의 현체질을 財務部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최소한도 製造業이 公正金利로써 生産資金을 얻어 쓰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金融環境이 개선되고 은행돈으로 不動産에 投機하는 등 사례가 근절되도록 與信管理가 보다 철저해졌으면 하는 것이 本委員의 소망입니다.

(13) 通商摩擦에 對處하는 姿勢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經濟가 世界化 國際化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經濟力이 커지고 輸出이 擴大되면 貿易摩擦도 당연히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通商摩擦問題는 ① 불과 수 년전에 一部 輸出品目에 대한 덤핑 關稅 賦課問題가 거론되었는데 이제는 全面開放의 수준을 넘어서 國內慣行에 대한 干涉의 수준까지 빠른 시일내에 質的 量的으로 엄청나게 확대되어 ② 우리가 對應對策을 충분히 갖추기도 전에 무차별 냉혹하게 밀어왔고 ③ 輸出實績이 급격히 減少하고 貿易赤字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시점에도 전례없이 가혹하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貿易摩擦의 過程은 되돌아

보면 왜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豫測하고 보다 적절하게 對應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UR 農產物市場 開放問題에 대하여도 결코 開放할 수 없다고 의지의 결연함만을 표명했지 戰略과 論據의 開發은 여전히 미흡하고 안이함을 탈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래 GATT의 自由貿易精神은 關稅나 制度的 障壁의 철폐는 물론 特定產業이나 特定品目에 대한 補助金등 행정적 조성수단까지도 전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經濟政策은 아직도 財政에 의한 支援側面을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產業이 政府의 보호 없이도 혼자의 힘으로 國際競爭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체질을 改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長期的 展望에 입각하여 우리 產業이 받고 있는 정책보조를 世界水準으로 맞추도록 政策方向을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는 일대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은 앞서 우리政府는 戰略과 論據의 開發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通貨量이나 金利등 주로 巨視經濟的 政策手段에 의존하는 美國의 慣行과 自主的·徹視的 對應策을 결들여야 하는 韓國의 慣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의 차이에서 오는 通商外交의 乖離感을 능히 극복할만한 가치 높은 對應戰術을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美國에 대하여 傳統友邦이라는 믿음 같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信賴感만으로는 貿易摩擦問題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美國과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美國은 우리의 血盟이고 自由와 平和라는 理念이나 價値觀을 공유하고 集團安保의 틀속에서 생활을 같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① 美國은 韓國에 대하여 美國의 가치는 당연히 韓國도 共有해야 하고 理念이나 價値가 같다면 民主主義나 市場經濟原理를 실천하는 양식도 같아야 하며 美國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최소한 피를 흘리는 행동

통일)國家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②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韓國人은 韓國에 태어나서 敎育받았기에 처음부터 韓國人이었고 民主主義나 市場經濟는 실효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歷史的·人種的·文化的 背景을 政治나 經濟이상으로 중시하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良識이 충돌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共產主義의 위협하에서 우리의 生存이 威脅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가는 차원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절박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보니 삶의 방식에 대한 差異가 명료하게 떠 올라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美國쪽에서도 輸入障壁이 높고 우리가 差別待遇를 받기는 매일반이고 따라서 美國이 하는 방식과는 일정한 거리도 두어야 하고 美國의 要求를 곱게 들어주어 가파른 고개길을 올라가 봐도 國家的 評價나 待遇가 현저히 改善될 전망도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憂鬱입니다. 美國과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現實的인 乖離感입니다.

本委員이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한 차이를 역설하는 것은 우리 外交가 아직도 전시대적 信賴感에 안주하면서 具體的이고 정교한 對應戰略에 소홀한 면이 있고 實際活動面에서도 組織的·效率的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미진함을 안타까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美國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방식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며 엄청난 努力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價値觀을 共有하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외에도 다른 방식이 얼마라도 있다는 것을 美國사람들에게 진지하고 집요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協商에는 交換條件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환 가능한 조건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各 部處가 각기 걸들지 말고 서로 轉嫁하지도 말아야 하며 國務總理를 정점으로 하는 總力推進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總理께서 答해 주십시오.

南北對話問題

(14) 盧大統領의 非核化宣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8日 盧大統領은 核武器의 製造 保有 貯藏 配置 使用을 全面 拒否하고 무차별 殺傷武器가 없는 평화적인 世界를 指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核燃料의 再處理와 核濃縮施設의 保有까지 포기하는 중대한 犧牲을 치루면서 일방적으로 宣言했습니다. 그러면서 北韓이 核開發을 포기하고 國際的 査察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南北의 軍費 擴大를 억지하고 平和를 定着시키고자 하는 매우 지당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宣言은 北韓의 核開發과 核査察 拒否態度에 중저부를 찍게 하는 결정적 조치입니다. 또한 이 宣言은 걸핏하면 統一論議를 美國의 戰術核이나 核雨傘과 결부시켜 南北對話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北韓의 二重戰術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선언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政府는 이 宣言을 계기로 하여 北韓이 核開發을 포기할 때까지 傳統友邦은 물론 蘇聯이나 中國에 대한 外交的 努力을 완전무결하게 전개해야 하며 IAEA나 UN에서도 강도높은 對應策을 구사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北韓에 대한 強制査察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政府가 시도하는 外交的 對應措置의 內容과 그 강도에 대하여는 質問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땅에 原子彈의 慘劇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政府가 완벽한 措置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宣言에도 불구하고 北韓當局은 核査察 受容問題를 核雨傘과 연계시키면서 시간벌기 전략을 지속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核雨傘 問題는 68년에 核擴散禁止條約(NPT)이 만들어 질 때에도 제기된 문제입니다.

美國 英國 蘇聯등 3個國이 각각 核雨傘政策을 천명하고 이를 UN安保理가 決議案으로 採擇하였으며 이 이후로는 核雨傘政策이 國際的인 安全裝置로 정착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는 國際社會의 準칙이 되었습니다. 또한 現代國家의 一般적 外交慣例은 相對國에 대하여 내정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특히 國家간의 友好條約에서는 當事國의 —

方이 第3國과 맺은 外交關係를 다른 當事國이 그대로 인정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같은 主權國家로서 UN에 同時加入한 北韓이 韓國과 美國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것은 國際的 慣行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核雨傘問題가 통일된 未來의 祖國과 관계가 깊은 사항이라면 南北對話의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 상의할 문제입니다. 相互信賴를 구축하고 緊張을 緩和하려는 南北對話의 시발점에서 第3國과의 관계를 트집잡는다는 것은 對話 자체를 기피하고 지연시키는 구실일 뿐입니다.

北韓은 내외의 情勢가 크게 변화했는데도 아무런 變化의 조짐도 없습니다. 오히려 體制維持를 위한 內部團束에 더욱 열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北韓의 유일 주체적인 統治體制는 共產主義에다가 全體主義와 世襲王朝까지 접목시킨 歷史에 드문 獨裁形態입니다. 이러한 體制를 유지하려면 안으로는 어버이의 은혜를 입고 자기식대로 살게 해야 하며 밖으로는 假想的 敵을 설정하고 부단히 공격해야만 합니다.

統一이나 南北關係에서는 自立 平和 大團結의 原則을 세워 놓고 追從者만을 규합하는 南朝鮮解放 統一戰術이 불가결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北韓의 體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漸進的인 修正이건 突發的인 崩壞이건 간에 變化가 없는 한 그들의 統一論議는 民族의 참된 統一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調整되는 二重的 戰略的 次元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軍縮論議나 核問題 連繫는 발상의 본질이 처음부터 戰術的 僞裝이기 때문에 南北의 緊張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對話는 空轉하고 中斷되기 마련입니다.

世界가 平和와 공존쪽으로 크게 변하면서 北韓도 開放과 改革의 國際的 壓力을 받고 있으며 안으로는 어려운 民生經濟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의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開放과 改革은 거부하면서도 第3의 政策을 새로히 創出해 내야 할 절대절명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改革과 開放이 불가피하다면 선봉지구 經濟開發같이 制限된 地域에서 UN이 중재하는 安全裝置를 모색합니다. 外國과의 合營은 하되 화평연변은 철저히 거부하고 南北이 對話는 하되 革命辯論術을 동시에 구사합니다. 改革과 開放쪽으로 유도하여 體制崩壞를 시도하지 말라고 신경질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北韓에 變化의 조짐을 찾는 경우에도 우리의 판단에는 엄격한 基準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對話의 當事者나 政策當局이 情報로서 포착한 제한된 판단이어서도 아니되고 全 國民이 공감하는 가장 폭 넓은 판단이어야 합니다.

최근 共產主義가 崩壞되는 過程을 지켜 보면서 우리는 몇가지 중요한 眞理를 재확인했습니다.

①이데올로기는 몇몇 思想家나 政治家의 두뇌적 산물이지만 自由는 人間이 필요해서 찾아낸 歷史의 自然發生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 ②體制가 무너질 때에는 미리 정해 놓은 단계나 순서가 없고 매우 빠른 速度로 진전된다는 것이며 ③記念碑는 곧 바로 서 있거나 쓰러질 뿐이지 비스듬히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南北對話를 추진하면서 보다 넓고 보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北韓住民이 변해도 이상하게 변했고 지금도 離散家族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마다 本委員은 政治에는 공전의 이론이 있지만 民族에는 망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이 6·25 民族相殘의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北韓을 다녀오신 總理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質 疑)

租稅減免은 財政支出과 同一한 效果를發揮하므로 이러한 租稅支出을 보통의 財政支出과 마찬가지로 政府豫算에 反映해야만 財政의 效率性을 明確히 分析·評價할 수 있다고 보는데 租稅支出豫算制度를 導入할 用意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答 辯)

委員님께서 指摘하신대로 稅制上的 減免등을 통한 支援인 租稅支出豫算制度는 歲出豫算上的

補助金과 같은 經濟的 效果를 가지므로 每年歲出豫算과 연계하여 國會의 審議를 받도록 함으로써 豫算編成의 合理性과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提高하는 制度입니다.

그러나 租稅支出의 概念에 대하여는 아직 確立된 理論이 없으며 租稅支出作成稅目的 範圍도 나라에 따라 다르고 租稅支出의 規模推定도 어려운 등 現實의인 制約要件 때문에 아직 外國에서도 普遍化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同 制度의 導入을 檢討할 必要性이 있다고 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制約要件 때문에 短期間內에 施行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政府는 앞으로 現行 租稅減免制度의 운영을 財政支出과 연계하여 全般的으로 검토

하는 등 財政運用의 效率性을 높이는 方案을 계속 研究·檢討해 나가겠습니다.

(質 疑)

'92年 總人件費 豫算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增加要因을 신규인원 증원과 기본급 계수당 등으로 區分하여 說明해 주시고 手當增加分중 '92년에 3個月分만 引上하여 '93년에 자동증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處遇改善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答 辯)

前年 對比 人件費 豫算增加는 處遇改善分과 호봉승급 인원증원 등으로 인한 自然增加分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1年 對比 '92年 人件費豫算 增加率이 19.1%인데 그 內譯은 아래와 같습니다.

< '92年 人件費 豫算 增加率 內譯 >

(%)

內 譯		增 加 率
처우개선분	○ 기본급 인상 : 9%	8.4
	○ 직무수당 인상 : 월 기본급의 30 → 40% (11월 시행)	0.8
	○ 호봉체계등 제도개선	0.6
	小 計	9.8
자연증가분	○ 호봉승급분	0.8
	○ 인원증원분	2.9
	○ 기간연장분 (직무수당 3개월 → 12개월 반영 등)	5.1
	○ 기타 (가족, 장기근속등 수당대상 증가)	0.5
小 計	9.3	
合 計	19.1	

'89년부터 職務手當 導入引上시 財源事情이 어려워 부득이 3個月分만 반영하였는데 이같은 사유로 '92 處遇改善時에도 職務手當 引上時期를 뒤로 미룬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 疑)

豫算執行上の 여러가지 問題點을 지적하시면서 政府支出을 節減하고 財政의 效率性을 提高할 수 있는 改革을 促求하셨습니

다.

(答 辯)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유의하여 財政運用상 財政支出의 절감과 效率性을 提高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質 疑)

特別會計 運用上の 問題點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改善方案을 물으셨습니다.



(答 辯)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特別會計는 國家의 歲入중 特定歲入으로서 特定歲出에 充當하는 會計입니다.

이와 같은 特別會計는 政府企業의 收支를 명백히 하고 어느 정도 行政活動에 따른 裁量의 여지를 남겨 둠으로써 經營能率을 增進시키는 등의 長點이 있습니다만 政府로서는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유의하여 特別會計 運用上의 문제점 不合理한 點들을 찾아 계속적인 補完·發展方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質 疑)

①基金設立을 최대억제하고 ②行政府의 統制가 약한 民間管理基金을 政府管理로 재분류하여 行政統制(企劃院의 一元的 統制를 말함)를 강화하고 ③餘裕資金은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 預託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④國會審議·確定을 받지 않는 第2의 政府豫算이 存續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副總理의 所信과 向後 整理計劃은?

(答 辯)

이미 수차 말씀드린대로

(質 疑1)

그동안 政府에서는 基金新設을 억제하고 유사한 基金과 零細基金을 中心으로 基金의 統·廢合施策을 推進해 오고 있습니다.

'90. 4月 農水産關聯 5個基金을 農漁村發展基金과 農地管理基金으로 統合하였습니다.

\*5改基金: 濃漁民後繼者育成基金 農業機械化促進基金 水産振興基金 農漁村地域開發基金 農地基金

'93년부터 目的을 達成한 國民投資基金을 廢止키로 決定하였습니다.

(質 疑2)

基金運用에 다소 방만한 面이 있어 基金에 대한 基準設定과 運用上 制度改善이 必要하다고 보며 現在 國會에 계류중인 基金管理基本法(案)이 조속히 通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公共性이 큰 民間管理基金인 石油事業基金을 '91년부터 政府管理基金으로 轉換하여 運用하고 있습니다.

(質 疑3)

基金의 餘裕資金에 대하여는 現在도 財特法

第8條規定에 의하여 加급적 財特會計에 預託하여 公共投資事業에 우선적으로 使用하고 있습니다.

○財特預託規模

	'89	'90	'91	'92計劃
財務預託	10,035	6,600	7,700	10,650

(質 疑4)

基金制度는 歲入·歲出에 의하지 않고 特定目的의 政府事業이 彈力的으로 수행되도록 支援해 주는 制度로서 國會에서 審議하는 것은 基金이 目的上 不合理하다고 보며, 基金이 본래의 目的대로 運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質 疑)

釜山 金海國際飛行場에서 점보여객기 이·착륙이 可能토록 활주로 擴張計劃을 質疑하셨음.

(答 辯)

金海空港의 계속적인 航空需要增加로 '94년에는 現 施設能力으로는 애로가 發生한 것으로 豫想되나 既存 활주로는 大型 民航空機 運航에 부적합하고 과손이 급진전되어 韓國空港管理公團이 보수공사를 施行하고 있으나 永久的 補修可能性이 희박하여 활주로 1本 新設이 불가피하여 활주로 추가건설사업을 推進하고 있음.

金海空港 활주로는 94年 完工計劃으로 91년에 용지를 매입 완료하고 92년에 비행장施設을 建設토록 7,772百萬원을 計上하였음.

따라서, 金海空港 활주로 1本이 추가건설되면 동남아등 大型 航空機의 就航이 可能할 것으로 봄.

(質 疑)

政府財政支出에 있어서 保健·社會保障·醫療 등 社會開發側面의 支出比重이 낮았다고 지적하시고 政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시고 아울러 國會 保社委에서 社會福祉需要에 비해 豫算이 不足하다고 거론되어 地域醫療保險組合의 赤字支援分등 1,291億원등 總 2,559億원의 增額議決을 한데 대해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答 辯)

國民福祉增進은 經濟成長의 궁극적 目的이며 동시에 政治社會의 安定과 發展의 原動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方向에서 政府는 每年 福祉部門 豫

算을 늘려 나가고 있는바 廣義의 福祉豫算이라 볼 수 있는 사회개발비의 對一般會計比重을 81年 6.0%에서 91年 10.0%로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92年度 豫算에서도 國民福祉部門의 내일 반회계비중은 91年수준인 10.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低所得 障礙人 老人 등 不遇階層에 대한 支援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編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障礙人 老人 등 不遇階層을 위한 支援은 '91年 1,149億원에서 '92年 1,474億원으로 28.3% 증가시켰습니다.

다만 地域醫療保險과 國家有功者에 대한 支援을 91年の 대폭적인 支援을 감안하여 '91年10,987億원에서 '92年 11,393億원으로 3.7% 증가에 그쳤습니다.

保社委 增額議決事項은 계수조정시 재론되겠지만 福祉政策이나 制度는 일단 도입되고 나면 縮小 또는 廢止가 곤란한 속성이 있고 또한 政府의 財政形便上 이를 수용하기 다소 곤란한 점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 疑)

來년에는 4大選擧를 치르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指摘과 함께 92年度 物價安定 綜合對策에 대한 政府의 所信을 물으셨습니다.

(答 辯)

鄭委員께서 指摘하신 대로 來년에는 總選擧 四大選擧가 실시될 예정이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유발우려등 物價管理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政府는 92年度에 總通貨量을 8%水準의 經濟成長을 뒷받침하는 水準에서 安定的으로 供給하고 財政을 節制있게 運用하는 등 總需要管理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不動產價格 및 住宅建設景氣의 安定化施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賃金도 올해보다 더욱 安定的으로 妥結되도록 유도하여 產業의 競爭力維持와 함께 物價安定의 기틀이 다져지도록 하겠으며 主要生必品の 需給安定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物價安定을 經濟政策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關聯施策을 推進함으로써 今年보다 더 낮은 자리數에서 物價가 維持되도록 하겠습니다.

○國防部長官 李鍾九

(鄭在文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92年度 戰力增強投資費가 91年度 대비 7% 증가에 불과하고 전체 국방비 구성비 면에서도 1.8%나 縮小된 이유는?

(答 辯)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對北韓 열세전력을 보완하고 國軍 現代化를 위해 89年까지만 하더라도 將兵 處遇福祉 改善所要를 최대한 抑制하면서 國防費의 38%를 戰力增強投資費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社會福祉 水準의 급격한 向上으로 그동안 억제되어온 將兵 處遇福祉 및 兵營生活與件의 격차가 너무나 심화되어 가고 있고 國防費 역시 그 增加趨勢가 둔화됨에 따라 可用財源 不足으로 부득이 92年度 戰力增強費의 구성비를 전년 대비 1.8%가 축소된 33%선까지 하향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日本의 경우도 80년대 초까지는 戰力增強投資費 구성비가 불과 25% 수준이었으나 그후 防衛費의 안정적인 뒷받침으로 人力運營費의 負擔을 해소할 수 있었고 防衛費의 增加分으로 裝備 現代化등 투자비 확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열악한 軍 處遇福祉 및 兵營與件改善 등 당면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면 委員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投資費 構成比를 漸進적으로 向上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商工部長官 李鳳瑞

(鄭在文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최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발產業이 勞動集約의 特性때문에 中小企業의 범주에서도 제외되어 中小企業構造調整資金의 支援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關係規定을 改正하는 등 政府側의 과감한 支援을 당부하셨습니다.

(答 辯)

신발製造業에 대한 中小企業範圍는 현재 從業員 數로는 700人이하 資産規模로는 120億 이하로 규정되어 相當數의 企業이 中小企業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어 關聯業界에서는 이의 改正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현행 業種別 中小企業範圍는 그간의 經濟與件의 변화로 改正의 必要性이 제기되어 현재 再檢討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발業種의 경우 勞動集約的인 產業의 特性和 設備 自動化 推進에 따른 資産規模 擴大 推移 등을 감안하여 中小企業範圍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保健社會部長官 安弼濤

(鄭在文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疑)

'92年度 豫算중 醫政·藥政事業豫算이 23.9%나 減少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答辯)

'92年度 醫政事業豫算은 保健所등 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비 95億600萬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 34億2,400萬원 病院經營研究院 설립 지원 10億원 民間病院 등 借款元利金 償還 177億5,900萬원 國立醫療院 轉出金 62億1,300萬원등 總 396億4,300萬원으로서 '91年 대비 212億원이 減少했으며 藥政事業豫算은 新藥開發事業 17億5,800萬원 麻藥管理事業 22億 1,800萬원 國立保健安全研究院 64億6,600萬원등 105億6,100萬원으로서 전년대비 54億2,900萬원이 增額編成되었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豫算減少는 醫政事業分野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지금까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金으로 편성하던 보건소등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요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地方自治團體의 自律性 提高라는 취지에서 地方財政交付金으로 支援키로 하였기 때문이며 그 규모는 371億원에 달합니다.

이와같이 豫算의 減少가 事業의 縮小 또는 財政需要의 減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92年 豫算案 中에는 農漁村 醫療基盤의 擴充을 위한 보건소등 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과 장비지원 응급의료정보센터의 裝備補強 新藥開發研究事業費 등 保健醫療와 醫藥品의 品質向上을 위해 필요한 豫算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質疑)

社會福祉館의 擴大設置를 위한 實踐計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答辯)

당초 社會福祉館 建立은 '92년까지 總 110個所를 目標로 추진하여 왔으나 政府의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내 近隣福祉施設 義務化方針에 따라 '90年度에 11個所 '91年 및 '92年度에 각각 36個所씩 추가로 건립될 計劃이므로 政府支援豫算으로 건립되는 福祉館을 합할 경우 社會福祉館은 '91年度에 142個所 '92年度에는 總 178個所가 건립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社會福祉館 建立을 위한 政府支援豫算은 임대아파트 건립이 어려운 중·소도시에 '92년부터 매년 4個所씩 증설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質疑)

'92年度 地域醫療保險 國庫支援豫算이 부족하게 책정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對策을 물으셨습니다.

(答辯)

'92年度 地域醫療保險에 대한 國庫支援豫算은 5,924億원으로 이는 '91年度의 追更 1,009億원을 제외한 豫算 4,859億원보다 22% 증가한 수준이며 이중 保險給與費는 5,098億원으로 '91年度 4,122億원보다 24% 증가한 수준이며 管理運營費는 826億원으로 '92年度 737億원보다 12% 증가한 수준입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地域醫療保險國庫支援 豫算중 保險給與費는 우리部에서 추계한 所要財政 6,379億원보다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地域醫療保險組合의 財政安定을 위하여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醫療費 節減努力을 強化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質疑)

鄭在文委員님께서서는 國民福祉增進가 國家財源의 효율적 집행을 기할 수 있도록 社會福祉傳達體系를 공식화하고 社會福祉專門要員의 身分과 勤務를 法制化하는 등 制度運營 改善問題에 대한 對處方案과 實踐計劃을 물으셨습니다.

(答辯)

政府에서는 '87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專門知識과 能力을 가진 社會福祉專門要員을 배치하기 시작하여 '91年中에 總 2,000名을 低所得層이 밀집한 읍·면·동 단위에 配置함으

로써 社會福祉行政의 效率的 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專門人力의 擴大配置와 연계하여 7次5個年計劃 期間중에 關係部處와 협의하여 都市 및 農村地域에 示範福祉事務所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동시에 社會福祉專門要員의 配置根據와 身分등을 法制化하는 方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質 疑)

高金利現象속에서 資金難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政府 金融機關 企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役割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答 辯)

금년들어 당초전망보다 높은 經濟成長 短資社 業種轉換, 株式市場을 통한 資金調達 不振 등으로 銀行을 통한 資金需要는 늘어나고 있으나 資金供給 측면에서는 物價와 國際收支狀況을 고려하여 通貨를 安定的으로 운용해 오며 따라 그동안 金利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企業은 資金調達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建設등을 중심으로 內需鎮靜效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동안 安定基調를 유지해 오며 따라 資金需要도 안정되면서 中小企業을 중심으로 資金支援을 擴大하는 등 資金事情 緩和를 위한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전반적으로 金利가 安定勢를 보이고 市中資金 事情도 好轉되고 있습니다.

政府로서는 그동안 金利上昇과 資金難을 解消하기 위하여 預貸相計 中小企業 貿易金融支援擴大 緊急資金支援 中小企業의 第三者 擔保制限 緩和등 中小企業등에 대한 資金支援을 強化해 온 바 있으며 앞으로도 資金흐름의 改善을 위한 努力을 強化하는 가운데 企業의 資金事情을 緩和하기 위한 努力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業들도 資金事情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投資計劃과 事業計劃을 재조정하고 保有不動産의 處分등을 통해 所要資金을 調達하는 등 自救努力을 強化해야만 할 것입니다.

金融機關들도 兩建預金등 불건전한 價行을 改善하고 金利自由化 이후에도 金利가 지나치게 上昇하지 않도록 經營合理化 등을 통하여

金利上昇 要因을 자체흡수하여 企業의 負擔을 緩和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製造業을 중심으로 設備投資와 技術開發을 積極支援해 나가면서 貸出資金이 生産的인 部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貸出審査機能을 強化하는 등의 努力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質 疑)

2段階, 3段階 金利自由化 措置의 內容과 2단계 이후의 金利自由化와 通貨供給의 調節을 어떻게 展望하고 推進해 갈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으며 通貨管理를 언제쯤 中央銀行에 전담케 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答 辯)

지난 9月 國政監査 財務部 業務現況報告時 보고드린 바와 같이 政府는 금년부터 '97年 이후까지 4段階에 걸쳐 金利자유화를 推進하고자 하며 이중 1段階措置를 지난 11月21日부터 施行중에 있습니다.

'92年하반기부터 '93年중에 추진될 2단계에서는 財政支援이 포함되거나 韓國銀行의 再割引對象이 되는 貸出을 除外한 은행등 金融기관 貸出金利와 만기 2年이상 受信金利를 自由化할 계획입니다.

'94년부터 '96年중에 추진될 3단계에서는 財政支援 및 韓國銀行 再割引對象 貸出을 自由化하고 만기 2年未滿 預金金利를 自由化함으로써 金利자유화의 重要한 部分을 事實상 完了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단계이후 金利자유화의 圓滑한 推進을 위해서는 適正成長의 유지 物價安定 國際收支 改善등 경제의 안정기조를 다져 나가므로써 市場金利의 안정을 도모하고 金利자유화후에도 間接的인 方法으로 金利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金利수준에 따라 通貨를 伸縮的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政策金融을 점진적으로 縮小 또는 廢止하여 通貨관리의 效率성을 높여 나가면서 不動産投機 抑制施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代替資産의 期待收益率도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金利自由化 過程에서 나타날 수 있는 金融機關의 經營惡化나 金利上昇要因을 金融機關의 經營合理化를 통해 최대한 吸收해 나가고 金融의 安定性·健全性 제고를 위한 金融監督機能을 한층 強化해 나가는 한편 企業도 投資計劃이나 事業計劃을 시장金利수준에

따라 적절히 調節하도록 誘導해 나가겠습니다.

鄭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通貨管理政策은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中立의으로 樹立되고 自律의으로 執行되어야 함과 동시에 政府의 一般經濟政策과 調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政府는 中央銀行의 自律과 創意 專門性이 최대한 발휘되어 通貨信用政策의 效率性을 높이도록 함과 아울러 一般經濟政策과 調和를 이루는 가운데 정책이 樹立되고 執行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과의 眞摯한 協調를 持續해 나가겠습니다.

(質 疑)

銀行監督院이 預貸相計 調査시 指摘한 내용과 預貸相計 實績 및 中小企業支援實績을 물으셨습니다.

(答 辯)

그동안 市場金利가 上昇하여 銀行의 拘束性 預金取扱이 늘어남에 따라 企業의 負擔이 增加하고 通貨指標가 誇大計上되는 등의 副作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는 金融機關들로 하여금 금년 4/4分期중 1兆원이상의 預貸相計를 하도록 하고 預貸相計를 통해 발생하는 貸出餘力으로 中小企業에 重點支援토록 한 바 있습니다.

한편 預貸相計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 中小企業에 實效性있게 資金이 支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銀行監督院으로 하여금 特別點檢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銀行監督院의 점검결과 10月中 預貸相計 實績은 5,741億원으로 目標額 5,566億원 대비 103%를 달성하고 이로 인한 貸出餘力으로 成長展望이 밝은 有望한 中小企業에 대하여 1兆130億원의 資金이 支援된 것으로 暫定集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自己資金에 대한 貸出金 償還을 相計實績에 포함하거나 相計후 拘束性 預金 再取扱등 일부 違反事例가 있어 이를 즉시 是正토록 한 바 있습니다.

○財務部長官 李龍萬

(鄭在文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92年度에는 1人當 負擔稅金이 100萬원을 넘어서게 되고 不勞所得의 횡행등 租稅正義가

왜곡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公平課稅와 철저한 稅金徵收를 위한 稅務行政의 刷新方案에 대하여 물으셨음.

(答 辯)

來년에 國民 1人當 擔稅額이 100萬원을 넘는다는 것은 來년에 徵收될 것으로 예상되는 法人稅·關稅·취득세·등록세 등 國稅와 地方稅를 합한 總租稅收入을 國民全體의 人口로 나누어 본 金額이 연간 101萬8,000원이 된다는 뜻이며 이와같이 計算한 1人當 擔稅額이 지난해의 89萬3,000원에 비하여 14% 增加한 것이나 이는 來년에 예상되는 經濟成長率 14.5%보다 낮은 수준이며 GNP와 대비한 租稅負擔率도 '92년에는 19.6%로 전망되는 바 이는 '90년의 19.7% '91년의 19.5%의 平均水準이므로 來年度에 國民들이 내는 稅金이 經濟成長에 따른 所得增加幅 이상으로 특별히 더 增加하는 것은 아님.

政府는 所得種類間·階層間 稅負擔의 衡平을 증진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바 '8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稅制를 改編하여 소득세율의 인하 防衛稅의 폐지 각종 控除範圍의 신설·확대 등으로 勤勞所得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輕減함으로써 현재는 전체 勤勞者의 約 40%만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고 반면에 事業所得에 대하여는 課稅標準의 現實化를 유도하면서 부동산소득 상속·증여등 財產所得이나 不勞所得에 대하여는 課稅가 強化되도록 制度를 보완하여 今年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稅務行政면에서도 衡平을 저해하는 陰性·不勞所得과 脫漏所得의 捕捉率을 提高해 나가기 위하여 大都市 稅源密集地域을 다수의 小單位 稅務署體制로 전환하여 大都市의 經濟力集中에 따른 陰性·不勞所得등의 稅源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稅務調査人力 및 組織을 보강하여 稅務調査機能을 확충해 나가면서 電算에 의한 人別 綜合稅源管理등 科學的 稅源管理體制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投機所得·變則的인 相續·贈與등을 철저히 調査하여 課稅를 나가도록 하겠음.

(質 疑)

'91년 및 '92년의 租稅支出規模와 稅目別·政策目的別 조세징수액 대비 租稅支出比率에 대해 質疑를 주셨음

(答 辯)

현재 租稅減免實績은 支援方法別로만 집계되고 있어 구체적인 政策目的別등으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全體法人 및 個人事業者의 申告書를 일일이 검토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1年 및 '92年の 租稅減免規模는 당해연도에 대한 稅務申告가 이루어지는 '92年 및 '93년에 파악이 가능하며 참고로 '90年 減免實績('91年申告)은 다음과 같음.

'90年 支援方法別 租稅減免實績

직접세 징수액	83,404 억원
직접세 감면계	19,906 억원
- 직접감면	(17,110)
○ 세액면제 및 감면	7,330
○ 세액공제	5,016
○ 소득공제	4,764
- 간접감면 (준비금, 특별상각)	(2,796)

(質 疑)

鄭在文委員께서는 資本市場 開放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展望과 우려되는 副作用 및 그 에 대한 補完對策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答 辯)

政府는 '80年代 초부터 資本市場의 開放을 漸進的·段階的으로 확대 추진해 오고 있으며 來年부터는 外國人이 國內株式市場에서 직접 株式를 賣買할 수 있도록 株式市場을 開放하고자 합니다.

株式市場이 開放되면 신규로 유입되는 外國人 投資資金이 國內證市에 새로운 投資需要를 유발시켜 證市가 活性化되고 企業들의 證市를 통한 直接金融 調達이 원활해지게 되며 國內金融·證券產業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대외경쟁력을 強化시키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投資者들의 투자관행도 企業의 내재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보다 合理的이고 건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등 肯定的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國內의 事前受容態勢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短期投機性資金(Hot money)의 빈번한 流出入으로 인한 副作用과 통화관리의 어려움 등 國內경제에 여러가지 부담을 줄 素地가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裝置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초기개방목을 決定함에 있어서 각계로부터 수렴된 意見을 토대로 하여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10%)라든가 1인당 투자한도(3%)를 設定하였으며 外國人 投資資金의 유출입 및 株式投資狀況을 實名으로 관리하고 株式投資資金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證券市場에서의 公正去來秩序 確立과 上場企業의 經營權安定 및 投資者保護 強化를 내용으로 하는 證券去來法改正을 추진하는 등 株式市場 開放에 대비한 制度整備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法務部長官 金洪春

(吳景義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全國·檢察의 選舉專擔班 運用實態와 實績 그리고 違反事犯 處理基準는?

(答 辯)

檢察은 이번 第14代 總選에서도 반드시 公明選舉를 이루어야 한다는 國民的 輿望을 받들어 지난 10月 초순경부터 전국 50개 地檢, 支廳에 選舉事犯專擔搜查班을 가동하여 事前選舉運動資料를 수집 분석·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警察 檢察에

告訴·告發 등으로 입건된 사례가 어느 정도 인지는 추후에 파악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檢察은 金品撤布 暴力 誹謗行爲 등을 重點 團東對象으로 삼아 정과를 불문하고 죄질에 따라 단호히 依法措置할 것이며 특히 法을 違反해서라도 當選만 되면 그만이라는 일부 候補者의 그릇된 認識을 바로 잡기 위하여 當選與否에 관계없이 엄단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公明選舉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候補者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有權者의 각성이 必要하다고 할 것이므로 候補者에게 金品과 賤應 등을 요구하는 有權者에 대해서도 엄단함으로써 돈안들고 깨끗한 公明選舉風土確立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財務部長官 李龍萬

(林茂雄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疑)

輸出支援을 위해 大企業에 대해서도 貿易金融을 復活시키는 등 貿易金融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答辯)

輸出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競爭力을 구조적으로 強化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設備投資와 技術開發을 重點지원해 오고 있으며 輸出에 필요한 運轉資金을 支援하는 무역금융은 현재 中小企業과 非系列 大企業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輸出이 不振하고 자금사정에도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貿易金融 融資單價를 달러당 60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하여 金融支援을 확대하는 方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大企業에 대하여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通貨管理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競爭力 強化에 필요한 資金支援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參考로 大企業에 대하여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달러당 300원으로 전제하여도 約 3兆원의 資金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만 貿易逆調가 심화되고 있는 일본지역에 대한 輸出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對日輸出企業에 대해서는 무역금융과는 별도로 지난 10월부터 업체별로 對日輸出實績에 連繫하여 2,000億원의

資金을 支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教育部長官 尹亨燮

(權海玉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疑)

寄與入學制 導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見解를 물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代案으로 教育公債 發行을 제안해주셨습니다.

(答辯)

寄與入學制 論議는 지난 '86年 教育改革審議會에서 거론되어 그 이후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全國敎務處長協議會 등에서 私立大學의 심각한 財政難을 解消하는 方案의 하나로 建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政府는 아직은 時機尙早라는 立場을 고수해 왔습니다만 21世紀 韓國大學의 國際競爭力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급히 이 制度를 導入하여야 한다는 主張과 建議가 계속 들어오에 따라 大學의 심각한 財政難 解消와 대학의 지속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國民들의 合意·導出을 전제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는 쪽으로 教育部의 基本立場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大學教育協議會와 韓國高等教育研究會가 자체적으로 各界의 意見을 광범위하게 收斂하고 있으므로 그 結果를 보아가며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大學의 학생선발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總·學長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일이나 現行法上 아직은 學生定員을 政府가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教育部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寄與入學에 관한 사항을 檢討함에 있어서는 大學의 自律權 존중이라는 측면과 사회적 기강확립 및 國民의 도덕성 함양이라는 側面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權委員님께서 提案해 주신 教育公債發行 問題에 대해서도 신중히 研究하겠습니다.

(黃哲秀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疑)

國民學校 藝·體能 敎科專擔制 실시에 있어서는 敎員養成과 資格證制度의 改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長官의 견해는?

(答 辯)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國民學校에 藝·體能 教科專擔制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우수한 敎員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全的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國民學校에 있어서는 藝·體能 科目을 擔當할 敎師의 養成방법이 中等敎員의 경우와는 달라서 1次的으로 모든 과목을 담당할 기본적인 能力을 갖추도록 하고 藝·體能 科目에 대해서는 敎育大學의 해당과목 심화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이론 및 실기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敎育部는 이러한 기본입장에서 敎育大學의 교과과정에 대한 改善作業을 이미 착수한 바 있습니다.

參考로 '92學年度의 예·체능교과 전담제 실시에 필요한 敎員은 敎育大學의 藝·體能 심화과정 이수자 9,000餘名과 해당분야에 特別한 소양이 있는 現職敎師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特別研修敎育을 거쳐 선발하여 運營할 計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黃委員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資格證制度 改善案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權海玉·黃哲秀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權海玉委員께서는 中學校 義務敎育을 '92년부터 邑·面地域까지 擴大하는데 대한 그 구체적인 內容과 財源調達方案을 물으셨고 黃哲秀委員께서는 '94년까지 邑·面單位地域의 中學校 無償 義務敎育을 完成하려는 계획을 全國적으로 앞당겨 擴大할 用意는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總理에게 물으셨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함께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答 辯)

敎育部에서는 현재 島嶼僻地地域에 국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中學校 義務敎育을 내년도에는 邑·面地域 中學校 新入生 '93年度에는 1,2學年 學生 '94年度에는 1,2,3 全學年 學生을 대상으로 擴大實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郡地域 義務敎育擴大에 所要되는 豫算은 '92年度에 928億원 '93年度에 1,856億원 '94年度에 2,784億원이며 이중 來年度 所要豫算 928億원은 來年度 豫算에 이미 計上되어 있습니다. '93年度이후 소요되는 財源도 豫算으

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中學校 義務敎育을 조속히 전국적으로 擴大·實施하여야 한다는 黃哲秀委員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을 完成하는데는 무려 1兆원이상의 막대한 財源이 所要되기 때문에 현재의 國家財政 여건으로서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선 郡地域까지 擴大한 후 단계적으로 擴大實施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우리의 私學 여건상 私學敎員 退職手當을 私立學校에 負擔시키는 것은 영세私學에 과중한 負擔을 주기 때문에 이에 所要되는 168億3,600萬원을 全額 國庫에서 負擔할 用意는 없는가 그리고 敎員들의 漏落經歷 認定에 所要되는 62億1,800萬원등 敎員處遇改善 所要豫算여 삭감된데 대한 對策은?

(答 辯)

私學은 國家와 똑같이 公敎育을 分擔하고 있기 때문에 私立學校 敎員은 國·公立學校 敎員과 同一한 身分地位 및 處遇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뜻에서 當初 私學敎員의 退職手當 支給에 所要되는 예산중 私學 年金管理公團 부담분을 제외한 잔액을 國庫에서 부담하도록 추진하였으나 財政形便上 政府 豫算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敎員들의 漏落經歷 認定에 所要되는 62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政府豫算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敎育體育 靑少年委員會에서 의결한 敎員處遇改善을 위한 豫算 純增 171億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質 疑)

敎育界의 道德性 回復方案과 淨化對策은?

(答 辯)

入試問題 參考書 供給問題등 敎育現場에서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敎育行政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立場에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敎育部로서는 敎育 一線에서 나타나고 있는 非敎育의인 일들에 관한 問題點을 깊이 認識



하고 敎員社會의 自律的인 道德性回復運動의 展開를 期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敎育施策의 基本方向을 民主市民의 育成과 道德性 涵養에 두고 이를 위해 15個 市·道 敎育廳을 통해 敎師들에 대한 民主性 및 道德性 涵養을 위한 研修敎育을 強化하고 있습니다.

또한 敎育界의 不道德하거나 非敎育的인 일 에 대하여는 철저히 行·財政的 制裁를 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吳委員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敎育界의 道德性 회복이나 淨化는 社會 全般的인 분위기의 淨化속에서 함께 進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敎育部로서는 敎育界의 道德性 회복을 위하여 敎員養成課程의 첫 단계에서부터 비롯하여 할 수 있는 모든 力量을 集中해 나가겠습니다.

○體育青少年部長官 朴哲彥

(吳景義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吳景義委員님께서서는 青少年修鍊院 建立計劃과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建立支援에 대하여 물으 셧습니다.

(答 辯)

먼저 青少年 健全育成을 위하여 깊은 관심 을 기울여 주시는 吳委員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라나는 青少年들이 心身을 鍛鍊하고 敎養과 情緒를 涵養할 수 있는 青少年 修鍊施設이 절대 부족한 현실정을 감안하여 저희 部에서는 青少年 修鍊院과 青少年 修鍊마을등 青少年 修鍊施設 擴充事業을 重點施策으로 정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約 9個月間 집중적으로 青少年關係 專門家 및 公聽會 등을 통하여 지혜를 모으 고各界의 輿論을 수렴하여 政府樹立後 처음으로 지난 6月27日 확정·발표한 韓國青少年 基本計劃 10個年計劃에 의하여 내년도 부터 향후 10個年間 日常生活圈 및 自然圈에 1萬3,517個所의 修鍊施設을 地域別 青少年分布圖 및 行政區域 등을 감안하여 확보해 나갈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青少年修鍊院은 시설규모가 敷地 約 3,000坪 연건축면적 約 2,500坪의 規模의 施設로서 敷地買入費를 제외한 總事業費 約

50億원 규모의 青少年綜合會館으로서 이중 50%를 저희 部가 2年間 분할하여 지원 건 립하고 있는 바 각 시·도에 1個所씩 확보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修鍊院은 금년부터 日常生活圈내에 青少年들의 情緒涵養과 心身鍛鍊 資質開發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複合青少年 修鍊施設으로써 앞으로 地域單位 青少年 修鍊活動의 求心體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青少年修鍊院을 年次別 建立計劃에 따라 서울 대구 충남 전북 제주등 5個 所에 건립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해당 시·도의 自體 計劃에 의한 申請에 따라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안동)등 6個所(75億원 요구)를 新規로 建立코자 하였으나 政府 豫算 事情으로 인하여 엑스포行事와 관련된 大田地域 1個所(7.5億원)만이 來年度 豫算에 반영되었고 경북(안동)등 나머지 5個所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部에서는 青少年들의 산 교육 장인 青少年修鍊施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慶北(安東市)을 포함한 나머지 시·도에도 青少年修鍊院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미 확정된 青少年基本 計劃에 따라 15個 市·道에 1個所씩 青少年 修鍊마을을 市·郡·區單位 生活圈 修鍊施設로 273個所의 青少年修鍊館을 市·郡·區別로 5個 所씩 青少年修鍊室(음악감상실 독서실 스포츠 시설등 단일기능 시설)을 邑·面·洞別로 3個 所씩 青少年 修鍊房(휴게실 대화장소등)을 農·漁村 폐 분교를 활용하여 青少年 修鍊의 집(전국 16個所 숙박 야영 수련시설)을 건립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部는 우리의 青少年들이 대 자연과 태양 아래서 그리고 바람직한 生活圈 修鍊施設에서 마음껏 技倆을 펼치고 힘차고 유능한 後繼世代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農林水産部長官 曹京植

(權海玉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앞으로 우리 農土를 技術·資本集約 農業이 可能토록 整備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見解와 農業振興地域 以外的 投機場化 可能性 등 問題點을 勘案하여 農業振興地域 指定을

再考하고 農地賣買를 自由化할 用意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答 辯)

앞으로 農産物輸入開放에 對應하여 우리 農業의 競爭力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벼농사의 完全機械化와 菜蔬·花卉·果樹등 成長品目の 施設現代化·自動化를 통해 技術·資本集約의 農業으로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政府도 委員님과 意見을 같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農業振興地域制度는 바로 이러한 技術·資本集約의 農業의 發展을 促進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集團化가 可能한 優良農地를 中心으로 生産基盤을 早期에 完備하고자 하는 制度이며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農業振興地域은 지난해 4月 議員立法으로 制定하여 주신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規定에 의거 '92年末까지 指定토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精密한 檢證과 現地 輿論의 수렴을 거쳐서 法定期限内에 公正하고 慎重하게 指定토록 推進할 計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農業振興地域에서 除外되는 農地에 대하여도 農地賣買證明發給 및 農地轉用許可制를 繼續 維持하는 同時에 農地轉用負擔金의 徵收와 開發利益還收 등을 통해 農地投機를 事前에 防止하도록 最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非農民의 農地買入를 許容하는 등 農地賣買를 自由化할 경우에는 憲法上の 耕者有田의 原則이 損傷될 우려와 短期的으로 農地投機가 擴散될 憂慮가 있기 때문에 非農民의 農地買入를 制限하는 現行制度를 繼續 維持하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점을 理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彬·權海玉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李起彬委員님께서 政府米在庫를 줄이기 위한 쌀消費促進施策과 糧穀操作費節減方案에 대하여 副總理께 질문을 주셨고 權海玉委員님께서도 쌀消費擴大와 在庫整理를 위해 食品工業用으로 輸入하는 밀·옥수수를 쌀로 代替하는 등 쌀消費政策에 대한 見解를 물으셨음. 두 委員님의 質疑하신 취지가 비슷하므로 諒解하여 주신다면 함께 答辯드리겠습니다.

(答 辯)

政府는 쌀消費擴大를 위해서 今年 1月 韓

國食品開發研究院에 쌀 利用研究센터를 設置하여 쌀을 原料로 한 加工食品開發을 積極 推進하는 한편 加工用으로 쓰이는 쌀을 低價로 供給하여 需要를 늘리고 증류식 소주에도 쌀使用를 許容하는 등 그동안의 쌀 消費規制를 모두 解除하였으며 今年에는 오래된 統一쌀 43萬石을 酒精原料로 供給하였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쌀밥 먹는 習慣을 기르기 위해 學校給食을 擴大하는 方案을 推進하는 등 多角的인 쌀消費擴大方案을 講究하고 있습니다.

食品加工用으로 輸入하는 밀이 年間 200萬톤이고 옥수수는 140萬톤 水準이므로 이같은 輸入穀物 一部를 쌀로 代替하는 경우 쌀消費擴大 및 在庫減縮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밀가루는 빵 과자 국수를 만드는데 주로 使用되고 옥수수는 옥수수가루 전분 또는 과당 포도당 등 당류제조에 使用되고 있는데 밀가루와 쌀가루를 섞는 方案 등을 檢討해 봤으나 既存 밀가루와 옥수수를 原料로 하는 製品의 特性上 밀가루와 옥수수를 쌀로 代替 使用하는 데는 限界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最近 쌀가루를 섞은 라면을 開發·市販했으나 消費者의 嗜好에 맞지 않아 失敗한 例는 쌀의 代替消費가 어려움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政府는 앞으로도 쌀 加工食品開發과 함께 酒精原料로도 쌀을 더 많이 使用토록 하는 등 쌀消費擴大施策을 보다 強化해 나가겠습니다.

李起彬委員님께서 質問하신 政府糧穀의 運送操作 改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政府는 近距離 輸送操作原則을 適用해서 管理經費를 最少化하는 施策을 推進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李委員님께서 指摘하신 京畿道 웅진군에서 收買한 糧穀은 行政區域上的 理由와 產地에서 搗精하여 消費地에서 販賣하는 慣行에 따라 지금까지 京畿道에서 搗精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仁川으로 輸送하여 搗精토록 하겠으며 이 地域 以外에도 類似한 事例가 있는지 調查하여 政府糧穀의 管理經費를 節減하는 方案을 講究하겠습니다.

(吳景義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農漁村支援은 開放化에 대비하여 從來의 所

得補償的 支援보다는 農水産業의 競爭力 強化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長官의 見解를 물으셨습니다.

(答 辯)

國際貿易의 自由化 趨勢에 따라 農水産物의 輸入開放 압력이 加速化되고 있는 現實에서 우리 農水産業의 競爭力을 提高하는데 農政의 力點을 두어야 한다는 吳委員님의 見解에 全的으로 同感입니다.

政府에서는 開放化에 對應해서 우리 農水産

業의 競爭力 提高를 促進하기 위하여 今年 7月 營農漁規模의 擴大와 農業生産基盤의 早期整備 農業機械化와 營農漁施設의 現代化 그리고 專門後繼人力의 育成과 農水産技術開發 促進을 主要內容으로 한 「農漁村構造改善對策」을 樹立하여 推進하고 있으며 來年度 豫算案에도 構造改善促進을 위한 投融資事業費를 重點 增額하여 今年度の 當初 豫算對比 51.7%를 增額要請하고 있음을 理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考>

'92 農林水産部門 支援 規模

區 分	'91 豫算		'92 豫算(案) (C)	增 △ 減			
	當 初 (A)	追 更 (B)		C - A		C - B	
					%		%
1. 豫 算	25,568	29,199	34,056	8,488	33.2	4,857	16.6
			(34,750)	(9,182)	(35.9)	(5,551)	(19.0)
○ 事 業 費	21,149	22,280	29,428	8,279	39.1	7,148	32.1
			(30,122)	(8,973)	(42.4)	(7,842)	(35.2)
— 投融資事業	14,767	15,798	21,833	7,066	47.8	6,035	38.2
			(22,527)	(7,760)	(52.5)	(6,729)	(42.6)
— 負擔輕減	5,212	5,312	6,308	1,096	21.0	996	18.8
— 經常事業等	1,170	1,170	1,287	117	10.0	117	10.0
○ 赤字補填支援	3,000	5,500	3,000	-	-	△ 2,500	△ 45.5
○ 基本的經費	1,419	1,419	1,628	209	14.7	209	14.7
2. 債 券 (新規發行)	3,005	3,005	4,432	1,427	47.5	1,427	47.5
總 支 援 規 模	28,573	32,204	38,488	9,915	34.7	6,284	19.5
			(39,182)	(10,609)	(37.1)	(6,978)	(21.7)
投 融 資 規 模	17,772	18,803	26,265	8,493	47.8	7,462	39.7
			(26,959)	(9,187)	(51.7)	(8,156)	(43.4)

(註) ( )는 地方讓與金事業으로 轉換된 定住圈開發事業費(暫定 694 億圓) 包含

## ○商工部長官 李鳳瑞

(吳景義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다음 吳景義委員께서는 北方交易 규모와 貿易赤字 解消對策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答 辯)

우리나라와 北方圈과의 交易狀況을 보면 9月末 현재 56億弗 규모이며 연말까지는 80億弗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데 헝가리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東歐圈과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큰 黑字을 보이고 있으며 蘇聯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黑字였고 금년에는 9월까지 소폭의 赤字를 나타냈으나 연말까지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中國은 아직까지 赤字趨勢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貿易赤字를 나타내고 있는 對中國 交易赤字의 가장 큰 요인의 하나인 差別關稅 問題는 조속한 시일내에 貿易協定을 締結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權海玉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權海玉委員님께서 世界的인 競爭力이 있는 대표적인 商品도 開發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단가만 비싼 우리 商品의 輸出이 회복되리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輸出競爭力을 回復시킬 수 있을는지 구체적 對策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答 辯)

금년 10月末 현재 우리 輸出은 작년에 비하여 10.6% 增加하였습니다만 이 10.6% 增加의 요인을 보면 輸出物量의 增加에 기인한 것이 9.1%로 대부분이고 單價上昇에 의한 요인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推定됩니다.

그러나 權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技術力의 限界로 世界的인 競爭力이 있는 商品을 開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수출이 조속히 확대되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中·長期的 시각에서 우리 産業의 根本的인 競爭力強化에 중점을 두고서 지난 3月 수립한 製造業競爭力強化對策을 차질없이 꾸준히 推進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技術開發支援을 위해 앞으로 5年間 919個의 核心生産技術課題에 대해 關聯研究所

와 業界가 공동개발토록 노력하고 先進國으로 부터의 기술도입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2차 機械類·部品·素材 國產化 5 個年 計劃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專門技術人力 養성을 위해 實業系 고등학교 및 理工系 대학정원 확대, 산업기술 대학 설립 등 技術教育制度를 정비하고 職業訓練制度를 개편하는 한편 여성·고령자 등 遊休人力의 産業人力化 促進을 위한 制度的 裝置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社會間接施設 投資擴大를 위해 財政可用財原을 이 부문에 최대한 配分하고 輸送體系의 效率化도 적극 推進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밖에 貿易自動化體系의 구축으로 서류없는 貿易節次를 이루고 輸出信用保證保險 등 輸出保險制度를 改善하여 輸出保險에 의한 海外市場開拓機能을 提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權海玉委員님께서 輸出競爭力 弱化的 주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貨金上昇 問題와 관련하여 電子·機械 등 主要 輸出産業의 原價 중에서 勤勞者 貨金이 차지하는 比重을 밝히고 그에 대한 對策을 물으셨습니다.

韓國銀行의 企業經營分析 資料에 의하면 輕工業分野의 纖維의 경우 最終段階에서의 製造原價중 노무비 비중이 '88年 11.2%에서 '90年 12.6%로 增加하였고 신발의 경우에는 19.7%에서 22.8%로 增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電子·機械 등 資本財가 많이 投下되는 重化學工業에 있어서는 人件費의 比重이 輕工業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이들 업종에 있어서는 人件費의 比重이 현저히 上昇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대 電子工業의 경우 最終段階에서의 製造原價 중 노무비 비중이 '88年 10.2%에서 90年 12.4%로 機械工業의 경우 10.9%에서 12.7%로 增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最終段階에서의 노무비 비중의 추이이고 中間過程에서 투입되는 人件費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生産者價格중 人件費는 輕工業중 纖維가 53% 신발은 64%로 나타나고 있고 重化學는 電子機器

46% 機械類는 50%를 집하고 있어 人件費上昇이 製造業 競爭力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競爭力 確保次元에서 내년에는 賃金이 최대한 安定되도록 關聯部處와 유기적으로 協調하여 企業에 대한 指導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質 疑)

權委員께서는 또 UR協商이 이번 11月 중에 農產物 서비스 및 無關稅 등 分野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政府의 對策을 물으셨습니다.

(答 辯)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은 지난 11月7日 개최된 貿易協商委員會에서 제시된 대로 11月末까지 最終協商案을 導出하기 위해 각국이 최대한의 協商努力을 경주하고 있으며 내주부터는 7個 分野에 걸쳐 막바지 協商이 展開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政府는 내주에 고위대표단을 제때바로 보내 最終協商案 作成過程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努力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委員님께서 언급하신 協商分野에 관하여 구체적인 對策을 말씀드리면 農產物 分野에서는 쌀을 포함한 基礎食糧이 市場開放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主要國을 설득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通信 流通 金融 등 우리 서비스 産業의 競爭力을 감안하여 큰 충격이 없는 범위내에서 開放되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으며 無稅化分野에서는 鐵鋼 電子 建設裝備 分野 중 우리 能力에 맞는 범위내에서 參與하도록 協商努力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權委員님께서서는 어음부도율이 10月들어 전국적으로 0.7%로 치솟고 특히 釜山地域의 中小 新발業體가 倒産狀態에 있는데 대하여 어떠한 對策이 있는지 밝혀 달라는 요지의 質疑가 제셨습니다.

신발은 금년 초부터 輸出이 不振하여 生産活動이 萎縮되고 休·廢業體가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政府에서는 지난 11月11日 副總理 主宰로 關係部處長官會議에서 신발업체에 대하여 緊急資金을 최대한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현재 主去來銀行에서 資金支援을 추진 중에 있

습니다.

中·長期的으로는 老朽施設 改替 및 自動化 施設資金 支援과 新素材 및 部品開發 등을 적극 支援하여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對策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限界企業에 대하여는 業種 轉換 등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業界에서 合理化業種의 指定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指定要請이 있을 경우 新발産業의 構造調整 次元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部長官 李鎭高

(黃哲秀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1. 始華地區 隣接住居地域의 심각한 環境汚染 問題가 豫想되는 바 이를 準工業地域으로 遷元하고 住居地域은 오이도의 公有水面을 埋立하여 造成할 用意는

(答 辯)

本 始華地區 開發事業은 '87年度 착수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政府의 首都圈內 人口 및 産業集中抑制施策에 따라 工業地域을 축소하고자 인접 준공업용지를 住居用地로 變更한 바 있습니다.

住居地域을 다시 準工業用地로 환원할 경우에는, 首都圈人口 및 産業集中抑制施策에 배치될 뿐 아니라 現 住居地域에 이주단지들 기히 분양받은 移住民들이 강력한 集團民願이 예상되므로 準工業用地로의 遷元은 곤란합니다.

다만 예상되는 公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公園과 住居用地 사이에 완충녹지 200미터 외에 支援施設用地 200미터를 계획하여 遮斷空間을 확보하고 工團內 工場配置는 주풍향을 고려하여 大氣質 公害가 심한 업종은 工團 下端部에 配置하고 있으며 현재 同 地域에 대한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여 環境處와 協議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公害防止對策을 樹立 施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이도를 埋立하여 大規模 市街地를 造成할 경우에는 首都圈의 交通 및 用水問題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事業施行이 困難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 疑)

西海岸高速道路중 始興市 月串洞區間이 자연

부락을 通過하게 되어 地域住民들이 路線變更을 要求하고 있는바 現地實情을 積極檢討하여 適切한 對策을 세울 用意는?

(答 辯)

西海岸高速道路중 地域住民들이 路線變更을 要求하는 始興市 月串洞 通過路線은 同 高速道路의 妥當性調査('83.12-'85.12) 및 實施設計('89.12-'90.11)時 地形與件 土質條件 工事의 難易 및 經濟性 등을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決定된 最適路線으로써 이 路線은 '91.1.23 始興市長 京畿道建設局長 및 道路設計專門家가 現地를 踏查하여 調査한 結果 가장 合理的인 路線으로 確認된 바 있으며 '91.3.16 都市計劃施設로 이미 決定告示(建設部告示 第38號)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地域住民들이 路線變更을 要求하는 路線은 地形與件上 不合理한 뿐만 아니라 水仁線 鐵道와 始興市 都市計劃道路가 交叉하여 立體交叉施設이 必要한 바 이의 設置場所가 軟弱地盤인 것별이고 3層構造로 建設해야 하므로 技術的으로 立體交叉設置가 困難할뿐만 아니라 이 立體交叉路와 隣接터널간의 離隔距離가 짧아 高速道路의 安全設計基準에 未達하고 長大橋梁(延長 2,300m 最大徑間長 150m)建設에 따른 工事費(491億원)가 追加로 所要되어 變更要請 路線은 施行키 어려운 實情입니다.

따라서 住居地域 通過區間에 대하여는 마을이 兩分되지 않도록 高架橋梁(延長 460m)으로 建設함과 同時에 騒音公害를 저감하기 위하여 防音壁(1,740m)을 設置하는 등 地域住民들의 生活에 不便이 없도록 措置할 計劃입니다.

(質 疑)

開發制限區域 本來의 趣旨를 毀損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그 管理制度를 果敢히 改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政府內에 이에 대한 研究成果가 있는지? 없다면 本格的인 改善作業을 서둘러 주시고 管理制度의 改善에 앞서 營農上一部 不合理한 規定을 改正하여 주실 것을 要請함.

(答 辯)

開發制限區域은 都市周邊의 自然環境을 保護하고 都市의 無秩序한 擴散을 防止하여 都市民의 健全한 生活環境을 確保하기 위하여

71년부터 本 制度를 導入한 以來 '71.7~'77.4까지 大都市 및 工業都市周邊 14個 地域에 全國土의 5.5%에 該當하는 總 5,397.1km<sup>2</sup>를 指定하여 管理해 오고 있습니다.

開發制限區域 管理制度의 改善에 관한 委員 指摘에 대하여는 土地所有變動·地目·規模 現況과 居住者變動 및 賃入者 現況등 開發制限區域 政策樹立에 必要한 諸般事項을 調査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制度 改善한 實績으로는 區域指定以後 41回 95件을 改正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住民不便을 解消하는 方向으로 積極 改善해 나가겠습니다.

(吳景義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慶北 北部地域 發展을 위한 道路網 整備計劃, 慶北道廳을 安東으로 移轉하는 問題등을 指摘하시면서 慶北北部圈 開發綜合對策의 具體的 內容과 調査費 4億원의 增額用意를 물으셨습니다.

(答 辯)

政府에서는 慶北北部地域의 開發을 위하여 이 地域에 대한 基本調査를 '90년에 完了하고 그 開發方向을 第3次 國土綜合開發計劃案에 反映하였습니다.

그 內容을 말씀드리면 이 地域의 觀光 및 傳統文化資源을 開發하기 위하여 安東에 하회마을과 民俗村을 開發·保全하고 周王山과 安東 및 東海岸을 連結하는 觀光·休息空間을 造成하여 國民餘暇地帶로 活用토록 하며 中央 高速道路周邊에 中小工團을 造成하여 住民所得 增大에 寄與하고 大邱-春川間과 永川-奉化間 및 東西間 幹線道路網을 構築하여 接近性을 提高하는 등의 內容이 包含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92豫算에 反映된 調査費 4億원은 第3次 國土計劃期間중에 特定地域으로 指定하여 開發하기 위한 候補地 調査費이며 優先來年度에 慶北北部地域을 包含하여 一部落後地域에 대하여는 妥當性調査 등을 實施하고 繼續해서 '93年度도 餘他 落後地域에 대하여 調査를 實施하여 나갈 計劃임을 報告드립니다.

(文峻植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光州尖端科學產業團地 造成事業에 대하여 1)

事業推進이 不振한 事由 2)政府와 土地開發公  
社의 業務分擔 3)進入道路등에 대한 來年度  
豫算으로 22億7,500萬원을 計上하고 있는데  
事業施行에 蹉跌이 없는지?

(答 辯)

光州尖端科學產業團地 造成事業(1段階)은 今  
年末에 着工하여 '95년까지 完了할 計劃으로  
써 現在 이러한 計劃에 맞추어 實施計劃을  
마련중에 있으며 今年內에 團地造成事業을 着  
手할 豫定임.

다음 政府와 土地開發公社의 業務分擔에 대  
하여는 政府는 事業計劃의 樹立 및 調整,  
科學技術院의 設立, 進入道路와 用水施設등  
團地外廓 基盤施設을 支援하고 土地開發公社는  
團地造成 分讓 등 敷地造成業務를 擔當하고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그리고 政府支援事業으로 推進중인 進入道路  
및 用水施設에 대하여는 事業初年度에 必要한  
實施設計費와 一部 用地補償費를 來年度 豫算  
案에 計上하였으며 事業이 本格的으로 施行되  
는 '93년부터 나머지 豫算을 集中投入하여  
光州尖端團地造成 事業計劃에 蹉跌이 없도록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林茂雄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京仁·京水高速道路 乘用車 通行制限 問題는  
根本的인 解決方案이 되지 못하므로 第2京仁  
高速道路 國道6號線 및 京仁迂迴道路에 豫算  
을 集中投資하여 早期 完工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見解는?

(答 辯)

京仁·京水地域의 慢性的인 交通滯症을 緩和  
하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 政府內에서는 一部  
乘用車의 短期的인 通行制限 등 交通疏通 對  
策을 樹立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方  
案만으로는 이 地域의 慢性的인 交通難을 根  
本的으로 解決할 수 없다는데 대하여는 委員

님과 見解를 같이 합니다.

現在 推進중인 道路網 擴充計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京仁·京水間 4車線 高速道  
路의 8車線 擴張工事は 늦어도 '92年7月까지  
는 完工할 計劃이고 '91부터 着工한 第2京仁  
高速道路 建設工事は 早期完工을 위하여 于先  
時急한 西昌-鞍峴區間은 '93년에 完工하고  
나머지 區間(鞍峴-日直)도 '96년까지 竣工될  
수 있도록 工事を 推進중에 있으며 또한 이  
地域의 交通疏通을 圓滑히 處理할 수 있도록  
富川-開花間 國道, 서울-仁川間 國道, 京  
仁·京水地域의 主要國道 擴張工事 등에 대하  
여도 當初보다 1-2年 工期를 앞당겨 '92年  
末까지는 完工할 計劃입니다.

따라서 現在 工事중인 大部分의 高速道路  
및 國道 擴張事業이 完了되는 '92年末 以後  
에는 京仁·京水地域의 交通難이 크게 緩和될  
것으로 期待됩니다.

한편 首都圈地域의 交通難을 緩和하기 위한  
서울 外廓循環高速道路 建設을 推進하고 있으  
며 優先 板橋-九里間은 新葛-安山高速道路와  
함께 '91年11月중에 開通하고 一山-安養-板  
橋區間도 今年에 工事を 着工하여 早期 完工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達洙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92豫算(案)에 繼續費 事業중 ①IBRD 6次  
借款道路는 增額하고 基幹國道事業은 減額한  
事由 ②基幹國道事業도 IBRD 6次 借款道路  
事業처럼 繼續費 期間을 短縮시킬 必要性

(答 辯)

基幹國道 事業費의 削減事由에 대한 質疑에  
대하여는 '92豫算(案)에 總事業費面에서  
IBRD 借款道路事業은 194億원 基幹國道事業  
은 154億원이 增額되었으며 減額된 것은 없  
습니다.

※ 參考

區 分	當 初	變 更	增 額	備 考
款道路 (IBRD)	4,722 億원	4,916 億원	194 億원	
基幹國道	6,373 億원	6,527 億원	154 億원	

또한 基幹國道 事業期間의 短縮問題에 대한 質疑에 대하여는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現在 道路 交通隘路로 起因하는 經濟的 損失을 勘案할 때 繼續費 道路事業의 期間을 短縮 早期에 完了할 必要性을 政府에서도 共感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繼續費事業중에서도 交通隘路가 極히 甚한 區間을 手先 完了하는 方向으로 推進하

고 있어 借款道路事業은 '93年에서 '92年으로 事業期間을 1年間 短縮하게 된 것입니다.

基幹國道事業도 交通隘路가 甚한 구간등 14· 個區間 180km에 대하여는 '92년에 完了하도록 하고 交通量이 比較的 적은 13個 區間은 '93년까지 事業을 完了하도록 推進할 計劃입니다.

※參考

基幹國道 事業內容

全 體		'92完了		'93完了	
27 個路線	6,527億원	14 個路線	3,460億원	13 個路線	3,067億원
451km		180km		271km	'92까지 投資 : 1,952 '93 計劃 : 1,115

計: 隘路區間은 '89年末 基準으로 選定한 790km 中에 包含된 事業임.

(質 疑)

標準품셈은 現實의 勞賃單價와 差異가 있고 現實의 作業能率性을 反映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指摘하면서 標準품셈 制度改善 對策에 대한 見解를 물으셨습니다.

(答 辯)

政府 및 公共機關에서 施行하는 工事に 대한 適正工事費를 算定하는 劃一的인 標準積算 基準으로서 標準품셈을 制定·運營하고 있으나 委員님이 指摘하신 바와 같이 運用面에서의 硬直性和 新技術·新裝備 등의 開發에 따른 새로운 품을 制定 또는 改正하는데 迅速한 對應未治과 技術的 어려움이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現實에 맞지 않는 품을 調整하고 人力품을 機械化품으로 轉換하며 新技術·新工法開發에 따른 품을 每年 擴大 制定 또는 改正하고 있으며 現行 標準품셈의 不合理點을 根本的으로 改善하기 위하여 先進 外國에서 活用되고 있는 積算制度의 導入 또는 活用方案을 研究·檢討하여 그 結果에 따라 보다 發展된 새로운 建設工事 積算制度를 마련할 計劃입니다.

○保健社會部長官 安弼濬

(權海玉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地域醫療保險에 대한 國庫支援이 50%수준에 미달함으로써 農漁民들의 保險料 負擔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地域醫療保險의 財政安定對策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答 辯)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88년부터 '90年末까지의 地域醫療保險의 國庫支援水準은 43%이었으나 '91年度에 國庫支援不足分 1,009億원을 追更으로 확보하여 주심에 따라 國고지원 수준은 49%가 되었으며 지난 2年間 農漁村醫療保險의 年間 1인당 의 료비가 2배이상 (19,248원→43,749원)증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초에 地域醫療保險 保險料도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地域醫療保險의 財政安定을 위하여 國庫支援率을 5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高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 地域醫療保險의 財政安定을 확보하는 동시에 住民의 保險料 負擔도 輕減이 되도록 하는 施策을 펴 나가



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秉烈

(柳昇珪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柳昇珪委員께서 鑛業 이외의 一般事業場에서 發生한 塵肺動勞者에 대한 塵肺法 적용 확대에 대한 見解를 물으셨으며 오늘 吳景義委員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더하여 시멘트 製造業 연탄공장 근로자와 인근 住民들에 대한 健康診斷 실시 有無와 그 實態에 관한 질문을 하셔서 關聯事項이므로 一括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答 辯)

事業場에서 發生한 塵肺에 대하여는 鑛業 이외의 産業을 불문하고 死亡의 경우 遺族給與 障害가 發生한 경우에는 障害給與등 産災補償金を 支給하고 있음.

다만 鑛業從事者의 경우에는 진폐가 數年後에 나타나고 그 作業환경이 어려운 特殊性을 감안하여 塵肺法에 의거 塵肺慰勞金으로 産災補償金の 60% 상당액을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고 있음.

鑛業 이외의 一般事業場까지 塵肺法을 擴大適用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진폐근로자는 종사업종에 불구하고 同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長點은 있으나 이황화탄소 中毒등 여타 職業病動勞者 및 산재영구장애자와 형평성이 결여되고 事業主에게 負擔金を 부과할 경우 産災保險料 외에 追加負擔등 財源造成에 문제가 있음.

政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계속 檢討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91.9.19 關係專門家會議를 開催하여 勞總 經總 産業保健協會 등 광범위한 意見을 수렴하였으나 각기 意見이 相異하여 結論을 못 내리고 있음.

向後 專門機關의 자문을 통하여 좋은 方案을 講究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90年度에 시멘트 製造業등 非金屬鑛物業 857개 사업장 31,329명의 근로자에 대해 健康診斷을 실시한 결과 시멘트 제조업에서 塵肺有所見者가 8명이 發見되어 精密檢診결과 모두 正常으로 판명되었으며 연탄제조업 208개소 4,384명에 대해 特殊健康診斷 결과 塵肺有所見者는 91명이 나타나 이들에 대한 精密檢診결과 塵肺로 확정된 者는 3명으

로 産災保險法에 의거 障害給與를 지급하였으며 塵肺疑症으로 판정된 52名은 作業轉換措置한 바 있고 나머지 36名은 正常으로 판명되었음.

○交通部長官 林寅澤

(權達洙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京釜高速電鐵의 總投資費는 '98年 竣工시 인플레이를 감안하면 8兆원에 이르고 總投資費의 利子補填을 위해서는 高速電鐵料金を 높게 策定해야 하는데 이와같이 料金を 높게 策定하면 고속버스나 航空機와의 競爭에서 뒤지고 또한 高速電鐵과 既存 京釜線이 競爭하게 됨으로써 採算性이 낮으므로 財政投資計劃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答 辯)

高速電鐵은 大容량의 輸送能力·快速性·安全性 및 에너지消費등에서 他 交通手段보다 월등하여 심각한 京釜軸의 交通問題를 해결하는 최선의 代案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採算性面에서도 高速電鐵은 收益性이 매우 높아 高速電鐵을 運營중인 日本·프랑스 등도 개통후 3~4年내에 黑字로 轉換되었으며 京釜高速電鐵의 경우 專門機關이 研究·分析한 바에 의하면 '90年度 새마을호 料金を 적용할 경우에도 개통후 7年만에 당해년도 수지가 黑字로 轉換되고 개통후 17年후면 借入金 全額을 償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採算性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高速電鐵의 迅速性 및 良質의 서비스를 감안 그 요금을 새마을列車 料金과 航空料金の 중간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高速電鐵의 採算性은 더욱 높아져 投資費에 대한 元利金 償還問題는 크게 염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님께서서는 高速電鐵과 既存線을 競合關係로 말씀하셨습니다만 高速電鐵은 간선축으로서 中·長距離 旅客輸送을 담당하고 既存線은 貨物輸送爲主로 運營하되 旅客은 高速電鐵과 連繫 지역 단거리수송을 담당케 함으로써 高速電鐵과 既存線을 상호보완적으로 運營할 計劃입니다.

(質 疑)

京釜高速電鐵化事業의 성과를 높이고 完工시까지의 鐵道滯症을 줄이는 의미에서도 '96年

까지로 되어 있는 水原~天安間 複複線 電鐵 事業期間을 短縮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長官의 견해는?

(答 辯)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8年 京釜高速電鐵 완공이전까지 현재 한계에 도달한 京釜線 輸送隘路解決과 首都圈 廣域電鐵網 擴充을 통한 首都圈 交通難 解消를 위하여 水原~天安間 複複線 電鐵事業은 '96年 完工 豫定으로 되어 있으나 가능한 한 早期에 完工하여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交通部에서도 '92년에는 實施設計를 完了하고 用地를 일부 매수하여 '93년부터 路盤工事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96년까지 完工할 계획입니다만 京釜軸의 線路容量 不足解消 및 수원~천안간 주변지역의 都市開發에 따른 電鐵旅客의 輸送需要를 충분히 감안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完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參考로 本事業의 建設期間중의 京釜線 輸送隘路 打開을 위하여 현재 열차당 8輛으로 편성되어 있는 客車를 16輛으로 長大化함으로써 '96년까지 輸送需要를 감당할 수 있도록 今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質 疑)

京釜高速電鐵 完工前까지 京釜線의 交通隘路를 해결하기 위하여 既存線을 電鐵化하고 線路를 直線化하면 事業費 6,000億원으로 解決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見解는?

(答 辯)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京釜高速電鐵이 完工되기 전까지 既存 京釜線을 電鐵化 및 直線化하여 速度向上 및 輸送能力을 增強시키기 위하여는 400餘 個所의 곡선 반경을 2000m이상으로 直線化 하는데 約 3兆6,000億원이 投資되어야 할 것으로 推算되며 이와 같은 막대한 投資費는 京釜高速電鐵의 기반 建設비 4兆6,000億원과 별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京釜高速電鐵과 二重投資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施行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경부축 가운데 輸送隘路가 가장 심한 水原~天安間을 우선 複複線 電鐵化로 96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列車當 客차 8輛편성을 16輛으로 長大化

運行함으로써 京釜高速電鐵 完工이전까지의 輸送需要를 감당 해결하고자 합니다.

○總務處長官 李衍濤

(文峻植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公務員의 報酬水準이 外國과 比較해 보면 民間企業 對比 日本의 96% 臺灣의 91%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67%수준으로 크게 낮은 實情인바 이를 改善할 政府對策과 아울러 公務員의 停年을 65歲로 上向調整할 用意는?

(答 辯)

먼저 公務員 報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政府는 公務員報酬를 '92年末까지 國營企業體의 90% 수준에 接近시킨다는 目標아래 公務員報酬 現實化計劃을 수립하여 '89년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온 결과 公務員報酬가 점진적으로 改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國營企業의 74% 民間企業의 67%로서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來年度에는 公務員 報酬를 最近의 國家經濟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한자리수 引上으로 自制함에 따라 당초의 目標에는 多少未達하게 되었습니다만 '93년까지는 處遇改善計劃을 마무리하여 公務員의 生活安定에 최선의 努力을 경주하겠습니다.

委員님의 계속적인 支援과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公務員 停年延長 문제에 答辯드리겠습니다.

停年延長 문제는 長期 勤務한 公務員의 숙련된 職務經驗을 계속 活用할 수 있는 등 長點도 있으나 組織의 新陳代謝를 저해하고 새로운 人力의 公職進出 기회를 縮小하는 등 兩面性을 갖고 있음.

그러나 政府는 사회전반의 高齡化 趨勢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 5月 國家公務員法을 改正하여 6級 이하 公務員도 종전의 58歲에서 61歲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停年을 延長한 바 있으므로 公務員停年을 65歲까지 延長하는 문제는 앞으로 國民의 平均수명 증가 추세와 組織의 效率性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長期的으로 檢討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文峻植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疑1)

社會間接資本을 支援함에 있어 屢질식 예산 策정보다는 中·長期的안목에서 豫算을 編成하여야 된다고 指摘하시면서 이에 대한 副總理의 見解를 물으셨음.

(答辯)

'80年代 후반 이후 급팽창한 輸送수요에 따른 社會間接資本 不足現況을 早速히 解消하기 위해 社會間接資本擴充豫算을 大幅 增額하고 있음.

'91豫算 35,525億원 '92豫算 42,338

增加率 19.2%

(追更 10,348)

이러한 財源을 확충함에 있어서 政府에서는 中·長期的 方向에서 社會間接資本施設 擴充計劃을 樹立·推進하고 있음.

즉 靑瓦臺 社會間接資本投資企劃團 設置 및 社會間接資本投資調整委員會 設置 등으로 汎部處的 次元에서 對策 강구하고 7次 經濟社會開發5個年計劃 및 中期 財政計劃과 부합되도록 年度別로 豫算編成을 해 나가겠음.

(質疑2)

農村經濟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他部處 豫算을 줄여서라도 農漁村支援金만큼은 크게 增額해야 한다고 보는데 副總理의 견해와 對策을 물으셨음.

(答辯)

政府도 農漁村 經濟의 어려움을 充分히 감안하여 '92全體 豫算이 6.8% 늘어나는 어려운 財政與件속에서도 農林水産部門만큼은 18.2%나 增額하였으며 이중 糧穀管理基金 農漁家 負擔輕減 콩 옥수수 등의 差額補償과 같이 別途의 법규정이나 國會의 決議 등에 의하여 政府의 政策意志와는 관계없이 決定되는 豫算을 除外한 실질적인 農林水産部門 豫算支援은 39.7%나 늘어난 水準임.

農林水産部門 以外的 다른 分野의 豫算支援額도 모두 國家의 均衡있는 發展과 國家의 기능수행을 위해 必要한 것이며 他部處 豫算을 줄여 農林水産部門豫算을 더 增額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람.

(質疑3)

落後地域에 대한 財政支援을 고려하는 觀點에서 地方財政調整制度를 改善·補完할 用意를

물으셨음.

(答辯)

落後地域을 고려한 現行 地方財政調整制度로는 基準財政需要와 基準財政收入의 差異등 自治團體의 財政力을 감안하여 配分하는 地方交付金 道路整備事業에 있어 未開發 未擴張 미포장을 등을 기준으로 讓與金을 配分하는 地方讓與金 그리고 一部 國庫事業에 대해 地方自治團體의 財政力을 감안 補助率 差等支援(92年:도서종합개발 사망사업등 11個事業)하는 補助金制度가 있음.

앞으로도 地方財政調整制度運營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間의 財政力 격차를 緩和할 수 있도록 制度發展 努力 계속해 나가겠음.

(質疑4)

國家有功者에 대한 基本年金이 작년 15萬원에서 25萬원으로 引上하였는데 이를 上向調整할 長期的인 政府對策을 물으셨음.

(答辯)

基本年金은 國家有功者와 遺族에 대한 禮遇的 次元에서 一律支給되는 補償金으로 92년에는 基本年金額을 月 26萬원으로 조정하였는바 그 이유로는 90年 月 15萬원에서 91年 25萬원으로 대폭 인상시킨 바 있으며 同 基本年金額을 引上할 時 막대한 豫算이 所要(1萬원 引上時 138億원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그러나 앞으로 國家有功者에 대한 基本年金은 優越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擴大해 나가되 一律적으로 支給되는 基本年金보다는 대상자의 公헌도와 희생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參考)92年 補償金(附加年金)調整內譯

- 전상군경(月 7,000원) 및 미망인(月 8,000원)에 대한 부가연금을 신규지원
- 유족부모 노령수당 지급대상확대: 70세이상 → 65세이상
- 1급상이군경자에 대한 간호수당인상: 月 25萬원 → 40萬원

(質疑5)

住民嫌惡施設인 都市下水處理場 建設 汚染河川 淨化 및 糞尿處理施設 설치사업을 政府가 地方讓與金事業으로 전환토록 했는데 과연 現時點에서 地方自治團體의 自律性 부여가 가능한 지를 물으셨음.

(答 辯)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都市下水處理場 建設 汚染河川淨化 및 糞尿處理施設 설치사업은 그 性格이 水質改善을 위한 기본적인 環境 基礎 施設 설치사업으로서 地方自治團體의 固有業務 이므로 汚染原因者負擔原則에 따라 地方費 負擔事業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사업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는 해당 地域住民의 積極的인 理解와 協助가 必要한 사업임.

따라서 '92年度 豫算부터는 地方自治制의 實施와 더불어 地方自治團體가 해당 地域住民들과의 圓만한 協調하에 自體事業으로 自律的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國庫補助事業(50%~70%)으로 支援해 오던 것을 財源과 함께 地方讓與金事業으로 전환토록 하였음.

다만 이들 環境基礎施設들이 水系別로 상호 연관성을 갖고 效率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지역의 우선순위 및 地域別 事業別 讓與金 配分計劃에 대하여 國家의 中·長期計劃이 反映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강구하고 있음.

\*地方讓與金法改正案(第6條)에 위와같은 趣旨를 既 反映

(참 고)

環境部門 地方讓與金 豫算規模

(億圓)

	'91 豫算	'92 豫算(案)	增(△)減	備 考
計	1,695	1,892	196	
하 수 처 리 장 건 설	1,301	1,524	223	45개 도시
오 염 하 천 정 화	198	154	△ 44	15개 하천
분 뇨 처 리 시 설 설 치	196	214	18	23개소

(質 疑6)

우리 公務員의 報酬水準이 國際的으로 比較해 보면 民間企業에 比하여 크게 낮은 實情인데 이를 改善할 政府對策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음.

(答 辯)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는 主務部인 總務處長官이 答辯토록 하겠음.

(質 疑7)

물問題가 심각한 木浦市 上水道事業의 早速한 추진을 위하여 '92豫算(案)을 획기적으로 증액할 用意는 없는지를 質疑하셨음.

(答 辯)

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木浦市의 上水道事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政府는 목포시 물문제에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現在 '94年 完工 目標로 建設중인 주암댐 제1동 광역상수도를 木浦市까지 연장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①今年 追更에 調査費 3億원과 來年 豫算案에 ②착공소요비 12億원(실시설계

7 공사비 1 용지비 4)을 計上하였음.

木浦市까지 송수관로는 建設중인 주암댐 제1동 廣域上水道가 完工되어야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主管路가 完工되는 '94년까지 목포시까지의 送水管路도 完工될 수 있도록 推進할 計劃임.

(質 疑8)

光州尖端團地建設과 관련하여 事業推進이 부진한 이유와 土地開發公社와 政府의 역할배분에 대한 說明을 要求하시고 科學技術大學 設立에 맞추어 동부진입로를 조기 완공하기 위해서는 '92年豫算에 計上된 22億7,500萬원으로는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答 辯)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는 主務部인 建設部長官으로 하여금 상세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음.

(質 疑9)

光州市가 借入한 補償金財源을 償還하도록

來年度 政府豫算에 計上된 214億원 以外에 不足額 170餘億원과 墓域造成과 慰靈塔建立에 所要되는 事業費 등을 追加로 計上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셨음.

(答 辯)

光州市 起債分 償還現況은 借入元金 604億 원 元利金既償還 288億원 성금 64億원 91追更 224億원 未償還額 375億원 元金 335億원 利子 92.1末기준 40億원이고 92豫算反映額은 214億원 未反映所要는 161億원임.

未反映 元利金 殘額은 추후 政府財政 형편을 고려 조속히 償還해 나가겠음.

또한 墓域造成과 慰靈塔建立問題는 光州市가 지난 4~6月까지 韓國개발調査研究所에 의뢰하여 市民 1,500名을 대상으로 5·18關聯事業의 範圍 位置 등에 대한 輿論調査를 實施한 바

있으며 現在 光州市에서는 이 輿論調査를 토대로 市議會와 協議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 協議結果에 따라 具體的인 事業計劃이 수립되면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光州補償支援委員會에서 支援方案을 檢討하여 所要事業費支援를 講究해 나가겠음.

(質 疑10)

'92道路事業特別會計의 歲入豫算을 正確히 推計하여 追加稅收는 全額反映하고 이번에 휘발유價格 引上에 따른 追加稅收 750億원도 道特歲入에 反映시켜야 한다고 하셨음.

(答 辯)

道路事業特別會計 歲入은 휘발유분 特消稅의 90% 경유및 승용차분 特消稅 全額 一般會計 轉入金 借款收入 등으로 構成되어 있음.

<道特 歲入豫算: 億원, %>

	'91 豫算	'92 豫算案	增加率
○ 合 計	10,759	17,055	58.5
· 휘 발 유 분	4,860	9,063	86.5
· 승용차·경유분	5,387	6,470	20.1
· 借 款 收 入 等	512	1,522	197.2

또한 지난 11月7日 油價自律化이후 처음으로 휘발유의 工場渡價格을 7.1~7.3% 引上함으로써 計算上 700億원을 조금 넘는 追加稅收가 可能할 것 임.

그러나 이번 業界의 價格引上은 다음과 같이 앞으로 引下될 要因도 있습니다만 豫算案 調整與否 問題는 앞으로 委員님들과 協議하여 決定하겠음.

(質 疑11)

'92年 道路事業特別會計 歲出豫算중 4,000億 원을 財政投融资特別會計에 조기 상환하는 것은 投資所要가 많은 道路事業을 어렵게 한다

고 指摘하시면서 權穀證券償還은 歲計剩餘金으로 充當할 수 있도록 法 改正推進중이므로 財特에 計上된 權穀管理基金 出捐金 3,000億 원을 道特의 財特상환금과 상계 使用할 用意를 물으셨음.

(答 辯)

道路事業特別會計에서 財特에 4,000億 원을 早期에 償還하는 것은 同 財源이 財政投融资特別會計에서 道路公社의 高速道路建設 不足資金을 支援하는데 使用되기 위한 財源으로서 道路投資를 減少시키는 것은 아님.

※ 92年度 高速道路建設을 위한 道路公社支援

	'91	92豫算案
· 道路公社出資	2,407億원	2,250
· " 融資	2,407	2,250
計	4,814	4,500

\*道路事業特別會計의 財特으로부터의 預託金規模 : 8,919億원

○ '89 : 4,634億원 '90:3,474億원 '90追更 : 811億원

○ 預託條件 : 5年据置 15年分割償還 年利 7.6%

道特으로서는 장차(94年부터) 償還해야 할 預託金を 미리 償還하기 때문에 向後 그만큼 財源面에서 여유가 있게 되어 오히려 道路投資擴充에 도움이 되게 됨

한편 財特에 計上된 糧穀管理基金出捐金 3,000億원을 糧穀證券償還을 위한 것이 아니고 '92年 추곡수매를 위한 財源으로서 豫算會計法이 改正된다 하더라도 同 豫算이 必要없게 되는 것은 아님.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林茂雄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疑1)

來年度 經濟運用に 있어 企業의 投資意欲 鼓吹 勤勞者의 勤勞精神 涵養 불합리한 消費構造改善을 통한 貯蓄心理高揚등 社會心理의 側面에서의 經濟力 回復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對應策을 물으셨음.

(答辯)

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經濟力回復에 企業家 勤勞者 消費者 모두의 합심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동감인 바 政府는 經濟安定化對策을 추진함에 있어 總需要管理와 競爭力 向上對策과 함께 各 經濟主體의 合理的인 經濟原則에 따른 행동유도를 위하여 보다 안정된 社會雰圍氣造成에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不動產投機抑制를 위한 制度的裝置를 마련하여 건전한 投資意欲을 고양시켜 技術開發과 品質向上에 주력하고 勤勞者의 勤勞精神 涵養을 위하여 物價安定에 진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政府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委員께서 지적하신대로 民間 經濟主體의 協調가 요청됨. 企業은 스스로 競爭力 向上에 노력하고 勤勞者는 勤勞精神의 回復에 힘쓰고 消費者는 健全한 消費生活과 勤儉節約하는 기풍을 살려 나가야 할 것임.

(質疑2)

膨脹豫算이라고 불리워지는 來年度 豫算과 國民福祉와의 關係에 대하여 副總理의 견해를

물으셨음.

(答辯)

國民福祉增進은 經濟成長의 積極적 目的이며 동시에 政治·社會의 安定과 發展의 원동력임.

政府는 各種 制度나 政府機能을 통하여 公正한 所得分配 低所得層의 生活保障 教育 住宅 環境保全 등 國民個個人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처하고 있음.

이러한 방향에서 매년 복지부문에 예산을 증대시키고 있는 바 廣義의 福祉部門豫算이라 볼 수 있는 社會開發費의 對一般會計 比重은 '81年 6.0% ⇨ '91年 10.0%로 증가시킨 바 있음.

92年度豫算에서도 國民福祉部門의 對一般會計 比重은 91年 水準인 10.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低所得 障礙人 老人 등 不遇階層에 대한 支援을 內實化하는 방향으로 編成하였음.

(質疑3)

'92年 豫算(案)중 中小企業 構造調整基金에 1,600億(100億 출연 1,500億 融資)원을 計上한 바 이것으로 中小企業에 대한 效率的 支援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또한 同 基金에 融資形態로 計上된 1,500億원을 出捐으로 전환할 用意이 있는지를 質疑하셨음.

(答辯)

政府는 中小企業者의 事業轉換 支援등 經營安定 및 技術開發促進에 필요한 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中小企業 構造調整基金을 設置·運營하고 있음. 同 基金은 '92년까지 1兆원 이상을 造成토록 되어 있는바(中小企業 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 관한法律 第4條2項) 政府는 '92豫算(案)에 1,600億원을 반영하여 '92年까지의 造成規模는 1兆원을 상회하는 1兆379億원이 됨.

또한 同 基金의 使用에 있어서는 工程改善 事業轉換 등 中小企業 構造調整事業에 대하여는 融資로 支援토록 法上 規定되어 있음.(同法 第7條)

(質疑4)

이공계 대학에 대한 教育投資擴大를 위한 구체적인 計劃과 民間의 人力養成에 대한 投資를 誘引하기 위해 稅制 金融上的 支援方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음.

(答 辯)

政府에서는 技術人力供給擴大를 위해 95년까지 이공계대학의 입학정원을 매년 4,000名씩 增員할 계획임.

이 가운데 70%를 私立大에 配定할 예정으로 國立大에 비해 상대적으로 財政이 취약한 私立大에 대한 重點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私立理工大의 教育與件改善을 위한 政府次元의 財政支援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음.

우선 92年の 경우 私立大에 대한 직접 지원을 400(91年 200億)億원으로 策定하였고 이외에 私學振興基金出捐額을 200億원 책정(91年の 경우 200億원)하였음. 이와 함께 大卒人力의 최종수요자인 企業側의 參與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企業과 大學간의 契約制에 의한 학과를 설치하고(예: 韓國通信후원에 의한 電波工學科 設置) 産學協同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 프로그램 開發하는 등 企業體에서 직접 必要人力을 양성 할 수 있도록 産業技術教育制度의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음.

또한 民間企業의 人力養成費用에 대하여는 현재도 投資稅額控除惠澤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점차 擴大할 것을 검토중에 있음.

(質 疑5)

國力の 소모와 浪費를 방지하고 國家安全基盤을 유지하는 것이 또한 보이지 않는 중요한 豫算政策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특히 내년 봄의 總選과 관련하여 賃金引上開爭 學園問題 庶民生活問題 등에 대한 政府의 準備事項을 물으셨음.

(答 辯)

政府는 來年에도 그간의 安定成長基調를 一貫性있게 유지하면서 物價問題 庶民住居問題 등 庶民生活安定에 최대한 努力해 나가고 物價·住居安定을 바탕으로 生産性 向上 範圍內 賃金引上 誘導해 나갈것임.

物價·賃金安定등 經濟安定을 통하여 階層間 葛藤構造가 改善되고 學園問題등도 상대적으로 緩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렇게 될 경우 來年 봄의 總選에 따른 經濟 社會 不安要因은 最少化될 것으로 봄.

(吳景義議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中小企業 支援施策 推進機關이 다기화되어

있고 各種 支援制度 相互間에 有機的인 연계성이 不足하며 中小企業資金 취급금융기관이 體系化되어 있지 못하고 財政支援이 미흡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不足 問題點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是正하기 위한 綜合的인 中小企業 金融支援對策 樹立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答 辯)

中小企業 支援施策은 현재 主務部處인 商工部 樹立·推進하고 있으나 中小企業은 業種과 規模가 다양하여 綜合적인 支援施策이 강구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經濟運用 次元에서 마련되어야 하므로 經濟企劃院 및 財務部와 긴밀히 협의하여 關聯施策을 實施하고 있음.

中小企業資金 취급 金融기관의 體系化와 관련하여 현재도 中小企業專擔銀行(企銀 國民銀 大同銀 東南銀)이 市中銀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등과 상호 긴밀히 協助하여 자금을 支援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體系的인 支援이 이루어지도록 制度的인 측면에서 改善해 나가겠음.

92年度 中小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構造調整基金에 1,600億원 工業發展基金 650億원 農工園地 造成 및 入住企業支援 1,510億원 技術開發 957億원 등 總 5,214億원을 反映하였으며 向後에도 財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最大한 支援이 擴大되도록 노력하겠음.

(參 考)

中小企業 金融支援施策

- 銀行圈에 대한 貸出義務比率 및 第2金融圈에 대한 指導比率 設定·實施중
- 상업어음에 대한 70% 韓銀 再割을 91末까지 연장 實施
- 輸出産業 設備金融에 대한 韓銀 再割을 60%까지 支援
-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확대지원 (91년 목표: 2兆원) 실시중
- 最近의 中小企業 資金難 완화를 위해
  - 貿易金融 引上(600원/\$→650원/\$)
  - 중소기업 運轉資金 貸出에 한하여 第3者 擔保設定 완화
  - 年末까지 銀行의 預貸相計로 조성될 資金 1兆원을 中小企業에 貸出

(質 疑)

慶北 北部地方의 綜合開發計劃과 關聯하여

道路網 擴充 工業團地 造成 慶北道廳의 移轉 및 開發調查費用的 增額에 대하여 質疑하셨음.

(答 辯)

諒解해 주신다면 상세한 答辯을 위하여 主務部處인 建設部長官과 內務部長官으로 하여금 각각 答辯드리도록 하겠음.

○內務部長官 李相淵

(權達洙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1)

IBRD 5次 借款道路와 기간국도 事業의 總事業費 增減理由와 기간국도사업도 계속비 기간을 단축시킬 用意는 없는지를 質疑하셨음.

(答 辯)

이 문제에 대해서는 諒解해 주신다면 主務部長官인 建設部長官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음.

(質 疑2)

教育環境改善 事業豫算이 '91년에 比하여 增額되지 않은 理由와 歲計剩餘金을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 등에 使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대한 見解를 물으셨음.

(答 辯)

政府는 地方教育財政交付金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 및 地方教育讓與金管理特別會計 등을 通하여 初·中等教育의 內實化를 위한 支援을 계속하고 있으며 92年 支援規模는 總 7兆2,000億원으로서 91年 6兆2,000億원 보다 1兆원 (17.5%)이 增加한 水準임.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는 敎員의 편의시설과 學生의 學習環境을 획기적으로 改善하기 위하여 90年 設置하였으며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法 (第2條)에서는 '90-'92年間 매년 3,700億원씩 總 1兆1,100億원을 使用하도록 規定되어 있음을 理解하여 주시기 바람.

(質 疑3)

新設되는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중 農地轉用負擔金 以外的 歲入은 特定한 歲入으로 볼 수 없어 豫算會計法上의 特別會計 設置要件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고 農特會計의 設置 經緯와 設置의 效果에 대해 質疑하셨음.

(答 辯)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의 歲入중 農地轉用負擔金 以外的 歲入은 農林水産物에 대한 輸入

關稅 배합사로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액으로 되어 있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輸入關稅와 배합사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액은 一般會計의 一般稅目이기는 하나 法에서 定한 農林水産物의 輸入關稅와 배합사로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全額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로 轉入하도록 하였으므로 特定한 歲入으로 볼 수도 있음.

向後 輸入關稅와 배합사로등 부가가치세가 增額될 것이 確實視 되므로 一般會計 및 財特에서 支援하는 것보다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를 新設하는 것이 農漁村構造改善을 위한 投資財源 確保에 보다 確實하다고 판단되어 新設하게 되었음.

(質 疑4)

歲計剩餘金이 發生하고 있는 狀況에서도 財政證券을 發行하는 理由와 稅收推計方式에 대하여 質疑해 주셨음.

(答 辯)

諒解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主務部長官인 財務部長官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음.

(質 疑5)

現 時點에서 對外協力基金과 輸出入銀行에 대한 支援에 1,125億원을 計上하고 있는데 그 規模의 適正性 與否와 出捐 出資 融資로 나누어 計上된 理由에 대하여 물으셨음.

(答 辯)

來年度 對外經濟協力基金과 輸出入銀行 支援額은 금년 1,950億원보다 줄어든 1,125億원을 計上하였는 바 對外經濟協力基金을 통해 開發途上國에 대한 長期低利 有償借款 提供하고 輸出入銀行을 통해 선박 플랜트 등 資本材의 延拂輸出과 海外投資에 대한 金融지원해 나갈 計劃임.

또한 出資(出捐)와 區分하여 融資로 計上한 理由에 대해서는 財政投融資特別會計法 규정에 따라 向後에 償還이 前提되는 경우에는 政府의 豫算支援도 融資로 計上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財政投融資特別會計法 第2條(定義)

\*出 捐: 基金에 無償으로 資金을 支援

\*出 資: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證券을 취득

\*融 資: 必要한 資金의 貸與



(質 疑6)

産業人力管理公團의 給與水準이 낮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追加처우개선을 요구하시면서 政府出捐研究機關의 職員도 準公務員에 해당한다고 보면 公務員俸給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見解를 물으셨음.

(答 辯)

産業人力管理公團의 보수가 타 출연기관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이 事實임.

政府는 이와같은 報酬水準을 점진적으로 改善시키기 위하여 92年度에 基本給의 9%引上外에 교사직에 교과지도수당 月 2萬원(新設)을 지급키로 하는등 처우개선에 努力하였음.

政府出捐機關의 報酬水準이 公務員보다 相對的으로 높은 水準에 있기 때문에 政府出捐機關은 一律的으로 처우개선을 5%로 억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質 疑7)

京釜高速電鐵의 總投資가 '98年 준공시 인플레이를 감안하면 8兆원에 이르고 同投資費의 利子償還金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高速電鐵料金を 높게 策定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속버스와 航空機와의 경쟁에서 뒤지고 高速電鐵과 既存 京釜線이 경쟁하게 됨으로써 京釜高速電鐵의 採算性이 낮아진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副總理의 견해를 물으셨음.

(答 辯)

京釜高速電鐵은 關係專門機關의 研究分析에 따르면 收益性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바 있음.

새마을 料金水準으로 料金を 책정한 경우에도 7年만에 當年黑字 17年만에 累積黑字 실현.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主務部處인 交通部長官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음.

(質 疑8)

水原-天安間 複複線 事業豫算으로 鐵道廳에서 500億원을 요구하였으나 企劃院 調整은 89億8,000萬원에 불과한데 서울·釜山·大邱地下鐵에 대해서는 要求額에 근접한 金額으로 조정해 주었다고 지적하시면서 調整額數 比率이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國家全體의 事業優先順位에 의거해서 答辯해 주기를 요망하셨음.

(答 辯)

大都市의 交通難 緩和를 위한 서울·釜山 및 大邱의 地下鐵建設과 京釜線 輸送能力 向上을 위한 水原-天安 複複線事業이 다같이 중요한 사업이므로 政府에서는 양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水原-天安 複複線의 경우 공기상 '92년에는 實施設計를 完了하고 이를 바탕으로 '93 이후 路盤工事를 착수하는 것으로 하여 89億8,000萬원을 計上하였음.

地下鐵建設의 경우 이미 확정된 基本計劃에 따라 단계적으로 投資하고 있으며 財源調達도 地方自治團體 70% 國庫 30% 수준으로 분담하고 있음.

(質 疑9)

京釜高速電鐵 完工전까지 京釜線의 交通隘路를 해결하기 위하여 既存線을 電鐵化하고 線路를 直線化하면 사업비 6,000億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副總理 견해를 물으셨음.

(答 辯)

政府에서는 京釜高速電鐵 完工전까지 水原-天安 複複線電鐵 建設 및 列車長大化등 경부선 능력 擴充事業을 추진중임.

具體的인 事業計劃은 양해해 주신다면 主務部處인 交通部長官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음.

(質 疑11)

光州犧牲者 補償과 比較하여 國家有功者 禮遇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補償金水準의 도시근로자 가계비 변동에 따른 連動制 檢討 여부와 補償金支給도 光州民主化 항쟁피해자의 補償基準에 의거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質疑하셨음.

(答 辯)

國家有功者는 補償金체계는 全國家有功者에게 優越적 차원에서 一律的으로 支給되는 基本年金과 공헌도와 희생도에 따른 附加年金體系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補償金水準의 도시근로자 가계비 變動에 따른 연동제 適用보다는 報勳對象者의 貢獻度와 犧牲度에 따른 補償金支給이 바람직함.

이러한 方向에서 '92年度 補償金 調整은 基本年金을 月 26萬원으로 조정하는 이외에 전상군경(月 7,000원) 및 未亡人(月 8,000원)에 대한 附加年金을 신규지원하고 遺族父母老齡手當 支給對象을 擴大(70세→65세이상)하였

으며 1급 상이군경자에 대한 看護手當을 대 폭 引上(月 25萬원→40萬원)하였음.

光州民主化 抗爭被害者에 대한 補償의 특수성을 감안시 國家유공자의 보상과 比較하기는

어려우며 國家有功者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의 급격한 개선은 補償金支給額이 財政壓迫要因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려운 점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億원)

	'88	'90	'91	'92
보 상 금 예 산	1,243	3,195	4,641	4,930
○ 기 본 연 금	577	2,115	3,492	3,600
○ 부 가 연 금 등	666	1,080	1,149	1,300

(質 疑12)

耕地整理事業의 ha당 單價는 '90年 가을 着工分の 실적이 1,107萬원임에도 불구하고 '91年 着工分 單價를 비현실적인 959萬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追更이 없다면 不足額을 어떻게 充當할 것인가를 물으셨음.

(答 辯)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勞賃上昇과 耕地

整理 對象地域의 경사도 상승등 공사조건 악화로 ha당 單位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政府豫算上の 事業費 單價는 工法改善에 의한 工事費 節減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현실단가보다 조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必要한 경우 工事物量이나 事業進度 등을 조정하여 不足이 發生하지 않도록 努力하고 있음을 양해바랍.

<耕地 整理事業費 ha당 單價: 萬원>

	'90 着工	'91 着工	'92 着工
○ 豫 算	913	959	1,100
○ 決 算	1,107	-	-

(質 疑13)

남양주 미금시 등에 대한 用水供給을 위한 廣域上水道 事業을 위해 建設部가 要求한 107億원에 대하여 24億원만 反映하고 나머지 83億원을 削減한 理由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음.

(答 辯)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首都圈 廣域上水道 IV段階 사업중 第4工區(광당~의정부)에 해당하는 用水供給 事業으로 用水需給展望에 의거 '93년까지 完工토록 計劃되어 推進중인 事業임.

'92豫算編成은 이러한 計劃에 따라 適正 投資所要를 反映(24億원)計上한 것으로서 '93년까지 完工에는 차질없도록 支援할 計劃임.

또한 '93年 完工時까지의 우선 시급한 用

水需要는 기존 구리시의 給水施設을 活用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할 計劃임.

(權海玉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1)

우리 經濟現實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리 經濟가 構造的인 어려움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政府는 내년 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데 우리 經濟의 現況과 전망에 대하여 總理께 물으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答 辯)

우리 經濟가 86~88年間的 好況期를 거친 후 최근에 급격히 어렵게 된 것은 수년간 우리 經濟社會가 겪은 과도기적 진통의 결과 라고 생각함.

90年 이후 2年 連續 9%대의 높은 物價上昇과 國際收支의 적자반전등은 各 經濟主體 모두의 행동의 결과임.

政府는 금년초부터 經濟安定化 施策을 적극 추진하였는바 그동안 높은 上昇勢를 보이던 消費者 物價가 9月이후 安定勢로 돌아섰고 輸入增加率은 내수가 진정되면서 鈍化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經常收支도 월별로 改善되고 있음.

來年度 經濟運用 與件은 選舉 등으로 불확실한 要因도 있으나 世界景氣의 회복 금년중 推進한 安定化施策의 효과 가시화, 현 經濟政策 運用基調의 지속, 經濟 어려움에 대한 國民的 共感帶 擴散 및 節約 캠페인등 긍정적 요인도 많음.

來年度 經濟運用的 方向은 安定化施策과 產業競爭力 強化, 資金引上 안정유도, 製造業部門으로의 資金供給 擴大, 開放·國際化에 대비한 국내수용태세 강화 특히 農業의 構造調整과 金融自律化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음.

(質 疑2)

財閥企業들의 株式을 全 國民에게 분산시키고 獨立企業體로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所有와 經營을 분리시키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見解를 물으셨습니다. 總理께 質疑하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答 辯)

우리 企業이 치열한 國際競爭에 대응해 나가려면 所有 分散을 통해 專門經營體制로의 轉換이 불가피하다고 봄.

이에 따라 政府는 현재 46.9%인 大企業의 內部持分率을 長期的으로 經營權 安定이 가능한 범위내로 縮小시켜 나가고 특히 主力企業의 株式公開와 所有分散을 적극 촉진하고 무의결된 株式發行을 억제하고 相續·贈與稅制의 實效性을 제고시켜 불법적인 富의 世襲을 원천적으로 防止해 나가겠음.

또한 系列 大企業의 專門獨立經營體制를 확립하기 위하여 相互支給保證을 단계적으로 縮小하여 과도한 借入依存 方式을 개선하고 系列企業間 內部去來의 공정성 확보해 나가겠음.

(質 疑3)

우리 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懸案問題의 근

본적 解決을 위하여는 土地實名制와 金融實名制의 빠른 시일내의 實施와 住宅公概念 制度 및 不動產 綜合課稅 등으로 公平課稅와 稅收 增大를 도모해야 하며 國채발행비율을 一般會計 豫算 對比 25%수준인 8兆5,000億원 수준으로 높여 緊急豫算 所要를 充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見解를 물으셨음.

(答 辯)

金融實名制는 이미 수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社會·經濟的인 여건을 보아 당장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되므로 먼저 이 制度導入을 위한 與件造成에 주력하고 있음.

즉 利子配當에 대한 分離課稅 稅率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非實名의 경우에는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金融資産에 대한 課稅強化와 相續·贈與稅의 시효기간을 연장(5年→10年)하고 相續·贈與財產의 評價方法을 公示地價에 근거하여 課稅해 나가고 있음.

住宅公概念制度 導入과 公平課稅를 위하여는 不動產去來許可制 실시(85.2月) 土地 및 住宅 電算化 등으로 實名去來를 정착하고 주택전산화: 91年9月 전국으로 확대완료 토지전산화: 현재 6대도시완료 92年3月 전국완료 예정 또한 土地超過利得稅 開發負擔金 不動產 讓渡所得稅 課稅強化 등으로 公平課稅 실현해 나가고 있음.

國債發行의 확대를 통하여 긴급한 財政需要를 充當하는 문제는 財政機能의 擴充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성도 있으나 國債發行擴大가 民間의 資金供給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檢討가 필요하다고 봄.

(質 疑4)

向後 5年間 SOC 科學技術 農漁村 교육 환경등 部門의 時急한 財政所要만도 73兆원이 必要한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음.

(答 辯)

政府는 第7次 5個年計劃期間중 財政運用을 歲入內 歲出의 健全財政原則을 堅持하는 범위내에서 財政規模를 現實化하여 財政機能을 正常化시켜 나갈 것임.

그러나 莫大한 投資所要를 財政만으로 調達하기에는 限界가 있으므로 不足財源은 可能한

範圍內에서 民資誘致 收益者負擔原則에 의한 各種 수수료 및 料金の 段階的 現實化 및 長期借入 등으로 充當해 나가고 租稅負擔率도 22%水準으로 提高시킬 計劃임.

(質 疑5)

내년도부터는 歲計잉여금이 發生하더라도 追更을 編成하지 않고 이를 糧特赤字등 債務상환에 우선적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關係法을 改正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副總理의 견해를 물으셨음.

(答 辯)

二重穀價制를 運用하는 糧穀管理基金의 경우 每年 最大限의 財政支援에도 불구하고 糧穀收買 不足資金充當을 위한 양곡증권의 發行規模가 크게 增加하고 양곡증권발생잔액:('88末) 1兆6,600億→('91末) 4兆5,000億원 또한 收買量擴大 등으로 인해 每年 追更豫算을 編成해야 하는 要因으로 作用할 것임.

따라서 追更豫算을 編成하지 않고서도 糧穀收買資金을 신속하게 支援할 수 있도록 一般會計歲計剩餘金을 糧穀證券 상환에 직접 使用할 수 있도록 豫算會計法改正을 추진중임.

※'91.11.2日 法 改正案 國會提出

(質 疑6)

耕地整理를 年間 4~5萬ha 水準으로 施行하고 中小規模 農業用水 開發事業도 擴大編成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92年度 豫算(案)에 反映된 耕地整理 2,190億원 農業用水開發 749億원 보다 擴大支援할 用意을 물으셨음.

(答 辯)

UR以後에 對備한 農業의 競爭力 向上을 위해서는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耕地整理 및 農業用水 開發事業을 擴大하여 早期完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에는 공감하고 있음.

政府도 耕地整理事業의 경우 '91年 22千ha 着手計劃에 비해 '92년에는 36% 늘어난 30千ha 着工이 可能하도록 編成하였으며 中規模 農業用水 開發도 今年的 611億원에서 '92년에는 750億원으로 23% 增額하였음.

(質 疑7)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의 規定에 따라 '90年度의 農水產物 輸入關稅 및 배합사료 등의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來年度에 構造改善을 위해 計上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計上內

容을 물으셨음.

農發法 第54條의 規定에 따라 來年度 豫算에 反映되어야 할 金額은 5,309億원임.

○農林水產物 輸入關稅:3,369億원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1,940億원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에 대한 92年度 一般會計 支援은 8,719億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農發法 規定보다 3,410億원을 追加로 計上하고 있음.

(質 疑8)

農漁村構造改善對策에 向後 10年間 42兆원을 投資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92年 豫算에 2兆3,654億원 밖에 計上되지 않은 理由와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의 內容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答 辯)

農漁村構造改善을 위한 42兆원 投資計劃중 國庫負擔分은 農水產業構造改善分野에 30兆원 農漁村 生活環境改善등 農漁村活力增大事業에 約 5兆원 合計 35兆원으로 파악됨.

'92年 豫算案에는 農水產業 構造改善分野에 2兆2,200億원 農漁村活力增大部門에 3,700億원 合計 2兆5,900億원을 計上하고 있음.

'93年 以後 年平均 7%씩만 增額되어도 10年間 36兆원이 投資될 수 있는 金額이므로 '92年 豫算案은 42兆원 投資計劃達成에 充分한 水準이 反映되었다고 봄.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는 영농규모 擴大에 의한 農業生産性 向上 技術·資本集約的 高부가가치 농업의 實現 農水產物 유통·가공·저장 산업의 發展 등을 目標로 耕地整理 農業用水開發 농업기계화 流通施設 擴充 農漁村發展基金支援 事業을 추진코자 하는 會計임.

(參 考)

地方費	3兆8,000億원
自負擔	2兆5,000億원
國庫投融資	35兆4,000億원
計	41兆7,000億원

○內務部長官 李相淵

(吳景義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날로 知能化 兇暴化되는 犯罪에 대응하여 警察의 機能強化와 制度와 豫算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治安需要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豫算確保의 제도적 方案을 강구할 計劃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答 辯)

警察豫算은 時急한 民生治安力 보장을 위하여 人力·관서·裝備·搜查費 등이 每年 增加되고 있습니다만 急增하는 治安需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實所要에는 不足한 것이 事實입니다.

'92年度の 警察豫算은 人件費 基準經費 公共料金 給食費 복리후생비 등 基本的 經費가 1兆3,882億원으로 70.2%에 달하고 나머지 29.8%인 5,884億원이 搜查費 관서운영비 등 一般經費로 策定되어 있으며 民生治安力 보강 관련 豫算 및 搜查費와 경찰서 支派出所 운영비 등은 아직도 상당히 不足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외근형사 活動費가 月 27萬원이 所要되나 12萬원 내지 17萬원씩 策定되고 사건 搜查費는 件當 平均 2萬8,000원이 所要되나 1萬2,410원에 불과하여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고 警察廳舍는 全 官署의 32%가 老朽되어 있으나 司特財源이 限定되어 있어 長期間에 걸쳐 年次的으로 改善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관서운영비는 警察署當 月 1,100萬원이 策定되고 支派出所는 88萬원씩 策定되어 16%정도 引上은 되었으나 아직도 公 公요금 여비등이 크게 不足한 현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一時에 現實化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警察은 廳發足を 제기로 國民의 期待에 副應키 위해 2000年代의 長期計劃과 政府의 7次 經濟·社會發展5計年計劃등에 制度·人力·장비등 警察現代化計劃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質 疑)

지난 11월11日 열린 社會長官會議에서 年末까지 50日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어린이 誘拐등 反人倫犯罪에 강력히 對應하기로 했는데 具體的인 計劃을 어떻게 樹立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答 辯)

먼저 吳委員님께서 오늘날 우리 社會의 反人倫的 犯罪에 대해 매우 우려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對策마련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年동안 民生治安 確立을 위해 적극 對處한 結果 매년 증가하던 強·竊盜 등 주요 5大 犯罪의 發生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괴·약취 유인등 어린이 및 女性相對 犯罪가 社會問題化 되고 있어 지난 11月11日 社會長官會議를 개최 강력 대처키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反人倫的인 어린이 및 여성상대 범죄 근절을 위하여 우선 1차로 91年11月12日~12月31日(50日間)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設定하고 全國 地方警察廳 및 警察署에 형사특별반을 설치 전담반을 편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兇犯·倫落強要·金品囑取行爲 未成年者 또는 強要에 의한 被雇傭者 虐待行爲 미성년자·부녀자 알선 소개행위 제비족 등 惡德業主庇護 暴力輩 기타 未成年·女子雇傭 不法類廢業所 등에 대하여 全 可用警察力을 投入 주기적인 集團團束과 業所從業員(집대부) 및 被雇傭者에 대한 被害狀況 把握 등을 위해 개인신상면담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地方警察廳에 創設運營중인 女子 刑事機動隊(1/20名)를 적극 활용 급증하는 女性犯罪 등에 적극 대처토록 하고 앞으로 全國 5大 都市에도 확대 실시하는 方案을 강구코자 합니다.

參考로 13日과 14日 2日間의 團束結果는 사창가 등 寄生暴力輩 6名을 검거 모두 拘束하고 속칭 兇犯이 등으로부터 金品을 囑取한 5名을 검거 이중 4名을 구속하였으며 未成年者를 고용한 惡德業主도 50名이나 檢舉하여 이중 18名을 구속하는 등 總 210名을 검거하여 46名을 구속하고 144名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나머지 20名은 即決審判에 回附 하였습니다.

그리고 無斷家出人 324名을 發見 이중 215名을 가족등 保護者에게 인계하고 46名은 보호시설에 引繼하였으며 나머지 63名에 대하여는 家出動機와 引繼方法 등을 조사중에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質 疑)

14代 國會議員 總選과 관련하여 事前選舉運動의 團束實績과 公明選舉實施를 위한 長官의 所信과 對策을 물으셨습니다.

(答 辯)

民主國家에서 先進政治文化가 定着·發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國民 모두가 다같이 소망하는 돈 안쓰는 깨끗한 公明選舉 風土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政府에서는 지난날의 選舉運營 經驗 등을 통해 選舉運動過程에서 不法과 墮落의 소지가 되는 요소를 검토하여 制度的인 면에서 그 改善點을 찾는 동시에 選舉法 違反에 대해서는 法規에 따라 엄정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警察에서는 지난 10月25日자로 全國警察에 '92년에 있을 國會議員 總選舉를 앞두고 事前選舉運動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輿論에 의해 團束對策을 指示하였으며 各 警察署別로 選舉事犯申告센터를 설치 住民의 申告를 받도록 하였고 支署 派出所 單位로 事前選舉運動에 관련된 諜報蒐集과 採證活動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12月1日부터는 警察署別로 選舉事犯專擔班을 편성 운영하여 不法事前選舉運動을 초기단계부터 봉쇄코자 團束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團束實績은 把握이 되는대로 別途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錫武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疑)

警備管理 事業費 60億5,000萬원과 治安情報 活動費 10億원은 民生治安과 관계가 없으므로 大幅 削減하거나 民生治安部門으로 전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答辯)

어제 張石和委員님께서도 質疑가 제서 答辯드린바 있습니다만 먼저 警察廳所管 豫算중 경비관리 事業費 60億5,000여萬원은 動員警察官 買食費와 動員手當 등으로支給되는 經費의 總額으로서 動員買食費는 各種 警備나 示威鎮壓등 非常出動時에 動員되는 警察官에게 한끼당 2,500원의 기준으로支給키 위한 豫算이고 지난 '89年 定期國會 豫算審議時 市·道에서 執行할 豫算을 中央에 편성한 것은 잘못이라는 委員님들의 指摘에 따라 '91年度부터는 地方廳 豫算으로 編成하였기 때문에 警察廳 豫算은 減少되고 地方廳은 增額된 것입니다.

(質疑)

13個 市·道 地方警察廳의 搜查活動情報費 情報活動情報費 保安活動情報費 警備活動情報費는 總 573億4,467萬원에 이르고 있으나 그 使用內譯이 不分明하고 大幅 削減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答辯)

13個 市·道 地方警察廳 豫算에 計上된 各 機能別 情報費 豫算內容을 말씀드리면 搜查活動情報費는 地方警察廳과 全國警察署에 소속된 搜查刑事要員 11,062名에 대하여 地域別로 6 大都市는 月 17萬원 市級地域은 14萬원 郡地域은 月 12萬원씩 기준으로 差等支給하고 있는 活動費로서 그 使用內譯은 교통비·전화료 犯罪 첩보수집비 給食費 등인바 總 200億원이 計上되었으며 動員手當은 이들에게 出動日에 限하여 1日 1,200원씩 支給되는 豫算입니다.

또한 警察廳 本廳 정보활동비 10億餘원은 本廳에 소속된 정보요원에 대하여 月 17萬원씩 支給되는 정보활동비 7億6,000萬원과 여비·수용비·재로비·사무용품비 2億4,000萬원 등입니다.

警備活動費와 情報活動費는 基本的으로 集團 犯罪의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經費로서 교통비·買食費·일당 등의 경비인바 示威樣相이 과격·폭력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現 社會狀況下에서는 示威鎮壓 등에 動員되는 一線 警察官의 基本的 經費를 削減조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警備分野 근무 警察官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그간의 物價上昇 등을 고려할 때 이들 豫算은 실소요액에 크게 不足한 실정이라서 警察官의 士氣維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情報費 策定과 관련하여 警察廳의 情報費는 19% 감소되었으나 地方廳은 2倍 以上 增額 計上 하였는데 이를 削減할 用意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答辯)

警察의 情報費는 外勤刑事에게 每月 支給되는 基本活動費와 間諜搜查工作 등에 所要되는 事業費로 編成되어 있습니다.

'90年度 以前에는 地方에서 執行하여야 할 豫算도 本廳 細項에 편성하였다가 事業計劃

및 進度에 따라 地方에 配定하여 왔으나 정보 및 보안정보비는 警察의 基本 情報活動과 保安事犯搜查 등 정보·보안 외근형사(9,894名)에 대한 基本活動費로서 地域別로는 搜查 刑事要員과 같은 수준인 12萬원 내지 17萬원씩 支給하는 것으로서 總 330億원 등이 地方警察廳 豫算에 計上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經費들은 國家와 社會安定을 위한 情報活動에 필요한 최소한의 經費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統領秘書室總務首席秘書官 林載吉

(朴 實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92年度 豫算案 審査와 관련 靑瓦臺秘書室의 비서관은 定員이 1級 50名 4級 90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運營하는 現員은 1級 36名 4級 81名으로 運營해오면서 定員과 現員과의 차이 1級 14名 4級 9名에 대하여는 '92 豫算編成시에 人件費인 職責手當은 定員대로 豫算에 計上하였으나 직급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는 豫算에 計上치 않은 것은 이들을 靑瓦臺 이외에서 근무토록 하면서 特定業務 遂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大統領 國政運營費 및 秘書室 業務推進費인 情報費의 책정근거 및 기준은?

(答 辯)

靑瓦臺 秘書官級은 1級~3級으로 보하도록 職制規定에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1級으로 반드시 補職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1級~3級으로 복수직화되어 있으며 秘書官級에 대한 職制調整 이유는 특별한 事案에 대한 대비가 아니고 과거 과건으로 근무하던 秘書官을 직제상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정하여 彈力的으로 運營하기 위한 방편일뿐 실제 運營人員을 증원하려는 것은 아니며 향후에도 增員할 計劃은 없음.

職責手當인 人件費는 定員을 기준으로 計上하고 있으며 직급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는 現員을 基準으로 計上한 것임.

92年度 經濟企劃院 경비별 豫算編成指針에 의하면 人件費 및 基準經費에 대한 豫算方法은 фонд·상여금은 部處別·職級別 직제상의 定員에 의거 編成토록 되어 있고 各種 基準經費는 對象人員과 物량을 執行實績에 맞게 策定하고 支給方式 등을 改善함으로써 關聯經

費의 節減效果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大統領室뿐만 아니라 全 部處에서 共通適用하여 豫算을 計上하고 있음.

다음 大統領 國政運營費와 秘書室 業務推進 情報費 基準內譯은 情報費는 大統領 國政全般에 걸친 運營費와 秘書室 業務推進費 및 연회비 선물비로 되어 있으며 大統領 國政運營 活動費로 水害 등 災害地域 시찰 및 地方巡視經費와 一線將兵 慰問 등 各급 기관 巡視經費 政府 主要 年例行事 등 各種 행사경비 등이며 秘書室 業務推進費는 大統領 指導理念 具現을 위한 政策資料 蒐集 및 經濟·教育·文化 등 社會 全般에 대한 調查研究活動費 大統領 指示事項 推進現況 點檢 및 支援活動費 大統領 國政活動에 관한 弘報出版費와 그 외 연회비 및 선물비로 國內의 초청인사 오찬·만찬 및 다과경비 연회행사에 따른 外國 國家元首 등 招請人士 贈物費 등입니다.

(質 疑)

1. 警護室 警護員을 20名이나 增員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答 辯)

靑瓦臺 건물 新築計劃에 의거 大統領 執務室과 官邸의 分離 新築으로 警護業務가 增加되어 21名을 增員하였습니다.

(質 疑)

2. 警護室 警護員의 公採에 몇십대의 競爭率을 보인 理由는?

(答 辯)

過去에는 特別採用 形式으로 職員을 選拔하여 制限된 人員만이 應試하였으나 優秀人力 確保와 國民이 參與하는 警護體制 確立 次元에서 募集方法을 公開競爭採用 形態로 變更 門戶를 開放하고 또 警護員도 國民이 信賴하고 選好하는 하나의 專門職業 公務員으로 생각하여 많은 人員이 應試하여 競爭率이 높아진 것으로 判斷됩니다.

(質 疑)

3. 警護室 給糧費와 時間外勤務手當이 각각 71%와 67%가 增額되고 또 情報費도 15.6% 增額된 理由와 內譯은?

(答 辯)

事業費에 編成된 給糧費는 警護行事 出動警護員에 대한 食事支援費로 飲食料 引上에 따라 政府 買食費基準인 2,200원으로는 現實的

으로 食事支援이 어려워 정부 基準單價가 2,500원으로 引上되고 出勤回數를 現實化하여 36,672천원이 增額되었습니다.

時間外手當은 一般公務員에게도 月 30時間 水準의 手當을 支給하고 있으나 警護室은 警護勤務의 特殊性으로 인해 時間外勤務 夜間勤務 등 超過勤務가 많아 一般公務員 水準의 時間外 勤務手當으로는 30%水準밖에 支給하지 못해 92年度는 실제 超過勤務를 하는 警護職 172명과 技能職 137명에 대한 月 56時間으로 現實化하여 編成하였습니다.

情報費는 警護業務 遂行에 필요한 活動費 保安裝備 購入費 防護 및 警備施設維持管理 등에 所要되는 經費로서 警護保安을 위해 情報費로 編成하였습니다. 92年度에는 科學인 警護業務 遂行을 위한 新型 警護裝備 購入에 따라 10億6,000萬원이 增額되었습니다.

(質 疑)

4. 靑瓦臺 內外的 警護를 強化하려는 意圖와 目的은 무엇이며 人爲的인 政治變化를 强行하려는 疑懼心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見解를 밝혀라.

(答 辯)

靑瓦臺 內外的 警護가 過去보다 強化된 것은 없으며 靑瓦臺 開放 官邸 및 本館 新築 國民不便 最小化를 위한 統制緩和 등 警護環境 變化에 따라 警護負擔이 增加되어 圓滑한 警護業務遂行을 위한 警護側面에서 最小限의 人員增員과 尖端裝備購入 등으로 豫算이 增額되었음을 理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處長官 權彙赫

(吳景義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다음은 吳景義委員님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리겠습니다.

吳景義委員님께서는 環境技術投資計劃과 環境產業 育成方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答 辯)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現在 우리나라의 環境產業水準은 大部分 規模가 零細하고 技術能力에 있어서도 先進國 水準에 못미치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環境에 대한 國民들의 欲求가 점점 커가면서 環境產業의 需要도 繼續 增加하는 추세에 있으며 環境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環境科學技術의 開發과 環境產業의 育成發展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稅制·金融上의 支援方案을 마련하고 標準產業分類上의 區分을 調整함으로써 業種別 專門化를 誘導해 나가는 한편 先進國進入을 위한 14個 科學技術開發課題의 하나로 環境技術開發綜合計劃을 樹立하여 '93년부터 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대폭 늘림으로써 環境技術의 向上과 環境產業의 育成發展을 圖謀하고자 합니다.

(質 疑)

吳景義委員님께서는 또한 煉炭과 시멘트工場의 現況 問題點 그리고 環境對策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答 辯)

煉炭工場과 시멘트工場의 現況을 말씀드리면 煉炭工場은 서울地域의 16個工場을 合하여 全國에 208個 工場이 있으며 年間 17億2,000餘萬個를 生産하고 시멘트工場은 江原道와 忠淸北道등의 11個 工場에서 年間 3,700餘萬屯을 生産하고 있습니다.

煉炭과 시멘트 製造過程에서의 問題點은 주로 먼지의 發生으로 인한 隣近地域 住民들의 生活環境 被害問題입니다.

이러한 問題를 解消하기 위하여 飛散먼지 排出許容基準을 大幅 強化하고 서울 地域에 位置한 煉炭 製造工場에 대하여는 長期的으로 서울外廓地域으로 移轉을 推進중에 있으며 移轉까지는 貯炭場에 防塵網의 設置 製造工場의 完全密閉등 먼지發生을 最小化하도록 措置하였습니다.

또한 시멘트工場에 대하여는 全作業場內의 道路鋪裝과 移送施設 貯藏施設의 密閉 굴뚝自動測定機設置등 施設을 大幅改善토록 하여 生活環境改善과 民怨豫防에 努力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工場에서 發生되는 먼지가 排出許容基準에는 適合하다 하더라도 累積된 汚染과 施設이 不充分한 점 등 問題가 있기 때문에 繼續하여 改善補完措置를 進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煉炭 시멘트 製造施設의 먼지 低減對策을 集中的으로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文峻植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質 疑)

文峻植委員님께서는 環境保全을 위하여는 事前豫防對策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이라고 指摘



하시면서 이에 대한 對策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答 辯)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環境保全을 위하여는 事前豫防對策이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汚染防止의 時急性 때문에 이미 汚染된 地域에 대한 改善對策을 推進하는데 施策의 力點을 두어 온 것이 事實입니다.

環境汚染의 要因을 보면 大氣汚染은 에너지 需給 交通·輸送體系와 直結되고 水質汚染과 廢棄物 發生은 産業生産活動 및 國民消費生活와 密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汚染要因을 根源의으로 減少시키기 위하여는 産業經濟政策의 立案 過程에서부터 環境問題가 充分히 考慮될 수 있도록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各種 開發政策의 樹立時에는 事前에 環境處長官과 協議토록 하는 事前協議制度를 대폭 強化할 方針이며 大規模 開發事業 推進時 環境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實施하고 있는 環境影響評價制度를 더욱 內實있게 改善해 나갈 計劃입니다.

한편 國土開發의 基本指針이 되는 國土開發 綜合計劃에도 環境保全에 대한 指針을 제시하여 環境과 調和된 國土開發이 이루어 지도록 할 計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改善對策事業과 事前豫防對策을 同時에 遂行해 나갈으로써 國家 全體的으로 環境을 劃期的으로 改善하는 데에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質 疑)

끝으로 文峻植委員님께서는 時急히 擴充되어야 할 廢棄物 處理場의 立地選定에 問題點이 惹起되고 있음을 指摘하시면서 이에 대한 對策을 물으셨습니다.

(答 辯)

國民經濟와 消費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라 쓰레기 發生量은 急增하고 있으나 이를 處理하기 위한 埋立地 設置計劃이 인근 住民들의 反撥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이와같은 問題가 發生하고 있는 原因은 過去 不適正한 쓰레기 埋立地를 設置하고 非衛

生的으로 管理함에 따라 인근 地域에 惡臭 등의 環境被害를 發生시키고 있어 埋立地가 들어서게 되면 地價가 下落되는 등 不利益을 憂慮하게 되며 특히 地方自治制 實施 以後 地域利己主義 現象(이른바 “님비”현상)이 深化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適正한 汚染防止施設을 갖춘 衛生處理施設을 設置하고 이를 철저히 管理하며 事業計劃 承認時에 事後管理計劃까지 事前에 樹立토록 하고 이를 보다 確實히 하기 위하여 埋立地 事後管理基金을 마련하도록 法的으로 義務化하였습니다. 앞으로는 立地選定段階에서부터 地域住民들의 意見を 積極 收斂함과 同時에 住民福祉支援事業을 並行하여 推進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長期的으로는 이러한 埋立地 確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쓰레기 燒却施設을 年次的으로 擴充함으로써 廢棄物의 發生量을 減少시키고 再活用을 促進하는 동시에 限定된 國土가 效率的으로 利用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出席委員

- |       |       |       |
|-------|-------|-------|
| 金 塔 泰 | 權 達 洙 | 權 海 玉 |
| 金 璫 洙 | 金 佑 錫 | 金 仁 基 |
| 金 長 淑 | 金 晋 榮 | 金 洪 萬 |
| 魯 興 俊 | 柳 昇 珪 | 文 峻 植 |
| 朴 昃 秀 | 朴 承 載 | 徐 相 穆 |
| 徐 濟 源 | 申 榮 國 | 申 五 澈 |
| 安 榮 基 | 吳 景 義 | 李 光 魯 |
| 李 肯 珪 | 李 起 彬 | 李 仁 濟 |
| 李 在 淵 | 林 茂 雄 | 林 仁 圭 |
| 鄭 一 永 | 鄭 在 文 | 趙 富 英 |
| 趙 榮 藏 | 洪 熙 杓 | 黃 哲 秀 |
| 金 璫 鎬 | 金 榮 度 | 金 台 植 |
| 盧 武 鉉 | 柳 峻 相 | 朴 錫 武 |
| 朴 實 實 | 朴 英 淑 | 朴 亨 午 |
| 李 敬 載 | 張 石 和 | 趙 洪 奎 |
| 蔡 映 錫 | 崔 鳳 九 | 朴 進 球 |

○委員아닌出席議員

- |       |       |       |
|-------|-------|-------|
| 金 龍 煥 | 金 潤 煥 | 李 源 祚 |
| 田 塔 源 | 咸 鍾 漢 | 金 德 圭 |
| 金 正 吉 | 李 熙 天 |       |

○國會事務處參席者

- |         |       |
|---------|-------|
| 事 務 總 長 | 朴 相 文 |
|---------|-------|

○出席專門委員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吳 世 致
立 法 審 議 官	張 旭 旭 相
立 法 審 議 官	姜 英 昭

○出席國務委員

副 總 理 兼 官	崔 珏 圭
經 濟 企 劃 院 長 官	崔 浩 中
副 總 理 兼 統 一 院 長 官	崔 浩 中
內 務 部 長 官	李 相 淵
財 務 部 長 官	李 龍 萬
法 務 部 長 官	金 淇 春
國 防 部 長 官	李 鍾 九
教 育 部 長 官	尹 亨 燮
文 化 部 長 官	李 御 寧
體 育 青 少 年 部 長 官	朴 哲 彥
商 工 部 長 官	李 鳳 瑞
動 力 資 源 部 長 官	李 稔 稔
建 設 部 長 官	李 鎮 高
保 健 社 會 部 長 官	安 弼 濬
勞 動 部 長 官	崔 秉 烈
交 通 部 長 官	林 寅 澤
遞 信 部 長 官	宋 彥 鍾
總 務 處 長 官	李 衍 澤
科 學 技 術 處 長 官	金 炫 赫
環 境 處 長 官	權 昌 潤
公 報 處 長 官	崔 昌 潤

○出席政府委員

外 務 部 次 官	柳 宗 夏
農 林 水 產 部 次 官	李 炳 浙
國 家 報 勳 處 長	閔 庚 培
法 制 處 次 長	張 明 表
山 林 廳 次 長	金 演 表

○監查院參席者

監 查 院 長	金 永 駿
---------	-------

○法院參席者

法 院 行 政 處 長	安 又 萬
-------------	-------